

# 러시아

---

---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 목 차 ▶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3
3. 한국과의 주요이슈 /8

##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11
2. 주요 산업 동향 /16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21

##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 동향 /22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25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28
  - 대한수입규제동향 /34
  - 관세제도 /35
  - 주요인증제도 /38
  - 지적재산권 /39
  - 통관운송 /43

## IV. 투자

###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46
- 외국기업 투자동향 /54
- 우리기업 투자동향 /58

###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68
- 진출형태별 절차 /78
- 투자입지여건 / 88

### 3. 사업관리

- 노무관리 /110
- 조세제도 /118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112

## V.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126
2. 바이어발굴 /130
3.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136
4.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139
5. 진출 성공, 실패 사례 /140
6. 이주정착 가이드 / 141
7. 출장가이드 /147
8. 물가정보 /183



# 1. 국가일반

## 1. 국가개요

### 가. 일반사항

국명	러시아 (Russia)
위치	유라시아 대륙
면적	17,075,000 km <sup>2</sup> (한국의 77.4배, 미국의 1.8배)
기후	광범위한 기후대(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대륙성 기후) 1월 평균 기온: -16~-9℃, 7월 평균기온: 13~23℃
수도	모스크바(1,042만 명)
인구	1억 4,200만 명(2007년 기준)
주요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 니즈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르스크, 사마라, 옴스크, 예카테린부르크, 카잔, 첼랴빈스크, 로스토프-나-도누, 우파,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등
민족	러시아인(79.8%), 타타르인(3.8%), 우크라이나인(2%), 기타 100여 소수 민족(고려인은 약 20만 명)
언어	러시아어
종교	러시아 정교(이외 이슬람, 가톨릭, 기독교, 유대교 등)
건국(독립)일	1991년 8월 24일
정부형태	연방제, 대통령 중심제(4년 임기), 의회민주제
국가원수 (실권자)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2004년 3월 14일에 재선)
	총리: 빅토르 주코프(2007.09.14)
	1부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세르게이 이바노프, 2부총리: 알렉산드르 주코프, 알렉세이 꾸드린

자료원: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정부

### 나. 경제지표

GDP	US\$ 9,794억(2006 년)
실질경제성장률	6.8% (2006 년)
1인당 GDP	US\$ 6,873 (2006 년)
실업률	6.6% (2006 년)
물가상승률	9.8% (2006 년)
화폐단위	루블 (ruble)
환율	1US\$ = 26.3 루블
외채	US\$ 2,874억 (2006 년 7월)
외환보유고	US\$ 3,145억(2006 년)
산업구조	주력산업: 천연가스, 석유, 화학, 금속, 석탄, 방산
교역규모	수출: US\$ 3,176억 (2006 년)
	수입: US\$ 1,715억 (2006 년)
교역품	수출: 석유, 석유제품, 천연가스, 원목, 금속, 화학제품
	수입: 기계, 장비, 소비재, 의약, 식품

자료원: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정부

다. 한-러 관계

체결협정	1990년 9월: 한·소 국교 수립(북한과는 1948년 11월 11일 수교)
	1990년 10월: 한·소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 방소, 투자보장협정, 무역협정, 과학기술협력협정 등 경제협력 기본협정 체결
	1991년 4월: 고르바초프 대통령 방한
	1991년 9월: 한·소 어업협정 체결
	1991년 10월: 한·소 철도협력에 관한 의정서 체결
	1991년 12월: 소련 소멸, 러시아가 한·소 외교관계 자동승계
	1992년 8월: 한·러 기본조약 가서명, 駐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개설
	1992년 11월: 엘친 대통령 방한, 한·러 경제·과학기술 공동 위원회 발족, 이중 과세 방지 협정, 세관협력협정 등 체결
	1994년 6월: 김영삼 대통령 방러, 한·러 해상사고 방지협정 등 3개 협정 체결
	1995년 9월: 한·러 경제과학기술협력선언 채택
	1997년 11월: 한·러 해운·항공회담(모스크바, 서울), 방위산업 및 군수 협력 협정 체결
	1999년 5월: 김대중 대통령 방러, 형사사법공조조약, 원자력 협력협정, 나호트카 한·러 공단설립협정 체결
	2000년 6월: 한·러 외무회담
	2000년 10월: 이한동 총리 방러
	2000년 11월: 브루나이 APEC 정상회담에서 한·러 정상회담
	2001년 2월: 푸틴 대통령 방한, 관광협력 협정 체결
	2003년 8월: 법무협력협정 체결
	2003년 10월: 방콕 APEC 정상회담에서 한·러 정상회담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 방러, 한·러 공동선언
	2005년 5월: 노무현 대통령 러시아 승전기념일 행사로 방러
2005년 11월: 부산 APEC 정상회담에서 한·러 정상회담, 경제통상협력행동 계획 채택, 러시아 시장경제 지위국 인정	
2005년 12월: 제6차 한-러 의원외교 협의회 개최(장영달 위원장 외 의원4명 방러)	
2006년 3월: 제 7 차 한-러 포럼 개최	
2006년 4월: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 방러, 김현중 통상교섭본부장 방러, 천영우 6자 회담 수석대표 방러,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방러, 제7차 한-러 의원외교협의회 개최 (클류스 위원장 등 방한)	
2006년 10월: 미하일 프라도코프 총리 방한, 관용여권 사증면제 협정, KOTRA-특별경제구역청 MOU체결 등	
교역규모	US\$ 97.5억 (2006 년)
교역품	수출: 승용차, 합성수지, 철구조물, 자동차부품, 해양구조물, 화물자동차, 무선전화기, 칼라 TV, 기타플라스틱제품
	수입: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원유, 나프타, 니켈과 및 스크랩, 고철, 유연탄, 원목, 명태, 선철, 게
투자교류	우리나라의 대 러시아 투자 3억 7천만 불(2006 년)
	러시아의 대한 투자: N/A
교민	교민: 15만명(고려인 포함), 체류자: 약 4,500명

자료원: 러시아 통계청, 러시아 정부, 한국 외교통상부

## 2. 정치 사회 동향

### 가. 연방구조

러시아는 총 89개의 연방구성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공화국이다. 연방구성주체는 자치공화국, 자치주, 자치구, 지방, 주, 특별시 등 6개의 단위로 구분되어 있다.

엘친 대통령 집권기에는 각 연방구성 주체 별로 자치권이 폭넓게 보장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권한이 강한 반면, 연방정부의 통제력이 약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지방 정부에 대한 연방 정부의 통제 체제 확립을 위해 러시아 연방 전역을 7개의 연방관구로 구분하고 대통령 전권대사를 파견하였다. 연방관구의 대통령 전권대사는 대통령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89개 지방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조정, 통제 및 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 정부 수반 의 대통령 임명과 연방관구제 도입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약해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해지면서 자치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으며, 대통령 전권대사와 지방정부 수반과의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부작용이 발생 하고 있다.

러시아연방 헌법 제67조 제1항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의 영토는 그 구성주체의 영토, 내수 및 영해, 그리고 그 위의 영공을 포함'하며, 제2항은 '러시아 연방이 러시아연방의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구역에 있어서 주권적 권리를 지니며 그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하는 한편, 제3항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간의 경계는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71조와 제72조는 또한 연방과 구성주체 간에 있어 관할 업무 내용을 엄격히 분리해 놓고 있다. 우선 연방의 관할에 속하는 업무를 보면 아래와 같다.

- 러시아연방 헌법 및 연방법의 제정과 개정, 이들의 준수에 대한 통제
- 러시아연방의 구조 및 영토
- 사람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규제와 보호, 러시아에서의 국적, 소수민족의 권리의 규제와 보호
-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의 연방체계, 그 조직 및 활동 절차의 제정, 연방국가 권력기관의 형성
- 연방 국유재산 및 관리
- 러시아연방의 국가적, 문화적, 민족적 발전 부문에 있어서 연방정책 원칙의 제정 및 연방 계획
- 단일시장의 법적 기초의 제정, 금융, 통화, 신용, 관세의 규제, 통화발행, 가격정책의 원칙, 연방은행을 포함하는 연방의 경제업무
- 연방예산, 연방세 및 징수료, 지역발전 연방기금
- 연방 에너지체계, 원자력에너지, 방사능물질, 연방운수, 교통, 통신, 정보망, 우주활동
- 러시아연방의 대외정책, 국제관계, 러시아연방 조약,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
- 러시아연방의 대외경제 관계
- 방위 및 안전보장, 국방산업, 무기, 탄약, 군사기술 및 기타 군사물자의 구입 및 판매 절차의 결정, 방사성 물질, 마약의 생산 및 그 사용절차
- 러시아연방의 국경, 영해, 영공, 배타적 경제구역 및 대륙붕의 지위 결정과 보호
- 재판소 구성, 검찰기관, 형사, 형사소송, 형사행정의 법제, 사면 및 특사, 민사, 민사소송, 중재소송의 법제, 지적 소유권의 법적 규제

- 연방 저축법
- 기상업무, 표준 규격, 도량형, 미터법, 표준시 계산, 측지 및 지도 작성, 지형물의 명명, 공식 통계 및 회계 계산
- 러시아연방의 국가포상 및 명예 칭호
- 연방 국가업무

반면에 아래 상술한 사항들은 러시아연방과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공동 관할에 속한다.

- 연방구성주체들의 자치적인 헌장, 법률 및 기타 규범적 법문서의 러시아연방 헌법과의 적합성의 보장
- 사람과 시민의 권리 및 자유의 보호, 소수 민족의 권리 보호, 적법성·법질서·사회 안전의 보장, 국경지역의 관리
- 토지·지하자원·수자원 및 기타 자연자원의 점유, 사용 및 처분문제
- 국유 재산의 구분
- 자연의 이용, 환경 보호 및 생태학적 안전 보장, 특별자연보호지역과 역사 및 문화 기념물의 보호
- 양육·교육·과학·문화·체육 및 스포츠 등의 일반 문제
- 보건문제의 조정과 가족·부모·아동의 보호, 사회보장
- 참사·자연재해·전염병 퇴치를 위한 조치의 실행과 그 처리
- 러시아연방에 있어서 과세 및 징수금의 일반 원칙의 확립
- 행정, 행정소송, 노동, 가족, 주택, 토지, 수자원, 삼림, 지하자원, 환경보호에 관한 법제
- 재판기관 및 법 보호기관의 직원, 변호사 및 공증인 제도
- 소수민족사회 원래의 주거환경 및 전통생활 양식의 보호
- 국가 권력기관 및 지방자치기관에 대한 체제조직원칙의 확립
- 러시아연방 구성주체의 국제관계와 대외경제관계의 조정, 러시아연방의 국제조약 이행

#### □ 러시아연방의 연방구성주체 현황

- 자치공화국(Autonomous Republics) 21개
  - 브라티야, 사하, 바쉬키리아, 체첸, 잉구세 티야, 추바쉬야, 다게스탄, 카바르디노-발카리아, 칼미키야, 카렐리야, 코미, 마리, 북오세티야, 타타르스탄, 투바, 우드무르티야, 아디게야, 고르니-알타이, 몰도비아, 하카시야, 카라차 예보-체르케시야
- 자치주(Autonomous Oblast) 1개
  - 유태인 자치주
- 자치구(Autonomous Okrug) 10개
  - 타이미르, 에빈키야, 네네츠, 우스트-오르다 부랴티야, 코랴크, 추코트, 코미-페르먀츠, 한티-만시-유그라, 야말로-네네츠, 아가-부랴티야
- 지방(Kray) 6개
  - 알타이, 크라스노다르, 프리모르스크(연해주), 스타브로폴, 하바로프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
- 주(Oblast) 49개
  - 아무르, 아르хан겔스크, 아스트라한, 벨고로드, 브랴nsk, 블라디미르, 볼고그라드, 볼로그다, 보로네즈, 니즈니노브고로드, 이바노프, 이르쿠츠크, 칼리닌 그라드, 칼루가,

캄차트카, 케메로보, 키로프, 코스트코마, 쿠이브이셰프, 쿠르간, 쿠르스크, 레닌그라드, 리페츠크, 마가단, 무르만스크, 모스크바, 노브고로드, 노보 시비르스크, 옴스크, 오렌부르크, 오리올, 펜자, 페름, 프스코프, 로스토프, 라잔, 사라토프, 사할린, 스페르들로프스크, 스몰렌스크, 탐보프, 트베리, 톰스크, 툴라, 튜멘, 울리야 노프, 첼랴빈스크, 치타, 야로슬라블

- 특별시 2개
  -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 나. 국가조직

### 1) 대통령

1993년 12월 12일 러시아는 의회 총선거와 함께 신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신헌법안은 유권자 중 54.8%가 투표에 참가하여 58.4%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로 인해 1978년에 제정되었던 소련의 헌법은 폐기되고 신헌법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체제가 성립하게 되었다. 신헌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른바 ‘초대통령제(Super-presidentialism)’라고 불리는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는 강력한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이다.

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행정부 및 군부의 수반이며 주요 직책의 임명권을 갖는다. 대통령은 총리, 중앙은행장,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인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총리 인선 시 국회가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3개월 내에 정부에서 신임안을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대통령은 또한 하원(두마)의 동의 없이 대통령령을 포고할 수 있다. 현재 러시아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며, 2회 연임 가능하다.

대통령은 직속 자문기구로 안보회의(The Security Council)와 국가회의(The State Council)를 두고 있다. 대통령의 업무를 행정적으로 보조하는 기관으로 대통령 행정실(The Presidential Executive Office)이 있다. 대통령 행정실은 대통령령 및 국정연설의 준비, 국내외 고위급 인사들과의 접견 준비 등 실무적인 일에서부터 국정에 반영될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이르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999년 8월 총리로 임명된 푸틴은 12월 엘친의 갑작스런 사임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임하게 되었다. 엘친의 조기사임으로 헌법에 따라 3개월 앞당겨 치러진 2000년 3월 대선에서 푸틴은 러시아 제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04년 대선에서도 압승을 거두며 연임에 성공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중앙집권적이고 강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하는 소위 ‘관리 민주주의(Managed Democracy)’를 통해 진정한 독립국가로서 법치주의의 정착, 당면한 경제 위기의 극복, 소련이 누렸던 국제적 지위에 버금가는 세계속의 강력한 러시아 건설을 추진 하고 있다.

신헌법에 기반하고도 지방분권적이고 각종 정치세력들을 아우르는 정책들을 펼쳤던 엘친과는 달리,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중앙집권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선 푸틴 대통령은 국내의 정치, 사회적 통합 강화를 위해 기존의 연방 체계와는 별도로 러시아 전 지역에 7개의 연방관구제를 도입하여 대통령 전권대표를 파견 하였고, 하위법의 상위법에 대한 복속을 강제하여 행정적, 법적 위계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베슬란 테러사건(2004년 9월) 직후인 2004년 12월 푸틴 대통령은 각 지방마다 직선으로 선출하던 지방정부 수반도 중앙정부가 임명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지방의회가 대통령이 임명한 지방정부 수반에 대해 2회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달 동안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대통령은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게 되며, 지방의회가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은 아무런 조건 없이 지방의회를 해산할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러시아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는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개혁과 국가발전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푸틴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반민주적이라는 비난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인에게 푸틴 대통령은 강력한 지도자로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음은 분명하다.

2007년 9월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가 사퇴하면서, 새롭게 빅토르 주코프 총리를 임명한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다. 경제통상개발부 등 주요 장관이 교체가 되었으며, 5명의 부총리를 두는 시스템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금번 내각 개편에서 타티아나 골리코바 (보건사회개발부), 엘비나 나비올리나(경제통상개발부) 등 여성 장관이 2명 임명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2007년 12월에는 푸틴대통령이 자신의 후계자로서 드미트리 메드베제프 현 제1부총리를 지명하였다. 이로써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2008년 3월 2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현 다수당인 통합 러시아당의 대선 후보로써 결정되었다. 현재 가스프롬의 의장을 겸하고 있는 그의 집권은 푸틴 대통령이 향후 총리로써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기업인들에게는 투자 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을 기대하게 해주고 있다.

## 2) 행정부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러시아 행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국정명령에 대한 수행을 담당하고 있다. 1997년 12월 7일 제정된 “러시아연방의 정부에 관한 법률(On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은 대통령과 정부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과 인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두마(하원)의 동의를 거쳐 정부의 수반인 총리를 임명한다. 또한 총리의 제안에 따라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을 임명 하고 해임함은 물론, 정부의 조직을 개편할 수 있다. 러시아 행정부는 총리, 부총리, 각 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각료회의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며, 현재 총리는 미하일 프라드코프(Mikhail Fradkov)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4년 2차 대통령 임기를 맞으며, 정부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각 부처 장관의 수를 30명에서 15명으로, 부총리 수를 5명에서 3명으로 줄였으며, 이 과정에서 부처 별 통폐합이 이루어졌다. 이는 당시 소련 말기보다 많은 숫자인 120만 명에 이르는 행정 관료의 수를 줄임으로써 국가기관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환경에 걸림돌이 되었던 뇌물수수 및 부패의 관행을 제거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 3) 입법부

러시아의 의회는 양원제로 상원과 하원으로 나뉜다. 연방회의(Federal Council)이라 불리는 상원은 89개 연방주체의 행정부 수반(지방정부 주지사)과 입법부 수반(지방의회 의장)

2인이 각각 1명씩 지명하고 각 연방주체 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 총 178명(89개 연방주체 × 2인 = 178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원은 러시아연방 구성주체들 간의 경계선 결정, 전시 및 비상사태에 대한 승인, 해외 군사력 파견 결정, 대통령 탄핵 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4년 12월 푸틴 대통령이 지방정부 주지사를 대통령이 직접 임명 하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상원의 행정부 견제력은 많이 약해진 상태이다.

현재 하원(두마)의 구성은 225개 선거구에서 소선거구제를 통해 선출된 지역대표 225인과 정당명부에 의해 비례대표로 선출된 225명 등 총 4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원은 총리 및 중앙은행 총재의 임명 동의, 내각 불신임 결의, 대통령 탄핵 발의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親푸틴 정당이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사실상 하원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견제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지난 2005년 4월 22일 하원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러시아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번 선거법 개정은 소선거구제가 전면 폐지되고 하원의원 450석 전체를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선출하게 되며, 군소정당들의 난립과 합종연횡을 막기 위해 의석선출가능 최소 득표율을 5%에서 7%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에는 1)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군소정당의 합당을 금지하고, 2) 하원의원 선거에서 7%의 최소 득표율을 넘은 정당에게 지급되는 정당 보조금을 현재의 6배로 인상하고, 3) 원내 각 정당대표에게 정당의 정책노선 에 반대하는 소속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권리를 부여하며, 4) 입후보 등록 시 추천인 서명의 25%가 무효 처리될 때 등록을 취소하던 것을 5%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선거법 개정을 두고 푸틴 대통령은 지방 정치엘리트들의 선심성 정치와 권력독점을 막고 정당 중심의 정치구조 실현을 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차기 총선에서 도 親푸틴 정당을 중심으로 하원을 장악하여 정책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추진력을 높이고 중앙집권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평가된다.

#### 4) 사법부

현존하는 러시아 사법제도는 소련이 해체된 90년대 초의 사법제도 개혁에 의해서 정착되었다. 개혁의 주된 목표는 소련 시절 재판과정에서 정부의 통제를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법 부의 독립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등 3권의 독립을 규정하고 있는 1993년 제정된 러시아 헌법은 사법제도 개혁과 사법부 독립의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유코스 사태의 발단이 된 호도르코프스키 前 유코스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되면서 정치 적 입김이 작용한 소위 '전화재판(Telephone Justice)'의 의혹이 제기 되고 있어, 여전히 사법부의 완전 독립은 소원한 상태이다.

러시아 사법기관은 헌법재판소, 일반법원, 중재재판소, 군사재판소로 이루어져 있다. 헌법 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와 연방 구성공화국 헌법재판소로 나뉜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법률 등 제 법령의 위헌여부 및 연방정부 기관 간의 권한 분쟁을 심사하며, 연방 구성 공화국 헌법재판소는 상동 업무를 공화국 내 차원에서 실시한다.

민사, 형사, 행정소송 등을 관할하는 러시아의 일반법원은 다단계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1단계는 각 지방의 지역(Rayon) 및 일반 시(City)의 법원이며, 2단계는 지방(Kray)법원과 주(Oblast)법원,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특별시법원 등이다. 연방 구성공화국의 대법원과 자치구 법원도 2단계에 속한다. 일반법원의 최고 단계에는 연방대법원이 있다. 중재재판소는 주로 경제 분쟁과 중재재판의 심리대상이 되는 기타 법률행위들을 심판하며, 최고 단계에 고등중재재판소가 있다.

근래 러시아의 재판제도에도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배심원제도의 도입과 판사의 독립성 확보이다. 지난 2001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검사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판사의 독립성과 독자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3종의 사법제도 개혁안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번 법안들에 대해 용의자를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만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 법안의 통과로 제정 러시아 시절 존재했다가 공산주의가 권력을 잡은 1917년 폐지됐고 이후 1993년 일부 지방에서 시험 적으로 도입됐던 배심원제도가 본격 도입되어 2003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 □ 주요인사명단

- 총리: 빅토르 주코프
- 제 1부총리: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 제 1부총리: 세르게이 이바노프
- 제 1부총리 겸 재무부장관: 알렉세이 쿠드린
- 부총리: 알렉산드르 꾸드린
- 부총리 겸 행정기구책임: 세르게이 나리쉬킨
- 농업부 장관: 알렉세이 고르데예프
- 시민안전 및 비상대책부 장관: 세르게이 쇼이구
- 문화언론부 장관: 알렉산드르 소콜로프
- 국방부 장관: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 경제개발통상부 장관: 엘비라 나비울리나
- 교육과학부 장관: 안드레이 푸르센코
- 외교부 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
- 보건사회개발부 장관: 타티야아 골리코바
- 산업에너지부 장관: 빅토르 흐리스텐코
- 내무부 장관: 라쉬드 누르갈리예프
- 법무부 장관: 블라디미르 우스티노프
- 천연자원부 장관: 유리 트루트네프
- 정보기술통신부 장관: 레오니드 레이만
- 교통부 장관: 이고르 레비틴
- 지역 발전부: 드미트리 코자크
- 2007년 10월 기준임

## 3. 한국과의 주요이슈

### 가. 철도협력

1999~2001년 기간 동안 개최된 한.북.러 양자간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 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 사업이 꾸준히 검토되어 왔다. 러시아는 TSR-TKR 연결 사업을 통해 1990년대 들어 급속히 감소해온 TSR의 역할을 제고함으로써 러시아 철도 산업을 부흥시키고 극동.시베리아 지역을 개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TSR-TKR 연결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대륙으로 육상운송이 가능해지면서 지금까지 해상운송에만 의존했던 물류시스템의 효율적 재편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2년 12월의 한-러 교통협력 회담에서 러시아는 북한통과 TKR구간의 복구를 위한

사전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북한 철도현대화를 위한 국제컨소시엄을 추진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을 위해 한국, 북한, 러시아 사이의 국제적 철도운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하며, 노선과 철도의 현대화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다.

2003년 10월 APEC 정상회의와 최근 부산에서 막을 내린 2005년 APEC 회의 기간 중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종단 철도(TKR)-시베리아횡단 철도(TSR) 연결사업을 양국 경제협력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는 등 철도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 러시아 극동 철도국은 두 차례 하산에서 휴전선에 이르는 800km의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조사를 벌인데 이어 2003년 10월 북-러 접경 하산역에서 북한 라진 항 근처역까지 56km 구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한·러 교통협력위원회에서 양국 정부는 TSR과 TKR의 연결이 양국 철도노선의 경쟁력 증가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공유했으며, 한국에 러시아 철도 대표부를 설립하고, 남북한과 러시아의 3자간 철도당국 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TKR-TSR 연결은 남북간 경제 협력뿐 아니라 한·미 대북 공조상 북·미간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전제하는 점에서 이 사업은 결국 북핵 문제 해결과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남·북·러 3국의 철도 운영에 관한 '의장 성명'이 18일 밤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바이칼에서 발표됐다.

2006년 3월 한국의 이철 철도공사사장, 북한의 김용삼 철도상, 러시아의 야쿠닌 철도공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자 회담을 통하여, '의장 성명'을 발표하여, 2001년 이후 중단되었던 TKR-TSR 연결 회담을 진일보 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남·북·러 3자는 TKR과 TSR의 연계사업의 중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국영 러시아철도는 가까운 시일 내에 TKR의 주요 구간인 핫산-나진구간 개량사업에 착수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북측이 TKR 개량에 관한 투자유치 문제를 러시아 측의 재량에 맡김으로써 TKR과 TSR이 실질적으로 연결될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 아울러 이 연계사업의 실질적인 문제들은 남북러 3자 실무자간에 더욱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은 "북한과 러시아간 회의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지만 한국 대표가 참여한 3국 회의는 철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의장 성명은 TKR-TSR 연계운영의 본격적인 논의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중 대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또 2006년 3월 17일에는 국영 러시아철도 야쿠닌 사장과 '한-러 철도운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TX 운영 노하우 및 신기술 제공 등 철도운영에 관한 정책 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최근 철도공사는 오는 8월부터 남-북-러 합작 운송을 통한 운송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하였다. 북한의 나진 항에서 철도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하산 역을 통해서 시베리아 철도로 운송을 하는 것이다. 한국과 러시아는 동 사업을 위해서 별도의 합작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 나. 에너지 산업 부문 협력

동북아 지역은 금세기 중반 전세계 에너지의 최대 소비지역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의 석유 중동 의존도가 75%이상에 달하는 가운데 러시아産 에너지 확보와 공급을 위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2004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러시아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대형 유전개발 및 송유관 건설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방러기간 중 한국

석유공사와 국영기업인 로스네프트사는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유전 공동개발을 위한 MOU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한국 석유공사는 러시아 로스네프트와 석유탐사 협약을 체결하고 2008년까지 3개의 공구를 채굴기로 하는 등 캄차트카 반도 서부의 대륙봉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은 탐사시점부터 상업화시점까지 자금을 조달하고, 이후 생산되는 원유에 대해서는 일부의 로스네프트 몫을 제외하고 한국이 권한을 소유하게 된다.

한국은 2005년 2월 사할린 석유 및 천연가스 개발을 위해 설립된 다국적 컨소시엄 기업 '사할린 에너지'사와 연간 15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의 수입계약을 공식 체결하였다. 사할린 에너지사는 Shell, Mitsui, Diamond Gas Sakhalin 등 3사의 지분으로 구성된 합작 회사로 1994년에 설립되어 현재 사할린-2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으며, 한국가스공사와 이미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여 2008년을 시작으로 향후 20년간 액화천연가스를 한국에 공급하게 되어 있다.

최근 사할린에서 생산된 원유의 경우 경제성이 높고, 운송료도 저렴하여 한국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산 원유의 한국 수입은 2007년도에 약 300% 가량 증가할 예정이다.

#### 다. 경험차관 상환협상 타결

한국과 러시아는 2003년 9월, 구소련에 제공한 경험차관에 대한 상환협상을 마무리하였다. 국내 10개 은행은 정부보증 하에 러시아에 총 14억 7,000만 달러에 달하는 對러 경험차관을 제공한 바 있으며, 1990년대 중반의 양자간 채무협상에 의거하여 러시아는 지금까지 약 4억 6,000만 달러를 현물상환 방식으로 지불하였지만 1994년 이후 미상환 도래분에 대한 협상이 오랫동안 완료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3년 5월말까지의 對러 차관 미상환금은 총 22억 4,0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양측은 2002년 세 차례의 협상을 가졌으며, 2003년 6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상환협상에서 부채탕감 및 상환일정 조정에 합의하였고 2003년 9월에 경험차관 채무재조정 문제가 최종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는 한국 내 러시아의 신용도를 개선함으로써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경험차관 재조정 협정의 타결을 계기로 러시아 은행에 대한 전대차관 공여계약을 맺고 한국 기업들의 러시아 수출과 투자를 지원 하기로 하였다. 한편,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 수행차 한국을 방문한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차관은 한국에 대한 경제협력차관 채무를 군수물자로 상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 라. 과학기술협력

한국정부의 對러시아 과학기술협력은 기존의 미·일 위주의 기술협력 체제를 탈피하고 선진국의 과학기술 보호주의 강화에 따른 첨단기술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의의가 있다. 단기목적은 러시아 첨단 핵심 기술을 산업에 응용하는 중간진입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 능력 향상을 통한 산업기술 능력 제고에 있으나, 장기 목적은 러시아의 연구개발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 및 러시아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연구 개발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對러시아 과학기술 협력사업은 1990년대 초에는 기술조사단 파견과 연구인력 유치에 중점을 두었으나, 1995년 이후 러시아의 원천기술 습득을 위해 공동연구센터 설립 등

중장기 협력에 치중하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양국간 산업기술협력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9년 5월 28일 '한·러 산업협력 위원회'를 구성하고 항공우주, 신소재, 기계 분야를 우선 협력 분야로 선정하여 양국에 각각 3개 분과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한·러 과학기술 협력의 일환으로 우주 항공기술 개발을 위해 2015년까지 총 20기의 인공위성과 제작위성 자력 발사를 위한 우주 발사체를 개발할 목표 하에 과학기술부는 러시아 항공우주청과 우주기술협력을 추진키로 하였다. 2001년 5월에는 양국간 기술협력 촉진기반 조성을 위해 관련 기술협력 등에 관한 한·러 우주 기술협력 약정(안)을 전달 하였으며, 2003년 5월, 협정 최종안에 합의, 가서명하였으며, 최종 서명 후 국내 발효 이전까지 협력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해 과기부와 러시아 항공우주청간 협력 양해각서의 체결 추진 중이다.

한편 과학기술부는 현재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과학기술 공동 연구를 위해 지난 94년에 설치 한 공동연구협력센터가 예산 부족 등으로 기능이 약화돼 2006년 12월 협력센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한·러 과학기술 협력 총괄센터를 설치한다고 2006년 8월에 밝혔으며, 2007년 3월 31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모스크바에 한·러 과학기술협력센터를 개소하였다. 과기부는 지난해 한·러 과학기술 협력센터 지원사업 발전방안을 마련, 기존의 2개 센터(우주항공, 광학)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을 총괄, 조정하는 한·러 과학기술 협력센터를 새로 설치했다.

## II. 경제

###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가. 거시 경제 동향

2007년 10월 기준 GDP 성장률이 전년도 동기 대비 7.6%가 성장했다. 아울러 3/4분기 소매물가 상승률은 10.8%-11.5%의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금년도의 경우 연말의 총선으로 인해 최근 다소 안정세를 보여 인플레이션 3.3%에 그쳤으며, 내년의 대선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경기는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 또한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 중앙은행에서는 금년도 소비자 물가상승율을 8%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율의 원인이 ①대러 직접 투자 증가, ②중산층의 구매력 증가, ③건설 경기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최근 IMF에서도 러시아의 금년 GDP 성장률을 7% 수준으로 상향발표를 하여, 연초 러시아 정부의 발표치인 6.5% 보다 높게 전망하였다.

산업 생산률 또한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7년 3/4분기 기준 6.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주요 산업별 생산율은 채광업은 2.7%의 성장률을 나타낸다. 이중 석유 산업이 2.8%의 성장을 보인 반면, 가스산업은 0.3%의 낮은 증가를 기록하였다. 기계 설비 부문은 27.9%의 급격한 성장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러시아 내 제조업 생산 기반이 급속하게 향상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 외 전기기기의 경우 19.1% 성장하였고, 자동차 산업은 16.0% 성장 하였다. 식품산업은 8.2%, 화학산업은 8.4% 성장하였다. 특히 건설업은 큰 호황을 누리며 21.3%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경제호황 가운데서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는 2007년 3/4분기 기준 4,792억 불 (세계3위)을 기록하였다.

## 나.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

러시아 경제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이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정의하는 에너지자원 의존형 경제는 GDP의 10%, 총수출의 40% 이상을 에너지자원 수출이 차지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경제 개발 통상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GDP에서 천연자원, 연료, 에너지 의 채굴, 가공, 정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5.89%,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6.8%, 2005년 1-11월 66.7%, 2006년 1월 73% (2005년 1월은 64.3%: 계절적 요인으로 다른 시기 보다는 증가하는 시기임)로 세계적인 고유가로 인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러시아 경제가 명백하게 에너지자원 수출의존형 경제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원주도형 경제성장의 장점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경제개발 초기에 에너지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로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생필품을 수입할 수 있으며, 부족한 사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강화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된다. 둘째로, 지하자원은 제조업 상품과는 달리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수요가 공급 보다 많기 때문에 고갈되기 이전까지 수출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지하 자원의 개발을 위해 선진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소위 Learning-by-doing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자원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은 중요한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외부적 충격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 및 가스의 국제가격은 일반 제조업 상품에 비해 그 변동이 심하다. 따라서 국제가격에 따라 경제성장률과 정부소득의 심한 변동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안정적이고 일관적인 재정정책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배럴 당 원유가가 1달러 하락하면 러시아 정부의 수입이 약 14억 달러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또한 '네덜란드병 (Dutch Disease)'의 징후가 나타나기 쉽다. 에너지 자원 수출의 증가로 유입되는 외화는 환율의 절상압력으로 이어져 타 부문의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킨다. 또한 수출 호조로 인한 에너지부문의 임금 상승은 타 부문의 임금 상승압력을 유도하며,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소비 또한 급증하여 경제전반에 걸쳐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2005년 6월 3일 IMF는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의 소비가 경제성장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인플레이션인데 2005년 10.9%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다. 그러나 2006년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노력 끝에 9%대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2007년 4월 기준 인플레이션은 약 4.0%를 기록하고 있다.

## 다. 수입 중심의 소비구조

러시아 경제는 최근 6-7%대의 높은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주된 성장 동력은 대외적으로는 고유가로 인한 석유 및 가스의 수출호조, 대내적으로는 국내 수요의 높은 증가이다. 경제 성장에 따라 실질임금이 증가하고 실업률도 감소하는 등 실질임금이 증가하면서 가계 소비 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가계 소비의 증가를 이끄는 중산층의 인구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현재의 소비수요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러시아의 자국 산업의 취약한 부분이 많아 이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수입 중심의 소비구조가 모두 개선됐다고 볼 수는 없으나,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제품의 경쟁력 강화, 자국 산업의 보호, 세계 시장으로의 자국 상품 진출, WTO 가입 및 기타 국제 기구들과의 협력 강화를 2006년 도 경제 관련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2006년에도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취약 산업의 보호를 위해 러 정부는 관세율을 조정했다. 자국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생산 설비에 필요하나,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는 설비 기구 수입에 있어서 무관세 적용을 내세우고, 대상품목을 확대시켰다. 이로 인한 수혜 산업은 경공업과 섬유, 철강, 화학, 임업 등으로 상당부분 관세율이 낮아 졌으며, 반면, 식품과 농업 분야는 무리한 제품의 유입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입지 않도록 관세의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WTO의 가입이 확실시 됨에 따라, 주요 품목에 대하여 점진적으로 관세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 라. 중소기업 활성화 부재

러시아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소기업(SMEs)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서구 선진국이나 다른 체제전환국의 경우 중소기업이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러시아는 2006년 3월 기준 약 12% 미만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는 석유, 가스 및 천연자원 수출이 성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에게는 산업구조의 다각화를 위해 필수적이다.

현재 러시아에서 중소기업 활성화 부재의 원인은 사업자 등록상의 어려움과 과도한 세금 부과,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 높은 진입장벽이다. 이에 2005년 초 푸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과의 회의에서 현재 러시아는 행정 관료의 부패와 복잡한 절차 및 각종 세금혜택의 부재로 중소기업을 창업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이미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2003년 1월에는 중소기업의 법인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이 통과되었고, 이 법의 실시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진흥을 위한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고 있으며, 은행과 금융기관 또한 대출금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에 적극 육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뿐 아니라 기타 금융 기관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대출 이자도 다소 낮추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은행 이자율은 절대적 기준에서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은행 대출 이자는 연간 10-28% 사이이며, 상환 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 까지로 하고 있어 은행 대출은 아직도 러시아의 중소기업들에게 그다지 쉬운 문턱은 아니다.

#### 마. 2007년 거시 경제 전망

##### 2007년 러시아 거시 경제 지표 예상치

구 분	2002	2003	2004	2005	전망치		
					2006	2007예상1	2007예상2
우랄산원유가 (\$/배럴)	23.7	27.2	34.4	50.6	61.2	55	49
GDP 성장률(%)	4.3	7.3	7.1	6.4	6.8	6.1	5.5
산업생산률(%)	3.7	7	6.1	4	4.6	3.2-3.2	4.3-4.7
자본투자 증가율(%)	2.8	12.5	10.9	10.5	13.2	N/A	N/A
소비자 물가지수(%)	15.8	13.7	11.7	10.9	9	7.5	8
실질소득 증가율(%)	11.1	15	10.4	11.1	11.5	N/A	N/A

자료원: 러시아 연방 경제 개발 통상부

경제 개발 통상부는 러시아의 일반 경제를 논함에 있어서, 만일 러시아가 천연자원의존율을 낮추지 않으면, 국제 원유가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연간 4-5%의 GDP 성장율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러시아 정부 투자 및 기술 개발 투자액은 자국 산업뿐만 아니라, 개인 혹은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투자 촉진 효과를 일으키며, 예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학, 항공기술, bio-technology, IT 와 항공 연구 등에 대한 예산 지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여겨진다.

## 바. 경제정책

러시아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체제의 정착 및 활성화와 함께 경제에 대한 국가통제의 강화를 목표로 한 개혁정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1) 균형 재정 달성

러시아는 수출호조로 인한 막대한 무역흑자 및 세수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었으며, 금년에는 재정적자가 없는 완전한 균형 재정 달성을 목표로 예산안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 2) 자본투자 활성화

2005년 러시아 산업생산 증가는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원동력 역할을 했는데, 이는 자본 투자 증가에 기인함. 정부는 주주의 권리 보호, 재산권 보호 강화 및 제조업 조세부담 경감 등을 통한 비즈니스 여건 개선과 자본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3) 외환관리 강화

수백억 불에 달하는 불법 외환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외환관리 규정을 정비하여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루블화 결제 대외거래에 대해서도 외환관리법에 따른 통제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4) 관세체제 개편

러시아 정부는 편법통관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세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2005년 1월1일부로 최고세율을 기존 30% 에서 20%(일부 품목은 25%)로 인하하고, 품목분류를 단순화하는 조치를 취했음. 수입물품의 매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여, 수입 시 관세 납부 및 통관사실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양식도 변경한 상태이며, WTO 가입을 위해서 장기적인 개혁 추진이 예상됨. 기존의 회색 통관이 점차 줄고 있으며, 정상 통관이 확대됨에 따라 안정적 세수 공급이 될 경우 추가적인 관세 인하 조치가 단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러시아 정부는 매년 기계설비 등 자국의 산업 다각화를 위한 투자에 소요되는 설비가 러시아에서 생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시적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 5) 조세체제 개편

정부는 장기간 논의되어 온 조세체제 개편을 일단락하여, 소득세를 13%로 단일화하고, 부가 가치세 납부절차를 명료화하고, 각종 사회 보장세를 통합하는 제1단계 조세 체제 개편을 마무리하였음. 세수 확보와 탈세방지를 위해 정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세 체제를 개편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현재 정부는 조세기본법 제2부 개정안을 작성하여 곧 하원에 상정할 예정

## 6) 토지 소유권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토지 사유화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여왔으며,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유화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현재는 토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임. 현재 모스크바시의 경우 아직까지 사유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 7) 푸틴 2010까지 GDP 2배 달성역설

3대 핵심 국정운영목표는 첫째 2010년까지 GDP 2배 증가, 빈곤퇴치, 군대 현대화이다. 푸틴은 연설에서 러시아 경제가 국제유가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고 경고했다. 푸틴은 경제 기반이 괄목할 정도로 강화됐지만 아직도 불안정하다고 평가하며, 2010년까지 GDP 2배 증대 와 더불어 루블화의 완전한 태환성 확보를 주요한 목표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푸틴은 지난 기간의 GDP, 투자, 수출, 소득과 소비자 지출이 늘어난 것과 실업을 감소를 치하하고, 외채의 25% 감소와 600억 달러가 넘는 외환 보유고 증가 역시 치하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성공이 우호적인 국제시장 환경, 특히 고유가에 따른 것 이라고 평가 하며 정부의 노력은 불충분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 해마다 7% 이상의 경제 성장을 계속해야 하는데, 현재 러시아 경제는 1999년 이후 매년 5~10%씩 성장해 왔고, 주요 수출품인 석유의 국제가격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여건은 그리 나쁘지 않다. 그러나 2003년 당시 총리인 카시야노프 총리는 무리한 성장을 자제하고 △ 독점 분야 개혁 △ 경제 개방 확대 △ 외자유치 확대 △ 감세(減稅) △ 물가안정 △ 중소기업 지원 등 개혁과 내실 다지기에 더 주력하기로 했다. 성장 일변도로 나가기 위해 경제체질 개선을 소홀히 하면 당장의 인플레이션 아니라 2006년부터는 오히려 성장둔화나 경기후퇴를 겪을 것이라는 소신 때문이었다. 결국 카시야노프 총리의 이러한 의지로 푸틴 대통령의 공약은 목표연도가 2013년경으로 늦춰지게 됐는데, 곧 카시야노프 총리를 경질하고 프라드코프 총리를 내세워 푸틴 대통령의 추진 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염려하였던 경기 둔화 문제는 2006년에도 고유가 기조가 유지됨에 따라 전년과 같은 수준의 성장을 이루었다.

### 사. 극동러시아 연해주 최신경제동향

연해주는 2006년 생산은 전년대비 8.2% 증가하였으며, 제조업, 서비스, 통신 및 유통 등 모든 부문에서 활발한 성장을 기록하였다. 산업 생산은 12.1% 증가하였는데, 전기기기, 전자 광학 장비, 신발, 플라스틱제품, 식품 및 음료, 종이, 인쇄업, 철강, 화학 및 목재채벌 생산 증가에 기인한다. TV 생산이 2.7% 증가하였고 신발은 외국합작으로 170만족을 생산하여 43.4% 증가하였다. 돼지 사육은 15.5천 마리로 37.5% 증가하는 등 농업생산은 134억 루블로 전년대비 6.0% 증가하였다.

소매 유통액은 전년대비 10.7% 증가한 996억 루블에 달했는데, 식품은 전체 소매유통의 46%를 점유하고 있다. 물가상승율은 7.1%로 전년에 비해 상승폭이 완만해 졌는데, 이는 공공서비스 요금과 식품가격 상승률 둔화에 기인한다. 경제활동중사자는 전년대비 7백 명 감소한 97만 9천명이었고, 실업률은 7.5%에 달했다. 주정부 세입은 421억 루블로 전년대비 86억 루블 증가한 반면 지출은 410억 루블로써 11억 루블의 재정흑자를 기록했다.

연해주의 2006년 수출은 전년대비 5.1% 증가한 14억 8천만 불이었고, 수입은 28.9% 증가한 30억 9천만 불로 16억 1천만 불의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교역은 20.1% 증가한 45억 8천만 불에 달했다.

## 2. 주요 산업 동향

### 러시아 주요 산업 생산 규모

(단위: 10억 루블, 1\$=26 Rub)

산업	2007년 9월 누계	GDP 내 비중 (%)
농업, 사냥, 임업	932.4	4.04
어획, 양식업	64.7	0.28
에너지자원 채광	1,848.3	8.01
설비	4,061.6	17.61
전기, 가스, 수력	645.2	2.80
건축	1,285.2	5.58
자동차, 오토바이, 생활용품 도·소매	3,771.7	16.35
호텔, 레스토랑	193	0.84
운송, 통신	1,929.8	8.37
금융	929.8	4.03
부동산, 임대업	1,922	8.33
사회보장	1,144.8	4.96
교육	592	2.57
보건 및 공공 서비스	685.3	2.97
기타 사회보장 서비스	408.3	1.77

자료원: 러시아통계위원회

2007년 5월까지의 산업 생산성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7.4%의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품목별로는 석유(농축 가스 포함)의 경우 3.2%, 철광석 3.5%, 청량음료 23.2%, 맥주 30.4%, 가스터빈 46%, TV 62.3%, 승용차 1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 가. 석유산업

2006년 6월 기준 러시아의 확인된 석유매장량은 990 백만 톤으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으로 탐사 및 채굴작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석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R/P 비율\*이 21.3에 머물러 있어 이란,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과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등 CIS 산유국에 비해서 가채 연수가 짧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광구의 개발이 시급하다.

R/P 비율(R/P Ratio)은 석유의 확인매장량을 생산량으로 나눈 수치로, 그 결과는 향후 그 해의 생산량과 동일한 양의 석유를 생산할 경우의 가채 연수를 나타낸다.

#### 주요 산유국의 확인매장량

(단위: 십억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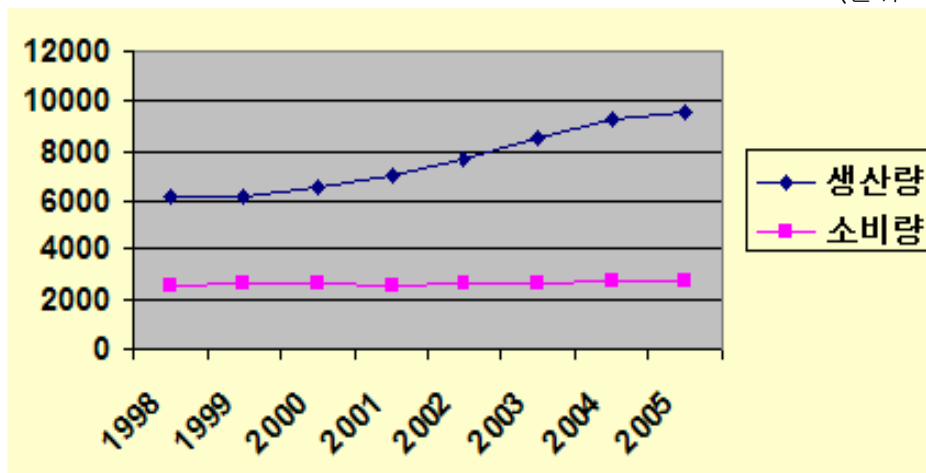
지역	국가	2004년 확인매장량	2005년		
			확인매장량	비중(%)	R/P비율
CIS	러시아	72.4	74.4	6.2	21.4
	카자흐스탄	39.6	39.6	3.3	79.6
	아제르바이잔	7.0	7.0	0.6	42.4
중동	이란	132.7	137.5	11.5	93.0
	쿠웨이트	101.5	99.0	8.5	N/A
	사우디아라비아	264.3	264.2	22.0	65.6

자료원: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7년 2월까지의 최신자료

2006년 1월-11월 러시아의 석유생산량은 일일 평균 4천 3백 9십만 톤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다. 러시아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일일 정제능력은 생산량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나타낸 그림을 보면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에 소비와 정제능력은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즉, 국내 제조업 경기의 침체로 국내 석유소비의 증가세가 낮고, 정유산업 인프라 부족으로 정제능력이 낮기 때문에 생산된 석유의 대부분이 원유의 형태로 수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4년에 러시아는 총 510만 5,000배럴을 수출하여 전년 대비 약 9.6%의 수출 증가율을 보였다. 2005년 천연자원추출산업의 생산은 에너지자원(석유, 가스 등)의 경우 1.8%의 증가에 그쳤고 비 에너지 자원을 포함하여 전체 천연자원추출 산업 생산은 1.3% 증가에 그쳤다. 이는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부진하여 성장의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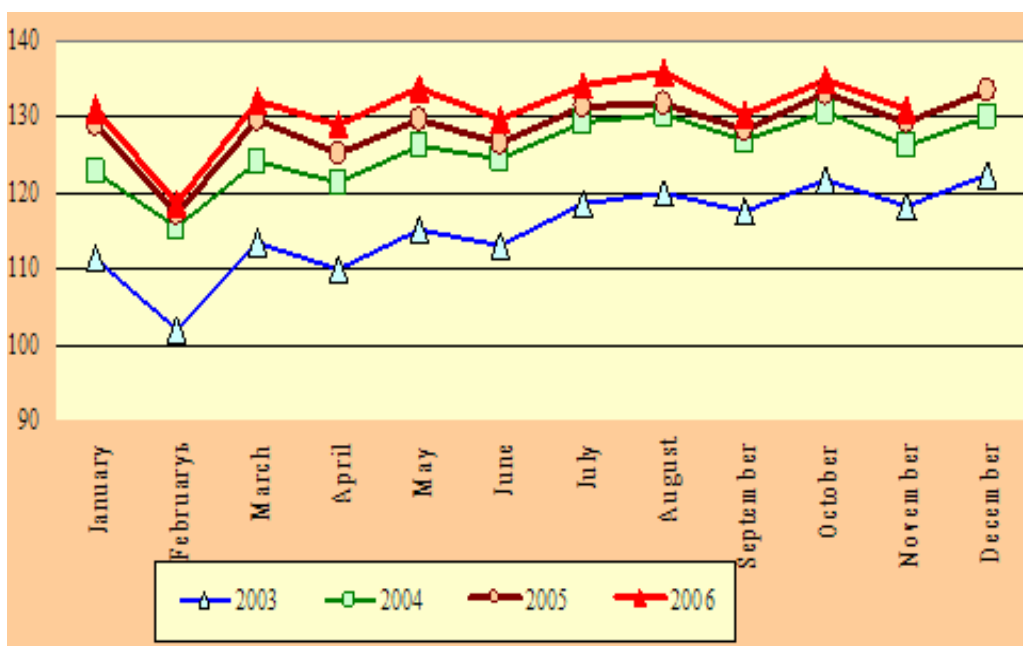
### 러시아의 석유 생산, 소비 동향

(단위: 십억배럴)



자료원: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7년 2월까지 최신자료)

### 2003-2006원유생산 증가율(2001년 12월-100%)



자료원: 러 연방 경제 개발 통상부

현재 러시아 석유는 주로 전통적인 석유산지인 우랄 지역에서 68%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2005년 우랄지역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했으며, 북서지역은 2005년 13% 성장율을 보여 최근 많은 발굴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푸틴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정부재정수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석유산업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늘려가고 있으며, 그 수단으로 주요 석유회사들의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소위 2003년 9월부터 시작된 유코스 사태로 인해 유코스의 최대 자회사인 유간스크네프테가스(Yugan -skneftegaz)가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에 인수합병 되었다. 이로 인해 유코스는 생산 및 수출 1위 자리를 루코일(LUKoil)에 내주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최대 가스독점기업 가즈프롬은 2005년 9월 28일 러시아 제 5위의 석유생산 기업 시브네프트(Sibneft)의 주식 72.663%를 인수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시브네프트는 러시아 추코트카 주지사이자, 영국 명문 축구구단 첼시의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Roman Abramovich)소유인 석유회사이다. 이번 인수는 로만 아브라모비치 소유의 투자회사 밀하우스 캐피탈(Millhouse Capital)의 중개로 이루어졌으며, 인수액은 약 131억 달러이다. 가즈프롬뱅크(Gazprombank: 가즈프롬의 은행부문 자회사)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시브네프트의 지분 3.016%를 합쳐, 가즈프롬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게 된 시브네프트의 지분은 75.679%이다.

이번 인수로 인해 가즈프롬은 가스부문의 독점 이외에 러시아 제 5위의 석유회사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시브네프트는 실질적으로 국유화되었다. 가즈프롬의 CEO 알렉세이 밀레르는 6월 14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경제포럼에서 가즈프롬의 가스부문 지분을 자유화하는 대신, 석유부문 지분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 나. 천연가스산업

러시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47.82 조 입방미터로 전 세계 1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천연가스 수출의 대부분은 유럽 행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 수출은 전체 수출에서 약 60% 가량을 차지한다. 러시아의 주요 천연가스 산지는 서 시베리아 지역으로 총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서 시베리아 지역 가스전의 매장량이 곧 고갈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규 가스전에 대한 개발이 필요하다.

최근 5년간 러시아의 천연가스 생산은 석유 생산과 공업생산에 비해 심각한 정체성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러시아의 석유생산과 공업생산은 각각 연간 8.5%와 6.5%의 증가율을 보인 반면, 천연가스 생산은 1.3%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2005년 2004년 대비 0.9% 증가, 2005년 천연가스 생산은 6,380억 입방미터에 달했다. 이러한 가장 주된 원인은 러시아 정부의 천연가스 이중가격정책과 천연가스 부문의 독점성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중가격정책을 통해 국내 시장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수출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6년 러시아의 국내 가스공급가는 1,000 입방미터 당 약 40 달러로, 수출가인 230 달러의 17%에 불과하다. 1997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가격은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국내 가정용 및 산업용 공급가격은 거의 소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내재적 보조금\*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천연가스 생산 및 생산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감소 시킨다.

내재적 보조금(Implicit Subsidies)이란 현금을 이용한 직접 보조 외에 이중가격정책 등을 통한 간접적인 보조를 의미한다. 러시아 천연가스 부문의 내재적 보조금을 구하는 공식은 아래와 같다.

$$S = Sh + Si = (Px - Ph) \times Ch + (Px - Pi) \times Ci$$

S = 전체 내재적 보조금, Sh = 가정에 적용되는 내재적 보조금

Si = 산업에 적용되는 내재적 보조금, Px = 천연가스 수출가격

Ph = 가정용 천연가스 공급가, Ch = 가정용 천연가스 소비량,

Pi = 산업용 천연가스 공급가

Ci = 산업용 천연가스 소비량

또한 러시아 천연가스 부문은 특정 기업의 독점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는 경쟁을 제한하여 생산 및 투자 인센티브를 감소시키고 있다. 가스프롬이 러시아 천연가스 생산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999년 92.1%를 기록한 이후 점차 하락하고 있으나, 2005년 현재 여전히 86.1%라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시장의 독점력을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먼 지수 (HHI)\*에 따르면 가스프롬의 시장 독점력은 0.78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허핀달-허쉬먼 지수(HHI)는 특정 기업의 산업독점을 측정하는 데 간단하면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수로 그 공식은 아래와 같다.

$$HHI = \sum Si^2 \quad (0 \leq HHI \leq 1, 1 \text{에 가까울수록 높은 독점성을 의미함})$$

Si = qi/Q = 특정기업의 산업독점도

qi = 특정기업 i의 생산량

Q = 산업 전체의 생산량

### 2004년 - 2005년 러시아 가스 생산량

구 분	2004 년	2005 년	2006 년 1-11월	2005년 1-11월 대비증가율(%)
가스 총 생산량 (10억 m <sup>3</sup> )	633	638	596.1	102.5
가스프롬	545.1	547.8	499.7	100.4
가스프롬생산 점유율 (%)	86.2	86.1	-	-
기타 기업	87.6	88.2	96.4	114.6
기타기업생산 점유율 (%)	13.8	13.9	-	-
가스 수출량 (10억 m <sup>3</sup> )	200.4	206.8	182.4	96.8

자료원: 러 연방 경제 개발 통상부

현재 가스프롬을 제외한 독립 천연가스 생산기업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체 생산량의 13%만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석유와 가스를 함께 생산하는 기업 이외에 순수 천연가스 생산기업의 생산량은 5% 정도에 불과하며, 이중 최대 기업인 노바텍(Novatek)이 4%를 차지하고 있다. 가스프롬의 강한 독점성으로 인해 가스운송 인프라 및 수출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시장진입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 다. 자동차산업

러시아의 승용차 시장규모는 1997년 150만 대에서 외환위기 직후 110만 대로 감소하였으나, 2000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해 2004년에 176만 대로, 전년 대비 10.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2006년 1-11월 기준으로 88만대의 외국 차량이 수입되어 전년대비 6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은 Ford의 Focus였다.

최근 3년간 자동차 판매 현황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러시아 자동차의 경쟁력 약화와 수입 중고차의 관세 인상에 따라 국산차와 수입중고차의 점유율을 줄어들고 있는 반면, 러시아 국민들의 전반적인 소득 증가와 외국산 브랜드의 선호에 힘입어 외국산 브랜드의 국내 생산과 수입 신차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수입신차의 점유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4년 러시아 자동차생산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산 브랜드의 생산은 2.1% 증가하여 총 97만 6,000여 대를 기록하였다.

국산 차의 판매동향을 살펴보면, 대당 6,000~8,000 달러의 소형차 판매가 전체 판매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해 점차적으로 중, 대형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5년 현대 자동차는 러시아에 약 85,000대의 자동차를 판매하여 러시아에 진출해있는 외국 자동차 메이커 중 최대의 판매대수를 기록한 바 있으며, 2006년도에는 한국의 파업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부족하여 Ford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러시아 국산 자동차 산업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생산설비의 노후화와 추가 설비투자의 부족으로 인해 품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의 설비 중 10년 이상 된 설비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가 심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러시아는 자체 브랜드와 외국 브랜드의 합작기업을 설립하여 선진국 자동차의 기술이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이 총 투자금액 2억 5,000만 달러 이상을 자동차 산업에 투자할 경우 7년 동안 관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칼리닌그라드 경제특구는 자동차 조립라인 투자의 최적지이다. 현재 Avtotor社は 칼리닌그라드에 기아 및 BMW의 조립라인을 운영하고 있다. 칼리닌그라드에서는 외국산 물건에 대한 수입무관세와 부가가치가 첨가된 완제품의 러시아 본토 수출 무관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자국의 부품을 수입하여 칼리닌그라드에서 조립 생산한 뒤 러시아 본토로 수출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보호를 위해 2002년 7월에 '2010년까지의 자동차산업 발전 정부 개념'을 발표하여 국내 자동차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을 천명하였다. 최근 빅토르 키리엔코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장관은 러시아 자동차산업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5년 이상 된 외제 중고차 수입에 보호관세 부과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WTO 가입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단행하여 현재 수입신차의 관세는 25% 수준이며, 2004년 EU와 수입신차에 대한 관세 상한선을 35%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WTO 가입 이후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30~50% 급감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들어서도 니산, GM등의 투자를 유치하여 자국 산업의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라. IT산업

러시아는 최근 높은 경제성장과 실질소득 증가로 인해 IT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2005년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자 수 약 8,500만 명이었다. 2006년 말에도 인터넷 이용인구 2,500만 명, 컴퓨터 보급대수 2,300만 대 등을 기록하였다. 2007년 1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는 총 152백만 명으로 가입률 104.9%를 기록하였으며, 모스크바지역은 158%를 기록하였으며, 현재 MTS, 빔펠콤(VimpelCom), 메가폰(Megafon) 등 3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의 9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동통신 전송방식은 유럽식 표준형인 GSM(Global Systems for Mobile Communication)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러시아 IT산업에서 또 하나의 유망분야는 인터넷시장이다. 러시아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성인기준 전체 17% 수준으로 인터넷 접속방법도 전화접속에서 광대역 통신망(ADSL, Ethernet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의 사이트 접속은 물론 일반화질 수준의 동영상도 끊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속도 수준이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가격은 2006년 8월 기준으로 한달 정액제로 30-40불 수준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가격 수준이 무척 높다. 향후 2010년에는 3,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최근 게임, 동영상 등 각종 콘텐츠의 발전으로 그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무선인터넷 시장의 경우 현재까지 Wi-Fi방식이 고급레스토랑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였으나, 사용료가 비싸서 대중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노트북 컴퓨터의 가격이 인하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는 상황이며, 2008년에 WIMAX방식의 무선 인터넷 시장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의 투자결정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 정부는 IT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각종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예산 지원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04년 3월 이후 러시아 정보통신부가 IT산업을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IT산업의 GDP 비중을 2003년 8.6%에서 2015년 17%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2년에 e-Russia 프로젝트를 확정하고,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IT산업 활성화 및 e-Russia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브고로드, 모스크바 인근 두브나 지역에 이미 TECHO PARK가 개설되었고 2010년 까지 6-10개 추가 IT TECHO PARK 건설계획을 추진 중이다.

##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러시아는 현재 구 소련권 국가들과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1994년 4월 15일 체결한 국가는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몰도바, 타즈키스탄, 투루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그루지아 등이다.

- 주요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호 경제 협력의 자유로운 발전에 대한 확립
- 시장 경제 제도의 도입
- 1993년 9월 24일에 체결된 경제 동맹 협정의 실현을 위한 일관성 유지
- 제화와 용역의 자유로운 이동 조건의 형성
- 협정 국가의 국내경제의 안정화와 균형된 소비의 보장
- 상생의 원리에 따른 협력아래 경제적 잠재력을 성장시키는 것

- 협정 국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의 증대를 위해 노력할 것
  - 자유무역지대로 가기 위한 경제 동맹 창설
- 주요 협정문의 내용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아래와 같다.
- 제3조: 해당 국가간의 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제 5 조: 해당 국가간에 부과되는 비용은 실비를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된다.
  - 제 8조: 해당 국가간에 생산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자국산의 제품에 부과되는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 제 13조: 동 협정은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 환경 등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부문에 대한 보호를 위한 조치를 대외 무역 관계에 실시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다.

CIS국가간의 거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최근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지는 가운데서 원산지 증명에 대한 행정 간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 외국 기업들은 CIS 역내 수출을 영두에 두고 진출하고 있으나, 역내 생산을 증명하는 서류 등 행정 처리가 복잡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국가간 거래에 있어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세의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부과가 되고 있다. 또한 러시아의 경우 이와 같은 협약을 체결한 국가에서의 수입도 정치적, 보건위생적 사유에 따라서 금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몰도바, 그루지아산 포도주와 그루지아산 생수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우크라이나산 육류, 우유 수입 금지 조치 등이 취해진 경우 등이 일례다.

한편 WTO 미 가입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인 러시아는 WTO 가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2006년 10월 미국과의 양자 협상을 마치고 다자간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2008년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WTO 가입이 완료될 경우 러시아는 EU와의 FTA 체결 및 OECD가입 등 각종 무역 외교 관련 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 III. 무역

#### 1. 수출입동향

러시아의 2006년도 대외무역액은 총 4,395억 불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2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아울러 수입은 1,375억불을 기록하였고, 수출은 3,019억불을 기록하여 1,644억불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다.

주요 교역 상대국은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중국, 우크라이나 순이었으며, 전통적으로 유럽지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점, 운송료가 적은 점 등으로 교류가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의 교역량은 전년대비 46%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국과의 교역량은 전체 16위 규모이며, 대러 수출 기준으로는 6위 규모이다. 한편 중국은 128억불을 수출하여 전년대비 7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러시아 시장 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7년도 상반기 대외 무역액은 2,572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2007년 상반기 수입은 967억 달러를 기록 중이며, 수출은 160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2005-2006 러시아 국가별 대외 무역량

(금액 단위: 백만불, 비율 단위: %)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교역량	수출	수입	비율	교역량	수출	수입	비율	교역량	수출	수입
전체	340,181	241,473	98,708	100	439,524	301,976	137,548	100	129	125	139
독일	33,008	19,736	13,272	10	42,929	24,493	18,436	10	130	124	139
네덜란드	26,555	24,614	1,941	8	38,542	35,862	2,680	9	145	146	138
이탈리아	23,469	19,053	4,416	7	30,830	25,111	5,719	7	131	132	130
중국	20,312	13,048	7,265	6	28,639	15,751	12,889	7	141	121	177
우크라이나	20,221	12,402	7,819	6	24,197	14,979	9,218	6	120	121	118
벨로루시	15,834	10,118	5,716	5	19,934	13,084	6,850	5	126	129	120
터키	12,574	10,841	1,732	4	17,048	14,377	2,670	4	136	133	154
미국	10,887	6,324	4,563	3	15,320	8,922	6,397	4	141	141	140
폴란드	11,370	8,623	2,747	3	14,879	11,479	3,400	3	131	133	124
영국	11,056	8,280	2,776	3	14,034	10,362	3,671	3	127	125	132
프랑스	9,784	6,111	3,673	3	13,453	7,602	5,852	3	138	124	159
스위스	11,649	10,774	875	3	13,358	12,068	1,291	3	115	112	147
핀란드	10,751	7,651	3,100	3	13,199	9,201	3,998	3	123	120	129
카자흐스탄	9,759	6,534	3,225	3	12,808	8,969	3,839	3	131	137	119
일본	9,574	3,740	5,834	3	12,450	4,670	7,779	3	130	125	133
한국	6,364	2,359	4,005	2	9,301	2,527	6,774	2	146	107	169
헝가리	6,104	5,004	1,100	2	8,095	6,229	1,866	2	133	125	170
체코	4,806	3,817	989	1	6,193	4,665	1,528	1	129	122	155
슬로바키아	3,692	3,190	503	1	5,600	4,832	769	1	152	152	153
스페인	4,050	2,823	1,227	1	5,297	3,346	1,950	1	131	119	159
오스트리아	3,563	2,353	1,211	1	5,192	3,353	1,840	1	146	143	152
리투아니아	4,571	4,002	569	1	4,913	4,211	702	1	108	105	123
벨기에	3,940	2,464	1,476	1	4,803	2,633	2,169	1	122	107	147
사이프러스	5,143	5,095	48	2	4,594	4,551	43	1	89	89	90
스웨덴	4,181	2,320	1,861	1	4,336	2,195	2,142	1	104	95	115
인도네시아	3,098	2,314	784	1	3,955	2,988	968	1	128	129	123
브라질	2,951	606	2,346	1	3,712	726	2,986	1	126	120	127
에스토니아	2,360	2,114	245	1	3,033	2,708	326	1	129	128	133
그리스	2,118	1,930	188	1	2,992	2,757	235	1	141	143	125
우즈베키스탄	1,765	861	904	1	2,375	1,086	1,289	1	135	126	143
덴마크	1,646	725	921	1	2,278	932	1,346	1	138	129	146
이란	2,047	1,922	125	1	2,136	1,898	238	1	104	99	190
영국령버지니아군도	2,778	2,778	0	1	2,114	2,112	2	1	76	76	0
라트비아	1,529	1,188	340	0	2,085	1,698	387	1	136	143	114
이스라엘	1,870	1,538	332	1	1,966	1,558	408	0	105	101	123
노르웨이	1,433	683	750	0	1,823	712	1,111	0	127	104	148
대만	1,930	1,438	492	1	1,690	934	756	0	88	65	154
아제르바이잔	1,064	858	206	0	1,634	1,375	259	0	154	160	126
포르투갈	1,227	1,138	89	0	1,555	1,411	144	0	127	124	162

이집트	1,126	1,049	77	0	1,358	1,240	118	0	121	118	153
캐나다	717	200	517	0	1,260	362	898	0	176	181	174
싱가포르	626	309	317	0	1,226	790	436	0	196	256	137
말레이시아	823	150	673	0	1,133	239	894	0	138	159	133
아르헨티나	693	72	621	0	1,110	153	957	0	160	213	154
아일랜드	1,062	771	290	0	1,089	630	460	0	103	82	158
몰도바	997	448	548	0	987	664	323	0	99	148	59
태국	999	547	452	0	906	347	559	0	91	64	124
슬로베니아	598	143	456	0	883	268	614	0	148	188	135
키르기스스탄	544	398	146	0	754	561	194	0	139	141	133
베트남	913	739	174	0	654	303	350	0	72	41	201
그루지아	511	353	158	0	638	570	68	0	125	161	43
인도네시아	552	202	349	0	607	187	420	0	110	92	120
몽골	466	443	22	0	528	490	38	0	113	111	168
호주	280	36	244	0	524	29	495	0	187	81	203
타즈키스탄	335	240	95	0	503	377	125	0	150	157	132
아르메니아	293	191	101	0	496	392	103	0	169	205	102
몰타	147	125	22	0	457	372	85	0	311	298	382
홍콩	368	350	19	0	440	354	86	0	120	101	464
멕시코	295	208	87	0	433	248	185	0	147	119	213
투르크메니스탄	301	224	77	0	308	229	79	0	102	102	102
쿠바	187	125	61	0	231	185	47	0	124	147	76
룩셈부르크	123	65	58	0	228	142	86	0	185	219	147
남아프리카공화국	172	25	147	0	179	20	159	0	104	80	109
필리핀	271	198	73	0	167	79	88	0	62	40	120
칠레	141	11	129	0	166	14	152	0	118	126	117
페루	99	70	30	0	128	107	21	0	129	154	71
뉴질랜드	76	12	64	0	92	4	88	0	122	34	138
파푸아뉴기니아	4	1	3	0	4	1	3	0	105	58	124
기타	15,297	12,400	2,896	5	18,613	14,252	4,361	4	122	115	151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한편, 2007년 8월 기준 한중일 3개 국가의 대 러시아 교역량은 아래표와 같다. 표에서 보는 것처럼 중국의 대러 수출은 97.8%의 증가율을 보여, 한국(27%), 일본(63.6%)에 비해 훨씬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러시아로 유입되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2006년 8월 누계			2007년 8월 누계			증가율(%)		
	교역량	수출	수입	교역량	수출	수입	교역량	수출	수입
중국	16,741.1	9943	6,798.1	23,828.5	10,382.8	13,445.7	42.3	4.4	97.8
일본	7,298.6	2,583.8	4,714.8	12,274	4,558.3	7,715.7	68.2	76.4	63.6
한국	6,017.7	1,589.2	4,428.5	9,130.4	3,505.3	5,625.2	51.7	120.6	27.0

자료원: 러시아 관세청

##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가. 한-러 교역 현황

2006년도 한-러 간 교역량이 97억 5천만 불로 사상 최대치를 돌파했다. 이 중 수출은 51억 7천만 불로 34%의 성장률을 보였으며, 수입은 45억 7천만 불로 1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 1992년 1억 9천만 불로 시작한 양국 간의 교역량은 지난 14년간 5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이 약 4배의 성장을 기록한 것을 볼 때, 매우 고무적인 결과이다. 특히 2006년도는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1998년 이후 8년 만에 흑자(약 6억 불)로 전환된 해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무역 수지 흑자(160억 불)의 약 4%를 차지하는 규모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러 교역량은 '90년 국교수립 이후 급증세를 보이다가, '97년 IMF 금융 위기시 감소세를 보인 후, '03년 연간 42억불, '04년 60억불 규모에 이어 05년에도 지속 증가하여 78억불 기록하였으며, '06년에는 97억 5천만 불을 기록하여 100억불에 육박하였다. 2007년 8월 기준으로 이미 95억 7천만 불을 기록하여, 연내 140억불에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 러 수출의 특징은 국내 대기업들이 핀란드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기 때문에, 핀란드를 통한 우회 수출이 크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러시아 시장에 대한 직접 투자가 증가하고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직접통관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 러 무역수지는 '05년 72백만 불 적자로 전년 대비 95% 감소 기록하였으며, '06년 기준 6억불 흑자를 기록하였다. ('02년 11.5억불, '03년 8.6억불, '04년 13억불 적자) 대 러 수출은 '07년 8월 기준 50억 불을 기록하여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14.7%에 비해 약 3배 수준인 46.9% 기록하였다. 한편, '07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대러 무역수지는 4억6천만 불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 주요 연도별 한-러 간 교역 추이

(단위: 천 불, %)

연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02	1,065,875	13.6	2,217,604	14.9	-1,151,729
2003	1,659,119	55.7	2,521,780	13.7	-862,661
2004	2,339,329	41.0	3,671,455	45.6	-1,332,126
2005	3,864,170	65.2	3,936,623	7.2	-72,453
2006	5,179,248	34.0	4,572,967	16.2	606,281
2007.1-10	6,465,074	52.0	5,483,161	48.0	981,913

자료원: KOTIS

### 나. 한-러 주요품목별 수출입동향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 주력품목은 수송기계(자동차), 합성수지(PET Resin 등), 자동차부품, 무선 전화기, 건설중장비, 가전제품, 연초류, 타이어 등임. '06년의 경우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에서 송유관건설 및 해양플랜트 수출로 인하여 철 구조물 및 해양구조물의 수출이 급증하였다.

수입의 경우 알루미늄, 니켈 등 광물, 원유, 고철, 유연탄, 등 천연자원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 원자재의 시장가격 상승으로 수입액이 증가하고 있음. 반면 비철금속, 항해용 무선기기, 선박용엔진 및 부품, 계, 명태 등 수산물의 수입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대러 수출 통계(2005-2006)

(단위: 천 불, %)

순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3,864,170	65.2	5,179,247	34.0
1	승용차	966,360	70.8	1,529,551	58.3
2	합성수지	557,086	30.6	559,376	0.4
3	철 구조물	223,255	1,988.4	407,338	82.5
4	자동차부품	140,639	164.3	375,533	167
5	해양구조물	34	-29.0	354,979	1,046,513.6
6	화물자동차	102,861	91.5	157,184	52.8
7	무선전화기	181,419	35.0	138,152	-23.8
8	칼라TV	22,505	11.3	84,007	273.3
9	기타플라스틱제품	46,748	39.8	71,352	52.6
10	건설중장비	47,009	45.8	68,976	46.7
11	우주선	0	-	53,972	-
12	연초류	21,973	249.5	50,075	127.9
13	세탁기	25,640	10.8	39,837	55.4
14	윤활유	30,173	42.8	39,180	29.9
15	커피류	40,544	26.3	38,954	-3.9
16	냉장고	39,451	4.7	37,433	-5.1
17	폴리에스테르섬유	37,676	47.4	36,125	-4.1
18	소스류	32,446	31.7	35,784	10.3
19	타이어	20,787	296.2	32,512	56.4
20	음극선관	29,471	-12.6	31,229	6.0

단위: MTI 4단위

자료원: KOTIS

주요 품목별 대러 수입 통계(2005-2006)

(단위: 천 불, %)

순위	품목명	2005년		2006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 계	3,936,623	7.2	4,572,967	16.2
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595,430	24.4	891,570	49.7
2	원유	423,943	45.0	849,598	100.4
3	나프타	279,487	-3.9	393,204	40.7
4	니켈괴및스크랩	235,865	-18.0	351,113	48.9
5	고철	483,099	-0.8	295,540	-38.8
6	유연탄	235,297	-24.7	289,815	23.2
7	원목	150,525	12.3	163,294	8.5
8	명태	133,467	14.5	146,750	10.0
9	선철	130,441	-43.1	133,114	2.1
10	계	60,723	3.8	90,194	48.5
11	우라늄	99,131	23.1	83,334	-15.9
12	펄프	62,710	-1.8	65,304	4.1
13	강반제품	77,511	-7.6	64,184	-17.2
14	무기류	150,825	44.0	64,121	-57.5
15	어란	32,537	-45.1	50,363	54.8
16	합금철	41,190	92.4	41,374	0.5
17	합성고무	35,145	-2.5	39,594	12.7
18	기타비철금속제품	23,406	237.2	36,059	54.1
19	환원철	99,005	286.9	34,782	-64.9
20	기타어류	25,468	3.8	30,356	19.2

단위: MTI 4단위 / 자료원: KOTIS

주요 품목별 대러 수출 통계(2007년 11월 누계)

순위	품목명	2006년		2007. 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b>총계</b>	<b>5,179,248</b>	<b>34.0</b>	<b>7,268,120</b>	<b>53.7</b>
1	승용차	1,529,552	58.3	1,865,736	102.1
2	무선전화기	138,153	-23.8	734,550	518.0
3	합성수지	559,377	0.4	561,869	8.6
4	자동차부품	375,534	167.0	536,714	73.8
5	해양구조물	354,980	1,046,513.6	476,619	34.3
6	화물자동차	157,185	52.8	244,987	80.3
7	건설중장비	68,977	46.7	164,531	172.3
8	기타플라스틱제품	71,352	52.6	99,853	49.9
9	기타유선통신기기	2,030	39.4	96,937	5,314.8
10	커피류	38,955	-0.39	51,804	45.1
11	칼라TV	84,008	273.3	49,679	-34.4
12	윤활유	39,180	29.9	43,802	27.4
13	냉장고	37,434	-5.1	37,998	11.8
14	소스류	35,785	10.3	37,660	12.7
15	연초류	50,075	127.9	36,939	-25.1
16	타이어	32,512	56.4	32,971	16.4
17	폴리에스텔섬유	36,125	-4.1	32,358	-2.1
18	전선	10,838	203.6	31,046	204.9
19	기타기계류	24,961	404.1	30,274	33.7
20	아연도강판	16,287	184.2	29,517	91.3

주요 품목별 대러 수입 통계(2007년 11월 누계)

순위	품목명	2006년		2007. 1-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b>총계</b>	<b>4,572,967</b>	<b>16.2</b>	<b>6,323,917</b>	<b>55.2</b>
1	원유	849,598	100.4	2,523,189	284.0
2	알루미늄괴및스크랩	891,571	49.7	613,472	-25.7
3	나프타	393,205	40.7	473,343	35.1
4	유연탄	289,816	23.2	419,737	55.0
5	고철	295,540	-38.8	299,629	9.7
6	강반제품	64,184	-17.2	267,131	404.9
7	니켈괴및스크랩	351,113	48.9	225,742	-29.5
8	선철	133,114	2.1	185,944	55.4
9	명태	146,750	10	174,753	7,818,835.2
10	그림	2	-69.5	171,568	25.3
11	원목	163,295	8.5	136,021	-7.6
12	우라늄	83,335	-15.9	125,179	61.3
13	계	90,194	48.5	98,337	31.5
14	펄프	65,304	4.1	68,978	15.2
15	합금철	41,375	0.5	50,931	30.2
16	어란	50,364	54.8	38,745	-21.4
17	합성고무	39,594	12.7	37,122	2.7
18	선박	27,771	1.8	32,592	17.9
19	기타어류	30,357	19.2	23,483	-16.3
20	기타비철금속제품	36,059	54.1	23,167	-32.0

### 3. 수입규제제도

#### 가. 수입규제

어떤 상품이 대량 수입되어 관련 자국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러연방 정부는 국제규범상 보편화되어 있는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 2005년도 상반기의 경우 그 동안 수입품에 상당부분을 의존했던 시장구조에서 지난 2~3년 간 고유가로 유입된 오일 달러를 근간으로 국내 산업생산에 활발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현지 제조업체들의 입김이 증대되면서 대정부 압력이 높아지고 있어 이전에 비해 제소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중이던 electric filament lamp는 2005년 5월 정부 결정을 통해 관세를 인상 하였으며, 2006년 2월에는 Big-diameter pipe류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하였다. Big-diameter pipe 류의 경우 최근 현지 아파트, 오피스, 공장 등의 건설 붐으로 인해 각종 건축자재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Big-diameter pipe류에 대해 수입규제를 실시할 경우 아직까지 금액은 크지 않으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아국산 제품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러시아의 수입 규제는 해당 국가와의 정치적인 마찰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그루지아 생수 수입 금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 2년간 금지 되어 왔던, 폴란드산 육류에 대한 수입규제는 2007년 12월에 해제되었으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 나. 수입 라이선스 규제

1997. 2. 18일 러연방 정부는 컬러 TV의 수입업체에 대한 라이선스제도를 '98. 5. 1일부로 도입 시행키로 발표했는데, 대상 TV는 H.S. Code 8528 12 520, 8528 12 540, 8528 12 560 (스크린의 대각선 길이 42cm이하, 42cm~52cm이하, 52cm~72cm 이하 제품)이다.

한편 국가안보 등의 필요로 인해 지정한 수입 허가 금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 다. 러시아의 수입허가품목

품 목 명	HS CODE	라이선스 발급 협약기관
식물 보호제	3808 (식물 보호제에 한함)	경제발전통상부 농업부
암호자재 및 기구	8471 (암호기술에 한함) 847330000 (암호기술에 한함) 85438909500 (암호기술에 한함) 854390800 (암호기술에 한함)	러연정부산하의 정부통신정보국
화학 및 폭발장치	360100000 (사냥용 제외) 360200000, 360300, 3604	
핵물질, 기술, 장비	2612,2844,2845(2845909000제외), 8401	대상품목및절차는 러연대통령 및 정부가 결정함
산업 폐기물	2618-2620, 3915	러연 환경부, 경제발전통상부
호박 및 호박제품	253090000 (호박에 한함) 960200000 (호박제품에 한함)	러연귀금속위원회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7101, 7102, 7103 (가공된 보석 러연 귀금속위원회에 한함)	

	7105,711611(천연보속으로된 것에 한함) 711610000, 820551000 (천연 다이아몬드가 첨가된 것에 한함) 820712100, 820720100, 820750100, 820760100, 820790100 (천연 다이아몬드가 첨가된 기구에 한함) 852290300 (천연 보석으로 된 것에 한함)	
귀금속 및 농추광	2616	러연귀금속위원회
분말 및 기타 형태의 귀금속, 화학 혼합 귀금속, 귀금속 조각 및 부산물	2843, 7106, 7108, 7110, 7112 (반가공품 및 분말형에 한함) 8544 (귀금속이 포함된 것)	러연귀금속위원회
귀금속으로 도금된 금속	710700000, 710900000, 711100000	러연귀금속위원회
귀금속으로도금된 금속제품	711590900	러연귀금속위원회
귀금속제품	300640000 (귀금속 제품에 한함) 711311000, 71131900, 711411000, 71141900, 71151000, 711590100, 7118(귀금속 제품에 한함) 900319100	러연귀금속위원회
마약류	러연 대통령 및 정부가 결정한 절차에 따라 러연보건부산하 마약류통제위원회가 품목 결정	

자료원: 예코노미카 이 지즈니(경제와 생활 - KONSECO 컨설팅 회사)

## 라. 안전 증명서 규제 ('93.7.1)

러시아<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93년부터 일부 상품에 대한 <강제인증 제도> (안전증명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대상 품목은 곡물, 설탕, 음료, 담배, 아동의류, 화학제품, 전구, 자전거, 측정기기, 승용차 및 부분품, 트랙터, 스포츠용 총구류, 장난감, 전자오락기, 합판, 동식물성 기름, 어류, 육류 등 150여 품목(군)을 러시아로 수출할 경우 안전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는데, '96년 7.25일자 국가표준규격위원회 훈령 제 14호로 품질보증마크가 도입되었으며, 향후에는 동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가 금지된다.

## □ 강제인증제도 품질검사기관

- Gosstandart (State Committee on Standardization & Certification)
  - Add : 117049, Moscow, Leninskiy Prospekt, 9
  - Tel : 495) 236-0300
  - Fax : 495) 236-6231
- Rostest
  - Add : Moscow, Nakhimovskiy Prospekt, 31
  - Tel : 495) 129-1911
  - Fax : 495) 124-9996
- Profident (치약)
  - Add : Moscow, T.Frunze, 16
  - Tel : 495) 245-4562, 246-0572
  - Fax : 495) 246-8127
  - 구비 서류: 성분구성 자료(영문), 품질증명서(한국기관이 발급한 것), 계약서 사본(노어), 화물송장 (W/B)

- 화장품 위생검사
  - Rospotrebnadzor Fed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 Add : Moscow, Varshavskoeshosse str., 19A
  - Tel : 495) 954-0209
  - Fax : 495) 954-0310
  - 구비서류: 신청서, 계약서 사본, 원산지 증명서, 안전증명서(한국 보건기관), 품질 증명서(한국 해당기관)
  
- 주방용품 위생검사
  - Rospotrebnadzor Fed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 Add : Moscow, Varshavskoeshosse str., 19A
  - Tel : 495) 954-0209
  - Fax : 495) 954-0310
  - 구비서류: 계약서 사본, 견본, 품질증명서(한국 기관), Way-Bill (Consignment Note)
  
- 기계류
  - Vniimash
  - Add : Moscow, Shenogina Str. 4
  - Tel : 495) 256-0449
  - Fax : 495) 256-6500
  
- 유아복 위생 검사
  - Rospotrebnadzor Fedral Hygieology and Epidemiology Center
  - Add : Moscow, Varshavskoeshosse str., 19A
  - Tel : 495) 954-0209
  - Fax : 495) 954-0310
  
- 유아복 품질 검사
  - Rostest
  - Add : Moscow, Nakhimovsky prospect ave., 31
  - Tel : 495) 129-1911
  - Fax : 495) 124-9996

#### 마. 수입관련 내국세

러시아로 상품을 수출할 때는 수입관세뿐만 아니라 부가세와 물품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에틸 알코올 주정, 주정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자동차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10~400%의 과세가 부과된다. 98년 이후 2,500cc 이하 차량에 대한 물품세는 폐지되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물품세 10~20%가 인상되었다.

통관서류는 세관신고서(소정양식), B/L, Commercial Invoice 및 Packing List를 필수적으로 제출하고 이 외에 안전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등 품목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관 수수료는 루블화로 상품가격의 0.1%, 외화로 0.05%를 납부해야 한다. 관세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 포함)는 기본적으로 신고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세관은 자의 적 판단에 따라 유사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

## 바. 수량제한

러시아에는 원칙적으로 수량제한이 없다. 그러나 수입 쿼터를 도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는 국가안전보장, 국제의무의 이행 및 자국시장의 보호를 위해 도입할 수 있다. 한편 상대국의 러시아산에 대한 수입규제에 대응하여 수량제한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다.

## 사. 라벨링표기

러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에 대한 러시아어 설명서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97.8.15일자 러연방 정부 법령 No.1037호에 의거하여, 러시아 연방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 물품은 러시아어로 제품 이름, 원산지 국가 및 제조업체, 제품용도, 주요 특징 및 제품 사용 설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동 표기는 포장지, 라벨 또는 별지에 할 수 있으며 제품과 함께 동봉되어야 한다.

상품설명서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8가지로서 상품명, 제조업체명, 상품의 기본용도나 사용범위, 안전한 보관·운송 및 사용방법, 기본적 소비 특성 및 특징, 강제 인증에 관한 정보,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의 법적 주소이다.

## 아. 수입쿼터

2006년 수입쿼터가 지정된 품목으로는 돼지고기, 쇠고기, 가금류를 포함하는 육류와 전구류이다.

러시아는 국내 축산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으로부터 육류수입을 줄이기 위하여 2003년 1월 육류(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수입 쿼터제도를 최종 승인했고, 2004년부터 3년간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월 2006년 국가별 수입쿼터가 확정됐으며, 이는 종전 보다 품목별로 다소 증가했으나,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자국의 전구 산업 보호를 위하여 HS Code 8539 229000 의 전력이 200 와트 이하이고, 전압이 100 볼트 이상인 전구에 대해 연간 1억 3670 만 개로 쿼터를 확정했다.

### □ 2007년 육류 수입쿼터

#### 1) HS 코드 0201

- 품목: 쇠고기 (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 단위: 천 킬로그램

구분	EC	기타 국가	총 계
수입 쿼터	27,800	500	28,300

자료원: 러 연방 정부 훈령(N732, 2005.12.5)

#### 2) HS 코드 0202

- 품목: 쇠고기 (냉동한 것에 한한다)
- 단위: 천 킬로그램

구분	미국	EC	파라과이	기타 국가	총 계
수입 쿼터	18,100	347,600	3,000	71,300	440,000

자료원: 러 연방 정부 훈령(N732, 2005.12.5)

### 3) HS 코드 0203

- 품목: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단위: 천 킬로그램

구분	미국	EC	파라과이	기타 국가	총 계
수입 쿼터	49,000	244,900	1,000	189,900	484,800

자료원: 러 연방 정부 훈령(N732, 2005.12.5)

### 4) HS 코드 0207

- 품목: 가금류의 육과 식용설육(제0105호의 가금류의 것으로서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단위: 천 킬로그램

구분	미국	EC	파라과이	기타 국가	총 계
수입 쿼터	871,400	228,600	5,000	66,200	1,171,200

자료원: 러 연방 정부 훈령(N732, 2005.12.5)

### 5) HS 코드 0207295502, 0203299002

- 품목: [돼지고기\(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의 기타
- 단위: 천 킬로그램

구분	전체국가(총 계)
수입 쿼터	26,500

자료원: 러 연방 정부 훈령(N732, 2005.12.5)

### □ 2007년 전구 수입 쿼터 확정

러 연방 경제 개발 통상부는 해당 국가별 쿼터를 2004년 10월 1일-2005년 9월 30일 사이 수입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할당했다. 동 쿼터는 러시아 연방정부의 훈령(N50, 2006.1.28)에 따라 결정된 쿼터량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2007년 전구(HS 코드 8539 22 900 0) 수입 쿼터

구분	EC	키르기지야	중국	우크라이나	기타 국가	합 계
연간수입량*	34,593,203	41,228,391	24,919,429	31,320,535	57,524	132,119,082
수입 쿼터	31,500,000	82,700,000	13,000,000	8,000,000	1,500,000	136,700,000

자료원: 러 연방 관계 통계위원회 자료 (2004년 10월 1일 - 2005년 9월 30일 수입량)

## 자. 비관세 장벽

### 1) 불합리한 외국인 거주 등록제도

- 금년도부터 외국인의 출장시 3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지역에서의 전입과 전출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 출장이 잦은 경우, 지방 거주지에서는 호텔 등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원거주지에서는 관할 우체국, 경찰서 등에서 직접 처리해야한다
- 거주등록증 반납 후에 이동과정에서 경찰에게 검문당할 시 설명이 어렵다

### 2) 수출 부가가치세 환급

- 수입뿐만 아니라, 수출 시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고, 원칙적으로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환급에 수개월이 걸리며,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재판을 통한 환급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 현지 진출시 수출 부가세가 기업 부담으로 전가되어 제 3국 수출이 어렵게 되고, 내수 증시으로만 사업하게 되는 상황이다.
-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외국 기업의 투자 유치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조속 개정되어야 하는 규정이다

### 3) CIS 지역간 수출시 관세 부과

- 우리 기업의 경우 러시아에서 조립 생산을 하게되어, 다른 CIS국가로 수출시 관세를 면제받아야 하나, 조립품에 대한 현지물품(local contents)의 구성 비율에 따른 원산지 인정 한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여, 기업들의 관련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
- 아울러, 러시아에서 생산하여 CIS 지역으로 수출하여 원산지 증명을 받아 관세를 면제 받기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32가지가 되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 4) 러시아 표준 인증 획득 시 장기간 소요

- 인증과정은 짧게는 1주일 정도 소요되나, 길게는 수개월 소요된다.
- 인증기구마다 실험실과 인력상황에 따라 인증획득기간 상이하다
- 인증 브로커를 통한 경우 최대 3일에 인증서를 받을 수도 있고, 정상 신청을 할 경우 여러 사유를 들어서 인증을 지연시키는 경우 많다.

### 5) 수입 물품 운송 및 통관 지연

- 관세법상에는 서류접수로부터 3일내에 통관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관 지연되는 경우 다수 발생하여, 납기일을 맞추기 어렵다.

- 세관장의 교체, 기타 사유 등을 이유로 길게는 한 달에서 두 달까지 통관을 지연시키는 경우도 발생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세관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 특히 휴대폰처럼 시기에 따라 가격과 유행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상품의 경우, 통관 지연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시장 상실 우려된다.
- TSR 기점인 보스토치니항에서 일기 불순 등을 이유로 환적이 지연되어, 모스크바 도착시점의 예측이 어려움이 많다.

#### 6) 불합리한 통관순서 결정

통관시 도착순이 아닌, 통관사의 능력에 따라 통관순서가 결정되어, 자동차 부품 등 수요가 공급을 앞서고 있는 제품의 경우, 신속한 통관이 어려운 경우 매출 감소에 직결된다.

### 4. 대한수입규제 동향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는 대구경파이프에 대해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산에만 대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가에 대한 것이다. 이전 한국산 시안화나트륨에 대하여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것을 현지 업체들이 요청한 경우가 있었으나, 해당 업체들의 매출감소가 한국산에 따른 영향보다 해당 업체 내부적인 문제로 판명남에 따라 실제 규제가 진행되지는 않았었다. 당시 수입업자들 역시 우리 기업을 두둔하였기 때문에, 러시아 제조업자들의 반대가 반드시 직접적인 수입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는 면이 있다. 그 외 조류 독감 등 전염병 발생시에 해당 지역에서 수입되는 육류에 대한 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품목	H.S. 코드	유형	비고
대구경 (Big Diameter) 파이프	7304 10 900 2,	세이프 가드	특별 관세 부과(러시아 연방 법령 제 685조 (2006.11.15)에 따라 지름 508mm 이상의 파이프에 대해서, 향후 3년간 8%의 관세를 부과하며, 2006년 12월 말 부터 발효됨. 단, 최빈국특별관세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임.
	7304 10 900 9,		
	7304 31 990 0,		
	7304 39 990 0,		
	7304 59 990 0,		
	7305 11 000 1,		
	7305 11 000 2,		
	7305 11 000 3,		
	7305 11 000 9,		
	7305 12 000 1,		
	7305 12 000 9,		
	7305 19 000 0,		
	7305 31 000 0,		
	7305 39 000 0,		
7305 90 000 0			

자료원: 러시아 경제 통상 개발부

러시아 식품감독청은 2007년 6월 18일부로 유럽 및 아시아 국가소재 일부 기업들의 식품을 수입 금지시켰다. 수입 금지 대상 기업에 우리나라 동림수산식품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입 재개 시기는 불투명하며, 여타 기업들로 확대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WTO 가입을 위한 다자간 협상을 준비중이기 때문에, 가급적 수입규제 등을 통해서 통상 마찰을 일으키려하지 않는 상황이다.

## 5. 관세제도

### 가. 관세제도 개황

수입관리제도에는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와 수입허가, 안전증명, 수입품 표시의무 등의 비관세조치로 구분된다. 수입관세에 의한 관세조치가 가장 중요한 수입관리제도로써 과도한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보호와 국가재정수입 확충이라는 두 가지 정책수단으로 활용된다.

러시아 평균 수입관세율은 13%이다. 통관 시에는 수입관세 및 소비세와 부가가치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관세 부과기준은 HS상품분류에 의거한 러시아 연방 대외경제상품 코드에 의거하여 관세율을 산정한다.

수입관세율은 원료가 최저의 관세율, 반가공품은 중간관세율, 완제품은 최고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최근 들어서는 최고관세율과 최저관세율 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관세납부는 경화나 납부 당시의 공식환율에 의한 루블화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수입가격의 역면가 조작에 의한 관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종량세 대상 품목을 도입하고, 수입관세율로 산정한 금액과 종량세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중 많은 쪽을 적용하여 관세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빈번한 수입관세 변경으로 인한 무역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타결하기 위해서 수입관세율은 6개월에 1회 이상 변경되지 못하도록 제도화 하였으며, 수입 관세인하의 경우를 제외한 관세변경은 공포 후 18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종래의 GSP 수혜방식 이 네거티브 방식에서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한편, 러시아는 2004년부터 관세절차를 간소하게 바꾸었다: 우선 세관신고 검사기간을 3일로 줄였다. 물품에 대한 사전 세관 신고 후 나중에 해당물품을 들여올 수도 있다. 이 밖에 등록 절차에 대해 세관원은 비공개되고 있는 문서 목록을 필요할 경우 정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 나. 수입 관세

러시아 정부는 편법통관을 근절시키기 위해 관세체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2001년 1월1일부로 최고세율을 기존 30%에서 20%(일부 품목은 25%)로 인하하고, 품목분류를 단순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수입물품의 매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여, 수입 시 관세납부 및 통관사실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납부양식도 변경한 상태. 특히 최근에는 대러 자동차 산업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지 공장 용도의 설비, 부품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또한 생산 설비의 수입을 통한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 러시아내 동일 제품이 생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설비류에 대해 한시적으로 무관세를 적용하는 법령을 2006년 3월에 발표 시행하고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계속적으로 기간을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러시아의 WTO 가입이 확정되면, 경쟁력이 있는 대다수의 품목의 경우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점진적인 관세 인하를 겪게 된다.

## 다. 소비세 (EXCISE TAX)

- 소비세는 사치품을 중심으로 소비감소 유도를 목적으로 한 품목에 부과되고 있는데, 이에선 에틸 알코올 주정, 주정 용액, 알코올제품, 맥주, 담배, 보석, 휘발유, 승용차 등 8가지 상품이 포함된다.
- 특기사항으로 '98.2.18일 조치로 2,500cc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소비세가 폐지되었다.
- 소비세 산출은  $CV(\text{관세가액}) \times ETR(\text{소비세율})/100$ 이다.
- 98.2.18일부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소비세가 10-20% 인상되었다.

## 라. 종가세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Invoice 금액(C&F 또는CIF)의 5%, 10%, 15%,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예) 폴리에스터 텍스춰드 원사(5402 33 0000): 관세율 10%

## 마. 종량세

통상 ECU관세라고 지칭되는 관세 유형으로 Invoice 금액의 10%, 15%, 20%, 25%, 또는 상품의 양(수량 또는 중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

### 1) 수량세

- 예) 일회용 가스라이터(9613 10 0000): 관세율 5Euro/1000pcs
- 예) 벽시계(9105 21 0000): 관세율 20%, 그러나 적어도 0.7 Euro/ pcs
- 예) 칼라 TV-화면 52cm-72cm(8528 12 6203)  
- 관세율 20%, 그러나 적어도 34 Euro/pcs

### 2) 중량세

- 예) 합성 섬유제 모포(6301 40 1000): 관세율 20%, 그러나 적어도 0.7 Euro/KG
- 예) 면제 양말(6115 92 0000): 관세율 15%, 그러나 적어도 2.0 Euro/KG
- 예) 가죽 외투(4203 10 0001): 관세율 20%, 그러나 적어도 7.0 Euro/KG

## 바. 종가 및 중량 혼합세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신발류에 적용되고 있는 방식

- 예) 가죽 운동화(6403 19 0000)  
- 관세율 15%, 그리고 1.4 Euro/pair

품 목 명	변경 전	변경 후
알코올제품(낮은알콜함량의 포도주, 음료제외)	45,000 R/L	50 R/L
포도주, 알콜도수 9%까지 음료(발포성 제외)	2,000R/L	2.4R/L
알코올 도수25%까지 리케르, 포도, 과일, 꿀 음료(발포성, 탄산음료 제외)	3,000R/L	40R/L
발포성 포도주와 샴페인	5,000R/L	6R/L
비스무스와 포도주(천연포도주, 발포성 샴페인, 탄산류 제외)	-	22.5R/L
맥주(맥주 종류 불문)	500R/L 900R/L(캔맥주)	0.6R/L
포도주, 발포성, 탄산 음료	900R/L	7R/L
에틸알콜(모든종류의 원료로 생산된, 용액)	12,000R/L	12R/L
에틸알콜(의료용, 연구, 의약품 제조용)	8,000R/L	8R/L
파이프용 담배(GOST* 담배 제외)	100,000R/L	140R/KG
파이프용 담배(GOST* 담배)	100,000R/L	13.5R/KG
담배(깍연) (원료담배 제외)	50,000R/KG	60R/KG
시가 (GOST* 담배 제외)	5,000R/piece	3R/piece
시가(GOST*담배)	5,000R/piece	1R/piece
소형 엽결련, 필터85mm이상 담배	21,000R/천pieces	25R/천pieces
필터담배(필터85mm 담배제외, GOST 1,2,3,4 등급 제외)	14,000R/천pieces	17R/천pieces
필터담배 (GOST 1,2,3등급)	10,000R/천pieces	12R/천pieces
담배 (GOST 4등급)	7,500R/천pieces	8R/천pieces
필터없는 담배	5,500R/천pieces	6R/천pieces
GOST 1등급의 마분지 물부리 있는 담배	3,000R/천pieces	4R/천pieces
보석류	판매가격의 30%	판매가의 15%
석유 (가스 응축물 포함)	55,000R/톤	55R/톤
자동차용 휘발유(옥탄가 '80'까지)	판매가의 25%	290R/톤
자동차용 휘발유(옥탄가 '80'이상)	판매가의 25%	370R/톤
승용차**	판매가의5%(2,500CC이상)	판매가의 10%

자료원: CONSECO, Rossiskaya Gazeta

주 1) \* GOST는 러시아 국정 규격을 의미함. / \*\* 승용차의 경우 종전 물품세는 판매가의 5%였으나 변경 이후 2,500CC 이상의 경우에만 물품세를 10% 부과하기로 했음.

주 2) 상기 단위 중 R은 Rouble 이며 L은 Liter임. 또 변경된 물품세율은 신화폐 루블로 표시되어 있어 종전 1,000루블이 1루블로 표시되어 있음.

## 사. 부가가치세

러시아의 부가가치세율은 18%이며, 식품 류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향후 부가세를 15%수준까지 낮출 예정이나, 정부의 제정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아직까지 재무부와 경제통상개발부사이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다.

### 아. Invoice 금액 강제 Correction 제도

현재 러시아 중앙세관 데이터베이스에는 일체의 세관신고 내용이 상세히 저장 되어 있으며, H.S.Code와 상품 별로 기준 상품가를 책정하고, 이에 미달된 상품가를 세관 신고하는 경우 강제로 기준 상품가 이상으로 Invoice 금액을 조정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징수한다.

### 자. 보따리 장사에 대한 통제 강화

러시아 정부는 세수확충과 자국산업 보호 차원에서 보따리 장사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2006년 2월 26일 보따리 상의 수입물량과 횟수를 제한하는 정부령이 발효하여, 35킬로그램 이상은 자국 내로 반입 할 수 없다. 2007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연방 경제개발 통상부 무관세 소비자품 수입품의 가격도 제한 할 것으로 현행 65,000 루블이나, 15,000 루블로 제한코자 하며, 이번 가을 회기에 국가 두마에 의해 승인 예정이다.

## 차. 중기 조세우대제도 실시

2003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중소기업들에 대한 간소화된 조세 우대제도가 실시되었다. 연간 매출액이 1천5백만 루블(약 47만 달러) 미만이고 종업원 100명 이하인 러시아 중소기업은 전체 매출액의 6% 또는 순익의 15%, 둘 중의 한 가지 방식을 택해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기업은 부가가치세, 판매세, 이윤세, 재산세 전액 및 통합 사회세 일부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모스크바 무역관에서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은행, 투자기금운용기관 및 특소세 해당 제품 생산 업체를 제외한 모든 업체이며, 단, 수입 업체의 경우 수입 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카. 단일국가자동정보시스템(EGAIS) 도입

러시아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수입되는 일부 상품들의 제품번호(시리얼 넘버)를 세관신고서에 기입하도록 의무화 했다. 2006년 12월 12일자 러시아 관세청 훈령 제1302호에 의해 통관신청서에 제품번호기업이 의무화된 상품은 육류, 포도주, 알범, 직물, 컴프레서, 냉장고, 모니터, 컴퓨터, 자판기, 재봉기, 손목시계, 약기 등 총 125개 품목(군)에 달한다.

수입물품을 유통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들은 “항상 새로운 제도가 가져왔듯이 도입 초기에는 많은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히 제품 판매매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판매중인 제품과 관련 서류를 대조하여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 6. 주요인증제도

### □ GOST(“국가표준규격”이라는 뜻)

- 제도의 성격: 강제인증제도
- 규제 지역: 러시아 전역
- 적용 대상 품목: 아동용품, 식품, 직물, 전기/전자제품, 수송설비, 가구 등이 품질 인증 제도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음. 세부 품목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음.
  - 아동용품, 식품, 의료용품, 화장용품, 향수, 세면용 비누, 섬유 제품, 봉제품, 가죽용품, 신발용품, 건축자재,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장비 등
  - 카펫을 포함한 가구 전반
  -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 전반(전기, 연료, 윤활유 포함)
  - 스포츠 용품, 보트, 사냥 및 낚시 용품
  - 승용차, 모터사이클, 자전거 및 부속품
  - 경작을 위한 도구, 설비, 위생용품 전반
- 개인 보호용품 전반(테스터, 콘트롤러, 구조용품, 소화장비 포함)
- 주관 기관
  - 주관 기관명: 러시아 국가표준 위원회(GOSSTANDART)

- 운영 체계: GOSSTANDART는 자체 조직을 통해 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부속기관, 위임을 부여한 기관을 통해서도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음. 한편, 인증에 필요한 항목 중에서 CE 등 다른 인증에서 이미 통과한 경우에는 GOST 인증시 해당 항목에 대해서 면제를 해준다.
- 한국 주재 관련 검사/시험 기관
  - 산업자원부 관련 검사/시험 기관(산업기술시험원 외국 인증팀) : tel) 02-860-1455
  - 한국 주재 공인 인증 기관(CTR Far East) : tel) 02-709-4580
- 아울러, 러시아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통관, 운송 업체에 문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증 기간은 품목에 따라 차이를 보이거나 약 2주 정도에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 7.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 1) 지적재산권 제도 개황

러시아내에서 지적재산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지만 상표권 등을 제때에 등록해둬으로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러시아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불법해적판근절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2006년 이후 러시아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내에서 흔히 불법 복제물이 판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2006년 12월에는 러시아 연방 민법이 개정되면서, 그 동안 상표법, 특허법 등 개별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통제되어오던 방식에서 민법에서 전체 통합 법률안을 통해서 통제가 되도록 결정되었다. 동 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법적인 효력을 가지게 된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WTO 가입 협상과정에서 계속 중요한 협상 주제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다자간 협상에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2) 특허권

러시아 특허법은 1992년 9월 23일 채택됐으며, 총 8절 (37조)로 구성돼 있음. 특허권 신청 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르며, 특허 관련 국제 조약으로는 1883년 산업 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 협정, 1973년 특허협약 (CONTRACT ABOUT PATENT COOPERATION), 1994년 유라시아 특허 협정, 세계무역기구(WTO) 무역 관련 지식 재산권 협정(TRIPS) 이 있다.

특허권은 러시아 특허 및 상표국 (Rospatent) 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할 수 있으며,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은 개인과 법인에게 주어지게 된다.

개인은 러시아 시민, 러시아국적을 지닌 2중국적자, 외국인, 무국적자를 의미하며, 만 14세 미만의 개인명의로 특허 발급 신청 시에는 부모 혹은 법적 후견인이 법적 대리인으로 모든 절차를 수행한다. 법인은 러시아 법인뿐 아니라, 외국법인도 동일한 권한을 지닐 수 있다.

발명특허는 20년 동안 유효하며, 실용신안은 5년간 유효하며, 특허권자가 신청할 경우 3년까지 연장될 수 있고, 의장에 대한 특허권은 10년으로 특허권자가 신청 시 5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특허권의 양도는 Rospatent 를 통하여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차에 걸쳐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신청서 작성, 특허 설명서, 청사진, 도표, 필요한 경우에는 사진 및 도안 제출 후 Rospatent 의 심의를 거치며, 18개월 후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신청된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발표하며, 특허권 발급하기 전까지 임시 특허권을 발급한다.

임시 특허권 상태에서는 특허권을 사용할 경우는 별도의 계약이 없으면, 정식 특허권이 발급된 이후에 소급해서 특허사용료를 지불한다.

## □ 특허 심의 절차

심의는 형식 심의와 본 심의가 있다.

형식 심의 단계에서는 서류가 구비여부와 그에 따른 요구 조건을 충족했는가에 대한 심의이며, 형식 심의 단계에서 통과 하면, 결과가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서류 미비의 경우 특허청은 2개월 이내 서류를 보완할 것을 통보하며, 이 기간 내에 서류 보완을 하지 못하면 신청서는 기각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신청인 혹은 이해 관계인이 관계 당국에 청원을 하거나, 18개월 이내 형식 심의 단계를 통과하면 본 심의에 착수하게 된다.

본 심의에 착수 후 6개월 내에 본 심의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발송한다.

그러나 본심의 중 필요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의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인이 관계 당국의 불승인에 대한 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6개월 이내에 러시아 국립 특허 분쟁 전담 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은 관계 당국에 자신의 특허와 관계된 모든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신청 시 관계당국은 1개월 내에 신청인에게 복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 한국은 한국발명특허협회(KOTRA INVENTION AND PATENT ASSOCIATION)를 통해 등록할 수 있다.
  - 주 소 : 강남구 삼성동 143-19
  - 전 화 : 02-557-1077~8 / 팩 스 : 02-554-1532
  
- 러시아 특허청
  - 주 소 : 123995, Berezhkovskaya Nab., Dom 30, Korpus 1, Moscow, Russia
  - 전 화 : 7-495-240-60-15
  - E-mail: rospatent@rupto.ru
  - 홈페이지: <http://www.rupto.ru>

### 3) 상호, 상표 등록법

상호는 국가 등록소에 등록 이후 상호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며, 상호권을 지닌 회사는 자신의 상호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도 주어진다. 상호권은 무기한으로 러시아 전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산업 재산권에 관한 파리 협정 제8조에 따라 협정서에 조인한 모든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 등록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에 등록(Rospatent)이 필요한데, 신청서를 Ros patent 에 제출하고, 이를 연방 산업재산권 연구소(Rospatent산하)에서 심의한다. 신청서 제출은 신청인 본인(개인, 혹은 법인)이 직접 할 수도 있으며, 변리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으나, 개인 혹은 법인이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경우 변리사를 통해서만 처리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인에서 상표에 관한 권한이 주어지며, 파리협정 조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파리협정 조인국에서도 상표에 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1달은 Rospatent의 형식상 심의단계로서 필요 서류가 구비됐는지 점검하며, 다음 단계에서는 본격적 심의로 이 단계에서 상표등록여부가 결정되는데, 등록 거부 시 해당업체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호, 상표 등록 또한 특허청에서 관할한다.

- 한편, 상표권 관련 사례로서 스타벅스의 예를 들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진행과정을 겪었다.
  - 1997년: 미국 스타벅스사 러시아에 상표권 등록
  - 2002년: 러시아 PRESS社에서 커피류에 등록된 스타벅스상표 등록 말소신청. 러시아에 자신의 상표를 등록하여 놓았으나, 연속적으로 3년간 사용하지 않았고, 제3자가 등록 말소신청을 할 경우, 등록이 말소된다는 법령을 근거로 말소시킴.
  - 2004년: 러시아 PRESS社에서 다른 상품군에 등록되어 있는 STARBUCKS 상표 무효화 신청
  - 2005년 7월: 미국 STARBUCKS社 러시아국립특허분쟁 전담기관에 러시아 PRESS社의 권한 무효를 요청
  - 2005. 8월: 러시아 중재법원은 러시아 국립 특허분쟁 전담기관에 대해 러시아 PRESS사의 권한 무효 금지 명령을 내렸고, 러시아 PRESS社は 미국 STARBUCKS에 대해서 특허사용료 60만불을 요구하였음.
  - 2006. 3월: 러시아기업 윤리연합회는 러시아 PRESS社의 행위를 비윤리적 행위로 단정하고, 기업가협회 등 관련 회원사에게 동사와의 협력을 하지 않도록 권고.
  - 2006년: 최종 법원 판결에서 스타벅스 승소
  - 2007년 9월: 1호 매장 개설

### 4) 저작권

러시아 법에서는 저작권과 인접권으로 나누어 문학, 학문, 예술 창작에 관한 권리와 공연, 상영,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방영권 등에 대한 권리를 규율하고 있다. 러시아 저작권 및 인접권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유효 하며, 인접권은 그 기간이 20년 짧은 저작자 사후 50년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관할 행정기관: Russian Agency of Intellectual property (Strastnoy Boulevard, 5, tel : 7-495-203-3777)

## □ 소비자보호제도

### 1) 소비자보호 개황

법적 근거는 소비자의 권리보호법(1992.2.7)으로 러시아어 표기 의무화, 강제인증제도 등이 이 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 2) 소비자의 권리

상품은 소비자의 생명, 건강 및 재산에 위험을 주어서는 안되며 위험을 주는 경우에는 생산이 중지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의 서비스 조건과 보증기간 등에 관해 통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일정한 범주의 모든 수입 상품은 안전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소비자나 환경에 해로운 상품은 거래를 중지해야 하고 손해는 보상 되어야 한다. 소비자는 제조업체나 취급기관(상품 분류, 서비스 시간, 판매규칙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입수할 권리가 있다.

### 3) 손해보상 절차

소비자가 품질이 불량한 상품을 구입했을 때에는 불량부품을 무료로 제거 하거나 그러한 제거비용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가격을 깎을 수가 있으며 상품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다. 영수증이나 보증서를 가지고 보증기간 내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으며, 보증 기간은 구매 또는 제조일자로부터 가산한다. 상품을 바꾸면 보증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상품을 바꿀 수 있는 일반적인 기간은 20일이다. 상품을 판매한 기관이나 제조업체가 손해보상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상품가격의 1%에 해당하는 추가 벌금을 위자료로 지불해야 한다. 분쟁이 양측의 평화적인 합의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4) 소비자권리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 RF State committee for Anti-monopoly policy and Supporting new economic structures
  - Moscow, Vernadskogo ave., 41,
  - Tel: +7(495)-434-27-47
- RF State committee on standardization, methodology and certification
  - Moscow, Lenin ave., 9,
  - Tel: +7(495)-236-62-08
- RF State committee on sanitary-epidemiological control
  - Moscow, Vadkovsky lane., 18/20.
  - Tel: +7(495)-289-30-63
- Ministry of Ecology and natural Resources
  - Moscow, B. Gzuzinskaya 1,
  - Tel : +7(495)-254-76-83
- Russian Society for Protection of consumers rights (public Organization)
  - Moscow, Solianka str., 9a. block 1.
  - Tel: +7(495)-923-27-31

## 8. 통관/운송

### 가. 통관절차

러시아 정부는 2004년 1월 1일부로 新관세법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의 관세법은 수많은 하위 법령·예규 등으로 인해, 수출입업 종사자들에 적지않은 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신관세법의 시행은 기존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던 제도들을 통합/간소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03년 5월 29일 동 법안에 서명하였고, 그 후 약 7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 □ 통관 관련업 규제 완화

보세 운송업자, 보세창고 운영업자, 임시장치 보세창고 운영업자, 관세사(Customs Broker) 등 통관 관련업자들은 기존에 러시아 관세위원회 명부에 등록이 되어야 영업을 할 수 있었음. 러시아 정부는 통관 관련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만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통관절차의 간소화

- 세관 통관 처리기간 단축: 기존 10일 이내 → 3일 이내, 만약에 과세가격 등이 확정되지 않아 반출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예탁하는 조건으로 우선 반출할 수 있음.
- 세관 행정의 투명화: 신고에 필요한 서류 목록 명시, 세관의 자의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구하지 못함.
- 3년 이상 수입업을 영위하고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수입업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간이통관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보세창고 지정제도 폐지: 기존에는 세관이 보세창고를 지정했지만, 新관세법에서는 이러한 지정제도를 폐지하였음. 통관 신고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연방 법률에 규정된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보세 운송 통로를 세관에 사후에 신고만 하면 됨.
- 세관 선택의 자유: 통관 신고자가 어느 세관에서든 통관을 할 수 있게 됨. 기존에는 통관 신고자의 주소지에 있는 세관에서만 통관을 할 수 있었음.
- 통관물품 도착 전 사전 통관신고는 관세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함.
- 종전 통관 신고 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던 것을 물품 반출 시에 납부하도록 관세납부 시한을 연장하였음. 특정한 경우에는 반출 이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나 보증이 필요함.

## □ 회색 통관에 대한 단속 강화

최근 WTO가입을 앞두고 통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휴대폰,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의 품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 러시아 정부는 현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있는 관세 및 부가세를 점차적으로 인하할 방침이며, 이에 대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불법 통관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내업체의 경우 정상 통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 운송

### 1) 극동 러시아·중부 러시아 화물 운송

#### □ 운송 루트

컨테이너 화물을 기준으로 볼 때,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 港과 블라디보스톡 港을 거점으로 내륙으로 화물이 운송된다. 우리나라에서 러시아 항구까지는 해상운송으로, 항구에서 내륙으로는 TSR(시베리아 횡단 철도)을 통해 운송된다.

#### □ 화물 통관 방법

- 1안: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 港 도착 → 철도에 환적 하기 전에 수화주 혹은 수화주 대리인에 의해서 수입 통관 → 러시아 내국 화물 자격으로 운송
- 2안: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 港 도착 → 보세운송 허가를 받아,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 → 목적지의 세관에서 통관 절차 진행(통관 장소는 수화주가 결정할 수 있음)
  - 철도 운송료는 화물의 철도 환적 전 통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18%가 책정되거나 면제된다. 수입통관을 거친 화물의 경우 18%의 부가세가 면제되며, 목적지에서 통관이 예정되어 있는 화물의 경우 18%의 부가세를 더하여 철도 운송료가 계산된다.
- 3안: 블라디보스톡·보스토치니 港 도착 → 국내 운송업체들이 현지 협력자들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통해 내륙 운송 가능
  - 3안의 경우 항구 인근 지역(하바로프스크 지역 등)으로의 운송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 2) 서부 러시아 화물 운송

#### □ 운송 루트

- 1안
  - 운항 경로: 부산 CY→보스토치니 港(선박: 530mile=1,074 km)→모스크바(철도: 9,336 km)
  - 소요 기간: 러시아 직교역 화물로 모스크바에 직접 반입까지 40일
- 2안
  - 운항 경로: 부산 CY → 독일 함부르크 港(선박 이용) → 핀란드 하미나 港(선박 이용) → 모스크바(트럭 이용)
  - 소요 기간: 부산에서 하미나까지 4일 (총 항로 19,800 km)

○ 3안

- 운항 경로: 부산 CY → 보스토치니 港(선박 이용) → 핀란드 하미나(철도: 12,200 km)
- 소요 기간: 부산에서 하미나까지 25일 (부산-보스토치니 1.5일, 보스토치니 통관 1.5일, 보스토치니 wagon 대기 7일, 보스토치니-하미나 15일)

### 3) 러시아 화물 운송이 자주 지연되는 이유?

#### □ 운송 시기를 잘 선정해야

한국에서 러시아로 운송되는 화물의 대다수는 극동 지방을 통해서 운송이 된다. 그러나 연초에는 혹한으로 인하여, 터미널에서 수하 작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안전상의 이유로 근무 시간이 단축 되기도 한다. 이로 인하여 화물 운행에 큰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에 2-3배 운송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한다. 아울러, 한국에서 수입되는 물품 중에 제품에 대한 표기를 잘못하거나, 관세를 적게 지불하기 위해 품목을 바꾸는 회색 통관 제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집중 감시 대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 러시아로 화물 운송 후 다시 제3국으로

한국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는 화물 중에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다시 핀란드 보세창고로 운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얼핏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로이다. 러시아로 수출을 하는데, 왜 다시 제3국으로 물건을 돌리는 것일까? 국내 주요 가전제품의 수출 경로를 예를들어 이와 같은 화물운송 경로의 실체를 알아보기로 하겠다.

#### □ 한국 가전제품의 위력

러시아에서 한국 가전제품은 최고의 인기 품목이다. 모두 알다시피,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현재 러시아에서 불티나게 가전제품을 팔고 있다. 현재 러시아 시장에서 한국 가전제품의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러시아 시장에서 수입품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러시아 정부의 관세수입 또한 증가되어야 함이 당연한 이치이다. 하지만, 한국 가전제품은 예외라고 할 수 있다.

#### □ 러시아 딜러들만의 관세율

한국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러시아 딜러들은 핀란드의 자유 무역지대에 창고를 임차하여 그곳에다 가전제품을 저장해 놓는다. 한국 판매 기업은 계약을 체결할 때, 창고 인도 조건으로 판매를 한다. 즉, 수많은 한국 가전제품들이 러시아로 수출되고 있지만, 러시아 내에서 과세의 근거가 될 판매 자료는 어디에도 없게 되는 것이다.

일단 가전제품이 핀란드 보세창고에 들어가고 나면, 러시아 딜러들의 상술이 발휘된다. 러시아 딜러들은 자신들의 사업에 충분한 이득을 줄 수 있는 수입 관세를 협상하고 나서, 핀란드-러시아 국경 통과 시 협상세금을 납부하고 통관을 마친다.

러시아 딜러들은 러시아 정부 당국/세무당국과 초대형 경제 집단이라는 설이 있을 정도로 이들의 영향력은 막강하다. 이들 세금 도둑들은 매년 1월 세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잠정적으로 화물 운송이 중단된다고 한다.

## □ 부패로 얼룩져있던 세관 행정과 푸틴의 개혁

이상에서 보았던 사례는 러시아 세관과 세관 행정이 얼마나 부패 했었던 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2004년 1월 1일부로 러시아는 新관세법을 시행하고 있다. 푸틴 정부는 기존의 불합리했던 통관절차를 합리적이고 선진화된 제도로 탈바꿈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러시아 정부의 노력은 선진 경제로 부상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자, 러시아의 대외 무역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이다. 러시아 정부의 개혁의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해 본다.

### 4) 운임 수준 소개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현재 실행되고 있는 운임 수준을 소개한다. 본 운임표는 국내 한 운송업체의 운임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운송업체에 따라 운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컨테이너를 배차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한 가지는 선사가 제공하는 COC(CARRIER'S ON CONTAINER) 기기에다 화물을 적재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화주가 직접 중고 시장에서 구입하여 화물을 적재하는 SOC(SHIPPER'S ON CONTAINER) 방법이다. 해상 운임은 COC에 비해 SOC가 45% 정도 낮으며, 철도 요금도 SOC가 약 20% 정도 낮게 책정 된다. 한편 2006년 시베리아철도 운임이 크게 인상되었으나, 아직까지 다른 운송에 비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감소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 IV. 투자

### 1. 투자환경

#### 가. 투자 장려 분야

1999년 7월 발효된 외국인 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의 보장, 수용 및 법령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량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외국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복잡한 관행으로 러시아의 투자환경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투자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

대러 투자 장려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특정 산업을 거론하기 보다는 세금특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우선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투자우선 프로젝트/기업은 ①첨단상품, 수입대체상품, 민수전환사업 ②외국인 투자액 합계가 10억 루블 이상인 프로젝트 또 외국인이 1억 루블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합작 기업이다. 다만 우대여부는 경제개발통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리스트는 없다. 투자우선 프로젝트/기업의 보상기간은 순이익 누계와 총지출간의 차이가 흑자를 기록하였을 때까지이며 단 7년 이내이다.

일반적인 인센티브로는 러시아에서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총투자규모 1억 달러 이상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기업은 최대 5년까지 수입관세 50% 감면된다. 기타 이종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조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현재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업종은 외국투자보호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이나 지방정부에 우대세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 각종우대조치

제조설비 투자는, 지방정부가 일정기간 동안 기업이윤세나 지방세에 대한 우대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각 우대조치에는 법인세 감면,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설비기계 등 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조치가 포함된다.

각 지방정부에서 규모가 큰 제조투자의 경우, 지방세를 우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 정부와 교섭하는 편이 좋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그들 우대세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적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교섭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28일 부 모스크바의 주법 「모스크바 주의 세제우대에 대해서」 에서는, 자본금 3만 달러 이상의 회사가 1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공장의 신규설비에 투자할 경우나 기존 공장의 설비 갱신을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에 당초 3년간, 법인세 중에서 지방정부에 납세할 부분의 면제, 재산세의 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규정. 그러나 이 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지방정부와 개별로 우대세제의 내용을 교섭하고 조인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등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기업이윤세(지방세) 경감 등의 세제우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2002년 1월 1일, 법인세가 35%에서 24%로 인하되어, 구주 각국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2005년부터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을 계획하여, 입주 업체를 모집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세금 감면, 행정 처리 간소화 등의 이익을 주고 있다. 그러나 품목에 따라서는 동 지역에서의 생산이 물류, 유통 측면에 이점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지방 정부와 투자 협력을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 나. 외국인 참여 제한 분야

모든 기업지분의 인수는 연방금융시장국에 등록 되어야 하며, 20%를 초과하는 지분취득은 연방반독점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법령, 포고령에 의하거나 또는 지배주주의 자격으로, 가스, 전력 등 전략적 분야와 민감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 1) 천연가스

Gazprom 지분 통합에 관한 대통령령 제1020호(1999.8.19)는 Gazprom (천연가스 산업 독점 국영기업)과 그 자회사 지분의 외국인 보유한도를 20%로 제한하는 한편, 정부의 최소 보유 지분은 종전 30%에서 38%로 높였다. 또한 동 포고령에 따라 비거주자 조직은 미국증시 예탁 증서 (American depositary receipts: ADRs)만을 구입할 수 있고, 국내 주식 취득은 금지 되어 있다.

## 2) 전력

1998년 제정된 국영 전력회사인 통합 전력시스템(Unified Energy System: UES) 및 다른 국영 에너지 회사의 지분처분 규정에 관한 연방법(제74-FZ호)은 UES의 외국인 지분소유 한도는 25%로 제한하며, 국가는 51%의 지분을 보유토록 규정 하였다. 그러나 동법이 아직 발효되지 않아 외국인의 UES 지분보유 규모는 3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UES의 발전, 송전, 배전 분야를 분할하고 시장 자유화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력 분야 구조 조정은 여러 차례의 지연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빨라야 2007년경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 3) 민간항공

1998년 항공산업발전법에 기초한 민간항공법은 외국인의 지분 보유 한도를 민항기 제조사의 경우 25%, 민간 항공사의 경우 49%로 제한하였으며, 합작기업의 대표는 러시아인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이사회 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경제개발통상부는 민항기 제조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늘리는 법규 개정 추진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법규개정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민항기 제조면허를 신청하는 외국기업이 국내에 설립되는 민항기 제조사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외국기업은 자신이 25%이상의 지분을 갖는 별도의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이 국내기업을 구매 대행사로 하여 25% 지분한도 규정을 피하고 있다. 민간 항공법은 이런 방식의 외국인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우회방식을 활용한 민항기 제조면허 발급 사례가 있다. 그러나 면허 발급기관인 Rosaviakosmos는 방침을 바꾸어 이런 우회 방식의 면허 발급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 4) 다이아몬드 광산

귀금속류에 관한 연방법(제41-FZ호, 1998. 3. 26)은 다이아몬드광산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합계를 소수지분(5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중앙 및 지방정부와 다이아몬드, 귀금속 광산에 대한 계약서명에 관한 특별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5) 은행

외국기업이 러시아 은행 및 여신기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은행 지분을 1% 이상 매입할 경우 중앙은행에 통지해야 하며, 20% 이상 지분 취득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앙은행법(제86-FZ호, 2002. 7. 10.) 18조에 따라 중앙은행은 외국자본의 은행부문 진출 조건을 정하고, 진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현재 중앙은행은 12%의 지분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러시아 중앙은행은 한도 확대를 고려 중이다.

## 6) 보험

보험업 조직에 관한 연방법(제204-FZ호, 1999. 11. 20)은 외국보험회사의 자회사 또는 외국 투자자가 49%이상 지분을 가진 러시아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강제사회보험, 각급 정부조직의 재산에 대한 보험의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추진으로 보험업에 대한 외국기업 진출제한이 완화되고 있는데, 2003년 12월 보험법 개정을 통해 EU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EU역외 기업은 EU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 진출이 가능함. 현재 외국기업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외국자본의 참여 한도를 보험산업 전체 자본의 25%로 제한하는 곳이다.

## 7) 언론/방송

러시아 연방 매스미디어 법(제107-FZ호, 2001. 8. 4)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외국법인이 50%이상 지분을 소유한 러시아 법인, 이중 국적자 등의 러시아 내 텔레비전 방송국 설립 및 프로그램 공급이 금지되며, 89개 지방 자치 단체의 절반 이상 또는 전 인구의 절반 이상에 TV전파를 발송하는 기업설립도 금지 된다. 또한, 동법은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미디어 기업의 지분 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 8) 토지

농지 거래법(제101-FZ호, 2002. 7. 24)에 따라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리스는 가능함. 외국인이 지분의 50%이상을 소유한 러시아 기업에도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 일반 토지의 경우 외국인의 소유가 가능하다. 한편, 모스크바시의 경우 아직 토지가 사유화 되지 않은 상태이다.

### □ 건축관련 허가

기업은 공장 건설, 확장 등에 있어 지역, 환경, 건축, 위생, 소방,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모스크바의 경우, 통상 3단계(1단계 디자인 개념, 2단계 상세계획, 3단계 최종검토 등)의 사전 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프로젝트의 성격, 지역, 관할 단체와의 관계 등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설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건설 예상 기간을 여유있게 두고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 부동산 취득

러시아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토지에 비해 건물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편이다. 러시아 민법은 건물 사용 및 매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해 동등한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19993)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 9조는 토지의 사유 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연방토지법 (제136-FZ호, 2001. 10. 25)은 비농업용 토지의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상업적 토지시장 형성의 토대가 되었으며, 토지를 대출 담보나 현물출자 자산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연방토지법이 제정되기 전 일부 지방 정부는 토지 소유권 및 토지매매의 허용 등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토지관련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연방 토지법은 기존 지방 정부의 규정에 우선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제도 및 규정이 연방 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소유의 토지가 입찰 또는 경매방식으로 개인이나 민간법인에 양도될 수 있다. 단, 해당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이 있는 경우는 건물 및 시설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신규 개발 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어 입찰이 요구되지 않는다.

농지 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및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 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한편, 러시아 민법이나 토지법은 비농업용 토지의 임차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토지 임차권은 49년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연방 민영화법은 국가 및 지방 정부 소유 토지의 임차기간을 49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농업용 토지의 최장 임차기간은 49년이다. 또한, 일반적 제한으로서 농업용 토지는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대상이 될 수 있다.

#### 다. 국산품 및 내국인 고용 조건

생산물 분배법은 러시아 법인에 하청계약자로서 계약수행을 위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러시아 관계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노동자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음. 설비생산 주문의 최소 70%는 러시아 기업이나 러시아에 납세자로 등록된 외국기업이 담당해야 하며, 고용 인력의 80%는 러시아인이어야 한다.

정부령 531호(1993)는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계약의 경우 30%이상을 국내 하청 계약자에게 할당하고, 우선적으로 국내 자재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중앙은행규칙 제02-195호(1997. 4. 23)는 외국인 소유 은행 등록의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인력의 75%는 러시아인이어야 하며, 외국인이 대표이사 직위를 차지하는 경우 이사회회의 50%는 러시아 인이 차지해야 한다. 또한, 본사 파견 이사 중 최소 1명은 러시아어 업무수행이 가능할 만큼 러시아어에 능통(공인된 입증서류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이 참여한 보험 회사는 대표이사과 선임회계사는 러시아인이어야 한다.

#### 라. 러시아에서 면허취득이 필요한 사업유형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개인 탐정 및 보안 서비스	내무부
무기 및 군수품 거래	
무기 및 군수품 전시	
무기 및 군수품 수집	
무기 및 군수품 습득	내무부 산하 지방 기관
군수품 생산 및 관련기술 분야의 지적 활동 결과물을 외국인에게 양도(전달)	법무부
무기 개발, 생산, 수리 및 재활용	일반 무기청, 항공 및 우주청, 조선청, 제시스템청, 군수청
무기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탄약 카트리지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군수청
군수품 재활용 관련 개발, 제조	군수청
폭죽 제조	
IV, V 등급의 폭죽 보급	
화학무기의 보관, 이동, 재활용과 관련된 일	

러시아 국민의 해외 취업 알선	내무부	
의약품 및 의료기구 유통	보건부	
의료서비스		
의약품 관련 서비스		
의약품 및 향정신제 물질의 개발, 제조, 가공, 보관 운반, 유통, 판매, 습득, 사용 및 재활용		
전염병 병원균의 사용이 필요한 활동		
제약	산업과학기술부	
의료기기 제작		
의료기기의 기술적 보수, 유지		
살균제, 살충제 제조	관련 기관	
수의(獸醫) 서비스		
감정(鑑定) 행위	자산부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 복원	문화부	
담배 제조	국세부	
에틸알코올, 알코올 함유 제품의 제조, 구매, 보관 및 공급, 에틸알코올이 재료로 쓰이는 기타 활동		
알코올 제품 소매 영업	관련 기관	
환경 유해 쓰레기와 관련된 활동	천연자원부	
하층토, 숲, 식물, 동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사용		
각종 data carrier를 활용한 오디오녹음, 비디오녹화	출판, 미디어부, 문화부	
극장에서의 필름 공개 상영	관련 기관	
철도 운송 관련 수리, 유지	철도부	
철도 승객 및 화물 운반		
모터 차량을 이용한 승객 및 화물의 국제 운송	교통부	
승객 및 화물 해상 운송		
승객 및 화물 내륙 수상 운송		
3.5톤 이상의 모터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송		
택시운송업		
해양항구와 내륙항에서의 화물 적재 및 하역		
해양항구에서의 선박 검사		
선박 예인		
8명 이상용 모터차량을 이용한 승객운송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및 화물 운송		
항공기 유지, 보수		
경제분야에서의 항공기 사용과 관련된 활동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상황부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기 조립, 수립, 서비스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사용	긴급상황부, 광업 및 기술검사청	
의약품 및 향정신제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식물 재배	관련 기관	
가축 사육		
최고급 종자 재배	농업부	
곡물 및 곡물제품 저장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상황부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기 조립, 수립, 서비스		
화재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사용	긴급상황부, 광업 및 기술검사청	
의약품 및 향정신제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식물 재배	관련 기관	
가축 사육		
최고급 종자 재배	농업부	
곡물 및 곡물제품 저장		
인공보철물과 정형외과적 서비스	노동부	
비(非)정부 연금기금 활동		
위조보호장치가 필요한 출판물(주식 등) 인쇄	재무부	
감사활동		
관광, 여행 관련 활동업	경제개발통상부	

발전 또는 난방 네트워크	발전부
정유, 가스처리	
석유, 가스 그 제품 운송	
석유, 가스 및 그 제품 저장 또는 판매	
도박 등의 조직 및 활동	국가 스포츠 위원회
측량기기 제조 및 수리	국가 표준위원회
건축디자인, I, II 등급의 건물건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또는 건축	국가 건축위원회
어류 및 기타 수중생물 채취 및 운송	국가 어업 위원회
유추열 펀드 운용	연방 주식시장 위원회
유추열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관리	
유추열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수탁자 운용	
주식시장에서의 직업적인 활동(브로커, 딜러 등)	
은행 영업	중앙은행
물품교환 거래	반독점부 산하 상품교환위원회
선물 및 옵션 중개행위	
보험	재무부
대지 측량	연방 대지측량과 지도제작국
지도제작	
수문기상 및 지구물리학적 현상 수정을 위한 작업	연방 수문기상 및 환경 모니터링국
수문기상학 및 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활동	
폭발물질 제조, 보관, 사용 및 유통	군수청, 광업 및 기술검사청
폭발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이용	광업 및 기술검사청
화학적으로 위험한 제품 생산시설의 이용	
석유, 가스용 운송 파이프라인 이용	
산업안전 감정(鑑定)	
광산 조사	우주청
우주탐사활동	
우주기술의 개발, 제작 및 테스트	우주청, 교통부
우주용 제품의 수리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에 의한 정보도청제품을 위한 특정 기구의 향후 재판매를 위한 개발, 제조, 판매 및 인수	연방보안국
정보 도청을 위한 전자장치의 탐지활동	연방보안국,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비밀정보의 기술적 보호	국가 기술 위원회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생산	국가 기술 위원회,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국가 안전에 속하는 정보의 사용을 수반한 작업	연방보안국 및 지방사무소, 외국에 소재한 러시아의 정보기관
국가 기밀 보호 관련 활동	국가 기술 위원회,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연방보안국
암호 관련 제품 유통, 암호기기 보수, 유지, 정보암호화 서비스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암호기기 개발 및 생산	
디지털 서명키 인증서발급, 디지털 서명권자의 등록등	관련 기관
철, 비철금속 스크랩의 수집, 보유, 판매	
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활동	통신부
TV, 라디오 방송(위성방송 포함)	국가 관세위원회
보세창고 창설	
면세점 창설	
자유세관 창고 창설	
세관 지역내 제품 가공	
세관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제품 가공	
임시보관 창고 창설	
세관 브로커 활동	
공증업	법무 관련 기관
수출통제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외국이전	경제개발통상부
교육	교육부
원자력을 이용한 분야에서의 활동	원자력 통제 사찰단

## 마. 투자형태의 결정

100%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할 것인가, 아니면 러시아 파트너와 합작으로 합작 투자 기업을 설립할 것인가, 단순히 모기업의 지사를 설립할 것인가 또는 외국인 지분이 없는 기 설립된 기업의 주식매입(즉 사유화에의 참여) 혹은 전기업의 매입으로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

## 바. 예비심사 및 사전조사

대규모 건축 및 재건축 프로젝트 등과 관련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러시아연방외국인투자 기본법 제 14조에 따라 설립 전에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별한 경우는 위생 및 병역 담당기관이나 생태계 관련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서 1개 공화국 이상에 생태학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관련 공화국의 합동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영기업의 사유화(민영화)에 참여하는 형태로 투자하고자 할 때에는 참여 이전에 다음 사항을 필히 사전조사·확인해야 안전하다.

즉 국유재산관리위원회가 동사유화 대상기업의 사유화를 승인하였는지 여부, 동 기업의 사유화가 이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집단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지 여부 및 노동자의 사유화 참여가 허용되고 있는 지 여부, 사유화 대상 기업의 구조를 실사하기 위한 주주협정문, 회사정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주식이 발행되어 지방 정부의 재무성에 등록되어 있는지의 여부, 양수될 주식 증서의 발행 여부, 사유화 대상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가 동 기업의 자산에 포함 되어 있는지의 여부, 동 기업의 시설현황, 동 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국내외 잠재 시장 성과 노동자 및 관리층 의 근무현황 등을 검토해야 한다.

## 사. 파트너 선정

합작기업 설립에 있어 사실상 가장 중요한 문제는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다. 파트너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파트너에 대한 신용조사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할 때에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현지 신용 평가 기관을 통한 조사 혹은 사립 탐정을 통한 조사도 가능하다.

- 재력(현금 동원 능력, 기타 출자 능력)
- 과거의 경력과 현재의 신뢰도
- 합작을 희망하는 진짜 의도
- 관계 및 재계에 대한 영향력

## 아. 자산평가

외국인은 현물이나 현금의 형태로 투자할 수 있으며 특허권 등의 지적소유권도 투자 가능하다. 설립자본에 대한 평가가 회사설립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러시아연방 외국인 투자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자본에 대한 평가는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기준가격이 없을 경우 출자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 출자액은 외화를 루블화로 환산하여 결정하는데, 이때 중앙銀行이 고시한 환율을 기준으로 루블화로 재 산정한다.

## 자. 회사설립 및 국가에의 등록

회사의 설립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투자기본법제15조). 즉 설립 목적, 활동 범위, 투자자, 법정자본의 규모 및 조달과정, 투자자 지분, 경영기구 및 구성, 통제 관계, 의사결정 절차, 만장일치를 요하는 주제, 기업청산 절차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가. 對러시아 외국인 투자 추이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의 가장 큰 장점은 거대한 시장규모(인구 1억4천 3백만, 구 소련 CIS국가 인구 포함 시 2억5천만 명), 저렴한 노동력 등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관료들의 태도와 법과 제도의 불투명성 등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장애요소 제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 연도별 외국인 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연 도	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	총계
1996년	2,440	128	4,402	6,970
1997년	5,333	681	6,281	12,295
1998년	3,361	191	8,221	11,773
1999년	4,260	31	5,269	9,560
2000년	4,429	145	6,384	10,958
2001년	3,980	451	9,827	14,258
2002년	4,002	472	15,306	19,780
2003년	6,781	401	22,517	29,699
2004년	9,420	333	30,756	40,509
2005년	13,072	453	40,126	53,651
2006년	13,678	3,182	38,249	55,109

자료원: 러시아 통계위원회

한편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A.T.Kearney가 세계 60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직접 투자(FDI) 매력도 조사에서 러시아의 순위가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A. T. Kearney가 대형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들을 대상으로 조사대상 60개국 중 향후 3년 이내 투자 의향을 묻고 해당 국가에 평점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설문 대상자는 세계 34개국, 24개 업종, 1,000개 업체의 최고경영자, 이사회 임원, CFO들이었다.

2005년 조사 결과, 러시아는 투자 유망 25개국에 6위로 가장 순위 상승률이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위에서 올해 6위로 5계단이나 상승했다. 러시아의 투자 매력도가 상승한 것은, 파리클럽 채무의 조기상환 미국과 EU로부터 '시장 경제 지위'를 획득 하는 등 국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됐으며, 푸틴 정부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속으로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다국적 기업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06년도에는 러시아 정부에서 특별경제구역(SEZ)를 추가적으로 모스크바 인근, 타타르스탄 등 6개 지역에 설치할 것을 발표하고 나노, 신소재, 원자핵 등 연구분야와 가전 등 생산 분야를 대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 중인데, 아직까지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완전 가동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투자 매력도 조사 결과

순위	국가	평점	순위	국가	평점
1	중국	2.197	14	프랑스	1.097
2	인도	1.951	15	일본	1.082
3	미국	1.420	16	멕시코	1.080
4	영국	1.398	17	스페인	1.075
5	폴란드	1.363	18	싱가포르	1.072
6	러시아	1.341	19	이태리	1.055
7	브라질	1.336	20	타일랜드	1.050
8	오스트리아	1.276	21	캐나다	1.040
9	독일	1.267	22	두바이	1.039
10	홍콩	1.208	23	한국	1.036
11	헝가리	1.157	24	중앙아시아	1.030
12	체코	1.136	25	루마니아	1.017
13	터키	1.133			

자료원: A.T. Kearney

이렇게 해외 대형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WTO 가입이 실현된다면 줄곧 감소세에 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향후에는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2007년 1-9월 산업별 외국인 투자액

(단위: 백만 달러, %)

	2007.1-9월	2007.9월 기준누계	비중
총계	87,936	197,796	100
농업	245	1,161	0,6
어업	13	164	0,1
광업	15,169	44,064	22,3
제조업	21,603	59,387	30,0
기초자원(전력,가스,수력생산)	236	1,102	0,6
건축업	1,094	1,972	1,0
유통서비스업	37,207	49,923	25,2
숙박요식업	32	345	0,2
운송통신	5,725	15,699	7,9
금융업	2,152	7,014	3,5
부동산업	4,236	15,886	8,0
공공서비스	3	47	0,0
교육	2	6	0,0
의료복지산업	39	110	0,1
기타	180	916	0,5

자료원: 경제개발통상발전부

#### 나. 주요 국 별 對러 투자 현황

사이프러스, 네덜란드, 독일, 영국, 미국, 프랑스는 2007년 9월 기준 러시아의 주요 투자국이다. 2007년 9월 누계 기준 가장 큰 대러 투자국은 사이프러스로 391억 달러에 달하며, 다음으로 네덜란드가 359억 달러, 룩셈부르크가 302억 달러, 영국이 241억 달러, 독일이 114억 달러 순이다.

그러나 투자국 별 수치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은 투자국으로 1위를 차지한 룩셈부르크와 사이프러스에 대한 지표이다. 룩셈부르크와 사이프러스의 지표가 이들 국가의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투자 관심도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다. 유럽 혹은 기타 국가들의 자본이 사이프러스 혹은 룩셈부르크의 지부를 통해서 러시아로 투자되기 때문에 국가별 투자액에서 우세한 순위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국가별 외국인 투자 누적액

(단위: 백만 달러)

	2007년 9월까지 누계					2007.1-9월 투자액
	총	%	직접	포트폴리오	기타	
총 투자액	197,796	100	87,806	4,203	105,792	87,936
사이프러스	39,122	19.8	27,362	1,603	10,159	11,881
네덜란드	35,977	18.2	32,230	51	3,696	17,270
룩셈부르크	30,282	15.3	735	219	29,328	8,123
영국	24,178	12.2	3,192	194	20,792	20,729
독일	11,455	5.8	3,830	90	7,535	3,447
미국	8,041	4.1	3,643	950	3,4483	1,989
아일랜드	6,404	3.2	589	0.3	5,815	4,412

자료원: 러시아 통계청

#### 다. 주요 국 별 對러 투자 현황

러시아 외국 자동차 시장이 연간 100만대 시장이 되고, 중산층의 구매력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러시아 현지 조립 공장 설립을 발표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주요 생산자별 투자 프로젝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조사	투자금액(백만\$)	생산시기(연도)	연간생산대수(모델)	투자지역
포드	230	2002	66,500 (Focus)	Vsevolozhsk, (St.Petersburg)
GMAvto VAZ 합자회사	332	2002	75,000(Chevrolet Niva,Viva)	Tolyatti
르노	250	2005	60,000 (Logan)	Moscow
토요타	140.5	2007	50,000 (Camry 등)	Shushary (St.Petersburg)
폭스바겐	480	2007	115,000 ( Passat, Skoda Fabia)	Kaluga
니산	200	2009	50,000	St-Petersburg
GM	115	2009	25,000 ( Chevrolet Captiva)	St-Petersburg
푸조, 시트로엥	250	2009	60,000-80,000 ( Citroen C4, Peugeot-307)	N/A
ZAZ, Bogdan (우크라이나회사)	300	2009	120,000-160,000 ( Chevrolet Lanos, Aveo)	Nihzny Novgorod region
체리(중국), Avtotor (Kaliningrad)합자회사	300	N/A	N/A(Amulet)	Kaliningrad
장성(중국)	85	2007	50,000 (Great Wall Hover)	Tatarstan
GM-Avtotor	84	N/A	60,000(Chevrolet Lacetti)	Kaliningrad

포드, GM, 르노 등은 이미 러시아에서 차량 생산 중이며, 그 외 회사들 역시 조만간 생산 예정인데, 선정 지역에 있어서는 많은 회사들이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 상트페테르부르크(St-Petersburg) 등 항구가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물류비용 등을 절감하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계 회사인 체리, 장성 등도 투자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러시아내에 중산층의 경우 아직까지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것이 큰 구매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 AbtoBAZ사의 신형 승용차인 NIVA KALINA의 경우 가격도 판매가격이 만 달러를 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역시 러시아에 대규모 투자를 하였는데, 코카콜라는 러시아에서 11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 유통량은 240억 달러이며, 이중 15억 달러는 러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 러시아 사마라 코카콜라 공장의 생산규모는 2006년 550만 세트(1세트=12리터)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총 생산량 중 11%에 해당하며, '피알메니지먼트'사는 2007년 사마라 지부에 대한 전체 투자가 약 6000만 달러 규모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다.

코카콜라는 그 동안 러시아에 공장건설, 유통시스템의 개발 등에 8억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회사 직원은 6600여 명에 달한다. 지난 3월 26일 러시아 코카콜라 클라이드 타글 지사장은 로스토프주의 정부기관과 만나 구체적인 투자계획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하였고, 지사장은 지난 2월 이타르-타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향후 5~8년 동안 3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코카콜라는 새로운 공장 설립지로 러시아 로스토프주의 아조프 지역을 선택하였으며, 공장은 콜라음료 외에도 각종 주스를 생산할 것이라 한다. 공장부지로 총 18헥타르가 책정되어 있으며, 생산규모는 연간 3억 리터로 추산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장은 동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로 착공될 예정이며, 투자 규모가 1억 달러에 달한다. 공장 설립에 따라 600~1000여 개의 신규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주정부는 공장 건립과 함께 도로 건설을 시행할 계획이다. 더욱이 주 정부는 상·하수도 시설 등 관련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공장 설립지로 선정된 로스토프나돈 지역은 음료 주문량이 증가하였으며,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이 있는 소치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등 장점이 많은 지역으로 평가하고 있다. 로스토프 주 경제부의 한 관리는 코카콜라사의 남부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현재 몇몇 공장부지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아울러, 로스토프주의 아조프지역 쿨레소브카 마을지역에 공장이 위치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였으나, 부지선정에 따른 계약은 아직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펩시 역시 러시아 투자 확대를 전망하고 있는데, 펩시는 러시아 남부 지역으로의 진출을 모색하는 가운데 특히 로스토프주의 시장성 검토와 함께 모스크바에 지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하였으며, 펩시의 알렉산드르 샤린네프 부사장은 러시아내 사업지역 확대계획을 언급한바 있다. 그러나 투자 계획 시행까지는 좀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펩시는 물류의 최적화를 고려하여 모스크바주의 도모데도프 지역에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고 있다. 공장 건설과 더불어 펩시는 사라토프주에 Frito Lay 칩 과자 공장의 건립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드미트리 첸초프 마케팅 이사는 생산 공장의 추가 건설에 따른 투자 확대는 러시아 음료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에 기인하며, 투자로 인한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건설붐에 따라서 주요 건설자재 회사의 현지 진출 발표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 3. 우리기업 투자동향

#### 가. 한국의 對 러시아 투자 추이

다른 경제지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투자부문에 있어서도 한-러 관계는 97년과 98년 양국의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상당한 침체를 겪었다. 한국의 對 러 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수교 이후 對 러 투자가 건수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 금액 면에서는 92년 이후 불과 5년 사이에 13배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침체되었던 對 러 투자는 최근 들어 되살아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코야, 오리온 등 식품분야에 진출을 중심으로 확대되어온 우리나라의 대 러투자는 최근에는 LG전자의 현지 공장 건설,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현대자동차 상용차 진출 등 대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견 기업들로 투자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007년 9월에 롯데백화점이 모스크바 중심부에 백화점 및 비즈니스센터를 건설하여 유통분야에 대한 진출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KP화학이 타타르스탄에 공장 건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대차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한국의 對 러 투자 동향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9	2	480	2	480
1990	4	8,781	0	0
1991	9	9,539	14	17,244
1992	17	7,386	11	3,247
1993	28	4,943	16	3,041
1994	37	52,427	37	27,257
1995	29	51,618	62	31,028
1996	41	72,037	38	41,356
1997	24	33,642	21	8,423
1998	15	34,771	10	35,365
1999	10	3,376	13	830
2000	14	10,151	22	3,152
2001	16	21,191	38	6,889
2002	23	46,571	40	23,932
2003	35	10,293	43	19,863
2004	29	90,485	72	25,340
2005	49	69,312	85	34,929
2006	44	99,716	76	102,533
2007년 10월	89	298,144	102	140,350
<b>Total</b>	<b>515</b>	<b>924,863</b>	<b>702</b>	<b>515,260</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나. 한국의 對 러시아 투자진출 분야

□ 주요 업종별 對러 투자 동향

농림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4	2	820	2	150
1995	3	2,580	4	1,400
1996	3	240	7	773
1997	2	1,969	2	730
1998	0	0	0	0
1999	1	39	1	39
2000	2	1,047	2	248
2001	2	335	5	110
2002	4	235	18	250
2003	17	4,377	21	1,132
2004	11	5,640	51	3,694
2005	10	7,277	36	7,606
2006	7	6,724	13	4,442
2007년10월	9	10,031	19	8,633
<b>Total</b>	<b>73</b>	<b>41,313</b>	<b>181</b>	<b>29,207</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어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2	4	1,964	4	1,250
1993	2	1,630	2	219
1994	5	19,440	6	1,239
1995	1	250	12	770
1996	0	0	0	0
1997	1	30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0	0	0	0
2003	1	0	0	0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1	1,000	1	1,000
2007년10월	3	7	3	7
<b>Total</b>	<b>20</b>	<b>24,851</b>	<b>31</b>	<b>4,745</b>

**광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6	2	25,140	1	25,121
1997	0	0	0	0
1998	2	3,944	2	3,944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0	0	0	0
2003	0	0	0	0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년10월	11	58,176	16	44,230
<b>Total</b>	<b>15</b>	<b>87,260</b>	<b>19</b>	<b>73,295</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제조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0	3	8,364	0	0
1991	6	9,149	11	17,088
1992	7	3,116	4	397
1993	9	1,215	5	1,548
1994	9	11,616	17	6,710
1995	18	33,277	17	9,735
1996	10	1,454	6	10,379
1997	14	3,943	13	675
1998	3	1,427	2	115
1999	6	1,407	10	591
2000	9	6,298	14	1,663
2001	10	2,821	31	1,589
2002	7	767	11	721
2003	10	4,556	11	2,321
2004	7	77,193	12	14,896
2005	18	45,049	24	17,614
2006	19	24,681	30	30,615
2007년10월	18	183,402	16	55,597
<b>Total</b>	<b>174</b>	<b>419,829</b>	<b>234</b>	<b>177,163</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건설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6	1	104	1	104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1	2	0	0
2003	0	0	0	0
2004	5	952	2	50
2005	3	9,250	3	4,450
2006	5	6,255	4	3,755
2007년10월	7	9,210	8	1,538
<b>Total</b>	<b>22</b>	<b>25,773</b>	<b>18</b>	<b>9,897</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도소매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89	2	480	2	480
1990	0	0	0	0
1991	1	75	0	0
1992	3	325	1	50
1993	15	1,860	9	1,275
1994	10	3,571	5	128
1995	7	1,437	12	1,617
1996	18	2,706	18	1,903
1997	3	7,670	4	1,020
1998	3	865	3	1,531
1999	3	1,930	2	200
2000	2	2,450	5	884
2001	2	35	1	190
2002	2	200	2	152
2003	1	100	0	0
2004	3	6,450	4	6,450
2005	8	2,353	6	1,064
2006	5	56,806	14	57,163
2007년10월	16	23,789	16	22,578
<b>Total</b>	<b>105</b>	<b>113,102</b>	<b>100</b>	<b>96,685</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운수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4	1	55	0	0
1995	0	0	0	0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1	58	0	0
2003	0	0	0	0
2004	0	0	0	0
2005	1	500	1	500
2006	3	3,420	2	3,410
2007년10월	0	0	0	0
<b>Total</b>	<b>6</b>	<b>4,033</b>	<b>3</b>	<b>3,910</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 통신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5	5	8,924	8	6,955
1996	3	1,704	8	3,016
1997	1	13,260	0	0
1998	1	5,220	1	10,260
1999	0	0	0	0
2000	1	357	1	357
2001	2	18,000	1	5,000
2002	0	0	1	2,500
2003	0	0	0	0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년10월	1	15	1	15
<b>Total</b>	<b>14</b>	<b>47,480</b>	<b>21</b>	<b>28,103</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숙박음식점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1	1	200	0	0
1992	0	0	1	50
1993	1	150	0	0
1994	6	14,360	5	3,478
1995	2	5,150	7	10,032
1996	4	40,000	0	0
1997	2	6,000	2	6,000
1998	5	3,315	1	315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3	27,000	3	12,000
2003	0	0	0	10,500
2004	0	0	0	0
2005	5	4,030	9	2,680
2006	0	0	8	1,335
2007년 10월	2	600	1	100
<b>Total</b>	<b>31</b>	<b>100,804</b>	<b>40</b>	<b>46,489</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부동산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1	1	117	3	156
1992	2	1,912	1	1,500
1993	0	0	0	0
1994	2	2,000	1	500
1995	0	0	2	520
1996	2	690	0	0
1997	1	500	0	0
1998	1	20,000	1	19,20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2	18,000	2	8,000
2003	0	0	1	5,000
2004	0	0	0	0
2005	0	0	0	0
2006	1	710	2	695
2007년 10월	13	8,967	16	6,394
<b>Total</b>	<b>28</b>	<b>53,525</b>	<b>31</b>	<b>42,390</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사업서비스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2	1	70	0	0
1993	1	90	0	0
1994	1	266	1	188
1995	0	0	0	0
1996	0	0	0	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1	50	1	50
2003	0	0	0	0
2004	0	0	0	0
2005	1	30	3	30
2006	2	120	2	120
2007년10월	8	3,447	5	1,045
<b>Total</b>	<b>15</b>	<b>4,073</b>	<b>12</b>	<b>1,433</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2003	1	510	2	510
2004	0	0	0	0
2005	1	510	1	510
2006	0	0	0	0
2007년10월	1	500	1	214
<b>Total</b>	<b>3</b>	<b>1,520</b>	<b>4</b>	<b>1,234</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공공, 수리, 개인서비스업

(단위: 건, US\$ 천)

연도	신고건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1994	1	300	0	0
1995	0	0	0	0
1996	0	0	1	60
1997	0	0	0	0
1998	0	0	0	0
1999	0	0	0	0
2000	0	0	0	0
2001	0	0	0	0
2002	0	0	0	0
2003	5	750	4	400
2004	3	250	3	250
2005	0	0	0	0
2006	0	0	0	0
2007년10월	0	0	0	0
<b>Total</b>	<b>9</b>	<b>1,300</b>	<b>8</b>	<b>710</b>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 주요 투자 기업 현황

한국 기업 對 러시아 투자 현황

(괄호 안은 한국 직원)

회사명	투자업종	제품	진출 연도	종업원
오리온노보시비르스 크 사무소	도·소매(무역업)	파이, 과자류 등 식품 유통	2004	5(1)
제이엔제이 인터내셔널	도·소매(무역업)	종이, 필름	2005	3(1)
코러스	도·소매(무역업)	인쇄포장 기자재 및 각종 필름, 종이류	2000	3(2)
정앤파트너스	서비스업	이민 법무, 기업 법무, 부동산 법무, 지적재산권 법무, 행정 법무, 송무, 세관 및 회계 업무		11(1)
그린 로지텍스	운수, 창고업	운송(CommercialCargo)	1998	20(2)
대구경북섬유직물 공업협동조합	도·소매(무역업)	의류 원단, 패션 및 작업용장갑, 기타 섬유관련모든 품목	2005	2(1)
대우인터내셔널 모스크바사무소	도·소매(무역업)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1990	13(4)
대우전자	도·소매(무역업)	가전제품, 통신기기, 서비스	1993	30(6)
대한항공 모스크바지점	운수,창고업, 항공운송업	여객, 화물 운송	1990	11(4)
득금상사 모스크바사무소	도·소매(무역업)	Polyester Textile	1993	8(2)
라닉스	도·소매(무역업)	시계, 잡화	1995	20(3)
(주)라임하우스	도·소매(무역업)	면도기, 매니큐어 및 패티큐어세트	1995	
로약스	도·소매(무역업)	디지털 비디오 감시장비, 카메라, 지문인식기, 행남 도자기, 국내산 전통주 등	1997	22(1)
롯데상사 모스크바사무소	도·소매(무역업)	기계류, 제과제품	1995	4(2)
삼성물산(건설부문) 모스크바사무소	건설업	주택건설 등	1992	10(3)
삼성물산 모스크바사무소	도·소매(무역업)	철강, 비철, 전자부품, 화학, 프로젝트, 기타	1989	15(4)
삼성전자 모스크바사무소	도·소매(무역업)	가전제품,통신기기,서비스	1990	30(13)
서중물류	운수, 창고업	컨테이너 및 Bulk 운송, 항공, 화물, 창고업, 통관 및 기타 물류 관련업	2003	3(1)
SIBTRANSTORG	서비스업	여행사	1996	
알파텍스	도·소매(무역업)	직물(폴리에스테르)	1994	
SK네트웍	도·소매(무역업)	에너지, 화학, 금속관련 무역	1990	5(1)
에코비스	운수, 창고업	서비스, 화물, 운송, 통관	1992	20(4)
LG상사 모스크바사무소	도·소매(무역업)	원자재, 기계, 항공, 화학 식품, Project, 케이블	1990	20(4)

LG전자 모스크바사무소	제조업	가전제품 및 멀티 미디어	1990	46(24)
LG전자상트베제르부 르그 사무소	제조업	가전제품 및 멀티 미디어		15(4)
LG화학	제조업	화학제품	2004	6(2)
오리온모스크바 사무소	도·소매(무역업)	초코파이, 식품류	1995	17(4)
오션파설	제조업	오피스용품제조, 필름제조	2002	12(1)
우리은행	금융, 보험업	은행	2003	2(1)
우진 세렉스	도·소매(무역업)	사출기기 판매	2002	0(4)
우진트랜스	운수, 창고업, 서비스업	통관, 운송 (내륙, 항공), 이삿짐	1994	15(1)
웨스트그룹스트로이	건설업	건물 신축, 개축, 사무실 내장, 설비, 전기	1997	8(3)
유니코 로지스틱스	운수, 창고업	운송 (Commercial Cargo)	2002	6(1)
유니패스	운수, 창고업		2001	
유포토스	제조업	앨범	1995	240(1)
㈜이오알	도·소매(무역업)	인쇄포장기자재, 자동차용 필름, 건축용 필름	1991	
㈜인트라	도·소매(무역업)	의료, 건설, 사출, 압출 관련 비즈니스, 지사화전문 대행업	2001	2(1)
진로루스푸드㈜	제조업	가공만두생산 및 판매	1995	23(1)
㈜천지해운러시아연 방대표사무소	운수, 창고업	컨테이너 및 Bulk 운송, 항공, 화물, 창고업, 통관 및 기타 물류 관련업	2002	2(2)
카스	제조업	전자저울, 센서	1994	45(3)
케이. 이. 씨	도·소매(무역업)	무역컨설팅	1991	6(1)
KT	통신업	정보통신투자사업, IT관련 SI/ NI 사업	2005	2(1)
㈜케이피케미칼	도·소매(무역업)	PET Chip 등	2002	3(2)
코리안비즈니스 발전지원재단	부동산, 임대사업	비즈니스 센터임대	1995	28(1)
코어세스	도·소매(무역업)	지점	2002	6(1)
㈜테라테크	도·소매(무역업)	IT제품류, 디스플레이 시스템	2000	8(3)
한국관광공사	기타 공공, 사회, 개인서비스업	관광진흥	2001	4(3)
한국석유공사	광업	자원개발	2005	1(1)
한국수출보험공사	금융, 보험업	수출보험 서비스	2003	0(1)
한국수출입은행	금융, 보험업	은행	2002	1(2)
한국야크르트 모스크바사무소	도·소매(무역업)	라면	1999	2(6)
한양여행사	운수, 창고업, 여행업	여행관련 전분야 및 무역업	1991	7(1)
현대상사	도·소매(무역업)	무역	1990	
현대상선㈜	운수, 창고업		2001	2(1)

호수인터내셔널	도·소매(무역업)	굴삭기, 로더, 펌프카, 브레이커 및 각종 어태치, 부품	2002	
(주)효성모스크바사무소	도·소매(무역업)	합성수지, 전자, 일반상품	1992	8(2)
남양 알로에	농림업	황금작물 경작 및 수출	2002	30(2)
Negatsiant Eor	도·소매(무역업)	인쇄지		2(1)
다우스틸	도·소매(무역업)	고철	1996	3(1)
대한항공	운수, 창고업, 서비스업	항공여객서비스	1995	
동서 로지스틱스	운수, 창고업, 서비스업	포워딩 서비스	1999	
동춘항운	운수, 창고업, 서비스업	해상운송	2000	1(1)
자라	서비스업	여행사	1999	5(2)
레스미르	건설업	목재, 철강		
로만	제조업	가구		
룩키	도·소매(무역업)	중고차량	1999	3(1)
롯데상사	도·소매(무역업)	과자류	2000	3(2)
미진	제조업	의류(면바지, 티셔츠)	1993	420(6)
베료자 퍼시픽	기타			
삼성전자	도·소매(무역업)	전자제품	1995	8(1)
세븐 마운틴	기타 공공, 사회, 개인서비스업	선박, 외항선사	2001	5(1)
세인트자수	제조업	의류(니트웨어, 스웨터)	1999	54(4)
아그로 상생	농림업	콩, 벼 재배	1999	200(10)
아러스	제조업	의류제조	2000	959(9)
아시아나 항공	운수, 창고업	항공여객서비스		
아시아나항공 (사할린)	운수, 창고업	항공여객서비스		3(1)
SH Bolshoi	제조업	티 셔츠 생산	2001	430(6)
F.C.M	도·소매(무역업)			
NTC	통신업, 서비스업	유무선 통신	1998	180(3)
LG전자	도·소매(무역업)	가전제품	2000	10(1)
우정마을	농림어업, 제조업	쌀, 메일 생산	1998	
Inter Sadko	도·소매(무역업)	건축자재		
JNC Metal	도·소매(무역업)	철강, 원목		
JOY	도·소매(무역업)	무역		
티엔에이	도·소매(무역업)	각종 소비재		
파낙스	도·소매(무역업)	무역	1992	10(1)
한국 야쿠르트	도·소매(무역업)	라면, 음료 및스낵	1997	3(2)
호텔현대블라디 보스톡비즈니스센터	부동산, 임대사업, 서비스업	호텔, 사무실 임대	1997	341(4)
휘닉스	제조업	가구	1990	30(1)

자료원: 모스크바 무역관,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 4. 주요 투자법 내용

### 가. 외국인 투자법 개요

러시아 외국인 투자법은 1991년도 소비에트 외국인 투자법 이후 1999년도에 전면 재개정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99년 7월 발효된 외국인 투자법은 내/외국인 동등원칙, 영업활동 및 과실송금의 보장, 수용 및 법령 개폐로 인한 손해 보상, 우선 투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방정부의 인센티브 제공 재량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외국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복잡한 관행으로 러시아의 투자환경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투자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장애로 여겨지고 있다.

대러 투자 장려 분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특정 산업을 거론하기 보다는 세금 특혜를 받을 수 있는 투자우선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투자우선 프로젝트/기업은 ①첨단상품, 수입대체상품, 민수전환사업 ②외국인 투자액 합계가 10억 루블 이상인 프로젝트 또 외국인이 1억 루블 이상의 자본금을 투자한 합작 기업이다. 다만 우대 여부는 경제개발통상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투자우선 프로젝트에 대한 명확한 리스트는 없다. 투자우선 프로젝트/기업의 보상기간은 순이익 누계와 총 지출간의 차이가 흑자를 기록하였을 때까지이며 단 7년 이내이다.

일반적인 인센티브로는 러시아에서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총투자규모 1억 달러 이상이며 그 중 외국인 투자가 1,000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 기업은 최대 5년까지 수입관세 50% 감면된다. 기타 이종과세방지협정에 따른 조세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현재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는 업종은 외국 투자보호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개별적으로 대통령령이나 지방정부에 우대 세제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 □ 각종 우대 조치

제조 설비 투자는, 지방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이윤 稅나 지방세에 대한 우대稅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다. 각 우대 조치에는 법인세 감면, 원재료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 설비 기계 등 자본재 수입에 관한 우대 조치가 포함된다.

각 지방 정부에서 규모가 큰 제조 투자의 경우, 지방세를 우대하는 사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 정부와 교섭하는 편이 좋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그들 우대 세제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어 있지만, 적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교섭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면, 1997년 7월 28일 부 모스크바 주의 주법 「모스크바 주의 세제 우대에 대해서」에서는, 자본금 3만 달러 이상의 회사가 100만 달러 이상의 금액을 공장의 신규 설비에 투자할 경우나 기존 공장의 설비 갱신을 목적으로 투자할 경우에 당초 3년간, 법인세 중에서 지방 정부에 납세할 부분의 면제, 자산세의 면제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규정. 그러나 이 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지방 정부와 개별로 우대 세제의 내용을 교섭하고 조인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 등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기업 이윤세(지방세) 경감 등의 세제 우대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다. 2002년 1월 1일, 법인세가 35%에서 24%로 인하되어, 구주 각국과 비교해도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다.

#### □ 투자매력도

러시아는 구소련 당시의 중공업 우선 정책의 결과 현재 소비재의 절반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의 자원 보유국이자 1억 5천여만 명의 소비시장을 구성하고 있어 경공업 분야와 에너지, 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외국인 투자 유치는 러시아 정부의 우선 과제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 경제로부터 시장 경제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불완전한 법률 체계, 관료들의 부패와 과중한 조세 부담을 투자에 있어 최대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 하고 있다.

1991년 제정된 외국인 투자법은 1999년 4월 23일 개정되었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자국민과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었다. 1997년부터 국제 시장에 대한 외국인 참여를 허용 하였다.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대한 제한이 있다. 외국계 은행이 러시아에서 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 은행이 발급한 라이선스가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 은행 자본금에서 외국계 은행들의 총 자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재 이 비중은 4.6% 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전략 산업체의 경우 외국계 지분을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 □ 투자 진출시 유의사항

투자 진출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 중의 하나는 올바른 파트너 선정이다. 러시아 파트너는 현지에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 해결 및 전국적인 기존의 판매망 활용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각종 활동의 문서화가 필요하다. 합작 파트너와의 분쟁은 쌍방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법원의 재판을 통한 해결은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리고 실효성도 적다. 러시아어 문서는 통역원의 말만 의존하지 말고 제3자에게 확인한 후에 서명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적절한 아이템의 선정 및 철저한 시장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임을 고려할 때 경기에 영향을 적게 타는 품목일수록 좋다고 하겠다.

#### □ 투자유치정책

러시아 정부는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외국 투자 유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복잡한 관행으로 러시아의 투자 환경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구 소련 시절에 외국 투자자들에게 제공되었던 특혜가 일부 철폐되었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 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2005년 자동차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현지 공장 조립용 설비 및 부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는 등 개선 조치가 보이고 있다.

## □ 외국인 투자 유치 현황

2006년 대러 외국인 투자 누적액은 1,977억 달러에 달했으며, 2006년 한해 투자액은 551억 달러 (전년 대비 2.6% 증가) 이다. 산업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료 및 자원 산업이며, 부동산 중개업, 소매 유통 업계, 자동차 및 오토바이 수리 관련 업계, 담배 및 음료를 포함하는 식품 제조업 등도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러시아의 가장 큰 장점은 거대한 시장규모(인구 1억4300만명, 구소련 CIS국가 인구 포함 2억 5천만명), 저렴한 노동력 등이 있으나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관료들의 태도와 법과 제도의 불투명성 등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이러한 투자 장애요소 제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한편 미국의 컨설팅 업체인 A.T.Kearney가 2005년 세계 60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직접투자(FDI) 매력도 조사에서 러시아는 투자 유망 25개국 중 6위로 순위 상승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투자 매력도가 크게 상승한 이유는 파리 클럽 채무의 조기상환과 더불어 미국과 EU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는 등 국가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었으며 푸틴 정부의 경제 개혁 프로그램 지속으로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이라는 다국적 기업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2006년도에는 러시아 정부에서 모스크바 인근, 타타르스탄 등 6개 지역에 특별 경제구역(SEZ)을 설치할 것을 발표하고 나노, 신소재, 원자핵 등의 연구 분야와 가전 등의 생산 분야를 대상으로 입주업체를 모집중에 있다. 2007년 2월에 추가로 7개 관광휴양 SEZ을 지정 발표하였다.

## □ 투자유치관련 법규

- 외국인 투자 기본법 ('91.7.4) (1999.4.23 개정)
- 외국 투자자와의 협정에 관한 법률 ('93.7.21)
- 외국인 투자업무 개선에 관한 대통령령 ('93.9.27)
- 러시아 헌법에 따른 법규의 조정에 관한 대통령령 ('93.12.24)
- 러연방 개인투자에 관한 대통령령 ('94.9.17)
- 물질 생산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외국투자 유치에 관한 추가적 조치 (대통령령, '95.1.26)
- 생산물 분배법 ('95.1.26): 러시아 자원 개발 관련 기본법 등이 있다.

## □ 외국인 투자법 중 보장된 활동

- 적법한 결과로 발생한 소득의 대외 송금
- 이윤의 재투자예의 사용
- 루블화 구좌를 사용하여 외환을 매입
- FORCE MAJEUR(불가항력) 이외의 상황하에서 외국투자자산의 국유화 및 징발 금지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경우 보상을 해주어야 함)

## □ 투자우대제도

1억 루블 이상 투자 시에만 투자 허가 의무화이며, 이익금을 적립 기금 조성용 이전 시 비과세 한다. (단, 이전 비율은 전 이익금의 50% 초과 불가, 적립금 규모는 납입 자본금의 25% 초과 불가). 100% 외국 기업은 종업원 임금의 자유 결정이 가능하며, 생산 능력의 증강, 보수, 복구 등에 사용되는 이익금은 비과세(단, 석유 및 석탄 생산, 의료기기 생산, 의약품 생산, 식품 및 소비재 생산 기업에 한함)이다.

합작 기업이 투자액의 30% 범위 내에서 이익금을 환경 보호 및 복구 사업비로 집행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며, 자유경제지구(FEZ)에서의 외국인 투자는 등록 절차의 단순화(투자 규모가 7500만 루블 미만인 경우 즉각 등록), 낮은 세율 혜택(송금세, 토지 및 천연자원 이용세, 수출입 관세 등에서), 행정 절차의 간소화(국경통과 절차 및 출입국시) 등의 우대 조치를 받는다.

재투자에 사용할 경우 이윤세를 면제(이윤의 50%까지 허용) 받으며, \$1억 이상 투자 시 자사 제품의 대 러시아 수입시 관세를 5년간 1/2 감면 받는다.

러시아 정부는 중기 프로그램으로 비원자재 수출을 확대하고 중-고급 가공 상업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할 추진하고 있다. 원자재 산업 부문에서 가공 산업 부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원자재 산업부문과 가공산업 부문의 재정(조세)부담의 재분배를 추진하고 있다.

## 나. 투자 장려/제한/금지 분야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투자를 장려하는 분야는 없으며, 모든 기업 지분의 인수는 연방 금융국에 등록 되어야 한다. 특히, 20%를 초과하는 지분 취득은 연방 반독점국(Federal Anti-monopoly Service)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 정부는 법령, 포고령에 의하거나 또는 지배 주주의 자격으로, 가스, 전력 등 전략적 분야와 민감 분야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 취득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제한 및 금지 분야는 다음과 같다

### 1) 천연가스

Gazprom 지분 통합에 관한 대통령령 제1020호(1999.8.19)는 Gazprom(천연가스 산업 독점 국영기업)과 그 자회사 지분의 외국인 보유 한도를 20%로 제한하는 한편, 정부의 최소 보유 지분은 종전 30%에서 38%로 높였다. 또한 동 포고령에 따라 비거주자 조직은 미국 증시 예탁 증서 (American depositary receipts: ADRs)만을 구입할 수 있고, 국내 주식 취득은 금지 되어 있다.

### 2) 전력

1998년 제정된 국영 전력 회사인 통합 전력 시스템(Unified Energy System: UES) 및 다른 국영 에너지 회사의 지분 처분 규정에 관한 연방법(제74-FZ호)은 UES의 외국인 지분 소유 한도는 25%로 제한하며, 국가는 51%의 지분을 보유토록 규정 하였다. 현재 UES의 발전, 송전, 배전 분야를 분할하고 시장 자유화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력 분야 구조 조정은 여러 차례의 지연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빨라야 2007년경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 3) 민간항공

1998년 항공 산업 발전법에 기초한 민간 항공법은 민항기 제조사의 경우 외국인의 지분 보유 한도를 25%, 민간 항공사의 경우 49%로 제한하였으며, 합작 기업의 대표는 러시아 인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이사회 구성원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경제 개발 통상부는 민항기 제조사의 외국인 지분 한도를 49%로 늘리는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법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민항기 제조 면허를 신청하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설립되는 민항기 제조사 지분의 25%를 보유하고, 외국 기업은 자신이 25%이상의 지분을 갖는 별도의 국내 법인을 설립해서 이 국내 기업을 구매 대행사로 하여 25% 지분 한도 규정을 피하고 있다. 민간 항공법은 이런 방식의 외국인 참여를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우회 방식을 활용한 민항기 제조 면허 발급 사례가 있다. 그러나 면허 발급 기관인 Rosaviakosmos는 방침을 바꾸어 이런 우회 방식의 면허 발급을 금지할 것으로 보인다.

### 4) 다이아몬드 광산

귀 금속류에 관한 연방법(제41-FZ호, 1998. 3. 26)은 다이아몬드광산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 합계를 소수 지분(5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동법은 중앙 및 지방 정부와 다이아몬드, 귀금속 광산에 대한 계약 서명에 관한 특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 5) 은행

외국 기업이 러시아 은행 및 여신 기관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중앙 은행의 허가가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1년 12월 정부와 중앙 은행간 체결된 은행 개혁 전략에 따라 사전 허가 없이 10% 미만의 지분 취득을 허용하고 있으나, 10%이상의 지분 취득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중앙은행법(제86-FZ호, 2002. 7. 10.) 18조에 따라 중앙 은행은 외국자본의 은행 부문 진출 조건을 정하고, 진출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러시아 은행 지분 1% 이상을 취득할 경우에는 중앙은행에 통보해야 하며, 20% 이상 지분 취득시에는 중앙은행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중앙 은행은 12%의 지분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 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러시아 중앙은행은 한도 확대를 고려 중이다.

### 6) 보험

보험업 조직에 관한 연방법(제204-FZ호, 1999. 11. 20)은 외국 보험회사의 자회사 또는 외국 투자자가 49% 이상 지분을 가진 러시아 기업의 자회사에 대해서는 생명보험, 강제 사회보험, 각급 정부 조직의 재산에 대한 보험의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WTO 가입 추진으로 보험업에 대한 외국 기업 진출 제한이 완화되고 있는데, 2003년 12월 보험법 개정을 통해 EU 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이 현지 자회사 설립을 통해 보험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EU역외 기업은 EU내 자회사 설립을 통한 우회 진출이 가능하다. 현재 외국 기업에 대한 유일한 제한은 외국 자본의 참여 한도를 보험 산업 전체 자본의 25%로 제한하는 곳이다.

## 7) 언론/방송

러시아 연방 매스미디어 법(제107-FZ호, 2001. 8. 4)은 매스미디어에 대한 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고 있다. 동 법에 따르면 외국법인, 외국 법인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러시아 법인, 이중 국적자 등의 러시아 내 텔레비전 방송국 설립 및 프로그램 공급이 금지되며, 89개 지방 자치 단체의 절반 이상 또는 전 인구의 절반 이상에 TV전파를 발송하는 기업 설립도 금지 된다.

또한, 동법은 외국인 지분이 50%를 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미디어 기업의 지분 이동을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 8) 토지

농지 거래법(제101-FZ호, 2002. 7. 24)에 따라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단지 리스는 가능함. 외국인이 지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러시아 기업에도 동일 요건이 적용된다.

### 러시아에서 면허 취득이 필요한 사업유형

사업 유형	면허발급기관
개인 탐정 및 보안 서비스	내무부
무기 및 군수품 거래	
무기 및 군수품 전시	
무기 및 군수품 수집	
무기 및 군수품 습득	내무부 산하 지방 기관
군수품 생산 및 관련기술 분야의 지적 활동 결과물을 외국인에게 양도(전달)	법무부
무기 개발, 생산, 수리 및 재활용	일반무기청, 항공 및 우주청, 조선청, 제시스템청, 군수청
무기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탄약 카트리지 및 주요 부품 제조	일반무기청, 군수청
군수품 재활용 관련 개발, 제조	군수청
폭죽 제조	
IV, V 등급의 폭죽 보급	
화학무기의 보관, 이동, 재활용과 관련된 일	
러시아 국민의 해외 취업 알선	내무부
의약품 및 의료기구 유통	보건부
의료서비스	
의약품 관련 서비스	
의약품 및 항정신제 물질의 개발, 제조, 가공, 보관 운반, 유통, 판매, 습득, 사용 및 재활용	
전염병 병원균의 사용이 필요한 활동	
계약	산업과학기술부
의료기기 제작	
의료기기의 기술적 보수, 유지	
살균제, 살충제 제조	관련 기관
수의(獸醫) 서비스	
감정(鑑定) 행위	자산부
역사적 문화적 기념물 복원	문화부
담배 제조	국세부

에틸알코올, 알코올 함유 제품의 제조, 구매, 보관 및 공급, 에틸알코올이 재료로 쓰이는 기타 활동	
알코올 제품 소매 영업	관련 기관
환경 유해 쓰레기와 관련된 활동	천연자원부
하층토, 숲, 식물, 동물을 포함한 천연자원의 사용	
각종 data carrier를 활용한 오디오녹음, 비디오녹화	출판, 미디어부, 문화부
극장에서의 필름 공개 상영	관련 기관
철도 운송 관련 수리, 유지	철도부
철도 승객 및 화물 운반	
모터 차량을 이용한 승객 및 화물의 국제 운송	교통부
승객 및 화물 해상 운송	
승객 및 화물 내륙 수상 운송	
3.5톤 이상의 모터 차량을 이용한 화물 운송	
택시운송업	
해양항구와 내륙항에서의 화물 적재 및 하역	
해양항구에서의 선박 검사	
선박 예인	
8명 이상용 모터차량을 이용한 승객운송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및 화물 운송	
항공기 유지, 보수	
경제분야에서의 항공기 사용과 관련된 활동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상황부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기 조립, 수립, 서비스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사용	긴급상황부, 광업 및 기술 검사청
의약품 및 향정신제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식물 재배	관련 기관
가축 사육	농업부
최고급 종자 재배	
곡물 및 곡물제품 저장	
화재예방 및 진압	긴급상황부
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한 기기 조립, 수립, 서비스	
화재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사용	긴급상황부, 광업 및 기술 검사청
의약품 및 향정신제 물질 생산에 이용되는 식물 재배	
가축 사육	농업부
최고급 종자 재배	
곡물 및 곡물제품 저장	
인공보철물과 정형외과적 서비스	노동부
비(非)정부 연금기금 활동	
위조보호장치가 필요한 출판물(주식 등) 인쇄	재무부
감사활동	
관광, 여행 관련 활동업	경제개발통상부
발전 또는 난방 네트워크	발전부
정유, 가스처리	
석유, 가스 그 제품 운송	
석유, 가스 및 그 제품 저장 또는 판매	
도박 등의 조직 및 활동	국가 스포츠 위원회
측량기기 제조 및 수리	국가 표준위원회
건축디자인, I, II 등급의 건물건축을 위한 엔지니어링 또는 건축	국가 건축위원회
어류 및 기타 수중생물 채취 및 운송	국가 어업 위원회
뮤추얼 펀드 운용	연방 주식시장 위원회
뮤추얼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관리	

유추얼 펀드와 비국가 연금기금 수탁자 운용	
주식시장에서의 직업적인 활동(브로커, 딜러 등)	
은행 영업	중앙은행
물품교환 거래	반독점부 산하 상품교환위원회
선물 및 옵션 중개행위	
보험	재무부
대지 측량	연방 대지측량과 지도제작국
지도제작	
수문기상 및 지구물리학적 현상 수정을 위한 작업	연방수문기상 및 환경 모니터링국
수문기상학 및 환경 모니터링 분야의 활동	
폭발물질 제조, 보관, 사용 및 유통	군수청, 광업 및 기술검사청
폭발위험에 노출된 생산시설의 이용	광업 및 기술검사청
화학적으로 위험한 제품 생산시설의 이용	
석유, 가스용 운송 파이프라인 이용	
산업안전 감정(鑑定)	
광산 조사	
우주탐사활동	우주청
우주기술의 개발, 제작 및 테스트	
우주용 제품의 수리	우주청, 교통부
개인기업 및 법인이기업에 의한 정보도청제품을 위한 특정 기구의 향후 재판매를 위한 개발, 제조, 판매 및 인수	연방보안국
정보 도청을 위한 전자장치의 탐지활동	연방보안국,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비밀정보의 기술적 보호	국가 기술 위원회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제품 개발 및 생산	국가 기술 위원회,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국가 안전에 속하는 정보의 사용을 수반한 작업	연방보안국 및 지방 사무소, 외국 소재 러시아의 정보기관
국가 기밀 보호 관련 활동	국가 기술 위원회, 연방 정보 통신 위원회, 연방보안국
암호 관련제품유통, 암호기기 보수, 유지, 정보암호화 서비스	연방 정보통신 위원회
암호기기 개발 및 생산	
디지털 서명키 인증서발급, 디지털 서명권자의 등록등	관련 기관
철, 비철급속 스크랩의 수집, 보유, 판매	
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활동	통신부
TV, 라디오 방송(위성방송 포함)	
보세창고 창설	국가 관세위원회
면제점 창설	
자유세관 창고 창설	
세관 지역내 제품 가공	
세관 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의 제품 가공	
임시보관 창고 창설	
세관 브로커 활동	
공증업	법무 관련 기관
수출통제 대상 제품 및 서비스의 외국이전	경제개발통상부
교육	교육부
원자력을 이용한 분야에서의 활동	원자력 통제 사찰단

## 다. 투자 인센티브

### 1) 외국인 투자 유치 우대 조치

#### □ 개요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정한 투자 우대 조치를 부여하기보다는 조세, 법규, 은행, 관세, 경제 개혁 등 전반적인 투자 환경 개선에 치중해 왔다. 같은 맥락에서 200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종합세법 제2부는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그 동안 시행되던 대부분의 조세 우대 조치는 철폐하였다.

일반적 우대 조치와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우대 조치가 일부 남아 있으며, 이 우대 조치는 내외국인에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다. 한편, 특정 지역도 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 □ 일반 우대 조치

외국인투자 법(제160-FZ호)은 외국인 투자자가 내국인 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음을 명시하는 한편, 일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정한 우대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종합세법 제 2부 제 25장은 많은 조세 우대 조치 실시를 제한하였으며, 일부 중요한 조세 감면 조치는 취소시켰다. 특히, 종합세법 제2부에서 법인세율을 24%로 인하하는 등 총체적 조세 제도 개선으로 투자자에게 조세 감면보다는 지방정부의 관료주의 체질 개선 등 태도 변화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종합세법 제 21장 149조는 국가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재화 및 용역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 가치세(VAT)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의료용 제품 및 서비스, 특정 목적의 사회 및 경제 프로그램, 필름 생산, 은행 및 보험 서비스, 특정 형태의 도박, 국가 귀금속 기금에 대한 금속 제품 판매, 수출 목적용 귀금속 광물의 가공업체 판매, 다이아몬드 원석의 가공 업체 판매, 과학 교육 문화 훈련 서적의 판매 등이 포함된다.

조세법 150조는 다른 VAT 면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원조용으로 러시아에 반입된 모든 재화, 현물 출자용으로 반입된 일부 고정 자산(기술적 설비, 부품 등)은 VAT 면제 대상이다. VAT는 2004년 1월 1일부로 20%에서 18%로 인하 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13%로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관세율법(제5003-1호, 1993.5.21)은 특정한 활동과 투자에 대해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있다. 동법 35g조는 기부 목적으로 반입된 원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며, 러시아 정부와의 협약에 근거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 기구가 제공하는 장비 및 설비는 관세가 면제된다.

### 2) 특정산업 우대 조치

생산물 분배 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은 러시아 정부가 특별한 조건과 보상을 전제로 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협정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광물 자원을 탐사하고 채굴 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투자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하에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PSA에 따라 광물 채굴 분야 투자자는 각종 조세 감면 및 우대 조치를 부여 받게 되며, 외국인 투자 법은 PSA를 통해 진출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기존 PSA체계를 상당히 위축시킨 내용의 생산물 분배 법(Production Sharing Law 제225-FZ호, 1995. 12. 3) 개정안이 2003년 6월 발효 되었다. 동 개정 법안은 PSA 방식이 적용될 대상을 크게 축소시켰으며, 투자자 선정 자격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는 한편, 러시아 국산품 투입 요건은 한층 강화하고 기존에 PSA방식으로 투자자가 누리던 각종 혜택을 크게 축소시켰다.

또한, 2003년 7월 7일 연방 조세법에 추가된 제26.4장은 PSA 방식에 대한 특별 조세 방식을 규정하였는데, 이로써 PSA 방식으로 러시아 자원 개발권을 획득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러시아 정부가 개별 우대 조치 축소 및 폐지와 세율 인하와 세제 행정 개선을 통한 전반적인 투자 환경 개선이라는 투자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산업 분야의 우대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 은행 및 보험: 금융 서비스에 대해서 VAT면제.
- 방송 언론 및 서적: 2002년 1월 1일부터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신문을 제외한 모든 방송 언론사는 10%의 VAT가 적용되고, 인쇄서비스는 18%의 VAT가 적용된다. 단, 교과서, 선정성과 광고가 없는 학술지 등은 면세혜택을 유지한다.
- 필름 생산 및 유통: 러시아산 필름의 생산, 인쇄, 전시에 관한 계약은 VAT 면제 대상이다.
- 자동차 산업: 특정 수입부품은 VAT가 면제 되며, 러시아산 부품에 대한 면세혜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국제운송업체, 항공사, 병원, 농업 등도 VAT 면제 대상이다.

### 3) 투자 지역 우대조치

종합세법 제2부 제25장 (2002. 1. 1 발효)은 광역 지방정부나 기초 지방 정부가 부여하던 조세 감면 권한을 대폭 축소시켰으며,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특정한 우대 조치를 규정하지 않았다. 종합세법 제 2부 도입 이전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브고로드, 레닌그라드주 등 일부 지역은 조세 감면 혜택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러시아연방법에 따라 발틱해 연안의 칼리닌그라드(Kaliningrad)와 동북부의 마가단 (Magadan)에 자유경제지역(free economic zone)은 설치되었으나, 외국인 투자 유치 효과는 별로 크지 않았다. 2004년 1월 1일부로 두 자유 경제지역 외에 투자자에게 특정한 우대 조치를 부여하는 특별경제 지역(special economic zone)은 모두 철폐되었으며, 칼리닌그라드와 마가단 지역의 우대 조치도 매우 제한적이다. 최근에는 6개의 특별 경제 구역(Special Economic Zone)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여, 2010년까지 100% 가동을 목표로 참가할 외국업체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지방세 면세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을 제시하고 있다.

### 4) 수출 우대 조치

특별한 수출 우대 조치는 없다.

## 5. 진출형태별 절차

### 가. 주요 진출형태

對 러시아 투자 진출시 대표적인 회사 설립 유형으로는 대표사무소, 주식 회사(ЗАО, ОАО), 유한회사(ООО) 등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대표 사무소(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 ЗАО(Закрыт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폐쇄형 주식회사)
- ОАО(Открытое Акционерное Общество; 개방형 주식회사)
- ООО(ОбществоСОграниченной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ю; 유한책임회사)

한국업체들의 경우, 對러시아 진출시 일단 지사형태로 "대표사무소"와 "유한회사" 설립을 통한 진출이 가장 보편화되어 있다.

- 대표사무소
  - 자본금 필요 없음
  - 연락사무소 형식으로 직접적인 수출입 업무 금지.
  - 현지 바이어/딜러 관리 및 시장 조사, 판촉 활동 가능
  - 현지 회계법 및 조세법 적용
- 유한회사
  - 자본금 U\$ 350불 이상
  - 직접적인 수출입 업무 및 대표 사무소의 모든 영업활동 가능
  - 현지 회계법 및 조세법 적용

그러나 "대표 사무소"와 "유한회사" 설립 시 절차 및 자본금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대표 사무소는 직접적인 현지 영업을 할 수 없음에도 회계법상 "유한회사"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 받는다는 점에 있어, "유한 회사" 설립을 통한 지사 설립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 나. 형태별 설립절차 및 소요 기간

#### 1) 대표 사무소(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사무소는 법인의 지위를 갖지 않고 있으나 러시아 내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

- 러시아 은행에 루블화 계좌 개설
- 세관과 업무추진
- 사무실 및 주거의 임차시 부가가치세 면제
- 사무소 명의로 자동차 등록
- 필요한 사무실 비품 및 자동차의 일시 수입 (세금면제)
- 일부지역(모스크바)의 경우 사유화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사무소는 <상존하는 대표소>의 지위를 갖고 있으며 세무서 및 사회기관(연금기금, 사회보장기금, 고용기금, 의료보험기금)에 등록을 해야 한다. 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등록증을 유관기관 (대외 경제관계부, 중앙은행, 상공회의소, 교통부, 재무부 등)에서 받아야 하는데 유효기간은 3년 미만이며 갱신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 필요 서류

- 한국 본사로부터 필요 서류
  - 사무소 등록 신청서 => 대표이사 명의
  - 회사 정관
  - 회사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이사회 의사록
  - 위임장(사무소대표앞) => 대표이사 명의
  - 위임장(지방상공회의소, 등록진행 대행자 앞) => 대표이사 명의
  - 위임장(모스크바 중앙상공회의소, 등록진행 대행자 앞) => 대표이사 명의
- 현지 필요 서류
  - 대표사무소 지위규정(빨라쨌니예) => 사무소대표 명의

## □ 준비 사항

- 한국 본사로부터 필요 서류
  - 한글 -> 러시아어 번역
  - 한국 법률 사무소 공증
  - 한국 외교통상부 인증
  - 주한 러시아 대사관 인증
  - 각 2부씩 작성
  - 이후 상기 필요 서류들을 사본 공증(7부)하여 은행 구좌 오픈시 및 이민국 등록시 사용 가능

## □ 소요 기간

대표사무소, 유한회사, 대표 회사를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한국에서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춘 상황에서 통상 40일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현지에는 회사설립 절차를 대행해 주는 법무사가 있으며,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모든 절차를 추진할 경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설립 절차

- 1단계
  - 기관명: 지역상공회의소에 등록
  - 목적: 러시아 상공회의소 등록 추천장 발급
  - 제출 서류
    - 사무소 등록 신청서 => 대표이사 명의 추천서 요청 공문(일정 양식 없음)
    - 본사 주소
    - 사업 형태
    - 발급 소요비용 납부 보증서
    - 소용 비용 납부할 은행 구좌 정보

- 2단계
  - 기관명: 러시아 상공회의소
  - 목적: 국세청 신고용 추천장 발급
  - 담당부서: 러시아 상공회의소
  - 제출 서류
    - 지역 상공회의소 추천서
    - 회사 정보(Kartochka)
    - 회사 등기부 등본-러시아 대사관 인증
    - 회사 정관
    - 사업자 등록증 -러시아 대사관 인증
    - 이사회 의사록
    - 은행 구좌 정보-러시아 대사관 인증
    - 러시아 회사 추천서 2부
  
- 3 단계: 임시 구좌 개설
  - 기관명: 모든 러시아 상업은행
  - 목적: 자본금 50% 이상 입금 증명서 취득(최소 자본금:U\$350불)
  - 필요 서류
    - 회사 등기부 등본 사본-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정관 사본-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등록증-러시아 대사관 공증
    - 은행마다 요구하는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예:여권 사본 등)
  
- 4 단계: 국세청 등록 - 2,3주 소요
  - 기관명: 국세청
  - 목적: 납세 번호(INN) 취득
  - 기관: 국세청 각 지청
  - 필요 서류
    - 회사 등기부 등본 사본-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정관 사본-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등록증-러시아 대사관 공증
    - 납세 번호 신청서
    - USTAV
    - 자본금 증명서
    - 수수료
    - 자본금 50% 납부 증명서
    - 사장 및 회계사 여권 사본, 연락처
  - 등록 후: INN 및 등록증 발급
  
- 5 단계: 도장 등록
  - 기관명: 도장 제작소
  - 목 적: 국세청 도장 등록
  
- 6 단계 : 연금 기금 등록
  - 기관명: 지역 연금기금
  - 목 적: 회사 연금 등록
  - 등록 관청: 지역 연금기금(지역마다 다름)
  - 필요 서류
    - 납세자 번호

- 납세 등록증 사본
  - 연금 기금 등록 신청서
  - 등록 후: 연금기금 등록증과 종업원 연금 기금 납부를 위한 구좌 번호 발급
- 7 단계: 사회보험 등록
    - 기관명: 지역 사회보험 기금
    - 목 적: 회사 사회보험 등록
    - 필요 서류
      - 납세자 번호
      - 납세 등록증 사본
      - 사회보험 등록 신청서
    - 등록 후: 사회보험 등록증 및 종업원 사회보험 납부를 위한 구좌번호 발급
- 8 단계: 책임 의료보험 등록
    - 기관명: 지역 책임의료 기금
    - 목 적: 의료 보험 가입
    - 필요 서류
      - 납세자 번호
      - 납세 등록증 사본
      - 의료보험 등록 신청서
    - 등록 후: 사회보험 등록증 및 종업원 의료보험 납부를 위한 구좌 번호 발급
- 9 단계: 국가 통계위원회 등록
    - 기관명: 지역 국가 통계위원회
    - 목 적: 통계 위원회 등록
    - 필요 서류
      - 납세자 번호
      - 납세 등록증 사본
      - 통계 위원회 등록 신청서
    - 등록 후: 사회보험 등록증 및 종업원 의료보험 납부를 위한 구좌 번호 발급
- 10 단계: 공식 구좌 개설
    - 기관명: 러시아 모든 상업은행
    - 목 적: 공식 구좌 개설(개설시 현지화와 경화 구좌를 지정할 수 있음)
    - 필요 서류
      - 회사 등기부 등본 사본-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정관 사본-러시아 대사관 공증
      - 회사 등록증-러시아 대사관 공증
      - 구좌 개설 신청서
      - INN 증명서 사본
      - 납세 등록증 사본
      - USTAV 사본
      - 자본금 증명서
      - 사회보험 가입 증명서
      - 국가통계 위원회 증명서
      - 위임장
      - 지사장및 회계사 여권 사본 각 1부
      - 은행 약정서

## □ 주재인가(ACCREDITATION)제도

주재인가 기관은 지사가 등록되어 있는 기관이다. 즉 상공회의소, 대외경제부, 과학기술정책부, 중앙銀行 등 다수 기관에서 주재인가를 받을 수 있다.

- 상공회의소의 주재인가 제도
  - 인가수수료: \$1,000
  - 유효기간: 1년이고 매년 갱신. 갱신료는 \$500임.
- 인가 구비서류
  - 주재원 사무소, 지정인가 영문신청서 및 노어 번역본 공증
  - 회사정관 영문번역본 공증 및 노어번역본 공증
  - 회사등기부 초본 영문번역본 공증 및 노어번역본 공증
  - 사업자등록증명 영문번역본 공증 및 노어번역본 공증
  - 영문위임장 및 노어번역본 공증
  - 무역업허가증명 영문번역본 공증 및 노어번역본 공증
  - 거래銀行 영문추천서 및 노어번역본 공증
  - 러시아 2개 회사의 추천서

주재 인가서를 수령한 후 주재원 주재카드(일종의 신분증)를 주재인가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주재원 카드가 있는 경우 각종 박물관 등의 입장료가 러시아인과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

## 2) 유한회사(OOO)

대표 사무소와 같이 기존 등기소 등록 절차가 없어지고 국세청 등록하는 것으로 대체된다. 즉, 대표 사무소 설립 과정 중 1.2단계를 제외한 10단계 과정이며, 5-9단계는 특별한 순서가 없다.

## □ 신청 절차별 주요 내용

- 정관(Устав)과 설립결의서(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작성
  - 정관에는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명 거래품목, 거래형태, 주주에 대한 권리, 주주의 명단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방대한 정관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양이 방대하나 법률컨설팅 회사 등에서 그 기본 양식을 쉽게 구할수 있다.
  - 설립 결의서는 1인 주주일 경우 그 자신이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 이사명 거래 품목 등을 명시하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취지의 서한을 작성 서명 날인 하는 것을 말하며, 주주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회사명, 회사주소, 대표이사명 거래 품목외에 주주의 명단, 각 주주별 출자 비율 등을 명시한 주주 계약서 (Учредительный Договор)를 작성하여 각각의 주주 모두가 서명해야 한다
- 설립신청서(Заявление) 작성
  - 상기 정관과 설립결의서가 작성이 된 후에 2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첫번째는 국가 지정 양식11001번 (Заявление о гос регистраций форма 11001)으로 이는 후에 사업자 번호(ОГРН)를 부여 받기 위한 양식이다.
  - 두번째는 (Заявление о постановке на учет в ИМНС)라는 신청서로 이는 후에 국세청(ИМНС)에서 부여하는 납세자 번호 (ИНН)를 부여 받기 위한 신청서이다. 상기 두 가지 양식은 일반적으로 경리 회계용품을 파는 상점에서 쉽게 구할수 있다.

○ **서류의 공증**

- 상기의 서류가 작성이 되면 공증소(Нотариус)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그 수량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신청서 각 1장, 정관 각 2장, 설립결의서 각 2장
- 한편 상기서류 외에 추가적으로 국세청과 세무서를 오고 가며 등록에 대한 실무를 진행해 줄 사람에게도 회사 설립에 대한 모든 실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위임장(Доверенность)을 공증해 주어야 그 사람이 각 기관에서 실무를 처리할 수 있다. 대체적으로 실무 처리는 경리가 진행함을 고려할 때 실무적으로 신경쓸 일은 거의 없다.

○ **설립수수료 납부**

- 상기의 과정이 끝나면 중앙국세청 산하 지역 세무서에 설립수수료 2000루블을 납부해야 하며, 각 도시에는 상위기관인 중앙국세청이 있고 하부조직으로 각 구역마다 세무서가 있는데, 자신이 설립할 회사가 위치할 지역의 세무서로 가서 그 세무서의 계좌번호 혹은 송금 슬립에 표기할 내용을 받아서 세무서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가서 2000루블을 납부한 후 송금증을 반드시 챙긴다.

○ **서류의 제출**

- 하기의 서류를 상기 수수료를 납부한 자신의 관할 국세청에 제출한다
- 정관 2부 (공증이 완료된 것)
- 설립결의서 2부 (공증이 완료된 것)
- 신청서 1부 (공증이 완료된 것)
- 설립수수료 납부 영수증
- 위임장 (공증이 완료된 것)

○ **사업자 등록증의 수취**

- 상기의 과정이 끝나면 관할 국세청으로 약 일주일 후에 하기와 같은 서류를 수취한다
- 정관 → 1부 (기존에 2부 제출한것 중 나머지 1부에 국세청 도장을 찍어 돌려줌)
- 설립결의서 -1부 (기존에 2부 제출한것 중 나머지 1부에 국세청 도장을 찍어 돌려줌)
- 사업자 등록증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гос регистраций) 사업자 등록번호 기재
- 세무서 등록증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постановке на учет в ИМНС) 납세번호 부여
- 각종 통계코드번호(Коды статистики)

○ **회사 직인의 신청**

- 회사의 직인을 디자인하여 도장집에 가서 도장을 제작해야 하는데, 도장 신청시 정관과 사업자 등록증의 사본을 지참 보여주어야 한다. 사본을 보여주는 이유는 도장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명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며 서류는 바로 되돌려 받아야 한다.

○ **각종 기금에 등록함**

- 상기 명시된 모든 서류를 1부씩 복사하여 사회 보장보험기금 (Фонд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일명 ФСС에 제출하여 회사를 본 기금에 등록해야 한다. 아울러 상기 모든 서류를 각 2부씩 복사하여 연금 기금 (Пенсионный Фонд) 일명 ПФ에 제출하여 회사를 본 기금에 등록해야 한다.
- 각 기금에 등록이 끝난 후 예는 반드시 기금에 등록이 되었다는 증명서(Справка)를 발급 받을 수 있다.

#### ○ 국세청 신고

- 은행에서 구좌 번호를 부여 받은 후 5일안에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구좌 오픈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것으로 회사 설립 절차가 종료된다.

#### □ 부동산 취득

러시아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서 취급하고 있으며, 양자의 권리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토지에 비해 건물 소유권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편이다. 러시아 민법은 건물 사용 및 매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러시아인, 외국인, 법인 등에 대해 동등한 건물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헌법(19993)은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동 법 9조는 토지의 사유 제 원칙을 확립하고 있다. 연방토지법 (제136-FZ호, 2001. 10. 25)은 비농업용 토지의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했고, 상업적 토지시장 형성의 토대가 되었으며, 토지를 대출 담보나 현물 출자 자산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한편, 연방토지법이 제정되기 전 일부 지방 정부는 토지 소유권 및 토지 매매의 허용 등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토지 관련 제도를 운용해 왔다. 그러나 연방 토지법은 기존 지방 정부의 규정에 우선함에 따라 지방 정부의 제도 및 규정이 연방 법에 위배되는지를 면밀하게 확인 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 소유의 토지가 입찰 또는 경매 방식으로 개인이나 민간 법인에 양도될 수 있다. 단, 해당 토지에 건물이나 기타 시설이 있는 경우는 건물 및 시설 소유주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며, 신규 개발 토지인 경우 해당 지역의 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투자자가 매입할 수 있어 입찰이 요구되지 않는다.

농지 거래법(제101-FZ호)은 농지에 대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권리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외국인 및 외국인이 50%이상 지분을 갖는 러시아 법인은 토지 임차권만을 가질 수 있다. 한편, 러시아 민법이나 토지법은 비농업용 토지의 임차 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 토지 임차권은 49년을 넘지 않고 있으며, 연방 민영화법은 국가 및 지방 정부 소유 토지의 임차 기간을 49년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 제한으로서 농업용 토지는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 대상이 될 수 있다.

#### □ 국산품 및 내국인 고용 조건

“생산물 분배법”은 러시아 법인에 하청 계약자로서 계약 수행을 위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러시아 관계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외국 노동자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설비생산 주문의 최소 70%는 러시아 기업이나 러시아에 납세자로 등록된 외국 기업이 담당 해야 하며, 고용 인력의 80%는 러시아 인 이어야 한다.

정부령 531호(1993)는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 계약의 경우 30% 이상을 국내 하청 계약자에게 할당하고, 우선적으로 국내 자재를 사용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 중앙 은행 규칙 제02-195호 (1997. 4. 23)는 외국인 소유 은행 등록의 추가적인 요건을 설정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인력의 75%는 러시아 인 이어야 하며, 외국인이 대표이사 직위를 차지하는 경우 이사회 50% 는 러시아 인이 차지해야 한다. 또한, 본사 파견 이사 중 최소 1명은 러시아어 업무 수행이 가능할 만큼 러시아어에 능통(공인된 입증서류 첨부)해야 하며, 외국인이 참여한 보험 회사는 대표이사 와 선임 회계사는 러시아 인이어야 한다.

## □ 건축관련 허가

기업은 공장 건설, 확장 등에 있어 지역, 환경, 건축, 위생, 소방, 기타 관련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한다.

모스크바의 경우, 통상 3단계(1단계 디자인 개념, 2단계 상세계획, 3단계 최종검토 등)의 사전 허가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은 프로젝트의 성격, 지역, 관할 단체와의 관계 등에 따라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간의 시일이 소요되기도 한다.

## □ 투자방식

설립된 회사를 러시아 재무부 또는 다른 적법한 국가기관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외국투자 기업으로서의 법인의 지위를 부여 받지 못한다. 물론 등록사실은 기업이 소재한 지방행정 당국에 통보되고 언론에 공표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외국인 투자액이 1억 루블을 초과하는 기업의 경우 러연 각료 회의의 승인을 받아 재무부에 등록해야 한다. 투자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사실과 관련정보는 국가 등기소에 기록된다. 등록을 받은 국가기관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이내에 승인하거나 합당한 이유로 신청을 거절해야 한다. 등록이 거부되면 물론 법원에 이의 제기 가능하다.

외국투자 기업이 등록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합작법인의 경우
  - 설립자의 서면 등록 신청서
  - 공증한 설립문서 (합작기업설립 계약서 및 정관) 사본 2부
  - 창립총회 의사록
  - 등기비 납부증명서: 등기비는 2천 루블
  - 사전심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심사 결과
  - 러시아 측 법인: 자산 소유자의 법인 설립 결정 서류나 위임 받은 자의 결정 서류, 출자자로 참여한 러시아 내 법인 각각의 설립서류(모두 공증한 것)
  -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불
  - 능력 입증 서류: 銀行잔고 증명서 및 銀行추천서(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러시아 영사의 서명 및 인증 필요)
  - 외국인 투자자가 본국의 기업 등록기관(Trade Register)이 발행한 초록, 혹은 본국의 법률에 따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하고 합법적인 법률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기타 서류(러시아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러시아 영사의 서명 및 인증 필요)
  - 외국측 파트너의 투자자격 입증 서류
  
- 100% 외국인투자 기업
  - 회사 등록 신청서
  - 회사 정관 2부 (공증필요)
  - 창립총회 의사록 또는 회사설립 결의
  - 등기비 납부증명서: 등기비는 2천루블
  - 외국인 투자자가 거래하는 은행 및 금융기관이 발행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불 능력 입증서류(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외국인 투자자 본국의 기업 등록기관이 발행한 초록(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것)
  - 사전심사가 필요한 사업으로 법률에 규정된 경우 그 심사 결과

## □ 법정자본의 납부 비율 및 기간

외국인 투자기업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출자자가 법정 자본의 50%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동 납부사실을 서류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산결정을 받을 수 있다(외국투자 기본법 제19조)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지금까지의 대러시아 외국인 투자 누적 규모는 1,977억 불이다. 최근 대러 외국인 투자는 매년 30%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2005년도 537억 불을 기록하였으며, 2006년에 551억 달러(2.7%↑)를 기록하였다.

### 다. 입지선정

#### 1) 공장

공장 입지 선정은 해당 지역의 인구규모, 임금 수준 및 인프라(교통, 전력, 수도, 통신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특성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나, 현실적으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입지 선정에 어려움이 많음. 최근 대규모 사업일 경우 지방정부 차원에서 행정상의 편의 등 대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현지 인맥을 통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 인구의 65% 이상이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 지역 중 모스크바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모스크바 주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편이며, 지방의 경우 시베리아 철도 등 인프라가 비교적 갖추어져 있는 대도시가 유리하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SEZ)을 설치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행정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현지 진출을 원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고려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공장 부지를 매입할 경우 행정상의 불일치로 인해 소재지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으며, 농지의 공업용지로의 용도 변경절차도 복잡하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장기간(6개월~2년)이 소요된다.

도로, 전력, 가스, 수도 등 인프라가 완비된 공단지역이 드물어 보통 공장을 세울 경우 이러한 인프라를 지역정부와 공동 내지 기업 단독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

위생, 소방, 환경 등의 심사기준이 체계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공장 인허가 과정에 해당 관료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사무실

최근 모스크바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현대식 사무용 건물들이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는 등 사무실 임차에는 큰 문제는 없으나, 적절한 가격에 우수한 사무실을 확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실 입지 선정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이 위치한 중심가로부터의 근접성, 교통(지하철 등) 편리성, 현대식 통신 인프라 등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치안문제로 인해 경비원이 있는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좋다.

2006년 초 기준으로 모스크바의 상급 사무실 연간 임차료는 약 800~1,000달러/㎡, 중급 600~800달러/㎡, 하급 300~600달러/㎡이며, 보통 중심가에 위치하며 교통이 편리한 곳이 상급에 속함. 최근에는 중심가 임차료의 급격한 상승, 주차장 부족 등으로 인해 중심가에서 다소 떨어진 제 1 환상선(일면 사도바야 깔리쯔) 외곽의 대로변에 위치한 사무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모스크바에는 몇 개의 비즈니스 센터도 있으며, 최근 모스크바시티 빌딩이 건설되고 있는 등 비즈니스 센터도 증가추세에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호텔객실을 장기간 임차하여 사무소로 사용하기도 하며, 호텔은 편리하기는 하나 다소 비용이 높은 편이다.

지방의 경우 사무실 임차비용은 모스크바보다 저렴하나, 상급 수준의 사무실 공급이 적기 때문에 상급의 사무실 임차료는 예상보다 높은 경우도 있다.

○ 참고:

-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사무실 임차료: 월 \$ 60/SM
-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사무실 임차료: 월 \$40/SM

## 라. 공장 설립

러시아에서 사업하는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복잡한 절차와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매우 어려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러시아 내 건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정부부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 주문을 하기 위해서는 러시아국가등기소(State Registration Chamber)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하는 데는 약 40여 일이 소요되며 등록비는 \$600~\$800불 수준 이다.

○ 러시아 국가등기소(State Registration Chamber)

- 주소: 3/5 Smolensky blvd., Moscow, 119835, Russia
- 전화: (7-495)246-8649/3486
- 팩스: (7-495)245-2090

각종 인허가 절차는 매우 복잡하다. 우선 토지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지방 정부(모스크바시의 경우 각 구청)에서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청의 환경 위원회, 자산관리 위원회, 토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둘째로 지방정부 건설 위원회(모스 크바시청 건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셋째로 가스공급, 전력, 소방시설 및 위생 시설에 대한 관련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러시아에서 이와 같은 전체적인 절차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매 단계마다 사소한 문제의 발생으로 인해 시간이 기한 없이 지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러한 서류작업에는 상당한 인내력을 요구한다.

참고로 건설업 면허기관은 건설부 인가 센터(현재는'건설 및 주택위원회')로 불리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30일 정도 소요되며 인가비는 1천 달러 수준이다.

## 6. 투자입지여건

### 가. 지역별 투자입지 여건

러시아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약간의 세제 혜택이외 특별히 혜택을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기업에 대해 보다 엄격히 관련 법규를 적용하여 외국인 투자가가 다른 지역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역별 투자 입지 여건을 따질 때, 세제 혜택보다는 관련 정부기관의 협조 가능성, 인력 채용 수월 여부, 인건비 수준, 지역 개방 정도 등이 주요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아직까지 대러시아 투자에 따르는 위험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성면에서 샹트베제르 부르그를 비롯해, 모스크바, 크라스노다르, 예카제린부르크, 한투-만시 자치 지역 등이 투자가 유망한 지역으로 손꼽히고 있다.

세제 혜택면에 있어서는 법인 이윤세가 각 지방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그나마 줄 수 있는 혜택으로서, 총 24%의 이윤세중 6.5%는 연방 재정으로 귀속되며, 17.5%는 지방 재정으로 귀속된다. 지방 정부는 법인이윤세 과세율을 임의적으로 13.5%까지 인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 정부로부터 조세 우대 혜택을 받을 경우 법인 이윤세는 최소 20%까지 인하될 수 있다. 그나마 법인이윤세 혜택을 전혀 제공하지 않는 지방정부도 많은데, 예카제린 부르크를 비롯해 모스크바 지역, 사라토프, 옴스크주, 페름주, 크라스노다르 등이 유명하다. 즉, 투자가 유망한 지역일수록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혜택을 전혀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시베리아를 비롯 극동 시베리아 지역은 외국인 투자가에 대해 배타적인 성향을 짚은 편이다.

2005년도 들어 러시아 정부는 자국 경제활성화 및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특별경제구역(SEZ)”을 설립하였는데, 신규 대러시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러시아 전역 6개 지역에 설립되어 있는 “SEZ” 투자 진출을 우선 고려해 볼만 하다.

### 나. 특별 경제구역 소개

#### 1) 러시아 정부의 SEZ(Special Economic Zone) 설립 배경

러시아에는 2005년에 설립된 6개의 SEZ 이외에도 과거에 총 14개의 자유 경제 지역이 설립되었었다. 자유 경제 지역 이외에도 면세구역 등 여러 가지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지만, 2006년 4월 1일부로 칼리닌그라드와 마가단의 자유경제지역 이외 모든 자유 경제지역은 폐지된 바 있다.

#### □ 과거 러시아 주요 경제자유지역 소개

- 칼리닌그라드주
  - FEZ내 상품 수입시 무관세
  - FEZ에서 생산된 원자재 혹은 최소 30%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상품의 역외 수출 시 무관세
  - 최종 목적지가 러시아 또는 여타 국가이고 FEZ을 통해 운송되는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과실 송금시 수출대금으로 받은 경화중 50% 환전의무 면제 등

- 타타르스탄 공화국
  - 첫 2년간 법인 이윤세 면제, 이후 3년간 25% 및 그 후 4년간 50% 감면
- 노브고로드주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외국투자기업 대상)
  - 투자자본이 회수될 때까지 모든 지방세를 면제
  - 노브고로드주내 4개 특별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의 경우 추가로 이윤세의 연방정부 귀속분을 보상
- 하바롭스크주
  - 외국인지분이 30%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2년간 법인 이윤세 면제
  - 천연자원 개발 또는 수송인프라 개발에 참여하는 외국 투자기업으로서 5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 3년간 법인 이윤세 면제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러시아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나름대로의 각종 지원 정책을 펼쳐 왔지만, 투자 유치 성과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지 못하였다. 기존의 러시아 자유경제지역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로는 다음의 세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다.

- 일원화된 자유경제지역 운영체계 부재
  - 러시아 자유경제지역은 연방정부의 승인하에 지방정부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를 취했음
  - 이에 따라, 세제지원, 행정지원에 있어 연방 법률과 지방정부 조례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 등 법률적 안정성 취약
- 실효성 있는 기업경영환경 조성 활동 미미
  - 자유경제지역 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 자금 등 재정적 측면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부족
  -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 메리트 부재
- 장기적인 경제개발전략 부재
  - 특정산업별로 특화된 자유경제지역이 설립되기 보다는 지역별로 자유경제지역이 산재하여 외국 투자자들의 러시아 시장에 대한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였음
  - 외국의 자유경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잡한 형태로 투자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존의 러시아 정부의 투자 유치 정책은 운영 체계, 지원 정책, 전략 수립 등의 측면에서 많은 허점을 내재하고 있었다. 러시아 정부는 보다 실효성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자유 경제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연방 정부 주도 하에 SEZ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 2) SEZ 운영에 대한 러시아 연방정부/지방정부의 계획

러시아 정부는 운영 체계, 지원 정책, 전략 수립 3개 부문에서 과거 자유경제지역 운영에서와는 사뭇 다른 적극적인 시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 운영 체계 - 특별경제구역청의 설립과 기능 강화

러시아 정부는 2005년 7월 경제개발통상부 산하에 SEZ 운영을 전담할 특별경제구역청(The Federal Agency for Managing Special Economic Zone)을 설치하였다. 특별경제구역청은 러시아 연방내 설립된 전 SEZ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외국인 입주기업들이 러시아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단일창구(Single-Window) 역할을 수행한다.

특별경제구역청의 최대 안건은 SEZ 입주기업과 거주민들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환경, 생활환경 조성에 있다.

특별경제구역청은 설립 이래, 외국기업인들과의 다양한 간담회 및 SEZ 설명회를 통해 SEZ 거주민이 러시아의 관료주의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모든 행정업무.생활여건에서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해 왔다.

또한 특별경제구역청은 SEZ별로 설치된 특별경제구역청 지부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경제구역청은 SEZ별로 SEZ 거주민들, 지방정부 당국, 특별 경제구역청 관리들로 구성된 감독위원회(Supervisory Board)를 설치하여 각종 불편사항과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 □ 지원 정책 - 기업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 예산 확보

러시아 정부는 SEZ 개발을 위해 2006년도 연방 예산에서 8십억 루블(3억여 달러)을 배정하였다. 러시아 정부와 특별 경제구역청은 과거 자유경제지역 운영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운영 재정 문제 해결에 역점을 두고 있다.

SEZ내 재정문제는 연방정부 산하기관이 직접 담당하여 각종 예산을 관리한다. 특별경제구역청장 유리 주다노프는 SEZ 전체 인프라의 40-50%가 2007년 말까지 건설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특별경제구역청은 지방정부의 재정구조에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각종 인프라와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EZ 지원 정책은 SEZ가 설립된 지역의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현재 1차로 선정된 6개 SEZ 지역은 이미 지방정부 예산을 이용하여 인프라 시설 건설을 시작했다. 게다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SEZ 거주민들에게 첫 10년 동안 실질적이고 다양한 세금 면제 혜택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연방 법률에 의해 규정된 첫 5년 동안의 세금면제 규정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다.

## □ 발전 전략 - 지속 가능한 SEZ 운영을 위한 Action Plan

SEZ에 대한 러시아 정부가 거는 기대와 의지는 지금까지는 강력하다. 과거 운영되었던 러시아내 자유 경제지역과는 달리 SEZ는 푸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와 발전 방향 제시, 책임소재가 명확한 기관의 운영(특별경제구역청) 등 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전달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제조업 SEZ, 고도기술수반사업 SEZ 두 가지 유형의 SEZ가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러시아 정부는 향후 추가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SEZ를 신설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관광업 SEZ(Tourism & Recreation Zone)가 2007년 2월에 7개 처가 선정 발표되었고, 향후에 추진될 SEZ는 항만 SEZ(Port Zone)도 조만간 제시될 예정이다.

추가로 설립될 제조업 SEZ는 비록 공모제에 의해 시행되겠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향은 푸틴 대통령에 의해 이미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 특별 경제구역청장 유리 주다노프는 “푸틴 대통령은 서시베리아 지역과 극동 지역에 SEZ를 설립하는 것에 각별한 관심을 쏟기를 요청했다. 따라서 우리(특별경제구역청)의 주요 관심 대상은 바로 그 지역들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 SEZ 설립 관련 법규

- “러시아연방에서의 SEZ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5년 7월 22일, No. 116)
- “특별경제구역청 설립에 대한 러시아연방 대통령령” (2005년 7월 22일, No. 855)
- “특별경제구역청 설립에 대한 러시아연방 정부령” (2005년 8월 19일, No. 530)
- “SEZ 선정을 위한 공모 실시에 관한 러시아연방 정부령” (2005년 9월 13일, No. 563)
- “SEZ 설립 관련 행정절차 승인에 관한 러시아연방 정부령”(2005년 9월 13일, No. 564)

### 3) SEZ 운영 정책 개괄

#### □ SEZ내 조세 관련 정책 개괄

- 제조업 SEZ내 입주기업의 법인 이윤세 관련 규정
  - 연구 개발 추가비용 상계, 조기부채상환, 투자비용 차기 이월액 제한 자유화
- 고도 기술수반사업 SEZ 입주 기업에 대한 통합사회세 감면
- SEZ 등록 이후 5년 동안 토지세와 법인 이윤세 면제

#### □ SEZ내 통관 관련 정책 개괄

- SEZ 구역내로 외국상품 반입시 부가가치세와 수입세 면제
- 수출을 조건으로 SEZ 영토내로 러시아상품 반입시 소비세 지불, 부가가치세와 수출세 면제
- SEZ에서 러시아연방내 다른 지역으로 외국상품 혹은 러시아 상품을 반출시 수입세,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납부
- SEZ에서 러시아연방이 아닌 외국으로 외국상품 혹은 러시아상품을 반출시 수입세 면제, 수출세 부과, 부가가치세 면제

#### □ SEZ내 행정업무 관련 정책 개괄

행정업무 관련 SEZ 운영 정책의 핵심은 “편리한 행정 시스템 구축”과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에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 자유구역 내에서는 One-Stop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러시아 SEZ 또한 행정 시스템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SEZ내 행정업무 관련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단일창구(One-window) 원칙의 실현
- 조세 및 세금 징수 관련 러시아연방의 법률이 SEZ 거주민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되는 것으로부터 거주민들의 권익 보호
- SEZ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 소유자는 해당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할 권리를 보유
- SEZ 거주민들이 SEZ 입주시 체결했던 계약을 위반한 경우나, SEZ내 기업의 설립 혹은 폐지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있어서 분쟁해결은 재판을 통해 해결

對러 투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법적 안정성 부재, 복잡하고 난해한 토지 임대 관련 업무 등을 들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SEZ내 행정정책상 토지 매입의 허용, 분쟁의 법적 해결을 주요 원칙으로 명시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고 있는 對러 투자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러시아 정부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 SEZ 입주기업 선정 절차

SEZ 입주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아래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 기업형태가 사기업 혹은 상업기관이어야 함
- SEZ가 설립되는 지방정부 행정구역 내에 등록되어 있는 기업
- 특별경제구역청과 SEZ 입주와 관련된 일련의 계약을 체결한 기업

#### 4) SEZ 선정 지역 현황

현재 러시아연방에는 총 13개의 SEZ가 설립되어 있다. 러시아 정부는 SEZ를 크게 제조업 중심의 SEZ와 첨단 기술 R&D 중심의 SEZ, 관광휴양 SEZ 세 개 형태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제조업 SEZ로는 리페츠크州的 그라진스키 지역과 타타르스탄공화국의 엘라부가 지역 두 곳 이 선정되어 있으며, R&D 중심의 고도기술수반사업 SEZ로는 톰스크市, 모스크바州의 두브나 지역, 상트-페테르부르크 지역, 모스크바市 켈레노그라드 지역 등 네 곳이 선정되어 있다. 관광휴양 SEZ는 알타이 등 7개 지역이 선정되어 있다.

제조업 SEZ와 고도기술수반사업 SEZ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 SEZ (Industrial SEZ)	고도기술수반사업 SEZ (Technical & Innovation SEZ)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면적: 20km<sup>2</sup> 이하</li> <li>- 운영기간: 20년 이하</li> <li>- 투자금: 최소 천만 유로 이상,</li> <li>- 첫해 최소 투자금은 백만 유로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면적: 2km<sup>2</sup> 이하</li> <li>- 운영기간: 20년 이하</li> </ul>

13개 지역의 SEZ 운영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선정 지역	위 치	특화 분야
리페츠크	모스크바에서 400km 외곽	가전 제품
엘라부가	타타르스탄	자동차 부품
젤레노그라드	모스크바 근교	전자 제품
두브나	모스크바 근교	핵물리 기술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	정보과학 기술
툼스크	시베리아	신소재
아나파, 게렌지크, 소치, 투아프신스크	크라스노다르 지방	관광휴양
에센투키, 제레즈노보드스크, 키스로 보드스크, 레르몬토프, 파찌고르스크, 미네랄로보드스크, 프레드고르느이	스타브로폴스크 지방	관광휴양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주	관광휴양
프리바이칼스크	브랴찌야 공화국	관광휴양
마이민스키, 체말스키	알타이 공화국	관광휴양
알타이스크	알타이 지방	관광휴양
젤레노그라드	칼리닌그라드 주	관광휴양

#### □ SEZ 부정적 우려 요소

SEZ 운영과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기업들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 기존 러시아 투자가들에 대한 혜택 부재
  - SEZ 설립 이전에, 외국인 투자가에 의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는 SEZ내 각종 혜택에 준하는 조치가 별도로 취해지지 않음
  - 즉, 現투자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신규 진입자들에 비해 불리한 여건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함
- SEZ내 지사(branch) 설립 금지 조항
  - SEZ 운영법에 의하면, SEZ내 지사를 등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음
  - 이 규정 역시 現투자자들의 SEZ 진입을 차단하는 요소로 작용해 기존 투자가들에게 불리한 조항임
- 법률은 국유 소유권자(state ownership)에게만 땅을 제공하고, 땅을 할당하거나 그 규모를 한정하는 것을 다소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이것은 테크노파크 개발을 제한할 것이며 또한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 전체에 대한 지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
- 법률상 행정업무의 중앙집권화가 과도함
  - One-Stop 서비스와 SEZ 관리 측면에서 러시아 정부는 특별경제구역청 등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였음
  - 일부에서는 이러한 특별 기관의 설치로 인한 행정업무의 중앙집권화가 오히려 신속한 행정 업무 처리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음

## 5) SEZ 제공 인센티브

### □ SEZ 역내 일반세제 관련 인센티브

- 법인이윤세: 24%
  - 법인이윤세 중 6.5%는 연방재정으로 귀속되며, 17.5%는 지방재정으로 귀속됨
  - 지방정부는 법인이윤세 과세율을 임의적으로 13.5%까지 인하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짐.
  - 따라서, 지방정부로부터 조세 우대혜택을 받을 경우 법인이윤세는 최소 20%까지 인하됨
- 개인소득세
  - 러시아연방 조세법을 그대로 적용 (13%)
- 거래세
  - 러시아연방 조세법을 그대로 적용
- 소비세
  - SEZ 거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통합 사회세: 26%
- 광물 자원 채굴세: SEZ 거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토지세
  - SEZ 거주민이 SEZ내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처음 5년 동안 토지세 면제(기간은 지방 정부에 의해 연장가능)
  - SEZ 거주민이 SEZ내의 토지를 임대했을 경우 토지세 5년 면제는 허가되지 않음

### □ 관세 관련 인센티브

- SEZ로 수입시 관세 및 조세 적용

구 분	VAT	관세 (수입세)	통관료 (Customs Fee)	소비세*
SEZ 거주민이 외국 제품을 수입할 경우	부과되지 않음	부과되지 않음	부과됨	부과되지 않음
러시아연방내 다른지역에서 SEZ 거주민이 외국 제품을 수입할 경우	러시아연방 관세법상 환급/공제대상인품목인 경우 추후환급 /공제됨	러시아연방 관세법상 환급/공제대상인품목인 경우 추후환급 /공제됨	부과됨	부과되지 않음
SEZ 비거주민이 외국 제품을 수입할 경우	러시아연방 관세법상 환급/공제 대상인 품목인 경우 추후환급 /공제됨	러시아연방 관세법상 환급/공제대상인품목인 경우 추후환급 /공제됨	부과됨	부과되지 않음
SEZ 거주민이 러시아 제품을 수입할 경우	부과되지 않음	부과되지 않음	부과되지 않음	부과됨

- SEZ에서 수출시 관세 및 조세 적용

구분	VAT	관세(수입세)	관세(수출세)	통관료	소비세
러시아 연방 내 다른 지역으로 외국 제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에서 부과되거나 추후 환급	부과됨	부과되지않음	부과됨	부과됨
SEZ 비거주인을 대상으로 외국 제품을 양도할 경우	세관에서 부과되거나 추후 환급	부과됨	부과되지않음	부과됨	부과됨
러시아 연방 내 다른 지역으로 외국 제품을 수출할 경우	세관에서 부과되거나 추후 환급	부과되지않음	부과되지않음	부과됨	부과됨
SEZ 비거주인을 대상으로 러시아 제품을 양도할 경우	세관에서 부과되거나 추후 환급	부과되지않음	부과되지않음	부과됨	부과됨
러시아 연방 이외 외국으로 제품(외국제품/러시아제품) 수출할 경우	부과되지 않음	부과되지않음	부과됨*	부과됨	부과되지 않음

## 6) 중앙/지방 정부 지원 사항

### □ 중앙정부 지원 사항

SEZ에 대한 러시아연방 정부차원의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연구개발과 관련된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가속상각(Accelerated Depreciation)제가 적용됨.
  - 가속상각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수선유지비용은 증가하고 그 자산으로 인한 수익은 감소한다는 가정하에, 감가상각비를 의도적으로 초기에 많이 인식하는 방법을 뜻함.
  - 감가상각비를 초기에 많이 계상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 있어 법인세 이연효과가 있어 기업에 유리함
  - SEZ 역외에 설립된 일반적인 기업들은 연구개발과 관련된 고정자산에 대해 3년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나, SEZ 역내에 설립된 입주기업과 거주민들에게는 연구개발 관련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기간이 1년 동안만 적용됨
- SEZ 역내 기업 보유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상각률은 최대 2배까지 적용됨(단, 연구 개발 관련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은 상기 가속상가제가 적용되므로, 해당사항 없음)
  - SEZ 역외에 설립된 일반적인 기업들의 감가상각 상각률보다 2배까지 높일 수 있어 감가상각비가 보다 빠르게 감소하여 기업 조세부담 경감
- SEZ 역내에서 이윤세 책정시 자산손실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무제한으로 함
  - 통상적으로 러시아연방에서는 기업의 자산손실 적용비율을 30%로 제한하고 있으나, SEZ 입주기업과 거주민의 자산에 대해서는 그 제한을 두지 않음
  - 따라서 금년 회계연도에 자산손실 규모가 전체 자산의 50%일 경우, 익년 회계연도에는 초기 자산의 50%에 대해서만 세제 적용
- 러시아연방의 법률이 변경되더라도, 동 법률의 효력은 SEZ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치지 않음. 즉, SEZ는 러시아연방 법률의 변경으로부터 협약기간 동안에 자유로움
- 외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원부자재, 각종 수입상품 등)은 SEZ 역내로 반입될 경우, 관세와 VAT과 부과되지 않음

-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상품(원부자재, 각종 수입상품 등)은 SEZ 역내로 반입될 경우, 소비세만이 적용되고 관세와 VAT는 부과되지 않음
- SEZ 거주민들에 모든 사법처리는 법정의 판결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음. 따라서 SEZ 거주민의 지위상실은 법정 판결에 의해서만 결정됨

□ 지방정부 지원 사항

SEZ에 대한 SEZ가 설립된 지방의 지방 정부차원의 지원 내용은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다.

- 재산 제한 기간 이후로는 5년 동안 재산세 면제
- 투자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대출과 대부는 지방 정부가 보증
- SEZ내 투자 프로젝트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준비자금이 마련되어 있음 (2005년 11월 1일부로, 16억 루블(6천만 달러에 해당)이 적립되어 있음)
- SEZ 입주기업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처음 5년 동안 토지세 면제
- SEZ 입주기업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처음 5년 동안 거래세(Transfer Tax) 면제
- 토지 임대료로 책정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토지대장 등록가격의 2%를 넘을 수 없음
- 지방정부의 도시변경 계획은 SEZ 역내에 위치한 지역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7) SEZ별 특화 주력 산업

□ 제조업 SEZ

지 역	특화 분야
리페츠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전제품 (가스렌지, 세탁기 등)</li> <li>○ 보안시스템</li> <li>○ 자동차 예비부품</li> <li>○ 내연기관</li> <li>○ 전동기 로터와 스테이터</li> <li>○ 가전제품 보조 장치들</li> <li>○ 유리제품</li> <li>○ 전기케이블</li> <li>○ 전동공구</li> <li>○ 진단장치</li> <li>○ 포장시스템</li> <li>○ 가구</li> </ul>
엘라부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장차 및 자동차 프레임</li> <li>○ 자동차 부속물</li> <li>○ 자동차 타이어</li> <li>○ 트랙터 부속 제품</li> <li>○ 폴리에테르 제품</li> <li>○ 플라스틱 제품</li> <li>○ 폴리카보네이트 제품</li> <li>○ 폴리프로필렌 제품</li> <li>○ 폴리스티렌 제품</li> </ul>

□ 고도기술수반사업 SEZ

지 역	특화 분야
두브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 가스 매장지 탐사를 위한 프로그램 총체</li> <li>○ 전자통관 시스템 제작 관련 프로그램 기기</li> <li>○ 정보 보호 전산 시스템</li> <li>○ 출입 관리 및 통제 시스템</li> <li>○ 디자인 및 가공 센터</li> <li>○ 바이오테크놀로지: 인슐린, 인터페론</li> <li>○ 나노기술 및 신소재</li> <li>○ 항공기 설계</li> </ul>
통스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 생명공학(바이오테크놀로지)</li> <li>○ 공업 생명공학</li> <li>○ 농업 생명공학</li> <li>○ 정보통신 기술, 전기</li> <li>○ 핵에너지 및 대체에너지원</li> <li>○ 나노측정 및 나노구조 물질</li> </ul>
젤레노그라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이크로 나노 공학</li> <li>○ 광학 분야</li> <li>○ 정보통신기술</li> <li>○ 생명정보 및 바이오센서 기술</li> <li>○ 나노기술 및 나노 물질</li> </ul>
상트- 페테르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 매개물</li> <li>○ 기본 통신 설비</li> <li>○ 자동 생산 시스템</li> <li>○ 의료 기술</li> <li>○ 정밀 분석 기구 제조</li> </ul>

다. 투자 관련 정부기관

1) 서부 러시아

- INFORM VES (The body of The RF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 Address : Russia, Moscow, Ovchinnikovskaya nab., d. 18/1
  - Tel. / Fax : (7-495) 950-9453 / 230-2018
  - Website : www.inves.ru
  - E-mail : tr@inves.ru
  - Contact : Mr. Guzhev Andrei Nikolaevich / Chief of Foreign Investments ‘ Department
  - Year of Establishment: 1988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Database development & Information supply Consulting
  
- The Committee of the Foreign-economic activity of the Government of Moscow-city
  - Address: Russia, Moscow, Ul. Tverskaya d. 13
  - Tel. / Fax : (7-495) 925-7201
  - Website : http://mik.mos.ru
  - E-mail : N/A
  - Contact : Mr. Kuzin Valery Ivanovich / Chief of the Committee
  - Year of Establishment : N/A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projects : elaboration, promotion etc.
  
- The Administration of the Invest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of Saint Petersburg
  - Address : Russia, Saint Petersburg, Voznesensky proezd, d.16

- Tel. / Fax : (7-812) 319-9424
  - Website : www.gov.spb.ru
  - E-mail : N/A
  - Contact : Mr. Sidorov Alexander Anatolievich / Chief of the Administration
  - Year of Establishment: N/A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projects: elaboration, promotion etc.
- The Ministry of International & Foreign-economic relations of Sverdlovsk region (The body of the Government of Sverdlovsk region) / Department of Investment Policy of The Government of Sverdlovsk region
    - Address : Russia, Yekaterinburg, Ploschad Oktabr, skaya, d.1
    - Tel. / Fax: (7-3432) 17-8672 / 17-8911
    - Website: N/A
    - E-mail : N/A
    - Contact : Mr. Osintsev Yuri Valerievich / Minister
    - Year of Establishment : N/A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projects: elaboration, promotion etc.
- The Committee of International relations, projects and programs (The body of the Government of Novosibirsk-city)
    - Address : Russia, Novosibirsk, Krasny prospekt, d.18
    - Tel. / Fax : (7-3832) 23-9395 / 23-2430
    - Website : N/A
    - E-mail : one@obladm.nso.ru
    - Contact : Mr. Konschin Igor Viktorovich / Chief of the Committee
    - Year of Establishment : N/A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 Investment projects : elaboration, promotion etc.
- Department of the city economic policy of the Administration of Omsk region
    - Address : Russia, Omsk, Ul. Gagarina, d.34
    - Tel. / Fax : (7-3812) 24-4397 / 24-2087
    - Website : N/A
    - E-mail : grad@omsknet.ru
    - Contact : Mr. Mahnev Viktor Alexandrovich / Director of the Department
    - Year of Establishment : N/A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projects : elaboration, promotion etc.
- TROIKA-DIALOG
    - Address : Russia, Moscow, Romanov Pereulok d. 4
    - Tel. / Fax : (7-495) 258-0500 / 258-0547
    - Website : www.troika.ru
    - E-mail : webmaster@troika.ru Anton\_Stroutchenevski@troika.ru
    - Contact : Mr. Ruben Vardanian / Founder Mr. Anton Stroutchenevski / Economist
    - Year of Establishment : 1991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Securities Trading, Investment Banking, Wealth Management
- ALFA-CAPITAL
    - Address: Russia, Moscow, Myasnitskaya Ul. d. 48
    - Tel. / Fax : (7-495) 797-3152 / 792-3151

- Website : [www.alfacapital.ru](http://www.alfacapital.ru)
  - E-mail : [info@alfacapital.ru](mailto:info@alfacapital.ru)
  - Contact : Mr. Anatoly Miliukov / Chief Executive Officer
  - Year of Establishment : 1993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Securities Trading, Investment Banking, Wealth Management
- ATON CAPITAL COMPANY
    - Address: Russia, Moscow, Ul. Pokrovka d. 27 Stroenie 6
    - Tel. / Fax : (7-495) 777-8877 / 777-8876
    - Website : [www.aton.ru](http://www.aton.ru)
    - E-mail : [aton@aton.ru](mailto:aton@aton.ru), [pr@aton.ru](mailto:pr@aton.ru)
    - Contact: Mr. Evgeny Yuriev/President Mr. Vadim Soskov/Vice-President, Public Relations Dept.
    - Year of Establishment : 1991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Securities Trading, Investment Banking, Wealth Management, Finance Consulting, Brokerage Service
- AMITY INVESTMENT GROUP
    - Address : Russia, Moscow, 3 Ulitza Yamskogo Polya Vladenie 2
    - Tel. / Fax : (7-495) 789-4333 / 789-4335
    - Website : [www.amity.ru](http://www.amity.ru)
    - E-mail : [amity@amity.ru](mailto:amity@amity.ru), [mett@amity.ru](mailto:mett@amity.ru)
    - Contact : Mr. Dmitry Fedorovich Rostovsky / Chief
    - Year of Establishment : 2001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Brokerage Service, Internet Trading, Beneficial Ownership, Depositary
- VASH FINANSOVY POPECHITEL
    - Address: Russia, Moscow, Ul. Volnaya d.28 stroenie 5
    - Tel. / Fax : (7-495) 784-7676 / 956-4386
    - Website : [www.vfp.ru](http://www.vfp.ru)
    - E-mail : [vfp@vfp.ru](mailto:vfp@vfp.ru)
    - Contact : Mrs. Loboda Maria Vadimovna / General Director
    - Year of Establishment : 1992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Brokerage Service, Internet Trading, Beneficial Ownership, Depositary
- BRUNSWICK UBS
    - Address : Russia, Moscow, Paveletskaya ploschad d. 2/2
    - Tel. / Fax : (7-495) 258-5200 / 258-5201
    - Website : [www.bubsw.com](http://www.bubsw.com)
    - E-mail : [BrunswickUBS@BrunswickUBS.com](mailto:BrunswickUBS@BrunswickUBS.com)
    - Contact : To whom it may concern
    - Year of Establishment : 1997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Bank, Brokerage Service, Investment Banking, Depositary
- INVEST CENTER
    - Address : Russia, Moscow, Daev pereulok d. 20
    - Tel. / Fax : (7-495) 204-8246 / 2048476
    - Website : [www.invest-center.ru](http://www.invest-center.ru)
    - E-mail : [mail@invest-center.ru](mailto:mail@invest-center.ru)

- Contact : Mr. Garkusha Dmitry Vladimirovich / General Director
  - Year of Establishment: 1997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Brokerage Service, Investment Management, Own Trading, “Turnkey” Investment Service
- THE U.S. RUSSIA INVESTMENT FUND
    - Address : Russia, Moscow, Paveletskaya ploschad d.2 stroenie 3
    - Tel. / Fax : (7-495) 960-3131 / 960-3132
    - Website : www.deltacap.ru
    - E-mail : mail@invest-center.ru
    - Contact : Mr. Victor Sedov / Executive Director
    - Year of Establishment : 1999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 Financing & supporting of developing of Russian companies, Finding direct investment capital
- MANAGEMENT CENTER
    - Address: Russia, Moscow, Ul. Meschanskaya d. 7/21 stroenie 1
    - Tel. / Fax : (7-495) 733-9101 / 733-9102
    - Website : www.mcenter.ru
    - E-mail : uk@mcenter.ru
    - Contact : To whom it may concern
    - Year of Establishment : 1996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projects’ support
- RUSSIAN INVESTORS
    - Address : Russia, Moscow, Bolshaya Polyanka d. 2/10 stroenie 1
    - Tel. / Fax : (7-495) 787-0050 / 785-2460
    - Website : www.investors.ru
    - E-mail : info@investors.ru, sysoev@investors.ru
    - Contact : Mr. Sysoev Sergei Valentinovich / Director of investment-banking management
    - Year of Establishment: 1994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Banking, Brokerage Service
- CAPITAL INVESTMENT GROUP
    - Address : Russia, Moscow, Bolshaya Polyanka d. 47 stroenie 1
    - Tel. / Fax : (7-495) 929-9526 / 929-9530
    - Website : www.capital-ig.ru
    - E-mail : info@capital-ig.ru
    - Contact : Mrs. Koltsova Irina Vyacheslavovna / General Director
    - Year of Establishment : 2002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Banking, Brokerage Service, Beneficial Ownership
- GOSINKOR – The State Investment Corporation
    - Address : Russia, Moscow, Ul. Miasnitskaya d. 35
    - Tel. / Fax : (7-495) 204-1387 / 207-6936
    - Website : www.gosincor.ru
    - E-mail : document@gosincor.ru
    - Contact : Mr. Vladimir Chernov / Chairman
    - Year of Establishment : N/A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 Investment Management & Consulting

- GBS-INVEST
  - Address : Russia, Saint Petersburg, Galierny proezd d. 3 office 722
  - Tel. / Fax : (7-812) 449-0420
  - Website : [www.invest.ntax.ru](http://www.invest.ntax.ru)
  - E-mail : [invest@ntax.ru](mailto:invest@ntax.ru), [chief@ntax.ru](mailto:chief@ntax.ru)
  - Contact : Mr. Kovalev Nikolay Vasilievich / Director
  - Year of Establishment : N/A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 Support of investment projects
  
- PETROVSKY FONDOVY DOM
  - Address : Russia, Saint Petersburg, Nevsky prospekt d. 26 office 315
  - Tel. / Fax : (7-812) 318-6506
  - Website : <http://pfd.mdmspb.com>
  - E-mail : [skv@mdmspb.com](mailto:skv@mdmspb.com)
  - Contact : Mr. Gurtiev Andrey Konstantinovich / General Director
  - Year of Establishment : 2001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Investment Management
  
- ELBY-TRUST
  - Address : Russia, Saint Petersburg, Ul. Kantemirovskaya d. 12 office 10
  - Tel. / Fax : (7-812) 303-8943 / 303-8944
  - Website : [www.elby.spb.ru](http://www.elby.spb.ru)
  - E-mail : [akart@elby.spb.ru](mailto:akart@elby.spb.ru)
  - Contact : To whom it may concern
  - Year of Establishment : 2001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 Investment Management & Marketing
  
- PETERBURG-INVEST
  - Address : Russia, Saint Petersburg, Izmailovsky prospekt d. 4
  - Tel. / Fax : (7-812) 251-0462 / 316-0179
  - Website : N/A
  - E-mail : N/A
  - Contact : To whom it may concern
  - Year of Establishment : N/A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 Financing Service
  
- FINWAL
  - Address : Russia, Saint Petersburg, Ul. Zastavskaya d. 21
  - Tel. / Fax : (7-812) 389-0364 / 389-0564
  - Website : [www.allinvestrus.com](http://www.allinvestrus.com)
  - E-mail : [info@allinvestrus.com](mailto:info@allinvestrus.com)
  - Contact : Mr. Romanenko Oleg Nikolaevich / General Director
  - Year of Establishment : 1993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 Investment Consulting
  
- URAL-TRUST
  - Address : Russia, Yekaterinburg, Ul. 8 Marta 13-608
  - Tel / Fax : (7-3432) 511-891 / 513-180
  - Website : N/A

- E-mail : ural-trust@mail.ru
  - Contact : To whom it may concern
  - Year of Establishment : 1992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 Financing Service
- NORD-INVEST
    - Address : Russia, Yekaterinburg, Ul. Malysheva d. 101 office 436
    - Tel / Fax : (7-3432) 758-290
    - Website : N/A
    - E-mail : N/A
    - Contact : To whom it may concern
    - Year of Establishment : N/A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 Financing Service, Depository, Brokerage Service
- URALSKY VENCHURNY FOND
    - Address : Russia, Yekaterinburg, Ul. Mamin-Sibiryaka d. 58
    - Tel / Fax : (7-3432) 564-958
    - Website : www.uvf.ru
    - E-mail : uvf@uvf.ru
    - Contact : To whom it may concern
    - Year of Establishment : N/A
    - Type of investment activity : Venture business Support, Investors Search

## 2) 극동 러시아 - 연해주 지역

### □ 지방기관

- Administration of Primorsky krai (연해주정부)
  - 주지사 : Mr. Darkin Sergey Mikhailovitch
  - 부지사 : Mr. Gorchakov Victor Vasilyevitch, Vice-Governor on FER and Investments (gorchakov@hotmail.ru)
  - 주 소 : 22, Svetlanskaya St., Vladivostok, 690110, Russia
  - 전 화 : (7-4232)-223793, 223800
  - 팩 스 : (7-4232)-223793, 223800
  - E-mail : gubernator@primorsk.ru
  - 홈페이지 : www.primorsky.ru/ vv-gorchakov.narod.ru/
- 연해주정부 투자위원회(Committee on Investments, Administration of Primorsky krai)
  - 전 화 : (7-4232)-224187
  - 팩 스 : (7-4232)-224187
  - 담당자 : Mr. Maksimov Mikhail Nickolayevitch, Head

### □ 연방기관

- Representative Offi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Primorsky krai
  - 주 소 : 25a, Pushkinskaya St., Vladivostok, 690000, Russia
  - 전 화 : (7-4232)-221729, 223524
  - 팩 스 : (7-4232)-228158
  - 담당자 : Mr. Goryatchev Vladimir Vladimirovitch, Head

□ 투자지원기관(영리/비영리)

- Center of Investment Development Ltd.
  - 주 소 : Office 8/9, 26/2, Okeansky Ave., 690091 Vladivostok
  - 전 화 : (7-4232) 300398, 483008 / 팩스: (7-4232) 300398
  - E-mail : idcentre@online.ru; centre@mail.primorye.ru
  - 담당자 : Mrs. M.Yu. Makeeva, Executive Director
  
- OJSC Dalincom (Far East Investment Company)
  - 주 소 : 243, Kalinina St., Vladivostok, 690000, Russia
  - 전 화 : (7-4232)-281441 / 팩스: (7-4232)-281439
  - E-mail : info@dalincom.ru
  - 홈페이지 : www.dalincom.ru

□ 투자 컨설팅/법률 서비스

- ASSO Invest Consulting
  - 주 소 : Office 88, 12/1, Ulyanovskaya St., Vladivostok, 690089
  - 전 화 : (7-4232)-335722 / 팩스: (7-4232)-405463
  - E-mail : assoinvest@mail.primorye.ru
  - 홈페이지: www.assoinvest.bosfor.ru
  - 담당자: Mr. Ostropoltsev Sergey Yurievitch, Director
  
- West-Audit, audit company
  - 주 소 : Office 320, 42, Krasnogo Znameni Ave., 690106 Vladivostok
  - 전 화 : (7-4232)-429196 / 팩스: (7-4232)-429196
  - E-mail : zhanna@vlad.ru
  
- Engineering Consulting Company
  - 주 소 : 72, Svetlanskaya St., Vladivostok, 690000, Russia
  - 전 화 : (7-4232)-405838 / 팩스: (7-4232)-518595
  - E-mail : alexig@mail.primorye.ru

3) 극동 러시아 - 하바로프스크 주

□ 지방 기관

- Administration of Khabarovsky krai (하바로프스크 주정부)
  - 주지사: Mr. Ishayev Victor, Governor
  - 주 소 : 56, Karla Marksa St., Khabarovsk, 680000, Russia
  - 전 화 : (7-4212)-32-51-21 / 팩스: (7-4212)-32-87-56
  - E-mail: gover@adm.khv.ru
  - 홈페이지: <http://www.adm.khv.ru>
  
-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Administration of Khabarovsky krai
  - 주 소 : 19, Muravyova-Amurskogo St., Khabarovsk, 680000, Russia
  - 전 화 : (7-42120)-326651 / 팩스: (7-4212)-326898
  - E-mail: econ@adm.khv.ru
  - 담당자: Mr. Levintal Alexander Borisovitch, Minister of Economic Development and External Relations

- Department of FER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FIPA)
  - 대 표 : Lopatin Sergey Ivanovitch, Head of FIPA
  - 주 소 : 72, Frunze Street, Khabarovsk 680002, Russia
  - 전 화 : (7-4212)-324362, 324121, 325026
  - 팩 스 : (7-4212)-327603, 324121
  - E-mail : vnesh@adm.khv.ru, ininv@adm.khv.ru, intorg@adm.khv.ru
  - 홈페이지 : <http://www.fipa.khv.ru>
  
- Marketing Department
  - 담당자 : Yevgeny MURZIN
  - 전 화 : (7-4212) 32-76-12, 32-41-21
  - 팩 스 : (7-4212) 32-76-03
  - E-mail : intorg@adm.khv.ru
  
- Investment Projects Department
  - 담당자 : Tatyana KONONOVA
  - 전 화 : (7-4212) 30-63-75, 32-41-21
  - 팩 스 : (7-4212) 32-76-03
  - E-mail : ininv@adm.khv.ru
  
- Investor Service Department
  - 담당자 : Irina BESEDINA
  - 전 화 : (7-4212) 32-43-62, 32-41-21
  - 팩 스 : (7-4212) 32-76-03
  - E-mail : ininv@adm.khv.ru

□ 연방기관

- Representative Offic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in Khabarovsky krai
  - 주 소 : 85, Zaparina St., Khabarovsk, 680000, Russia
  - 전 화 : (7-4212)-328606 / 팩스: (7-4212)-326312
  - E-mail : virgo@mid.kht.ru

□ 투자지원기관(영리/비영리)

- Far Eastern CCI
  - 주 소 : 113, Sheronova St., Khabarovsk, 680670, Russia
  - 전 화 : (7-4212)-328233, 306888 / 팩스: (7-4212)-305458
  - E-mail : dvtp@fecci.khv.ru
  - 담당자 : Mr. Kruglikov Mikhail Vasilievitch, Head
  
- Khabarovsk krai Union of entrepreneurs
  - 전 화 : (7-4212)-301107 / 팩스: (7-4212)-301107
  - E-mail : KHKOP@mail.kht.ru
  - 홈페이지 : <http://www.khkop.khv.ru/>
  - 담당자 : Mr. Shulepov Yevgeny Nickolayevitch, Head

- Daiwa Fund(Investment Fund for enterprises of the Russian Far East and Eastern Siberia)
  - 주 소 : 7, Moskovskaya St., Khabarovsk, 680000, Russia
  - 전 화 : (7-4212)-237243 / 팩스 : (7-4212)-236398
  - E-mail : [rtf@daiwa.khv.ru](mailto:rtf@daiwa.khv.ru)

□ 투자 컨설팅/법률 서비스

- JSC Prim Invest Consulting
  - 주 소 : 51, 82, Zaparina St., Khabarovsk, 680000, Russia
  - 전 화 : (7-4212)-329754; 325654 / 팩스 : (7-4212)-329754; 325654
  - E-mail : [info@prim.khv.ru](mailto:info@prim.khv.ru)
  - 홈페이지 : <http://www.prim-invest.ru/>

4) 중부 러시아 - 이르쿠츠크 주

□ 지방 기관

- Administration of Irkutskaya oblast' (이르쿠츠크 주정부)
  - 주 소 : 1a, Lenina St., Irkutsk, 664027, Russia
  - 전 화 : (7-3952)-200015 / 팩스 : (7-3952)-200015
  - E-mail : [obl@admirk.ru](mailto:obl@admirk.ru)
  - 홈페이지 : [www.admirk.ru](http://www.admirk.ru)
  - 담당자 : Mr. Govorin Boris Alexandrovitch, Governor
- Department of Investment Policy
  - 주 소 : 1a, Lenina St., Irkutsk, 664027, Russia
  - 전 화 : (7-3952)-246452 / 팩스 : (7-3952)-246452
  - E-mail : [obl@admirk.ru](mailto:obl@admirk.ru)
  - 홈페이지 : [www.admirk.ru](http://www.admirk.ru)
  - 담당자 : Mrs. Korosteleva Tatyana Vladimirovna, Head
- Department of External Relations
  - 주 소 : 1a, Lenina St., Irkutsk, 664027, Russia
  - 전 화 : (7-3952)-256400 / 팩스 : (7-3952)-256235
  - E-mail : [dvs@admirk.ru](mailto:dvs@admirk.ru)
  - 홈페이지 : [www.admirk.ru](http://www.admirk.ru)
  - 담당자 : Mr. Sukhodolov Alexander Petrovitch, Head

□ 연방기관

- State Tax Inspection in Irkutskaya oblast'
  - 주 소 : 47a, Dekabr'skih Sobytiy, Irkutsk, 664007, Russia
  - 전 화 : (7-3952)-241871 / 팩스 : (7-3952)-334686
  - E-mail : [u38@r38.nalog.ru](mailto:u38@r38.nalog.ru)
  - 홈페이지 : <http://www.nalog.east-siberia.ru/>
  - 담당자 : Mr. Vas'kov Vladimir Leonidovitch, Head

□ 투자지원기관(영리/비영리)

- Eastern Siberian CCI
  - 주 소 : 16, Sukhe-Bator St., Irkutsk, 664003, Russia
  - 전 화 : (7-3952)-342747, 335060, 335132, 335116, 335100
  - 팩 스 : (7-3952)-335066, 343793, 335100
  - E-mail : info@ccies.ru
  - 홈페이지 : www.ccies.ru
  - 담당자: Mr. Shavrin Konstantin Semenovitch, President Mr. Sterkhov Anatoly Petrovitch, Vice-president
  
- Irkutsk Agency of Business Development (Autonomous Non-profit Organization)
  - 주 소 : 7b, Proletarskaya St., Irkutsk, 664011, Russia
  - 전 화 : (7-3952)-340599, 336272
  - 팩 스 : (7-3952)-343037
  - E-mail : info@irbp.ru , vs@irbp.ru
  - 홈페이지 : http://www.irbp.ru/

□ 투자 컨설팅/법률 서비스

- Central Company of Eastern Siberian Financial and Industrial Group
  - 주 소 : 7b, Proletarskaya St., Irkutsk, 664011, Russia
  - 전 화 : (7-3952)-335299, 241419
  - 팩 스 : (7-3952)-335286
  
- Vostochno-Sibirskaya Fondovaya Kompaniya
  - 주 소 : 6th floor, 12, Rossiyskaya St., Irkutsk, 664000, Russia
  - 전 화 : (7-3952)-258307
  - 팩 스 : (7-3952)-258307
  - 참 고 : 주로 portfolio 투자 컨설팅

5) 중부 러시아 - 크라스노야르스크 주

□ 지방 기관

- Administration of Krasnoyarsky krai (크라스노야르스크 주정부)
  - 주 소 : 110, Mira Ave., Krasnoyarsk, 660009, Russia
  - 전 화 : (7-3912)-222263 / 팩스: (7-3912)-221178
  - 홈페이지 : http://www.hloponin.ru/ http://www.krskstate.ru/
  - 담당자 : Mr. Khloponin Alexander Gennadyevitch, Governor
  
- Department of FER, interregional relations and investments
  - 주 소 : 110, Mira Ave., Krasnoyarsk, 660009, Russia
  - 전 화 : (7-3912)-493718, 493232 / 팩스: (7-3912)-217039
  - E-mail : uvs@public.krasnet.ru , oiuv@mail.ru
  - 담당자 : Mr. Kacherov Sergey Alekseevich, Head

□ 연방기관

- State Tax Inspection in Krasnoyarsky krai
  - 주 소 : 46, Partizana Zheleznaya St., Krasnoyarsk, Russia
  - 전 화 : (7-3912)-639101
  - 팩 스 : (7-3912)-629469, 629470
  - E-mail : u24@r24.nalog.ru
  - 홈페이지 : <http://www.r24.nalog.ru/>
  
- Krasnoyarsky State Committee on Statistics
  - 전 화 : (7-3912)-344202, 342594
  - 팩 스 : (7-3912)-344202, 342594
  - E-mail : [inform@statis.krasnoyarsk.su](mailto:inform@statis.krasnoyarsk.su)
  - 홈페이지 : <http://www.krasnet.ru/~statis/>
  - 담당자 : Mr. Bondarev Valeriy Vladimirovitch, Head

□ 투자지원기관(영리/비영리)

- Central Siberian CCI
  - 주 소 : 26, Kirova St., Krasnoyarsk, 660049, Russia
  - 전 화 : (7-3912)-239613, 237900, 237853
  - 팩 스 : (7-3912)-239683
  - E-mail : [cstp@krasmail.ru](mailto:cstp@krasmail.ru)
  - 홈페이지 : [www.cstpp.ru/](http://www.cstpp.ru/)
  - 담당자 : Mr. Kostin Valery Alekseevitch, President
  
- Technopark
  - 주 소 : 6, Dubenskogo St., Krasnoyarsk, 660000, Russia
  - 전 화 : (7-3912)-236890, 237985
  - 팩 스 : (7-3912)-236890, 237985
  - E-mail : [www.technopark.scn.ru](http://www.technopark.scn.ru)
  - 홈페이지 : [technopark@online.ru](mailto:technopark@online.ru)
  - 참 고 : 투자프로젝트 및 신기술 소개와 안내

□ 투자 컨설팅/법률 서비스

- Tsentral Strategicheskogo Planirovaniya(Center of Strategic Planning) Krasnoyarsky krai State and Social Fund
  - 주 소 : 108, Mira Ave., Krasnoyarsk, 660017, Russia
  - 전 화 : (7-3912)-226447, 222785
  - 팩 스 : (7-3912)-226447, 222785
  - 담당자 : Mr. Novikov Vyatcheslav Aleksandrovitch / Director General
  
- Krasnoyarsk Agency of Financial Analysis and Consultation
  - 주 소 : 108, Mira Ave., Krasnoyarsk, 660000, Russia
  - 전 화 : (7-3912)-226447, 222785 / 팩스: (7-3912)-226447, 222785

## 라.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 경제개발통상부

외국인투자 정책 마련, 투자관련 기관의 활동 조율, 자유경제지대의 설정, 양허 계약 및 생산물 분배계약 체결, 국제 입찰 및 경매추선, 국제금융기관 및 외국에서 제공된 신용의 배분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산하에 국제개발협력부(departm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co-operation)이 있다.

### □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외국인 투자자의 금융업 진출 시 인허가 기관 조세관련 법령의 작성, 집행 감독하는 기관

### □ 외국인투자유치 센터(Foreign Investment Promotion Center)

- 1995년 6월 經濟部(Ministry of Economy) 산하에 설립됨. 투자절차 및 관련법규, 러시아의 제반 투자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주소: Moscow, Smolenskiy Blvr., 3/5
- 전화: (7-495)245-2171; Fax: (7-495)246-9439
- 웹사이트: <http://www.fipc.ru>
- fipc-Contact: Mr. Sergei Tsakunov (question@mail.fipc.ru)

### □ 국가등록처(State Registration Chamber)

1994년 경제부 산하에 설립되어 재무부(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국제협력개발 청에 서 관련업무가 이관됨. 외국인회사의 인가(accreditation) 및 등록(registration), 러시아 인(자연인/ 법인)의 해외투자 등록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산하에 경제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 당직자, 주요 경제사회연구소 및 법률회사, 컨설팅 회사의 경영진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외 민영화 관련 기관으로 국유자산위원회 (state property committee, GKI), 연방자산기금 (russian fund for federal property) 등이 있다.

- 주소: Ministry of Economy, Ulitsa Novy Arbat 19, 103025 Moscow
- 전화: (7-495)245-2090, 246-702

### □ 현지 투자컨설팅

- 회사명 : Price Waterhouse Coopers
- 주소 : 109240, Nikoloyamskaya ul.13, Moscow, Russia
- Web-site : [www.pwgglobal.com](http://www.pwgglobal.com)
- Contact Pers
- 성명: Mr. Alexander Yerofeyev, Mr. Mark Okesvoysey, Mr. Ruud Bouwman
- 전화: (7-495) 967-60-00
- 팩스: (7-495) 967-60-01
- 특기사항: Price Waterhouse Coopers는 1992년 설립되었으며 러시아의 민간기업 및 정부기관의 금융조달, 외국 투자가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며, 업무 내역을 아래와 같음.

- 외국 투자가에 대한 컨설팅 업무
  - 투자대상 선정 및 평가
  - 외국기업과 러시아 기업간 거래의 금융, 조세, 법률상담 및 제안
  - 상담 지원
  - 거래성사후의 Follow-up
  - 주요 컨설팅 분야
    - 자동차 산업, 석유/가스산업, 통신산업, 철강/비철금속 산업, 식품/제과 산업, 화학산업, 항공산업, 증권
  - 주요 고객
    - Nestle, AlliedSignal, Pratt & Whitney, Cable & Wireless, Alcoa, Unilever, ICN Pharmaceuticals, CreditSuisse, Avalon International, Meredith
- **Troika-Dialog Investment Bank**
- 주소: 103009, Romanov per.4, Moscow, Russia
  - Web-site : www.trodial.ru
  - Contact Pers
    - 성명 : Mr. Bernard Sucher Mr. Christopher Weafer
    - 직위(부서) : Head of Sales and Trading Head of Research
    - 전화 : (7-495) 258- 05-00
    - 팩스 : (7-495) 258-05-47
  - 특기사항
    - Troika-Dialog Investment Bank는 1991년 설립 이래 주로 러시아의 증권거래 및 외국 투자 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를 주로 하여 왔으며 러시아의 주요 도시에 지사망을 갖추고 있고 직원 수가 200 여명에 이르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투자 전문 기업 중의 하나임.
  - 주요고객
    - Aga, Cargill, Dupont, LaFarge, Phillip Morris, Tetra Laval, Rostelecom, Lukoil, Izvestia, Uniland, etc.
  - 컨설팅 비용은 사안별로 달라 일률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성공 시 일정액을 지불하는 성공 수임료(Success Fee)가 있다 함.
- **회사명: CentreInvest group**
- 주소: 125080, ul.Vrubelya 12, Moscow, Russia
  - Web-site : www.cig.ru
  - Contact Pers
    - 성명: Mr. Alexandre Babian, Mr. Peter Houlder, Mr. Dan Rapoport
    - 직위(부서): 증권분야 기업 컨설팅 증권거래
    - 전화: (7-495) 564-82-90
    - 팩스: (7-495) 564-82-99
  - 특기사항
    - CentreInvest Group는 1992년 설립 이래, 주로 증권중개, 기업금융, 기업경영 및 정보 시스템 컨설팅을 위주로 하여 왔으며, 런던, 뉴욕, 키예프의 해외지사 및 러시아의 주요도시에 지사를 설치, 운영 중으로 160명의 전문가가 활동중임.
  - 외국인 투자관련 주요업무
    - 주요 프로젝트 평가, 투자 타겟 선정, 법률/조세 컨설팅, 마케팅
  - 주요고객
    - Amerada Hess, Amoco, Arthur D. Little, Bankers Trust, British Petroleum, Chevron, Daiwa Securities, the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Mobil, Salomon Brothers, Tacis, The World Bank

## 7. 노무관리

### 가. 개요

구 소련 시절부터 유지돼 온 양호한 교육 체제로 인해 러시아는 교육 수준이 높은 양질의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체제 전환 이후 등록학생 수도 늘어나고 교육체제도 서구화되고 있으며, 법률, 회계, 경영 등 분야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다.

구 소련 시절보다는 이공계의 중요성이 줄어들어 따라 양질의 기술 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풍부한 양질의 기술인력이 러시아 투자환경의 장점이 되고 있다.

모스크바와 러시아 제2도시인 St. Petersburg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인력을 고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인력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점차 러시아 인력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저렴한 임금으로 인해 중간직 및 고위 관리직도 해외 인력보다 러시아 인력으로 충원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다.

구 소련 시절 보편적이었던 평생직장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높은 이직률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이직을 막기 위한 보상체제가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휴일근무에 대한 좋은 근로조건 제시로도 자신들의 공휴일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나. 노동법

러시아연방 노동법은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핵심법규로, 현재의 연방노동법 제 197-FZ호는 2002년 1월 1일 발효되어, 2003년 6월 30일과 2004년 4월 27일 두 차례 개정이 있었다. 신법의 특징은 종전보다 고용주의 권리를 확대하고 시장경제체제에 맞도록 법체계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노동법은 아직도 친근로자 성향의 노동계약이 많이 남아 있는 법규이며, 아울러 영미법 보다는 대륙법 체계에 가까운 것이 특징이다.

노동법은 국적(대사관 및 유사기관은 예외)을 불문하고 모든 법인과 피고용자에게 적용되며, 고용주가 법을 어길 경우 민사소송, 행정처분, 징계 또는 형사소송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모든 고용주는 피고용자와 노동계약을 작성해야 하며 (동법67조), 노동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법57조). 외국인 근로자와의 고용계약서는 러시아어 계약서 또는 러시아어로 번역된 계약서이어야 한다.

노동계약 종료절차는 종전보다 간소화되었으나, 아직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고용주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노동법에는 노동안전문제, 노동시간, 최소임금 등이 규정되어 있다. 최소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고용주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다. 최소임금은 법령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많이 사용된다.

노동법 3조는 성별, 민족, 인종, 국적, 종교, 신념, 특정 단체 회원 여부 등의 사유로 인한 근로자 차별 대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아직은 러시아 근로자 사이에 차별 대우에 대한 논란은 크지 않은 편이다.

#### □ 기타 노동법규

- 단체계약에 관한 법 제2490-1호
-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에 관한 규칙 제175-FZ호
- 노동조합의 권리 및 활동보장에 관한 법 제175-FZ호
-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대한 강제사회보험에 관한 법 제125-FZ호
- 러시아연방 내 노동보장여건에 관한 법 제181-FZ호
- 행정처분에 관한 러시아연방 규칙 제196-FZ호
- 러시아연방 내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제115-FZ호

기타 노동법규들은 노동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을 규율하고 있으나, 때로는 중복되는 문제도 있다. 노동조합에 관한 법은 노동조합에 광범위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법규위반에 관한 행정처분 규칙은 위반사항의 다름, 행정처분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노동문제는 러시아법상 민·형사상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음.) 또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 관련 법규는 기업에 대한 러시아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요건 등을 규율하고 있다.

러시아 노동법규는 노동 감독청(State Labour Inspector)에 다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러시아 노동법규 준수 여부 조사
- 고용주로부터 관련서류 제출 요구 및 수령
- 고용주에 대해 노동권 보호조항의 위배사항을 해소토록 하는 강제 명령권 발동
- 노동보호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완료하지 않은 근로자의 노동 행위 중단 조치
- 행정조사 수행
- 노동안전요건 위배 고용주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

형식주의 성격이 강한 러시아 노동법의 특징상, 고용주는 필요한 구비 서류를 잘 갖추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관행상, 노동 감독기관들은 실질적인 노동 여건보다 법규 준수의 형식 요건을 더 중시하고 있다.

#### 다. 노동 조합

민영화와 구조 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노조에서 이탈하고 있으며, 최근 도소매, 금융,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 근로자의 노동 조합 참여율은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노조는 지역별, 산업별 연합체를 형성하고 있으나, 기업단위 노조가 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 □ 러시아의 4대 노조연맹

- 독립노조연맹(The 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구 소련의 노조연맹 조직과 인력을 승계. 78개 지역과 43개 산업별 노조 참여. 가입근로자는 약 3,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모든 러시아인 노동연맹(The All-Russian Confederation of Labour): 6개 산업과 5개 지역별 노조 참여. 가입근로자는 약 127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러시아 노동연맹(The Russian Federation of Labour): 5개 산업과 4개 지역별 노조 참여. 가입 근로자는 약 125만 명으로 추산된다.
- 사회노조연맹(The Association of Social Trade Union: SOTS- PROF): 최대 독립노조로 참여회원은 다양한 산업에서 수십만 명이 참여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시장 개혁을 지지 하며, 서구 노조의 전술을 채택하고 있다.
- 1990년대에는 주요 파업의 원인이 임금체불이었으나, 임금체불이 줄면서 파업도 줄어들고 있다. 파업에 관한 절차는 노동법 제 61장(398조 ~ 418조)과 집단적 노동분쟁 해결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뒤 문서로 작성된 요구안을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3영업일 이내에 이에 대한 회신을 해야 한다.
- 이의가 있는 경우 먼저 노사대표로 구성된 조정위원회(conciliation committee)에 이의 내용을 회부하는 강제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실패하면 이의를 조정기구 (intermediary)에 제기하고, 다음으로 노동중재기구(labour-arbitration body)에 제기한다.
- 근로자는 상기 절차를 모두 거치거나 사용자가 자발적 중재(조정기구, 노동중재기구 회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2/3 이상 참여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파업을 선언 할 수 있다. 근로자 총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서명한 청원서를 통해 파업을 선언할 수 있다.
- 사용자는 10일 이내 문서로 파업선언 사실을 통보 받아야만 한다.

근로자 대표가 위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413조에 규정된 상황 하(파업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등)에서 파업은 불법이며 법원은 사용자를 위한 손실 보상의 변경을 내릴 수 있다.

## 라. 임금 및 부가 급여

러시아 노동법은 최저임금제(월 단위)를 마련하고 있으며, 정부는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통상 1년에 2회씩 조정하고 있다. 러시아의 법정 최저 임금은 2005년 1월부터 800 루블이고 2006년 5월 1일부터는 1100 루블로 개정되었다. 한편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데, 모스크바 시는 2006년 9월부터 4,900 루블로 설정하였다.

러시아 임금은 최근 빠르게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국가 통계위원회 (Goskomstat)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분기 기준 러시아 월평균 임금수준은 \$400 수준이며, 지역별로는 마리엘공화국 등 남서지역은 7000루블(\$280)에서 야말로 네네츠크 자치구와 같은 오지는 36,000루블(\$1,440)로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모스크바의 경우 20,111루블(\$800) 수준으로 높은 지역에 속한다.

임금 인상보다는 임금 체불이 러시아 노동시장의 심각한 문제였으나, 1999년 이후 경제 회복과 정부의 노력으로 임금 체불 현상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임금 및 부가급여(fringe benefit)는 산업별, 지역별, 업종별로 편차가 크며, 석유, 가스, 전력, 비철금속 등의 분야가 높은 편이다. 한편, 기업별로는 외국인기업, 합작투자기업의 임금수준이 국내 민간기업의 2~4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지역별, 기업별 편차는 큰 편임.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벗어나면 임금수준은 일반적으로 크게 낮아지며,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임금 수준도 모든 직급에서 모스크바 지역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다.

급여 체불 시 <월급여액 x 체불일수 x 중앙은행 이자율의 1/300>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15일 이상 임금 체불 시 피고용인은 밀린 임금을 받을 때까지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한 후 업무를 중지할 권리가 있다. 아울러, 급여의 비화폐 지급(현물 지급)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피고용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이다.

## □ 법정 부가급여

### ○ 휴일

- 법정공휴일(노동법 112조에 규정)은 신년휴일(1.1~1.5), 크리스마스(1.7), 조국 수호기념일(2.23), 국제 여성절(3.8), 봄과 노동의 날(5.1), 전승기념일(5.9), 러시아의 날(6.12), 통합의 날(11.7) 임. 또한,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5일 근무 후 2일 (통상토, 일요일)의 휴무가 주어진다.

### ○ 연간휴가일수

- 피고용자에게 동일한 고용주와 연속 6개월 근무 한 후 연간 28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동 휴가는 취소될 수 없으며, 특정한 상황(노동법 115조, 122조, 124조에 규정)에서는 휴가 부여가 연기될 수 있다. 신입직원의 경우 취업 후 6개월 후 휴가가 가능하며, 휴가는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분리 실시 휴가 중 최소 1회는 연속 14일 이상이어야 하며, 잔여 휴가 기간은 14일 이하 휴가를 실시해도 무방하다.
- 미사용 휴가는 피고용자의 동의하에 차년으로 이월될 수 있으나, 피고용자측 사정으로 인한 휴가 미사용은 이월이 불가능하다. 노동법상 최소 휴가일 수는 28일이나, 최대 휴가일수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간 최소 휴가일수인 28일내의 휴가 미사용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불가능하다

### ○ 병가수당

- 피고용자는 병가 복귀 후 의료증빙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병가수당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단, 보건부 장관령 제206호(1994. 10.19제정) 2.3조에 의거, 병가가 1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는 적어도 월 1회 이상 의료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하다. 병가 사용 근로자는 사회보장기금으로부터 근무 불능에 따른 수혜 자격을 획득한 뒤 10개월(경우에 따라 12개월)까지 병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사회보험의 예산 기금에 관한 법(연방법 제 17-FZ호, 2002. 2.11 발효)15조에 의거, 이 때 병가수당은 월 11,700 루블을 초과할 수 없음. 동 법은 3명의 자녀가 있는 여성, 근무경력 8년 이상의 근로자는 산업재해 보상금액의 100%를 병가수당 최저액으로 설정하였다. 그 외의 경우는 근무기간에 따라 병가수당 최저액이 달라진다. (근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 근로중단에 대한 지급을 위한 사회보험기금 결의서 제02-18/05/1136호 (2002. 2.18)에 의거)

- 출산휴가
  - 유급출산휴가는 예정출산일 전에 최소 70일과 출산 후 70일이 주어지며, 복수자녀 출산, 난산 등의 경우 휴가일수가 길어질 수 있다. 산모, 돌볼 아이가 있는 아버지나 조부모 등은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분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무급 또는 유급 휴가로부터 근로자는 직장에 복귀할 권리를 가지며, 휴가기간은 근로자의 근무 경력에 포함된다(노동법 255,256조).
- 사회복지수당
  - 장애수당, 실업수당, 국가연금 등은 사회보험 및 연금에서 지급되며, 사회보험 및 연금은 고용주가 납부하는 통합사회세로부터 재원이 마련되고 있다.

법정 부가 급여 외에 서구기업들을 중심으로 일반직원에게는 의료보험(가족 포함), 중식대, 이동전화 등이 제공되고, 관리자급 직원에게는 차량, 체육시설 이용권, 스톡옵션 등 제공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 밖에 사적 연금과 생명보험 등은 아직 초기단계에 있으며, 통상 러시아의 부가급여 비용은 기본임금의 약 3~5% 수준이다.

## 마. 근무시간

노동법 제 15장(91조~99조)은 근무시간을 다음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정상근무시간은 주 40시간이다. 단, 근로자의 조건에 따라 근로시간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16세 미만은 주당 24시간 이내, 16~18세이고 법규에 정해진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는 주당 36시간 이내, 병역자는 주당 35시간 이내, 18세 미만의 재학생은 재학기간 중 주당 18시간 이내이다.

노동법 99조는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해 다음같이 규정한다. 초과근무는 명확히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문서로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 특정 범주의 근로자들은 초과근무가 금지되는데, 18세 미만자, 임산부, 기타 연방법규에 규정된 사람 등이다. 장애인, 3세 미만 유아를 가진 여성 등에게는 사전에 문서로 된 동의를 얻은 후에만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으며, 초과근무를 억제하는 의료기관의 권고에 반할 수 없다.

노동법 152조에 의거, 초과근무는 2일당 4시간, 연간 12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첫 2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상임금의 1.5배 이상, 추가적인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정상임금의 2배 이상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 바. 시간제 근로 및 임시직 고용

고용기간이 한정된 임시직(temporary) 고용계약은 노동법 59조에 정해진 특정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59조의 특정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일시적으로 발생한 부재인력의 대체
- 2개월 이내의 일시적 작업, 계절적 작업의 수행
- 특정한 작업 수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한 조직의 업무에 지원한 인력의 고용
- 전일제 학업을 수행 중인 인력의 고용
- 다른 직업을 가진 인력의 고용
- 연금수혜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일시적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의 고용
- 기업의 대표, 부대표, 선임회계사의 고용
- 연방법에 달리 규정된 경우 등

한정기간계약의 고용은 다시 한정기간계약을 통해 연장될 수 없으며, 계약 종료 또는 기간 제약이 없는 고용계약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노동법 제45장(289조~292조)은 2개월 이내 종료되는 한정기간 고용계약의 특별규칙을 두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는 월 2일간의 유급 휴일 또는 동등한 금정보상 권리가 부여된다. 사용자는 공휴일 근무를 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휴일근무수당은 정상 임금의 2배다.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수습기간은 고용계약서(노동법 70조 및 71조에 규정)에 명문화되어야 한다. 통상 수습기간은 3개월이나, 대표자, 부대표, 선임 및 차석 회계사 등 고위전문직은 6개월로 할 수 있으며, 임산부, 18세 미만자, 졸업 후 첫 취업자 등에게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수습기간 중 면직되는 피고용자는 문서로 면직사유를 들을 권리가 있으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노동법 93조는 시간제 근로(part-time) 고용을 규율하고 있다. 시간제 근로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임산부, 14세 미만자나 18세 미만 장애자의 보호자, 간호가 필요한 가족이 있는 자 등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정상근로자와 동등한 임금(즉, 정상임금의 근무시간 해당분)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유급휴일 등의 근로조건에 있어 정상근로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법 제44조(282조~288조)는 제2직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사용자는 제2직업을 가진 근로자에게 주 40시간 근로와 일 4시간 또는 주 16시간 추가근무 이상의 근무를 요구할 수 없다.

## 사. 근로계약의 종료

노동법 제13장(77조~84조)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규율하고 있다. 현 노동법은 종전에 비해 완화되기는 했으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의 해지는 매우 경직적이다. 특정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하나 그에 대한 충분한 증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 노동법 81조의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

- 사용자의 청산
- 잉여인력 존재
- 주어진 과업수행이 곤란한, 의료확인서로 입증된, 근로자의 건강문제
- 증빙이 첨부된 과업수행 자질부족
- 이미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주어진 의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합당한 사유 없이 근무시간 중 4시간 이상 이석한 경우
- 음주, 약물복용, 중독 등의 상태로 근무에 임한 경우
- 법적의 보호를 받는 업무비밀을 노출시킨 경우
- 절도, 횡령, 고의 기물파괴 등
- 위반 시 심각한 결과의 초래가 우려되는 근무안전 요건의 위반
- 기업재산을 위태롭게 할 기업 대표, 부대표 또는 수석회계사 등의 잘못된 결정
- 기업 대표 또는 부대표의 총체적인 의무 위반
- 기업 대표 또는 실행기구 구성원과의 고용계약에 규정된 종료사유
- 노동법 또는 다른 연방법에 규정된 종료사유

절도, 음주, 안정요건 위배 등의 의무 위반의 경우, 면직 통보나 해직수당 지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아직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편이나, 근로자의 자격요건 미달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 될 수 있다. 근로자의 건강상 이유로 면직되는 경우 2주 이상의 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출직 노조위원장의 고용계약 종료는 노조의 승인이 있어야만 허용된다. 노조원의 고용계약을 종료하려면 사용자는 먼저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노동법 373조)

노동법(178조~180조)은 잉여인력의 일반정리해고 문제를 엄격히 취급하고 있다. 사용자는 정리대상 근로자에게 기업내부(자회사, 지정까지 포함)의 능력에 맞는 다른 업무 제공을 제안한 뒤에만 감축 처리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병가, 정상휴가 등)로 휴가 중인 근로자는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없다. 또, 동일한 직위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근로자보다 생산성, 기술 등의 자격요건이 열등하지 않은 근로자를 정리해고 할 수 없다.

노동법 261조에 따라 임신부, 3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여성, 14세 미만 자녀 또는 18세 미만 장애아를 양육하는 편모, 어머니 없는 14세 미만아 또는 18세 미만 장애아를 양육하는 자 등의 근로자는 일반 정리해고로부터 보호된다. 또한,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노동감독청 (SLI)과 청소년위원회(Committee for the Affairs of Underaged Children)의 승인 없이 면직시킬 수 없다(노동법 269조).

정리해고 대상이 된 근로자는 최소 2개월 전 문서로 된 정리해고 통지를 받아야 하며, 최소 2개월의 해고수당이 주어진다. 정리대상 근로자의 문서로 된 동의를 있는 경우, 사전 통보를 대신하여 추가 2개월의 해고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

임시직에는 통보기간, 해고수당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다(노동법 292조, 296조). 계약기간이 2개월 이내에 종료된 임시직 근로자와 수습기간 종료 전 면직된 근로자는 3일 전 통보가 필요하며, 해고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 면직 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면직사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노동법 392조).

현 노동법은 구법과 달리 노조가 근로자 해고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을 철폐하였다. 현실적으로 고용 계약 해지는 사용자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데, 법원 면직사유에 대해 사용자의 무거운 입증책임을 묻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사용자는 꼼꼼한 노동관련 문서관리를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데, 세밀한 근로자의 직무기술서가 작성된 경우, 보다 용이하게 근로자의 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다.

면직에 대한 근로자들의 소송제기 등은 거의 없으며, 무단으로 근무를 4시간 이상 이탈할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의원 면직형태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 아. 외국인의 고용

외국인지위법(Law on the Legal Status of Foreign Citizens in the Russian Federation 제115-FZ호, 2002. 11 제정 및 2003. 6. 30 개정)은 러시아 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 법적 지위를 규율하고 있다. 동 법은 외국인의 러시아내 취업요건을 강화하고 취업비자 발급 절차도 변경시켰다.

일부 CIS 국가 출신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러시아 내 취업 근로자는 취업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비자는 해외 러시아 공사관이 발급하며, 비자발급에는 유관 정부기관의 초청장이 필요하다. 언론인, 외교관, 국제기구 종사자, 정부기관 대표 등은 외무부가 비자 발급에 관여하나, 일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무부의 이민국(Migration Service)이 담당하고 있다.

#### □ 러시아 내 외국인 고용절차

-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연방이민국으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내용에는 대상국과 고용외국인 수가 정해진다.
- 고용외국인은 개인적으로 취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외국인 인적 사항과 러시아 방문 목적 등에 관한 상세 정보를 제출하고 관련 기관의 초청장을 신청해야 한다.
- 외국인은 해외 러시아 공사관으로부터 취업비자를 신청한다. 이때 러시아 공사관은 해당 러시아 기업의 초청장 및 외국인의 HIV검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인지위법 13조는 취업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업종을 나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언론인, 외교관, 취학 중인 학교에서 취업하는 학생 등이 포함된다. 거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도 별도로 취업허가 신청이 필요 없다. 그러나 동 법은 종전에 비해 면제대상 업종이 축소되는 등 관련 규정이 보다 엄격해졌다.

새 외국인지위법은 외국인 거주허가제를 도입했는데, 여기에는 3년간 유효한 한시 거주 허가제와 5년간 유효한 영구거주허가제 등 2가지로 나뉜다. 처음에 외국인은 한시 거주 허가를 신청하게 되며, 한시 거주 허가를 받아 1년간 체류한 뒤 영구 거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시 거주 허가에는 입국비자만 요구하나, 한시 거주 허가를 받아 러시아에 체류하는 3년 간 외국인은 재 입국을 위해서는 출국 시 마다 출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영구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출입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004년 11월부터 상용비자(business visa)의 최장 유효기간은 1년이다. 거주허가 및 취업허가는 정부가 설정하는 쿼터제의 적용을 받는데, 아직은 외국인 고용에 이 제도가 어떤 제약을 미치는지 명확하지 않다. 개인에 대한 취업허가 외에 외국인 고용기업은 별도의 외국인고용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 모든 허가는 내무부의 이민국이 담당하고 있다. 이 때 취업허가는 통상 비자발급용 초청장과 함께 신청한다.

외국인지위법 18조(5번째 문단)는 추방요건에 해당된 외국인 근로자의 추방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외국인 고용기업에 대해 일정금액을 예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3영업일 이상 러시아에 체류 및 취업하는 모든 외국인은 가까운 이민국 지방사무소에 등록 해야 하며, 등록은 초청기관이 한다. 등록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정의 벌금 처분을 받거나 경찰의 불신검문을 받는 등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취업허가는 갱신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신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새로운 취업허가서가 발급되면, 외국인이 러시아를 떠나지 않고도 취업비자를 갱신할 수 있다. 외국기업 대표 사무소 주재원은 내무부 비자 등록국(Office for Visas and Registration)이 아닌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등록국(State Registration Chamber)에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자. 고용주세

고용주는 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성 기금에 근로자를 등록하고 월 급여의 총 26.2%에 해당하는 금액을 7개 용도별로 구분하여 매월 납부해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고용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급여를 축소 신고하는 경향이 있으나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편법은 피하는 것이 좋다.

### 러시아의 고용주세

(단위:%/월급여)

구 분	세 율
의료보험(지자체)	2%
단일사회보장세(연방정부)	6%
산재보험	0.2%
연금기금(저축성)	4%
단일사회보장세(사회보장기금)	2.9%
연금기금(보장성)	10%
단일사회보장세(연방의료보험)	1.1
합 계	26.2%

## 8. 조세제도

### 가. 조세체제

러시아 내 세금은 연방세, 연방구성주체세, 지방세로 구분되어 있으며 같은 조세항목으로 부과되어더라도 (예: 이윤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일부는 연방 재정으로, 일부는 연방 구성 주체 재정으로 분할되어 귀속되는 경우가 많다.

### 나. 연방세

- 관세: 평균 13% 수준
- 유가증권거래세: 0.8% (1차 발생시에는 면제)
- 소비세(excise): 20-90%
- 부가가치세: 18%
- 천연자원사용세: 2004년도 천연자원 독점권 세금 인상 한도를 승인. 가스-20%, 전력-16%, 운송-12%
- 고속도로 사용세: 0.11% 또는 1.5% (은행, 보험회사)
- 개인 소득세: 13%
- 러시아 명칭 사용세: 0.05-0.5%
- 광물 자원 재생산세

### 다. 연방구성주체세 (공화국, 주, 지방, 자치주 등)

- 교통세: 1%
- 자동차 보유세: 330-6,500 루블/1마력
- 자동차 구입세: 20%
- 석유.유탄유 판매세: 25%
- 교육세
- 상수도료
- 임산물 수익
- 법인 재산세: 2% 미만

## 라. 지방세

- 인지소득
- 개인 재산세
- 기업등록세
- 휴양지 내 산업건물 건설세
- 휴양지 사용료
- 의장등록 라이선스
- 공공소비 (군, 치안 등)를 위한 특별세
- 광고세
- 자동차, 컴퓨터 재판매세
- 개 사육세
- 주류 생산허가료
- 경매 및 제비뽑기 허가료
- 주거등록세
- 주차료
- 지역상징 사용료
- 경주참가료
- 경주우승자 세금
- 제비뽑기 부과금 / 환전.송금료
- 사진 촬영료 / 거리유지세

## 마. 투자 시 각종세제

러시아 조세법에 의하면 원칙상 러시아 내국법인과 외국투자법인은 평등하게 취급되며 따라서 외국 투자법인도 내국법인과 동등하게 세금을 내야 한다.

### 외국 투자기업 관련 주요 세금

세금명	세율 (%)	부과대상
부가가치세	18	매출액
교통세	1	임금지불총액
자동차구입세	20	구매가격
자동차보유세	엔진용량에 따라 차이	자동차 총 마력
재산세	1.5	자산총액
도로세	0.8	매출액
광고세	5	광고비용
이윤세	24	이윤액
개인소득세	13	소득액
각종수수료	종류에 따라 차이	증명서 발급 등
연료, 윤활유 판매세	25	판매액
외환거래세	0.1	외환거래액
교육, 훈련세	1	임금지불총액
주택세	1.5	매출액

자료원: 각종 조세관련 법규

## □ 혜택

외국투자법인(100% 투자법인 및 합작법인 포함)에 대한 조세상의 혜택은 타국에 비하면 적은 편이나 현행세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에 준하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TAX HOLIDAY 는 2년간 부여(3년 차에는 50%, 4년 차에는 25% 감면)하되, 제조업, 농산물 가공, 소비재 생산, 醫藥品 생산, 장비 생산업체 중 장애인 고용 기업, 주택건설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한 자사 생산제품의 수출 시 수출세를 면제받고, 기자재 수입 시 수입관세를 면제 받는다. 세무 신고는 매년 4월 15일까지 차년도 예상 소득액을 신고하고 공인 회계사의 공증 문서를 첨부한다.

## 바. 위반 시 세무국의 권한

세무국은 위법 기업에 대해 기업활동 중지를 법원(중재법원 포함)에 신청할 수 있다. (기업 폐쇄, 벌과금 징수, 기업등록 취소 등)

## 사. 한-러시아간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른 규정

건설사무소는 12개월 미만이 소요될 경우 상설사무소로 간주하지 않으며, 국제운송분야의 소득에 대한 과세는 한국에서 한다. 주식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 측 투자가 30% 이상이며 \$10만 이상인 경우 5%, 그 외에는 10%이다. 183일 미만 거주자로서 러시아인이 아닌 외국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러시아 내 상주사무소에서 발생하지 않는 월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 소득세를 면제 받는다.

## 아. 영업세(Profit Tax)

기업의 영업소득에 대한 세율은 24%이다.

## □ 기타 특수영업활동에 대한 세율

- 주식배당, 이자에 대한 세율: 15%
- 타기업 경영참여에 대한 소득의 세율: 15%
- 비디오 살롱, 대여업: 70%
- 카지노: 90%

## 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러시아로의 상품수입, 국내물품.상품.서비스의 매매에 과세되고 기본세율은 18%. 세율은 식품이나 어린이용품, 일부 의료기기에는 10%의 절감세율이 부과되고 상품의 수출에는 통상 0%의 절감세율(납세 후 환급받는 형식)이 적용되고 있다. 2002년 1월 시점으로 의약품, 신문.잡지.교육도서 등에 10%가 적용되며 기본식품.아동용품에도 10%가 적용되고 있음. 또한 CIS 국가로의 수출에는 수입국가에서 자국의 부가가치세율을 과세하고 있다.

납세의무자는 러시아에서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한 법인 개인이다. 단, 러시아에서 세무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법인이 러시아 법인에게 상품을 판매해서 부가 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진 경우, 상품의 구입자인 러시아 법인이 부가가치세 부분을 원천해서 납세하는 제도가 있다. 2001년 1월부터는 과세 대상금액이 일정 한도가 되지 않는 자(납세 시에 3분기 연속해서 과세 대상 금액이 100만 루블 이하인 경우)는 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 차. 소득세(개인)

2001년부터 누진세율을 폐지하고 단일세율 13%로 통합하였다. 단 종래 외국인에게 인정되어왔던 주택 수당 공제가 폐지되고 주택 수당도 과세대상 소득이 됨. 또한, 비거주자에 대한 러시아 원천소득의 과세율은 30%가 되는데 외국인인 경우 통상 달력상 1년을 기준으로 해서 183일 미만 러시아에 체재한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되어 세율은 13%가 아닌 30%가 적용된다.

## 카. 부동산 관련 조세

우리나라의 해외부동산 투자규제가 완화되면서 극동러시아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들은 다음과 같다.

### 러시아의 부동산 관련 세금

세 금 명	세 율 (%)	부 과 대 상
토지세	농지: 12~96루블/헥타 도시: 1.3~12루블/㎡ (지자체별로 차이)	땅
기업재산세	2.2% 이내	
부동산판매세	주택: 0.1~2%, 차고: 1% 산업건물: 2%, 기타: 5% 이내 (3년 이상 보유시 면세)	
개인재산세	1.5% 이내	
임업세	5%	생산물
부가가치세	18%	판매액
기업소득세	24%(외국법인은 20%)	매매차익 및 임대소득
개인소득세	13%(외국인은 30%)	매매차익 및 임대소득
상속세	5~40%(인척관계 및 금액에 따라 차등)	
증여세	3~40%(인척관계 및 금액에 따라 차등)	
단일소득세	20% (1실당 18 - 24 최저임금 이상)	개인사업자의 임대소득

자료: 각종 조세관련 법규

## 타. 러시아 관세법 개정

1999년 이후 4년간에 걸쳐 장기간 논의되어 온 바 있는 관세법 개정안이 2004년 1월 1일 시행에 들어갔다.

### □ 관세법 개정의 주요 목적

- WTO 가입 협상용: 교토 협약 등 수 많은 국제협약 내용을 검토하고 관세법과 주요 국제 협약들의 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해 내용을 보완, 개정했다.
- 법률 재정 후 상황이 급변, 업데이트링 필요성 제기: 현행 관세법은 1993년에 최종 개정된 법으로 민법, 세법, 행정법 등과 모순되는 조항이 많기 때문에 개정 필요성 제기됐다.

주요한 개정 골자는 아래와 같다.

	현행 관세법	신 관세법
통관절차	통관은 세관원이 관련서류 검사와 제품 검사, 수량검사, 신청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실시됨.	좌동. 단 세관원이 <랜덤 검사와 적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통관을 시행하는 원칙>을 강조
통관서류	관세위원회 부속령 등에 언급돼 있으며 본법에는 미 언급	관세법 내에 통관서류 리스트 명시
제품 인도기간	통관서류 수령 후 10일 이내	3일 이내로 축소
원산지 규정	원산지에 대한 명확한 언급 미비	원산지규정에 관한 별도 '장'을 만들어 정확한 원산지에 대한 규정 설명

#### 파. 세무 사찰

국세청은 수시로 세무사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조세경찰은 국세청의 공문을 보여주고 사찰을 시작해야 한다. 법인은 조세관련 자료를 잘 보존해야 하며, 현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를 강조하면서 적극적을 임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2~3년은 세무사찰을 실시하지 않으며, 수년간 자료를 축적하고, 의문점을 발견하거나 신고가 들어올 경우 세무사찰을 나오는 경향이 있다.

###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 외환 관리

2004년 7월 14일 발효된 신 외환 관리법(Low on Currency regulation and Currency control 제 173-FZ호)은 구법(1992.10.9.)을 전면 개정한 법으로 외환 거래 자유화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종전에는 중앙은행의 건 별 승인이 필요하던 많은 외환 거래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다. 또, 신법은 외환 거래 규제 주체인 중앙은행과 중앙정부의 과도한 외환 관련 규정 남발을 제한하고 있다.

신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외환 및 루블화 거래, 거주자 간 외환 거래, 비거주자 간 외환과 루블화 거래 등을 규정하며, 그 밖에 증권 시장, 거주자 통화 시장, 역외 역내 은행 계정 사용, 러시아 거주자의 외환 송금에 관한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전에는 기업들에게 허용되는 외환거래와 중앙은행의 허가가 요구되는 거래 리스트가 사전에 정해져 있던 것에 반해, 신법은 특별히 금지되지 않는 한 기업들에게 어떠한 외환거래도 허용하고 있다.

신법의 장점은 예치 의무가 일부 거래에만 적용되며, 나머지 거래는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단 루블화 지불 준비 요건에 따라 예치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신법에서는 새로운 사전등록 요건이 채택 되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 조세당국에 사전 등록해야 한다.

- 거주자가 OECD 회원국 또는 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회원국 외의 국가에 소재한 외국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

- 정부나 중앙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루블화나 국내증권을 국외 반출입하는 경우

신법에 따라 중앙은행은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러시아 은행 또는 예금수탁기관에 증권거래용 특별계정을 개설 유지하는 경우 사전등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은 특별계좌와 관련된 시행령을 수 차례 제정한 바 있다.

- 중앙은행령 제115-1호(2004.6.7): 비거주자 화폐자산 회계를 위한 특별 중개인 계정에 관한 규정

- 중앙은행령 제116-1호(2004.6.7): 거주자 및 비거주자 특별 계정 종류에 관한 규정

수출품 통관 이후 수출 결제 기간이 180일 이상인 무역거래는 신법의 외환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규제대상 거래에 대해 선수금 또는 미수금의 50%까지 루블화 예치의무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예치기간은 최장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러시아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특별계정 이용 및 최장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거래금액의 100%를 루블화로 예치토록 규제할 수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대출, 증권, 은행 거래 등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특별계정 이용 및 거래 금액의 100% 루블화 예치규제가 유지되고 있다. 단, 동 규제는 2007년 1월 1일까지만 유효하다.

특별계정 의무 사용 규제는 중앙은행이, 루블화 예치 규제는 중앙은행과 정부가 할 수 있으며, 종전 외환 규제와 비교하여 신법은 비거주자 간 거래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신법은, 반독점 법 및 다른 증권규제를 벗어나지 않는 한, 비거주자간에 국내외환계정 또는 역외 외환 계정을 이용한 모든 외환거래와 국내증권이 개재된 모든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한편, 중앙은행은 비거주자 간 국내증권의 거래대금 지급은 특별 계정을 통하도록 규제할 수 있으며, 신법에 따라 비거주자 간 루블화 거래는 반드시 러시아 은행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신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중앙은행이 정한 절차에 따라 러시아 은행계정을 개설 유지하는 것이 허용되며, 러시아 은행계정과 역외계정 간 자금이체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러시아 거주자들은 아직도 수출대금의 본국 송금 및 외환의 의무전환 규제를 받고 있으나, 신법은 한 가지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즉, 거주자들은 OECD회원국 거주자와의 대출계약(잔여 만기 2년 이상)상 의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수출대전 송금의무가 완화된다. 동 예외 조항으로 러시아 수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구조가 좀 더 다양해지게 되었다.

신법에 따라 정부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외환유출을 막기 위해 특별 계정 거래만 허용하고 2개월간 원천징수예치(withholding deposit)를 실시 할 수 있으나, 무제한적인 금지는 허용 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외환 규제는 외화도피와 자국경제의 달러화를 억제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인가된 은행은 거래과정에서 고객의 법규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외환규제를 위반한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는 등 외환 통제 대행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외화도피, 달러화 등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수출자에게 수출대금의 국내회수와 수출대금 수취 후 7일 이내에 수취 외환의 25%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자국 경제의 달러화를 막기 위해 1994년 1월 1일 이후 외화 현금의 국내사용이 금지되어 왔다. 면세점 사용 액, 외국 항공사(또는 운송회사)의 항공권 구입(단, 해당국과 러시아간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함)등 예외적인 사항 외에는 신용카드 결제액도 루블화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신법은 몇 가지 거래에 한해서 거주자 기업간 전환통화 거래를 허용하였다. 외화 사용이 허용된 거래는 인가된 은행간 거래, 비거주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대행계약 (agency agreement), 일부 운송 거래, 특정한 조세납부 등이다.

비거주자 기업(대표사무소 등)은 외환으로 피고용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피고용자 가 비거주자인 경우 역외계정으로 지급하고, 거주자인 경우 인가된 러시아 은행의 피고용자 계정으로 직접 송금할 수 있다. 대부분의 외국인 기업은 내국인에 대한 임금으로 루블화 상당액의 외환을 지급하고 있다.

자금 세탁법(제115-FZ호, 2001.8.7) 및 자금세탁에 관한 대통령령 제 1263호(2001.11.1)는 60만 루블(2만 달러 상당) 이상의 외환 매매 거래에 관여 하는 은행, 증권거래 기관, 보험사, 리스회사, 기타금융기관 등은 재무부 산하 금융감시위원회에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러시아의 불량거래 리스트는 FATF가 권고하는 '의심스런 거래' 리스트를 일부 수정한 것으로, 연방법 제88-FZ호(2004.7.28)는 보고대상 거래 리스트와 보고 의무기관 리스트를 명시하고 있다.

2003년 3월 14일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대용화폐(currency valuables) 또는 외국통화의 반출에 동일한 제한을 받고 있다. 기존에 반입 또는 국내로 이체된 대용화폐(외국 통화 제외)는 입증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반출될 수 있다. 만일 비거주자가 이러한 입증 없이 화폐 또는 대용화폐를 러시아 밖으로 반출하다가 세관에 적발되는 경우 전액 몰수 될 수 있다.

10,000달러까지의 외환은 별도의 승인 없이 반출될 수 있으며, 세관증명에 의해 이전에 반입된 금액까지도 별도승인 없이 반출될 수 있다. 개인은 반출 시 3,000달러 초과금액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3,000달러 이내 금액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비거주자의 특별계정 유형에 관한 중앙은행령 제116-1호(2004.6.7)는 S, O, V1, V2 등 5가지 유형의 비거주자용 특별 계정을 지정하고, 종전 특별계정은 폐지하였다.

외환관리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비거주자가 외환 거래 인가를 받은 은행에 외환 계좌를 보유하는 것에는 제한이 없다. 비거주자는 외환계좌를 통해 외화표시 대출거래를 할 수 있고,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역외계좌로부터 자금을 이체 할 수 있다.

러시아 법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외국인 직접 투자와 포트폴리오투자 등에서 발생한 투자 원금, 발생수익, 기타이익 등의 본국송금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투자원금 송금의 보고 의무는 없다.

러시아 정부는 구 소련의 협정을 포함한 모든 투자 보장협정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 했으며, 투자보장 협정에 따라 국유화의 경우에도 모든 투자 자산 및 이익의 회수를 보장한다.

한편, 2006년 7월 러시아 정부가 루블화에 대하여 완전 태환화폐로의 전환을 발표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외국 기업의 활동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 ※ 법인과 개인의 차이

개인이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절차는 비교적 간편하다. 여권과 비자를 소지하고 해당은행에서 계좌개설 계약서를 체결하면 된다. 개인계좌의 송수금은 비교적 용이한데 반해, 법인계좌의 송수금은 매 건 내역을 은행에 통지해야 된다.

#### ※ 러시아에서 외환 반출시 주의사항

최근 러시아의 외환규정을 잘 모르는 한국 비즈니스 맨들이나 업체들은 러시아 출국시 무리하게 현금을 소지하다가 발각되어 소유 전액을 뺏기고 벌금까지 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만일, 러시아에서 생긴 소득을 한국으로 가져가려 할시에는, 현지 아무 은행에서나 외환구좌를 개설하던지 아니면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송금액수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외국인의 경우 1회에 2-3만불 가량은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송금할 수 있다. 아울러 현금을 소지해 출국할 시에도 신고서를 작성하면 아무런 제재없이 반출할 수 있다.

#### □ 대금결제제도

러시아 내 대금 결제는 크게 현금 결제와 비현금 결제로 나누어진다.

일반 소비자와의 결제에는 제한없이 현금결제가 가능하지만, 기업(개인사업자 포함)간 거래에 대한 대금결제는 비현금결제를 사용해야 한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결제는 루블화로 해야 한다. 비현금결제는 은행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며, 이체, 신용장, 어음, 수표 등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지불지시(이체지시)는 발급 후 10일 이내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지불시기는 계좌잔고 부족 등으로 이체되지 않는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지불(이체) 취소 할 경우 일부만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액을 취소해야 한다.

계좌의 잔고가 부족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으로 지불이 이루어진다.

- ① 피해 보상금
- ② 휴가비, 저작권료, 용역직 임금
- ③ 임금, 사회보장 기금 납부금
- ④ 공과금
- ⑤ 일반 대금결제

지불신청서(플라쯔지느에 팔루체니에)는 러시아내에서는 2일 이내, 해외송금은 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한다. 수표는 은행 제 출시점에 지급해야 하는데, 유효기간에 관해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은행들은 통상 10일을 기준으로 접수한다.

모든 지불증과 인보이스는 기업의 회계보고를 위해 보관해야 한다. 또한 현금 또는 카드 결제는 등록된 현금등록기의 발행 영수 증을 보관해야 한다.

수리 공사 등 서비스는 엄격한 명세표 관리대상으로써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업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관해야 한다.

## V. 기타 유용한 정보

### 1. 시장 특성

러시아 시장은 시장 경제 체제가 아직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태로써, 사회주의 통제 경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로의 전환 과도기에 있다.

때문에 자본주의적 경제 행위를 뒷받침하는 각종 인프라가 미흡하다. 운송, 통신, 금융 등 주요 기간 서비스가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유가로 인한 오일머니의 유입으로 국가 예산이 늘어나자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각종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입품위주의 시장이며, 자국 제조업 육성을 위해서라도 수입을 늘여야 하는 형편에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 집권 이후, 각종 개혁안이 나오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WTO 가입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 미국과의 양자 협상 중인데, 비록 2006년 7월에 양자협상의 타결을 보지 못하였으나, 2006년 10월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 중에 있다. 이러한 양자 협상 과정을 통해서 보다 국내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가. 서부러시아 경제권

서부 풍부한 시장규모(1억명)와 서부 CIS 국가, 발틱 3국과 인접하여 배후시장 막대하다. 또한 다른 러시아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수준과 높은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재 산업 육성이 가능하고 서유럽 및 중부 유럽시장과 연계도 높다.

#### □ 자동차 및 부품

2004, 2005년에는 현대차가 수입시장 넘버원을 기록하였으나, 2006년에는 한국내 파업으로 인한 공급부족으로 2위를 차지. 현지 전문가들은 2006년 연간 수입차 예상 판매대수는 100만대 수준으로 보고 있음. 이는 현지인들의 소득증가에 따라 1-2만불대 차량의 구매가 확연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한국산 완성차 판매증가에 따라 부품 수출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러시아 수입자동차 판매현황

NO.	회사명	2007년 3/4분기	2006년 3/4분기	증가율(%)
1	Ford	120,410	68,243	76.4
2	Toyota	110,484	68,133	62.2
3	Chevrolet	98,098	47,946	104.6
4	Hyundai	95,685	69,204	38.3
5	Nissan	81,832	50,536	62.9
6	Renault	71,351	48,818	46.2
7	Mitsubishi	69,920	51,706	35.2
8	Daewoo	66,941	50,709	32.0
9	Kia	56,636	44,080	28.5
10	Opel	45,027	12,183	269.6

자료원: 재러 유럽 자동차 비즈니스 위원회

- 유럽시장을 겨냥한 조립생산 기반 확보
  - 현재 기아,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단순 조립, SKD 생산기반 구축
  - 장기적으로 CKD 생산기반 구축 필요

### □ 전기/전자

- SKD 혹은 조립생산 위주의 현지 투자
  - 부품수출 확대도 가능하며,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고용창출로 실업해소라는 현지 정부의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 대기업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동반진출 가능하다.
  - 특히, LG전자는 2006년 모스크바 서쪽 72km 떨어진 '루자' 군에 컬러 TV, 냉장고, 세탁기, 오디오 등 4개 품목 생산공장 건설하고, 2006년 9월 정식 가동을 시작함.

### □ 기계, 플랜트류

- 노후기계 개체수요 조사 및 진출확대
  - 자본부족으로 기계 및 설비 노후화가 심하고 기계 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공장기계, 섬유기계, 포장기계 등 한국산 기계류는 성능면에서 EU산과 대등하고 가격은 30 - 50% 내외 저렴하여 경쟁력 보유하고 있다.

### □ IT

- 성장 유망하나 진출이 부진한 IT 서비스부분 집중 공략하는 것이 좋다.
  - PC 모니터, PC 프린터, CD-ROM, HDD, 이동전화기, DVR 등의 수출 호조
  - 우리의 진출이 부진하나 급성장중인 서비스 부문 진출 필요
  - 유망분야: SI(시스템 통합), S/W,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 유지 및 보수, 데이터 처리 등

#### □ 건축자재 및 장비

신규 건축 및 리모델링 붐 확산,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수요 증대 예상된다.

#### □ 석유화학제품

건축경기 활성화, 식품가공산업 발달에 따른 각종 원자재(PE 레진 등 합성수지) 수요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산 제품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다.

#### 나. 시베리아 경제권

기본적으로 시베리아 지역은 풍부한 지하자원(원유/가스, 알루미늄, 우라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적정 시장규모(3천만명) 보유하고 있는 시장이다. 또한 물류의 중심지로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따라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철도 분기점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항공화물 물류센터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과학기술 단지(아카젬 고로독)가 소재하여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전반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저가 중국제품 유통 활발한 상황이다.

#### □ 중고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 중고 자동차 수입증가에 따른 부품 수요 증가(일본산 자동차 부품)
- 한국산/일본산 공히 사용 가능한 부품 및 일본산 주요 사용 부품

#### □ 패션문구류

- 현지 생산제품 조약하다
- 생활수준 향상 및 패션 문구류에 호기심 증폭(학생들 사이에서 큰 인기)

#### □ 식품가공기계류

- 각종 식품 가공기계 및 포장기계류에 대한 수입 인과이어리 증가하고 있다.

#### □ 의료용기계

- 한국산의 경우 독일산 대비 가격 및 품질경쟁력이 있다.
- 의료용 제품 현지수요 증가에 따른 기계 현대화 및 수입 증대 추세가 있다.

#### □ 건설중장비

- 현지 건설붐에 따른 중장비 수요가 증가하고있다.
- 독일산 대비 한국산 중고 건설 중장비가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 다. 극동 러시아 경제권

극동 지역은 작은 시장규모로 자체 제조업 취약한 시장이다. 수산업의 러시아화 가속으로 경제적 발언권이 강화되고 있으며, 막대한 산림자원 개발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극동에 위치한 지리적 특징으로 인하여 아시아산 농산물(화훼류) 거래도 활발하다. 한러 협력사업 추진도 진행중인데, 산림개발, 가스전 개발 등에서 협력을 시도하고 있다. 극동 경제권에 편입되어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시장진출이 활발한 곳이기도 하다.

### □ 식품가공기기

농무부의 식품 및 식품가공산업 담당국에 의하면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인 부문은 설탕, 유아식품, 소프트드링크, 맥주, 육류, 소시지 및 낙농제품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추정에 의하면 연간 식품산업의 시장규모는 미\$250억 규모라고 하며 앞으로도 시장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 사무용품

러시아 사무용품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는 전도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음. 평균적으로 매년 20 ~ 40%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 러시아 문구류 시장 상황은 3중 파이에 비유할 수 있다. 가장 밑바닥 층은 품질이 낮은 저가 제품이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간층은 약 60%를 점하고 있다. 중국, 대만, 일부 러시아 및 유럽 제품이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상위층은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메이커 브랜드'제품이 이 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품질 좋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사무용품의 공급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된다.

### □ 보일러

전통적으로 대부분의 건물은 중앙공급식 난방이지만 점차 에너지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고 사용자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개별난방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 □ 농산물(화훼류, 과실류)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 등은 러시아 다른 지역이나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몇몇 대형마트에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 칠레산, 미국산, 네덜란드산이 비교적 깨끗이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렇듯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 등의 과일이나 채소류 및 화훼류 등의 경쟁력있는 품목의 수출을 고려해 볼만하며, 꿀, 화훼류 등은 극동지역에서 이미 거래가 성사된 품목이다. 이후 유망한 품목은 딸기, 감, 배 등의 달고 시원한 아이템이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 □ 수산장비

극동 러시아 주요 지역들은(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사할린, 캄차트카주 등)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어 일찍부터 수산업이 발달해 있다. 따라서 각종 수산장비(소형어선, 어망 등 각종 기자재)에 대한 수요가 꾸준한 편이다.

## 라. 소비자 특성

러시아 소비구조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며, 소수의 부유층(인구의 10% 수준)과 다수의 빈곤층(40% 수준)으로 나누어진다. 부유층은 고가의 서구 최고급 브랜드를 선호하고, 빈곤층은 자국산 및 저가의 수입제품을 주로 구매한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소위 중산층 계층이 형성되고 있고,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으며, 최근 경제 호황세에 따라 점차 중산 층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매결정 요인은 점차 가격요인 중시에서 브랜드를 중시하는 추세로 급격히 변하고 있다.

## 마. 유통 구조의 특징

전반적으로 러시아 유통산업은 발달하지 못했다. 국가배급 시스템의 붕괴 후 유통 시스템에 혼란이 일어났으며 최근 IKEA, METRO, Auchan 등 외국계 유통회사의 진출이 활발하지만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데다가 모스크바에만 집중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체와 소매상을 연결하는 중간단계가 미흡하고, 수입상이 직접 소매상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러시아의 지하 경제(Shadow Economy) 비중이 GDP의 40%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약 10%가 지하 경제와 관련하여 부유층으로 부상하였고, 러시아 기업들이 서방 은행에 예치한 외화액이 수백억 달러 규모이다.

## □ 극동러시아 유통구조의 특성

극동 러시아의 수입상품 공급은 모스크바 중개상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만, 점차 직수입을 해서 극동시베리아 지역 전역으로 공급을 하는 수입중개상이 발달하고 있다. 시장규모가 협소하여 소량 다품종 주문이 일반적이며, 대금결제는 T/T를 선호하는 경향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다.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과 국경무역이 활발해 지면서 중국의 값싼 공산품과 농산물이 대거 범람하고 있으며, 2007년 들어 러시아 정부의 외국인 퇴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상권은 여전히 상당부분 중국인이 장악하고 있다.

## 2. 바이어 발굴

### 가.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 해외 광고 홍보 매체에 광고

국내의 단체와 기관에서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발행하였다. 홍보지에 광고를 함으로써 바이어에게 국내 기업들의 정보를 알리고 바이어가 취사선택한 후 접촉을 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법 역시 인터넷이 발달함과 동시에 최근에는 퇴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인터넷 보급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의 바이어들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여전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 2) 해외시장 개척단 및 전시회 참가

해외시장 개척단은 KOTRA, 중소기업청, 무역협회, 각 지방자치단체 에서 모집하여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주관자가 시장개척단을 모집하여 방문하고자 하는 현지 정부 무역담당 부서 또는 무역기관에 협조를 받아 현지 바이어에게 홍보를 하고 시장 개척단이 현지에 도착하여 한국 상품의 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금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최근에는 러시아 시장의 호황을 이루게 되어, 각종 대규모 전시회들이 개최되고 있으며, 기존 제품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전시회를 통해서 발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유망 전시회 참가를 통해서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도 추천하는 방법이다.

## 3) 무역상담회 및 설명회 참석

현재 국내의 무역기관에서는 수많은 상담회와 설명회가 개최되고 있다. 상담회나 설명회의 경우 사전에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에게 상담회 및 설명회에 대한 공고를 개별적으로 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다. 수시로 일정을 체크하여, 행사에 참가함으로써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

## 4) 駐韓 외국 경제단체 활용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경제단체들은 국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국 기업인들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나.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1) 해외 시장 조사 대행

국내 무역기관 및 협회를 이용함으로써 바이어를 발굴할 수도 있다. KOTRA 홈페이지의 “인콰이어리”에는 각종 분야별로 다양한 오피들이 한국 기업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의 시장조사를 통해 바이어를 발굴하는 시스템도 보유하고 있다. 해외무역관 Q&A 나 주한 러시아 대사관의 사이버 기업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2) 디렉토리 검색

최근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바이어를 발굴하는 것도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디렉토리, 옐로우 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하다.

비교적 편리하게 바이어를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용면에 있어서도 부대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점이 장점이다(대표적 매체: KOMPASS).

대표적인 러시아 기업정보 제공 웹 DB는 [www.adwin.ru](http://www.adwin.ru) 이다. 이 사이트를 활용하면 지역별 업체들을 검색할 수 있고,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직접 유선접촉을 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러시아 지역 전시회 정보 검색 사이트

세계 전시 정보	www.infoexpo.spb.ru
러시아 전 지역의 전시회 관련 기관 리스트	www.brigexpo.ru
러시아 지역 내 전시회 일정	www.infoexpo.ru
엑스포센터	www.expocentr.ru
쌍트-베짜르브르그 전시회	www.infoexpo.ru
Conference and Business Service (Moscow)	www.cbsservice.ru
FarExpo (Saint Petersburg)	www.farexpo.ru
Siberian Fair (Novosibirsk)	www.sibfair.ru
Expo Sibir (Kemerovo)	www.exposib.ru
SibExpoCenter (Irkutsk)	www.sibexpo.ru
Krasnoyarsk Fair	www.krasfair.ktk.ru
Altai Fair (Barnaul)	www.altfair.ru
종합상품 카탈로그	<a href="http://www.uslugy.ru">www.uslugy.ru</a>

### 러시아 경제 및 무역 정보 검색 사이트

러시아 경제관련 법규 및 정보 검색	www.conseco.ru
러시아 수출입 관련 제반 정보 제공	www.rusimpex.ru
러시아 검색 사이트	www.yandex.ru
	www.aport.ru
	www.rambler.ru

### 무역관련 업무에 유용한 인터넷 사이트

구 분	사이트명	주 소
종합무역 정보	KOTRA KITA	www.kotra.or.kr www.kita.net
거래알선 사이트 (국내)	EC21 EC플라자 티페이지글로벌 e-트레이더 바이코리아 퍼스트비투알 서플러스글로벌 보따리21 텍스콤닷컴 인터넷중소기업관 농수산물무역정보망 코참비즈 기계산업정보망 전자산업진흥회 한국전시산업진흥회 한국수입업협회	www.ec21.com www.ecplaza.net www.tpage.com www.e-trader.com www.buykorea.org www.first2r.com www.surplusglobal.com www.botari21.co.kr www.texcom.com <a href="http://www.koreasme.org">www.koreasme.org</a> www.kati.net www.korchamiz.net www.koami.or.kr www.eiak.org www.kei.or.kr www.koima.or.kr

<p>거래알선 사이트 (해외)</p>	<p>알리바바 글로벌소시스 토마스 레지스터 트레이드 인디아 콤파스 리퀴데이션 트레이드이지 메뉴팩처닷컴 비즈비비 익스포터스닷컴 비즈유럽 SW365 엑신티크 WTPFED 티에스센트럴 비지트레이드</p>	<p>www.alibaba.com www.globalsources.com www.thomasregister.com www.trade-india.com www.kompass.com www.liquidation.com www.tradeeasy.com www.manufacture.com.tw www.bizbb.com www.exporters.com.sg www.bizeurope.com www.sw365.com <a href="http://www.eximturk.com">www.eximturk.com</a> www.wtpfed.org www.tscentral.com www.busytrade.com</p>
<p>사이버상담 사이트</p>	<p>사이버 비즈니스 센터</p>	<p>www.trademartkorea.com</p>
<p>사이버 전시회</p>	<p>온캠텍스 멀티쇼 비즈맥 엑스포타운 엑스코 넥스포</p>	<p>www.on-camtex.com www.multi-show.com www.bizma.co.kr www.expotown.co.kr www.exco.co.kr www.nexpo21.com</p>
<p>물류 및 통관</p>	<p>슈퍼스케이트 스케줄뱅크 카고패스 로지스피아 물류넷 코리아로지스 e-logis 대한통운 현대택배 한진택배 고려해운항공 한양국제운송 범한종합물류 대승항운 한진해운 현대상선 고려해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골든사이트 e4 cargo 한국전자물류 트랜스 클럽 트랙슨 카고르 운송닷컴</p>	<p>www.shippersgate.net www.scedlebank.com www.cargopass.co.kr www.logis.co.kr www.truck.co.kr www.korealogis.net www.elogis.co.kr www.webtruck.co.kr www.cylogis.com www.hanjin.co.kr www.kmtcas.co.kr www.cargopia.com www.pankorea.co.kr www.dsecargonet.com www.hanjin.com www.hmm21.com www.kmtc.co.kr www.koreanaircargo.co.kr www.asianacargo.co.kr www.ratequery.com www.e4cargo.com www.eglogix.com www.transclub.com www.traxon.co.kr www.cargoro.com www.woonsong.com</p>

### 3)사이버 상담

아직까지 러시아의 인터넷 속도는 한국에 비하여 느리나, 최근 인터넷 전용선 보급 확대 등으로 사이버 상담을 통해서도 바이어와의 상담이 가능해졌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터넷 속도로 인하여 화면이 부자연스러운 수준이다. KOTRA에서도 국내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 다. 극동러시아 시장조사방법

러시아는 정보의 폐쇄성이 심해서 시장조사가 특히 어렵다. 시장조사를 위해서는 몸소 뛰어서 부닥쳐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시장조사에는 그 만큼 많은 끈기가 필요하고, 정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가 바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그에 비례한 비용절감과 성과창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시장조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정보소스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정보소스는 기본적으로 공개된 정보와 비공개된 정보로 구별할 수 있는데, 생생한 정보는 1차 정보원 즉,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것임을 잊지 말자.

이하에서는 극동러시아 시장조사에 필요한 정보소스를 정리해 본다. 대부분의 소스는 러시아어로 되어 있으니, 자료 분석을 위해서는 러시아어 인력이 필요하다.

#### □ 통계자료

구분	연락처 및 주소	입수가능 자료
인터넷	<a href="http://www.gks.ru/wps/portal">http://www.gks.ru/wps/portal</a>	통계청 사이트, 기초경제지표, 사회통계
인터넷	<a href="http://www.infostat.ru/">http://www.infostat.ru/</a>	유료사이트, 생산통계 등 일부 자료 무료 입수 가능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청 연해주 지사</li> <li>- 57 Fontannya st., Vladivostok</li> <li>- Tel.(7-4232)432597, 432688</li> <li>- Fax(7-4232)432597</li> <li>- <a href="http://www.primstat.ru">www.primstat.ru</a></li> <li>- <a href="mailto:vstat@mail.primorye.ru">vstat@mail.primorye.ru</a></li> </ul>	각종 통계

#### □ 기업정보

구분	연락처 및 주소	입수가능 자료
인터넷	- <a href="http://www.adwin.ru/">http://www.adwin.ru/</a>	러시아 지역별, 업종별 기업 DB
인터넷	- <a href="http://www.dh.ru/">http://www.dh.ru/</a>	극동러시아 업종별 기업DB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516.ru/ru/">www.516.ru/ru/</a></li> <li>- Tel.(7-4232)516516, 495516</li> </ul>	무료 114 서비스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http://www.v063.ru">www.v063.ru</a></li> <li>- <a href="mailto:info@v063.ru">info@v063.ru</a></li> <li>- Tel.(7-4232)218444</li> <li>- Fax(7-4232)218445</li> </ul>	무료 114 서비스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해주 상공회의소</li> <li>- <a href="http://www.ptpp.ru">www.ptpp.ru</a></li> <li>- <a href="mailto:expo@mail.primorye.ru">expo@mail.primorye.ru</a>;</li> <li>- <a href="mailto:palata@online.vladivostok.ru">palata@online.vladivostok.ru</a></li> <li>- Tel.(7-4232)222023</li> <li>- Fax.(7-4232)227226</li> </ul>	연해주 기업정보

□ 최근 뉴스

구분	연락처 및 주소	입수가능 자료
인터넷	<a href="http://www.rian.ru/">http://www.rian.ru/</a>	실시간 최신 뉴스(종합)
인터넷	<a href="http://www.interfax.ru/">http://www.interfax.ru/</a>	실시간 최신 뉴스(종합)
인터넷	<a href="http://www.vladivostoktimes.ru/">http://www.vladivostoktimes.ru/</a>	블라디보스톡 영어 신문

□ 상품, 시장동향

상품 및 산업동향에 대한 자료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전문 사이트를 찾거나, 산업별 전문 잡지를 구해서 보는 것이 빠르다. 러시아에는 아직 산업별로 조합이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구분	연락처 및 주소	입수가능 자료
인터넷	<a href="http://www.bisnis.doc.gov/">http://www.bisnis.doc.gov/</a>	미국 상무성제공 CIS 비즈니스 정보(종합)
인터넷	<a href="http://www.irr.ru/">http://www.irr.ru/</a>	러시아 최대 베틀시장
인터넷	<a href="http://gazeta.dalpress.ru/">http://gazeta.dalpress.ru/</a>	블라디보스톡 베틀시장
인터넷	<a href="http://www.rusmet.ru/">http://www.rusmet.ru/</a>	철강산업
인터넷	<a href="http://www.fishery.ru/">http://www.fishery.ru/</a>	수산업
인터넷	<a href="http://www.zodchiy.ru/index.html">http://www.zodchiy.ru/index.html</a>	건설업
인터넷	<a href="http://www.agronews.ru/">http://www.agronews.ru/</a>	농업
인터넷	<a href="http://www.chemforum.ru/">http://www.chemforum.ru/</a>	석유화학산업
인터넷	<a href="http://www.forest.ru/">http://www.forest.ru/</a>	임업

□ 통관, 관세 소식

통관은 러시아와의 교역에 있어 가장 어려운 문제중 하나이며, 수시로 관세와 규제조치가 변경되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구분	연락처 및 주소	입수가능 자료
인터넷	<a href="http://www.tks.ru/">http://www.tks.ru/</a>	관세율, 수입규제, 최신뉴스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극동세관</li> <li>- 21a, Posyetskaya st., Vladivostk</li> <li>- Tel.(7-4232)308817</li> <li>- Fax(7-4232)222877</li> <li>- <a href="http://www.dvtu.customs.ru">www.dvtu.customs.ru</a></li> <li>- <a href="mailto:pressa_dvtu@sovintel.ru">pressa_dvtu@sovintel.ru</a></li> </ul>	

□ 컨설팅 및 법률 서비스

러시아내 기업설립이나 회계서비스는 전문 컨설팅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구분	연락처 및 주소	입수가능 자료
인터넷	<a href="http://www.duma.gov.ru/">http://www.duma.gov.ru/</a>	러시아 법령 (러시아 하원공식 홈페이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laudit</li> <li>- 주소: <a href="http://www.dalaudit.ru">www.dalaudit.ru</a></li> <li>- 전화: 7-4232-265597</li> <li>- 이메일: <a href="mailto:audit@dalaudit.ru">audit@dalaudit.ru</a></li> </ul>	기업등록, 세무결산, 컨설팅

## □ 커뮤니티

구분	연락처 및 주소	입수가능 자료
인터넷	<a href="http://www.kaprussia.com/">http://www.kaprussia.com/</a>	연해주 한인회
인터넷	<a href="http://cafe.daum.net/russia/">http://cafe.daum.net/russia/</a>	러시아 정보마당(카페)

### 3.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가.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1)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

일반적으로 이 말은 러시아 사회는 물론 러시아 시장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다. 아무리 쉬워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일이라도 막상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쉽게 성사되는 경우가 있다. 법, 제도의 투명성 미비 및 자의적인 해석 관행 때문에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러시아 바이어들은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하지만 무턱대고 법을 우회하는 방법에 치중할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원칙적인 방향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서 행정 투명화 및 부정부패척결 등이 주요 사회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원칙적인 거래를 원하는 바이어들이 늘고 있는 현실이다.

##### 2)대면 상담을 할 기회를 만들어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러시아에서는 인간관계가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냥 한국에서 팩스/전화상 연락만으로 러시아 시장을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원인 중 한가지는 러시아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사장의 의사결정이 직원의 제안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인데, 통상 단순한 팩스, 이메일은 묵살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 3)러시아인의 눈높이에 맞춰라

종종 한국인은 한국인의 시각으로 러시아인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즉 우리가 좋아하면 러시아인도 좋아하겠지 하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이 경우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다. 러시아 사람들은 복잡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순 투박한 것이 의외로 잘 팔려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러시아인의 눈높이에 기준을 맞추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 4)'머리' 보다 '가슴'으로 이해하라.

'러시아는 머리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러시아 속담이 있다. 실제로 러시아 사람들은 작은 일에서도 개인적이고 비공식적인 접촉의 기회를 가질 때 쉽게 가까워지고 신뢰를 얻을 수가 있다. 상담에 임할 경우 악수를 할 때 눈을 마주 보면서 하는 것, 가벼운 포옹을 하는 것, 개인적인 질문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협상의 중요한 요소들은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최종 계약을 하는 경우 등에는 반드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처리해야 한다.

사업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곧바로 계약서에 따른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는 먼저 개인적인 관계를 통하여 상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좋다. 러시아 사람들은 비즈니스에서도 개인적인 신뢰를 우선시한다.

#### 나. 계약체결시 유의할 점

전통적으로 러시아 영세 수입업자들은 4~5만 달러의 소량 주문, 2주 이내의 단기 딜리버리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제 3국을 통한 L/C 베이스 거래가 늘어나고 있어, 對러 수출의 대금결제 안정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높아진 편이다. 그러나 아직도 러시아의 금융 인프라가 미비해 T/T 및 현찰거래 관행이 보편화되어 있는 편이다. 또한 법·제도의 투명성이 부족하고, 관료주의 및 높은 관세율 때문에 소비재의 경우 보따리장사 및 밀무역이 아직도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러시아와 무역거래를 할 때, 러시아 측에서 흔히 요구하는 것이 대금의 일부를 결제하고, 일부는 추후에 지불하겠다는 조건이다. 즉, 대금의 50%는 물건을 선적하기 전에 T/T 방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선적한 후에 몇 달 이내로 주겠다고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몇 번 거래를 하여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면 관찰을 수도 있지만, 처음 거래를 하면서 이와 같은 조건을 내거는 경우 수출자로서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거래를 하지 않기도 애매하고, 하기도 불안한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나서 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한 선수금을 많이 받는 것이 좋다. L/C를 개설했을 경우도, 수출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을 들어두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외 D/A·D/P 거래를 하는 경우는 반드시 수출보험을 들어두어야 한다.

최근에는 러시아 석유 회사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원유를 수입하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무역 사기도 발생한 적이 있다. 러시아의 석유 판매는 개별 기업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을 통한 사업 수행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

#### 다. 시베리아 지역 바이어와 상담시 유의사항

##### 1) 처음부터 많은 물량의 오더 기대는 금물

시베리아 바이어들은 대부분 모스크바와 블라디보스톡 딜러등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고 있어 처음부터 대량의 오더를 하는 경향이 적다. 그러나, 직수입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수익 극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작은 물량이라도 성실하게 대응하면 일정 시점이 지나 고정적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2) 무조건 외상 요구하는 바이어의 주의 요

금융 기관을 통한 융자시 이자율이 20% 이상으로 높고, 외환 송금시 당국의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바이어의 신용도에 따라 결제조건에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가급적 첫 거래는 L/C 거래가 아니더라도 T/T 조건등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선수금 및 외상 지불 조건등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 권할만 하다. 무조건 외상을 달라고 주장하며, 자기 아니면 이 제품 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바이어는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 3) 시베리아를 베이스로 서 러시아 진출 모색 바람직

시베리아는 지리적으로 모스크바를 비롯한 서러시아와 극동 러시아를 잇는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부품 혹은 반제품을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판매를 하는 방식(Knock Down, Semi Knock Down등)도 고려할만 하다.

### 4) 현지 비즈니스 관행을 인정해야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러시아 품질 인증을 획득해야 하는데, 품질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기간이 장기간임에 따라 해당 바이어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수출 가격은 가능하면 CIF 가격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 첫 상담 시부터 바이어에게 수입규모, 연 매출액 등 회사 기밀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면 불쾌함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

### 5) 인맥이 성공의 관건이다

러시아는 아직까지 서구식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았을뿐더러, 시베리아의 경우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돈으로도 처리할 수 없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현지 바이어들과 단순 1회성 상담보다는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인간적으로 친해지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한 두번의 술자리를 통해 금새 친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현지인들을 벌써 친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다.

### 6) 중국 상품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라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현지 바이어들도 아시아산이면 중국산을 많이 연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중국산과 차별을 강조함으로써 중고가 시장 공략에 중점해야 한다.

### 7) 바이어의 통관 능력을 검증하라

시베리아의 관문인 노보시비르스크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러시아에서 통관이 어렵기로 가장 악명 높은 도시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바이어들의 경우에도 자본력이 취약하거나, 소규모 업체일 경우에는 통관 능력이 없어 제품을 수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끔씩 통관을 수월히 할 수 있는 빅 바이어가 있을 수 있으며, 통관은 문제 없다고 큰 소리치는 바이어들이 있는데, 이에 현혹되지 말고 차근차근 바이어의 능력을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통관 문제로 잠재력 있는 바이어를 놓칠 수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통관이 수월한 블라디보스톡에서 통관을 권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러시아를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으로 갈수록 관료주의가 심한 편이다. 최근들어 모스크바는 부의 축적과 함께 많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은 여전하다. 특히 관공서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부딪힐 때에는 문제갈지 같은 문제로 허송세월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현지인들도 관리들의 이러한 관료주의에 대해서는 혀를 차는게 보통이다. 따라서 러시아인들과 거래시에는 느긋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뇌물을 주면 다 통한다’라는 말에 뇌물이면 되겠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러시아 관료들도 믿을만한 사람 아니면 뇌물을 받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계를 조금씩 진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4.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 가. 수입허가제도 존재

- 관련 규정: 대외무역거래관리에 관한 기본법 #164-FZ(2003.12.8)

##### 수입허가 대상 품목

품목(분야)	관련 부처
오존파괴물질 및 동물질 포함물질	경제개발부
위험한 부산물	경제개발부, 천연자원부
의약품 및 의약품 재료	경제개발부
수의용 의약품 및 재료	경제개발부, 농업부
의약품 생산을 위한 야채 및 동물성 원재료	경제개발부
화약 및 폭발물	대통령, 행정부
무기, 군사장비, 군사장비생산장비, 군사적 협력 분야의 작업 및 기술 제공	대통령, 행정부
살충제	경제개발부
항정신성 의약품, 독성물질	경제개발부, 보건사회개발부
귀금속 및 호박 등 보석	경제개발부, 재무부
음용 가능한 에틸알콜, 알콜함량 28%이상의 주류	경제개발부
암호화기기 및 관련문서, 도청 및 감청기기	경제개발부, 연방보안청
육류 및 가금류 냉동된 우육과 돈육	경제개발부
핵물질, 핵관련장비, 기술, 동위원소, 방사능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방사능 물질	대통령, 행정부
백열등	경제개발부, 산업에너지부, 반독점 관리청
이중적 사용이 가능한 물품과 기술	대통령, 행정부
야생동물 수집물, 야생동물 및 그 부분	자연 관리청

##### 나. 인증 관련 법률규정

###### □ 관련 규정

- 연방기술규제법 184조(2002.12.27)
- 측정기준 통일에 관한 법률15조(1994.9.21)

제품마다 다양한 취득 인증이 존재하여, 취득에 대한 시간 소요 및 업무 진행의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기업의 신속한 수출 업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증 대행 업체를 통하지 않을 경우 서류상의 작은 문제로 지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품별 필요 인증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숙지해야 한다. 특히 인증 기간이 짧게는 1주일에서 길게는 수개월이상이 걸리기 것을 감안해야 한다.

#### 다. 통관 지연 및 불합리한 통관 순서

현행 관세법규에는 서류접수로부터 3일 내에 통관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으나, 통관 지연되는 경우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 지연 사유로는 세관장의 교체, 기타 행정적인 사유 등을 제시하나, 길게는 한 달에서 두 달까지 통관을 지연되기도 하며, 사유를 공개하지 않고 세관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로 인해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가 생기고, 가전제품 등 시기에 따라 가격과 유행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상품의 경우, 매출 감소 및 시장 상실 우려도 있다. 또한, 통관시 도착순서가 아닌, 현지 통관사의 능력에 따라 통관순서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 현지 진출 경험이 없는 업체에게는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 라. 높은 물가 및 불편한 사회 시스템

일본이나 유럽 수준의 물가로 인하여 기업 운영 및 현지 주재에 고정비용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으며,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비스는 후진국 기준으로 제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모스크바 지역의 임차료의 경우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는 월 4천불에서 월 8천불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임차료가 매년 10%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각종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으로 업무가 전개되어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함은 한국인들만이 겪는 것은 아니며, 다른 국가의 사업가들도 동일하게 감수하고 있는 사항들이며,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이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가 있다.

#### 마. 바이어의 신용도 확인 문제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정상통관 방식이 아닌, 회색통관 방식으로 통관이 되는 경우가 많은 상태이다. 비록 최근에는 각종 통관에 대한 단속 강화, 세관장 교체, 불법통관 업체에 대한 형사처벌 및 벌금부과 등이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상통관이 확대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이어들이 세금을 적게 납부하기 위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있고, 몇 번의 거래 후 파산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국에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에 바이어에 대한 정확한 신용도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관련 신용정보 파악에 대한 정보 수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 5. 진출 성공, 실패 사례

#### 가. 대기업 성공사례

삼성전자는 러시아 시장에서 2005년 휴대폰 부문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였으며, 높은 Brand 인지도'를 통해서 현지에서 성공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991년 구소련 붕괴이후 러시아에 진출하였으며, 1997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움 선언, 한국의 IMF 등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일본의 경쟁업체들이 철수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오히려 딜러들에게 외상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등 마치 러시아 기업의 인상을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솔제니친 문학상과 함께 러시아에서 상금규모가 가장 큰 ‘톨스토이 문학상’을 제정하여 현지 문학인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라토리움 당시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볼쇼이 극장 현대화 지원 등 이익의 사회 환원을 통하여 현지인의 정서에 국민 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 노력하여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휴대폰을 직접 통관하여 수익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있다.

한편,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러시아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현대는 러시아의 중산층의 소득이 급증하는 것을 겨냥하여, 엑센트 모델을 현지 회사를 통해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여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기아차의 경우도 스펙트라 모델을 현지 위탁 생산하여 높은 판매 증가를 보이고 있다.

#### 나. 중소기업 성공사례

건축용 자재를 생산하는 국내 H사는 모스크바 출장을 통해서, 러시아 교통부 시설관리 국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진출을 위한 모든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 확인 받았다. 러시아의 특성상 건설자재 시장의 진출시 관련 공무원들을 통한 정보 획득이 중요하다는 특징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내 유망 전시회인 ROADBUILD 2005에 참가하여 러시아내에서의 인지도를 높였으며, 통상 우리 기업들이 영어로 된 서류를 바이어들에게 제공하지만 영어 구사가 어려운 바이어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기술서류까지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관심있는 바이어들에게 제공하였고 이에 바이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을 수가 있었다.

아울러 코트라를 통하여 러시아내 시장 동향에 대하여 즉각적인 정보제공 받았다. 이를 통해서 현지 건설 프로젝트에 납품을 할 수가 있었다. 통상 수개월 정도 접촉하다 특별한 반응이 없을 경우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동 업체의 경우 수년간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여 좋은 결실을 거둔 경우이다.

## 6. 이주정착 가이드

### 가. 집 구하기

#### 1) 주거 지역의 자연환경

모스크바의 경우 현지 주재원이나 투자진출업체 종사자들이 기거하는 보편적인 주거지역의 자연 환경은 도심과의 교통, 신변안전, 거리 등의 관점에서 비교적 양호하나 시설 상태 및 임대료의 차이에 따라 주거지역의 자연환경도 차등이 심하다. 한국 주재원들은 대체로 신축 건물에 입주하고 있다. 외국인이 거주하기 위한 아파트의 경우 주택임차료가 월 5천불 - 1만불 정도 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달러화의 약세로 인하여 임차료 인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임대주들이 장기 계약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중개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임차 주택의 사진, 단면도 등을 볼 수도 있으므로, 한국에서 사전에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다.

시베리아 중심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에는 외국인을 위한 아파트 단지나 건물은 없으며, 부동산을 통해 치안이 안전한 곳을 위주로 집을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한국인 주재원은 코트라와 오리온사 외에는 전무한 상황이다.

블라디보스톡의 경우 한국 주재원들은 주로 대학교 교수기숙사를 개조한 외국인 전용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그밖에 유학생과 개인 사업자들은 각자 아겐스트보(중개인)를 통해 집을 구하고 있다.

## 2) 시설 상태

호텔 건물이나 신축 외국인용 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종시설 (냉난방, 엘리베이터, 주차장, 경비, 전화 등) 상태가 양호하여 큰 불편이 없다. 과거(50년 전 내외)에 건축한 것으로서 옛 공산당 간부들이 살던 아파트의 시설 상태는 호텔이나 신축 아파트에 비해 나쁜 편이나 아주 불량하지는 않다. 다만 옥내 주차장이 있는 주택은 아주 드물다. 그러나 건설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아파트에 입주할 경우, 입주자들이 아파트 내부 수리를 하느라 일년 내내 드릴 소리가 끊이지 않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러시아의 새 아파트는 형체만 갖췄을 뿐, 내부에는 아무것도 갖춰놓지 않고 분양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 올 사람이 대부분의 실내 구비물 들을 설치해야 한다. 때문에 요란한 내부 공사 과정에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이사할 경우 새집 보다 이미 사람이 살았던 몇 년 된 아파트를 선호 하는 경우가 많다.

## 3) 임대료

호텔이나 신축아파트의 경우 20평 내외(2 베드룸)가 월 \$4,000 정도이다.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30평 내외가 월 \$5,000~9,000 전후이다. 번두리에 월 \$1,000짜리도 있으나 시설이 불량하고, 치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노보시비르스크 호텔은 3성급 시비리 호텔과 오비 호텔등이 최신식 호텔이나, 외국인 장기 거주를 위한 시설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오랜 기간 투숙에 대한 할인이나 부대 서비스는 전혀 없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시내 중심가 150S/M(지하주차장 유, 방 3개) 아파트는 월세가 약 3,000~4,000불 수준이며, 20S/M(원룸, 리모델링, 주차장 없음)의 경우 에도, 월세가 평균 600~900불 수준이다.

현지에서 잠시 머물 경우에는, 아파트를 며칠씩 빌려주는 곳이 여러곳 있는데, 가격이 1,000루블에서 4,000루블까지 다양하다. 여럿이 묵거나 장기간 투숙할 경우에는 호텔보다 저렴하고 음식도 해먹을수 있다는 잇점이 있으나, 거주등록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 4) 입주의 난이도

모스크바에서도 주택난이 심하여 좋은 아파트나 살만한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특히 호텔이나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다소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 아울러, 높은 임차료 때문에, 계약을 하고서 1개월이상 지난 시점에서 입주하는 것은 임대주들이 극히 꺼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적격한 주택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빠른 결정을 내려서 입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06년에 달러화 약세에 따른 임대 소득 감소로 인하여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서 아파트 등을 물색 해야 하는바 이 경우 수수료(보통 1개월 분 임차료)를 내야하며 여기서 1개월 치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3,000짜리 아파트 임차 시 추가로 \$6,000이 소요됨)

## 5) 임차계약 해제 시의 분쟁 빈발 문제

아파트 사용후의 원상복귀문제(예컨대, 벽에 흠집이 난 경우나 기타 주택에 대소의 손상이 있는 경우)로 시비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 시 철저히 점검하여 문제 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 나. 행정절차

러시아에 도착한 외국인은 72 시간 내(근무일기준)에 거주 등록을 해야 한다. 관광객의 경우 호텔에서 여권과 비자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해준다. 일반적으로 장기 체류하는 주재원인 경우 자사가 등록되어 있는 기관(주로 상공회의소)으로부터 주재인가를 받아야 한다.

### 다. 계좌 개설

러시아내 외국인인 외화 계좌와 루블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계좌 개설 시에는 여권과 비자, 출입국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은행에 따라 여권을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외환의 경우 현금인출시 인출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로 부과하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큰 경우에 부담이 큰 형편이다.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 계좌에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예치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 은행들의 신용도가 낮은 상태인데, 심지어 10대 은행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파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이 구좌를 개설한 지역에 있는 지점에서만 자금을 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에 소재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이 편리하다. 물론, 현금 인출기를 이용할 경우 다른 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도 인출이 가능하다.

### 라. 전화 신청

모스크바에는 여러 개의 통신회사가 있으며, 대형 건물인 경우 별도 소형 통신 회사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점체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모스크바 소비 센터의 경우 World Trade Telecom의 독점체제로 전화회선 개설에 600불을 요구하고, 전화요금도 일반 주택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 마. 비품 구입

모스크바의 경우 대형 슈퍼 등 수많은 상점들이 생겨나서 일반적인 비품을 구하는 데는 불편이 없다. 단 수입 상품들이 대부분으로 가격이 비싼 편이다.

### 바. 자녀 교육여건 (모스크바)

#### 1) 인터내셔널 스쿨

모스크바에는 아메리칸 스쿨과 브리티쉬 스쿨 그리고 미션스쿨이 있다. 많은 외국인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현지 학교 보다 이러한 인터내셔널 스쿨을 선호하고 있다. 이들 학교의 학비는 9,500불에서 21,200불로 고학년일수록 비싸다. 아메리칸 스쿨의 경우 자리가 없어서 엄격한 시험을 거쳐 입학이 가능하나 브리티쉬 스쿨과 미션 스쿨은 입학이 별로 까다롭지 않다. 더욱 상세한 입학 관련 절차는 아래 학교들의 웹 사이트를 방문하면 입수할 수 있다. 시베리아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위한 인터내셔널 스쿨이 전혀 없으며, 단지 사립학교들이 있으나, 한국인들이 원하는 영어교육은 매우 부실한 편이다.

## 2) British School

- Add : Bolshaya Akademicheskaya Ul. 24
- Tel : (495)426-0311, 154-5223
- Fax : 426-3811
- Email : bisprincipal@cityline.ru
- URL : www.bischool-mos.com

### 학 비

(단위: \$)

학교명	학제	수업료(일시불/3회 분할 납입시 1회 납입금)	입학금(1회)
Th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Moscow	Nursey	8,150(3,050)	500
	Reception	9,840(3,650)	
	1	9,840(3,650)	
	2	9,840(3,650)	
	3	11,780(4,270)	
	4	11,780(4,270)	
	5	11,780(4,270)	
	6	11,780(4,270)	
	7	13,400(4,820)	
	8	13,400(4,820)	
	9	13,400(4,820)	
	10	13,400(4,820)	
	11	13,400(4,820)	
	12	13,400(4,820)	
13	13,400(4,820)		

## 3) American School

- Add : Bolshoy Deviatinsky pereulok, 8
- Tel : (495)956-4204, 129-7863
- Fax : 956-4204, 733-9743
- Contact : Carrie Wiklund
- Email: aasadmit@online.ru
- URL : www.aas.ru

### 학 비

(단위 : \$)

학교명	학제	입학금(1회)	수업료	SeatFee(연)	ESL	합계
The Anglo-American School, Moscow	Pre-K	100(non refund for newcomers)	10,000	0	0	10,100
	K		11,600	6,000	0	17,700
	1		11,600		0	17,700
	2		11,600		3,000	17,700ESL:20,700
	3		11,600		3,000	17,700ESL:20,700
	4		12,300		5,000	18,400ESL:23,400
	5		12,300		5,000	18,400ESL:23,400
	6		13,100		5,000	19,200ESL:24,200
	7		13,100		5,000	19,200ESL:24,200
	8		13,100		5,000	19,200ESL:24,200
	9		14,000			20,100
	10		14,000			20,100
	11		15,200			20,100
12	15,200		20,100			

주: 수업료(연간): 50% Refund for each Quarter a student doesn't attend school

수업료 중 1,000USD를 매년 말에 선 지불해야 하며 동 1,000USD는 수업료에서 자동 공제 됨. Seat fee는 모든 학생들이 매년 지불하는 통상적인 수업료로서 학교측 거래은행의 요구로 수업료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함.

#### 4) 러시아 학교

주재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내셔널 스쿨에 자녀를 입학시키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들은 러시아 학교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 특히 모스크바에는 한국인 학교가 있어 유치부 및 초등학년의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 모스크바 한국학교 연락처
  - 전화 : 420-2377, 420-2300(유치원)
  - 팩스 : 420-2377
  - 주소 : Str. Vvedenskog 32a, Moscow

#### □ 노보시비르스크

시베리아 중심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를 비롯해 인근 톰스크, 옴스크, 크라스노야르스크에도 외국인을 위한 인터내셔널 스쿨은 전무하다. 현지 파견된 외국인들은 현지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에 자녀를 취학시키거나 홈스쿨링을 통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자녀들이 유치원생이라면 현지에서 사립학교에 취학시켜 교육을 시키는 것도 가능하나, 초등학교생인 경우에는 현지에서 언어문제로 학우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수업도 따라가지 못해 인성적 장애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 5) 자동차 구입

중고차의 경우 선택의 폭이 넓으나, 차량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운 편이다. 현지의 도로, 기후 조건이 열악하여 자동차 노화 정도가 한국보다 빠르다. 한국에서 수출된 국산차를 현지에서 구입,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특히 겨울철 운전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4륜구동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고차의 가격은 한국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다. 국산차를 가져올 경우에는 중고차 수입규제가 까다로워 통관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며, 한국 자동차업체가 모스크바에 서비스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외국산 차량의 부품을 상시 구비하지 않으므로 차량 고장시 부품 구입 및 수리가 다소 어려움이 있다.

외산차는 유럽산, 일제 등 다양하게 구매 가능하며, 국산 자동차(현대, 기아 등)도 주문 구입이 가능하다. 최근에는 자동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인하여 주문이후 3-4개월을 기다려야 차량을 인도받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필요시 이를 고려하여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

#### 6) 병원(모스크바)

러시아에서는 의료기관이 양극화되어 있으며, 가격이 낮은 경우 시설 및 의료서비스가 낙후되었고 시설 및 의료 서비스가 양호한 경우 가격은 매우 비싸다. 따라서 사전에 한국에서 건강진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지에 장기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저렴하다.

## □ 종합병원

- EMC(European Medical Center)
  - 주로 프랑스 의료단이 진료하고 영어사용 가능하며, 친절한 보조원의 개별 상담 및 관리가 장점이다. 현지화(루블)와 카드 사용만 가능하며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 Tel : 933-6655
- AMC(American Medical Center)
  - 가족단위 진료시스템과 소아 및 여성 진료센터, 구강센터, 외과, 산부인과로 유명하다. 달러 및 카드 사용 가능하며,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친절하며 쾌적한 병원이다.
  - Tel : 933-7700
- UPKD
  - 러시아 외무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과의 진료가 가능하나 러시아 의사가 진료하므로 영어 소통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
  - Tel :232-5933
- 한독메니컬
  -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가정예방의학 중심의 진료를 하고 있다.
  - Tel : 939-8653,8560

## □ 치과

- EMC Dentistry Center : 933-0002
- Genman Dental Clinic : 737-4466
- US Dental Care : 933-8686
- 한국인치과 : 445-7454
- 반석치과병원 : 831-8655

## □ 한의원

- 누가 한의원: 336-6119

## □ 노보시비르스크

- 외국인이 사용 가능한 병원
  - 노보시비르스크에는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한정되어 있다. 주립이나 시립병원의 경우, 의료 시설 및 영어 소통이 전혀 불가능함에 따라 한국인 출장자가 이용하기가 어렵다. 특히 응급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119'와 같은 '03'으로 전화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지만, 응급차량이 없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웬만한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03'서비스를 이용하지 말고, 지인 등을 통해 아래 병원을 접촉할 것을 권한다.
- Medclub
  - 위치 2a Vladimirovsky spusk, corpus 3.
  - 전화 220 65 11, 220 74 54

- 시베리아 철도청 부설 병원으로서 최고의 의료진과 시설을 자랑하는 병원이다. 외국인은 줄을 서지 않고 이용할 수 있으며 의사와의 1회 상담에 약 \$30 정도가 소요된다. 응급사항의 경우 이 병원에 연락해 앰بول런스를 부르거나 택시를 타고 동 병원 응급실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 Avicenna

- 위치 35 Krasny Prospect
- 전화 220 10 17, 227 16 21
- 현지에서 거의 최초로 현대식으로 설립된 개인병원이다. 가격이 비싸지만 줄을 서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응급환자를 다루는 시설이 없어 간단한 질병에 대해 1차 처방을 받는데 적합하다.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이 파트타임 식으로 일하고 있어, 병원을 방문하기 전에 꼭 예약해야 한다. 의사와 1회 상담에 약 \$25 정도의 비용이 드며, 각종 검사에 따라 비용이 추가된다.

○ Zdravitsya

- 위치 28 Derjavina street
- 전화 211 95 95
- 2년 전에 세워진 최신식 사립병원으로서 위에 언급한 'Avicenna'와 시설 및 규모가 비슷하다. 그러나 서비스 면에서는 최고로 평가받고 있으며, 1회 의사와의 상담료는 약 \$27 정도이다. 응급환자를 다루는 시설이 없어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다.

## 7. 출장가이드

### 가. 기후

#### 1) 기후특성

러시아는 기온의 편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이다. 국토가 넓어 남부 흑해 근처에는 온난한 반면, 북부 시베리아 지역은 한랭하고 다양한 기후대가 병존하고 있다. 대체로 러시아는 일부 남부지역을 제외하고 겨울이 길고 해가 짧다.

보통 10월 말이면 춥고 눈이 오기 시작해 4월 초까지 계속된다. 때문에 일부 지역은 봄이 찾아오면서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눈이 녹기 시작해, 집이 물에 잠길 정도로 매년 때아닌 홍수를 치르고 있다. 모스크바도 겨울엔 흐린 날과 눈이 많이 오고, 여름은 화창한 날씨가 많지만 비교적 건조한 편이다.

러시아 지역 연평균 기온 분포도



러시아의 연평균 기온은  $-10^{\circ}$ 부터  $+10^{\circ}$ 까지 지역에 따라 분포되어 있다. 위의 기온 분포도를 보면 주로 극동 러시아 지역, 시베리아 지역을 비롯한 러시아 북부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낮은 편이며, 유럽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연평균 기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 2) 모스크바의 기후

모스크바는 여름엔 17도에서 30도, 겨울엔 영하 10도에서 25도의 기온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봄가을 기간이 짧아지며 여름에는 35도 이상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도 보이고 있다. 2006년초 겨울에는 영하 40도로 떨어지는 이상 기후 현상을 보였으나, 반대로 2006년 말에는 12월에도 기온이 영상에 머무는 등 이상고온 현상을 보였다.

월별 평균기온은 1월 영하 9.9도, 2월 영하 9.5도, 3월 영하 4.2도, 4월 영상 4.7도, 5월 영상 11.9도, 6월 영상 16.8도, 7월 영상 19도, 8월 영상 17.1도, 9월 영상 11.2도, 10월 영상 4.5도, 11월 영하 1.9도, 12월 영하 6.8도를 보이고 있다.

시베리아는 타이가 숲을 비롯 산악, 평야, 툰드라 등 다양한 생태 환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깊은 "바이칼"호수, 4번째로 긴 "오비"강이 위치해 있다. 기후는 짧고 무더운 여름, 길고 추운 겨울의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이다. 기온은 겨울이 크라스노야르스크 북쪽 지방은 최고 영하 69도이며, 여름 기온은 영상 45도로 100도 이상의 연교차를 보이고 있다.

참고로 극동 시베리아 지방의 경우 5-6월은 우기로서 일교차가 크고 기압의 잦은 변화로 인해 저혈압 여성들이 편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 3) 출장 시 추천복장

러시아는 지역집중 난방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특히 환절기에는 난방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다.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의 겨울철로 보고 이 시기에 러시아 출장자들은 최대한 따뜻한 외투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또한 겨울동안 쌓인 눈이 녹는 4월에는 도로 곳곳에 물이 고여 신발이 쉽게 젖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여분의 양말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러시아는 통상 일기 예측이 힘들 정도로 기후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름에 방문하더라도 간단한 점퍼 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은 노보시비르스크는 다른 러시아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겨울이 길다. 10월부터 4월까지 약 6개월에 걸쳐 겨울이 이어지므로 이 기간에는 최대한 따뜻한 복장을 준비해야 한다. 특히 12~2월에는 혹한기임으로 방한 모자를 비롯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특별한 옷차림을 하는 것이 좋다. 여름 기간인 6~8월에는 한국의 여름과 비슷한 날씨를 보이지만 햇살이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최근 들어서는 4~5월에도 날씨가 따뜻하지만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복장에 유의해야 한다.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은 겨울철에는 눈이 얼어 붙어 있어 미끄럽고, 바람이 매우 심하게 불기 때문에 신발과 외투를 이에 적합하게 갖추어야 한다.

## 나. 시차/근무시간

### 1) 시차

러시아는 세계에서 국토가 가장 넓은 나라로서 동서로 11시간의 시간대를 갖고 있다.

- 모스크바와 서울 간 시차
  - 모스크바가 서울보다 6시간 느림. (서머타임 시는 5시간)
  - 섬머타임 기간은 3월 마지막 일요일에 시작하여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끝남
  - 서울이 오후 3시일 때, 모스크바는 오전 9시
- 블라디보스톡과 서울 간 시차
  - 블라디보스톡이 서울보다 1시간 빠름(서머타임 시는 +2시간)
  - 서울이 오후 3시일 때, 블라디보스톡은 오후 4시

### 2) 근무시간

- 통상: 오전 9시~저녁 6시
- 국경일, 공휴일 전날 (예: 금요일): 1시간 근무시간 단축. 특히 러시아는 국경 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에는 휴일을 하루 연장하고 있다. 근무시간 종료가 가까운 시간일 경우에 접수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주요 단위

도량형	단위
길이	mm, cm, km,
면적	cm <sup>2</sup> , m <sup>2</sup> , km <sup>2</sup> ,
무게	mg, kg,
부피	mm <sup>3</sup> , cm <sup>3</sup> , m <sup>3</sup>
전기	V, Hz
통화	Rub (1\$= 24.5루블)

러시아의 전기규격은 220볼트, 50헤르츠이다. 전압이 불안정하여, 전기기기가 고장 나는 빈도가 높은 편이다.

## 라. 출입국/비자

### 1) 비자

□ 비자의 종류: 관광비자, 학생비자, 상용비자, 주재비자, Transit 비자

- 비자 발급처: 주한 러시아 대사관
- 구비서류: 사진 2장, 초청장(Transit 비자는 불요)
- 소요기간
  - 관광비자: 통상 일주일만 소요됨. 24시간 이내에 속성으로 발급 받기 위해서는 급행료를 납부해야 함.
  - 체류비자: 약 1개월
  - Transit 비자: 1일

Business 목적으로 방문할 시, 저렴하고 빨리 발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관광 비자를 소지 할 경우 불신 검문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때문에 본래의 러시아 입국 목적대로 비자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2006년 10월 러시아 프라드코프 총리 방한시 관용여권에 대한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여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관용여권인 경우에도 외국인 거주 등록은 해야 한다.

## 2) 초청장 발급 관련 변경 사항(2007년 1월)

기존에 외무부 영사국에서 담당하던 초청장 발급업무가 내무부 여권·비자국으로 이관되었으며, 비자국은 지방 자치 단체, 법인, 러시아 시민,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의 요청에 따라, 입국사증신청에 필요한 초청장을 발부 한다.

초청인은 피 초청인의 주재국 내 체류기간 중 의료, 주거 등에 대하여 보증 의무가 있으며, 2007년부터 개정된 외국인 등록법에 따르면 이전에는 여행사를 통하여 초청장을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초청기관이 등록 의무를 지는 동시에 행정적 미비가 있어 귀책사유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벌금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초청장 발급도 예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

러시아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는 사증을 받기 위하여 초청장을 발급한 초청사(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회사명,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사전 숙지하여 러시아 도착 후 초청사를 방문, 외국인 거주지 등록 신고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도착(체류) 예정지 인근에 외국인 초청사가 소재하지 않을 경우는 외국인 거주등록에 상당한 애로 사항 발생 예견된다.

외국인 거주등록을 하였음에도 등록통지서를 휴대치 아니하여 주재국 공무원들로부터 제시 요구를 받을 경우 언어장벽 등으로 인하여 충분한 자기방어 능력이 없을 때는 막대한 시간적(임의동행 강제), 경제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여권과 함께 항시 통지서 소지**(분실 우려를 대비 복사본을 출국시까지 소지) 필요하다.

한편, 외국인체류지 도착통지서는 러시아로만 표기되어 있으므로 국내에서 사전 작성하여 러시아 도착 후 사용함이 좋다. 금번 거주등록법 개정 시행은 우체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외형적 장식이 붙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일 이상을 체류하게 되는 간단한 출장에도 체류지 기존 등록을 해제하고 출장지에서 재등록, 다시 복귀하면서 출장지 등록을 또 해제하고 체류지에서 또 재등록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특히 러시아 출입이 많은 우리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에는 체류인 도착 통지서의 하단부를 절단해서 주는데, 평상시에는 입국신고서와 같이 휴대하여야 하며, 출국시 초청기관 혹은 투숙호텔을 통해서 반납하고 출국해야 한다.

## 3) 출입국 카드 제도

2005년 10월 1일부로 러시아 출입국 카드가 개편되어, 2006년 8월 기준 계속 사용되고 있다.

- 노어판과 영어판이 함께 발행
- 출입국 카드 사용 방법
  - 외국인이 러시아에 입국 시, 입/출국 2매로 된 카드를 작성해 공항 및 국경에서 입국 심사 시 제출
  - 입국 심사관이 1면을 보관하고, 나머지 1면은 입국 스탬프를 날인한 후 외국인에게 반환
  - 외국인 소지 출입국 카드는 거주 등록 시 호텔 또는 거주 등록 사무소(OVIR)에 제출하고, 거주 등록 스탬프를 날인 받음
  - 출국 시 출입국 카드 출국 심사관에게 제출

#### 4) 출입국 전 유의사항

##### □ 비자(사증)

- 비자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증 분실의 경우 재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사증을 잘 간수해야 한다. 사증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 원래 초청기관에서 초청장을 재발급 받아 외국인 거주등록사무소(OVIR)에 신청하여야 한다.
- 사증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는 출국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초청기관을 통해 상기 OVIR에서 벌금을 물고 사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함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여행비자일 경우 입국거부 또는 강제 출국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빈발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 □ 출입국 절차

- 러시아 입국 시 공항에서 나오는 절차는 여권검사, 수화물 찾기, 세관검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출국 시에는 이와 반대 순서이다.
- 한꺼번에 여러 대의 비행기가 도착하면 입국 심사대까지 가는데 약 1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까지 걸리기도 한다. 때문에 출입국 절차 시 장시간 무질서한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다.

##### □ 외환신고

- 최근 “외환조절 및 외환관리에 대한 법률”이 개정돼, 2003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과거에 비해 외화 반출입 규제가 크게 완화되었다.
- 종전: 입국 시 소지한 외환을 정확하게 신고한 후, 출국 시 새로 작성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고, 동 신고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외환반출을 할 수 없었다.
- 개정 후: 3,000달러 미만의 외화의 경우, 주재국 입국 및 출국 시 세관당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

- 3,000달러부터 10,000달러 미만 외화의 경우, 주재국 입국 시 세관당국에 신고 할 필요는 없으나, 출국 시에는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입국 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국 시 자금출처 조회)
- 10,000달러 이상 외화의 경우, 주재국에 입국 시 세관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출국 시에는 세관당국에 입국 당시의 세관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반출액을 다시 신고해야 함. 단, 입국 시 신고했던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출이 가능하다.

□ 공항 통관

- 모스크바 공항 통관 시 세관신고를 해야 하며, 휴대물품으로 무관세 반입할 수 있는 물품 한도는 1,000달러, 50kg이고, 이를 초과할 경우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200 kg 초과, 10,000달러 초과물품에 대해서는 일반 정상 수입과 마찬가지로 관세 (5~25%), 부가가치세(18%)및 소비세(해당품목인 경우)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 입국 시 신고한 세관서류를 잘 보관해 두어야, 출국 시 반출하고자 하는 외화(입국 시 신고한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를 갖고 나갈 수 있다.
- 현지 체류 시 유의사항
  - 거주지 등록: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거주등록이 가능한 호텔에 투숙하여야 한다.
  - 최근 국제 테러 등으로 출국 시 검사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마. 환율/환전

1) 화폐단위

	(앞면)	1000 루블
	(뒷면)	
	(앞면)	500 루블
	(뒷면)	

	(앞면)	100 루블
	(뒷면)	
	(앞면)	50 루블
	(뒷면)	
	(앞면)	10 루블
	(뒷면)	
	5 루블	
	2 루블	

러시아의 화폐단위는 루블(Ruble)이다. 지폐로는 1,000루블, 500루블, 100루블, 50루블, 10루블권과 최근에 발행된 5,000루블 권이 있고, 동전으로는 1, 2, 5, 10루블 및 50, 10, 5, 1까베이가가 있다(100까베이가가=1루블. 까베이가는 사실상 화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음)

## 2) 환율

루블화는 1998년 8월 외환 위기 직후 가치가 3~4배 폭락한 이후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회복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유가 등의 호기를 맞아 오히려 루블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2007년 7월 기준 1달러당 약 25.8 루블의 환율을 보이고 있다.

### 3) 환전

러시아는 IMF 8국에 가입한 상태로서, 환전은 자유롭다. 시내 곳곳에 환전소가 있으며, 환전소마다 약간씩 차이가 난다. 환전 시 은행 등 공식기관에서는 신분증 (여권 등)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거리 환전소에서는 500불까지는 신분증 없이 환전을 해 준다.

### 4) 신용카드 사용

최근 체인점 형식으로 개점된 대형 할인점 등에서는 대부분 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큰 대형 호텔, 음식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상점 등에서는 아직까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카드 사용시에 여권을 보여달라는 경우도 있으므로, 여권을 소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카드 뒷면의 사인과 영수증의 사인이 동일해야 한다.

## 바. 교통/통신

### 1) 교통

#### □ 항공

##### ○ 대한항공 운항표

- 서울 모스크바 간 항공기 운항은 우리나라 항공사 이외에도 러시아 항공사를 이용할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한항공 운항표를 참고하면 된다. 최근에는 승객의 증가로 운항표가 종종 바뀌는 경향이 있으니, 대한항공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한항공은 현재 하절기 / 동절기 운항을 구분하고 있으며, 양 기간 중에 운항 시간표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최근, 대한항공의 경우 화물기를 운행하고 있으며, 1등석이 신설되었다.

#### 대한항공 운항표

구 간	편 명	운항요일	시간표	출 · 도착 공항
모스크바→서울	KE 924	수, 금, 일	출발 22:30 도착 11:50	쉐레메제보공항 출발 인천 공항 도착
서울→모스크바	KE 923	수, 금, 일	출발 17:10 도착 20:40	인천공항도착 쉐레메제보 공항 출발

#### 아에로플로트 운항표

구 간	편 명	운항요일	시간표	출 · 도착 공항
모스크바 →서울	SU 599	화, 목, 토	출발 21:35 도착 11:10	쉐레메제보 공항 출발 인천 공항 도착
서울 →모스크바	SU 600	수, 금, 일	출발 12:50 도착 17:15	인천 공항 도착 쉐레메제보 공항 출발

#### ○ 시베리아 - 한국 노선

- 러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임에 불구하고 한국과의 정규 직항 노선이 없다. 다만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는 러시아 'Siberia Airline'(S7)이 주 1회 직항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이외 기간에는 북경이나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해야 한다. 블라디보스톡 경유 노선은 당일 연결이 가능한 대신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탁송한 짐을 다시 다 찾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으므로 짐이 많은 방문객은 북경 경유 노선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하다. 대신 한국에서 북경을 경유하여 노보시비르스크로 갈 경우 북경에서 하루를 묵어야 하며, 짐이 북경에서 안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북경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것이 좋다.

#### ○ 극동러시아 - 한국 노선

- 블라디보스톡 ↔ 서울(인천) 직항이 있으며, 대한항공과 블라디보스톡항공이 거의 매일 있다. 블라디보스톡 ↔ 부산 직항은 주 1회 있다. 하바로브스크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 하고 있다.

### □ 공항에서 목적지 가는 방법 (모스크바)

국제공항 "쉐레메체보-2"에서 모스크바 시내중심지 까지는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고, 통상 공항에서 시내까지 체증이 없을 시 약 40~50분 정도 소요된다. 공항에서 택시를 잡을 경우 택시기사들이 비싼 가격을 요구하므로 흥정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경우 최근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택시가 도착지의 위치에 따라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행되고 있다.

#### ○ 노보시비르스크

- 노보시비르스크의 공항은 크게 광역 도시 및 국제선이 운항하는 Tolmachevo 공항과 시베리아 인근 도시로 운항하는 Severny 공항 두 가지이다. 노보시비르스크를 찾는 대부분 의 비즈니스맨들이 거쳐야 하는 Tolmachevo 공항은 국제선 청사와 국내선 청사 두 개로 나뉘어져 있다.
-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올 때는 시내로 직접 들어가는 직행버스나 호텔에서 운영하는 셔틀 버스가 없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공항 출구부터 택시기사들이 많이 서 있는데,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택시요금은 공항 주차장 이용료 포함하여 400루블(US\$16) 정도가 적당한 가격이다.
- 개인 짐이 많을 경우에는 짐에 대한 이용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탑승 전에 기사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Tolmachevo 공항에서 시내까지는 약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 □ 시내교통

#### ○ 택시

- 시내에는 일반 자가용 영업택시를 아무데서나 잡을 수 있다. 시외로 운행하는 택시도 있으나 요금이 비싸고 신변 안전상 별로 이용치 않는다. 모스크바 지역은 비교적 좋은 노면 상태를 가지고 있으나, 극동 지방 등에서는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비포장도로도 많이 있는 상태이다.

## □ 시내 공공교통 수단

지하철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나, 스킨헤드들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혼자 이용하는 것은 삼가야 하며, 밤시간에는 지하철 역 주위로 불량자, 불량배 등이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니즈 니노브고로드, 노보시비 르스크, 사마라, 예카제린부르크市).

시내버스(무궤도 전차 포함) 는 주로 가까운 거리를 연결(예를 들어 지하철 다른 구간에 있는 역과 역 사이를 연결)하고 있다. 궤도전차는 속도 가 느리나 안전하다. 최근에는 단거리 구간을 운행 하는 셔틀버스가 많이 운행되고 있어 이동이 더 원활해지고 있다.

## □ 시외버스

각 지역별로 시외버스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각 구간마다 버스 정류소가 있다.

## □ 철도

- 러시아 내 철도 총 연장은 8만6천km이며, 전철화 부문에서는 3만9천2백km(세계 1위)임.
- 러시아 철도 구조개혁(안): 2001년 4월
  - 1단계: 2001~2002 회계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철도관련 업무를 국영 주식회사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반 법제정비
  - 2단계: 2003~2005 관련사업분야들의 독립 국영주식회사로 전환
  - 3단계: 2005~2010 국영주식회사들에 대한 개별투자를 점차 유치 궁극적으로는 완전 사유화
- 러시아 정부는 철도구조 개혁에 향후 5년 동안 7천 850억 루블 (약 270억 달러) 투입예상
- 기차교통은 아주 잘 발달되어 있고 객차도 비교적 깨끗한 편이며 침대차가 완비되어 있어 현지인들의 경우 장거리의 경우 이용률이 매우 높다. 그러나 외국인들에게는 불편한 운송 수단으로 인식되어 이용률이 낮은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 □ 교통 수단별 서비스 현황과 요금

- 택시
  - 친절한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려움. 특히 승객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대체로 바가지를 씌우려 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 요금은 미터기가 있으나 실제로 사용치 않고 사전 합의에 의해 지불하는데 외국인에게는 내국인 요금의 3~5배를 더 요구하기도 함.
  - 최근에는 콜택시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택시회사도 있음.
  - 보통 15분 내외의 거리의 경우 250루블(10불) 정도면 되며, 공항으로 가는 경우엔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800(30불)-1200루블(45불) 정도로 비싸게 요구함.

□ 시내버스, 전차 및 전철(지하철)

- 서비스상 큰 불편은 없으나 승객이 많아 혼잡이 심함.
-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1회 승차 시 버스, 지하철 모두 17루블임 (2007년 7월 현재)

□ 기차

- 서비스는 비교적 양호함. 예컨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는 기차를 타는 경우 편도 요금은 대략 \$90 에 상당함.
- 이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요금 격차는 매우 컸으나 최근에는 차이가 거의 없음.

□ 항공기

- 서비스는 거의 부재라고 할 정도로 빈약하며 좌석도 매우 비좁고 청결치 못한 경우가 많음.
- 요금은 번번히 인상되는데, 모스크바에서 장거리인 하바로프스크로 가는 편도의 경우 \$250 수준. 상트페테르부르크 편도인 경우 \$90 수준이다.

2) 통신

□ 우편

- 일반 우편(국내)
  - 일반적으로 6루블이다.
- 일반 우편 (국제 우편)
  - 보통 서울까지 10~20일 정도 걸림. (일반 우편물일 경우 분실 사례가 있으므로 유의)
  - 가격은 보통 75루블 정도이며 무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DHL

- 탁송 기간은 2~3일 정도 소요되며 가격은 86~197달러(1~5kg)수준임.
- 모스크바 지점으로 전화를 하면 직원이 찾아와 탁송할 물건과 돈을 받아 간다. 우리 나라와 운영 방식은 같음.

□ EMS등기 우편

- DHL에 비해 탁송기간이 긴 편이지만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운영방식은 DHL과 같다.
- 극동러시아 지역으로 특사배달할 경우에는 EMS는 피하고, DHL이나 UPS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민간업체가 아닌 우체국 우편은 모두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배달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 □ 운송 회사

- 블라고 인터내셔널 : 7-495-131-4811
- 우진 트랜스 : 7-495-775-4481
- 에코비스 : 7-495-778-2844
- 유니패스 : 7-495-334-1944

## 3) 전화

### □ 국제 전화 거는 방법

- 공중전화에서 하는 경우
  - 상대방의 음성이 들리면 3번을 누르거나 수화기 모양의 버튼을 눌러주어야 한다.
  - 8-10-82(한국 국가번호)-지역번호(0제외)-전화번호
- 호텔에서 전화를 이용할 경우
  - 0 또는 9번(호텔마다 확인)-8 -10-82(한국 국가번호)-지역번호(0제외)-전화번호
- 러시아의 국제전화카드를 사용할 경우
  - 최근 다양한 국제 전화카드가 판매되고 있으며, 주로 인터넷을 이용한 국제전화이며, 지하철, 버스정류장 근처의 가판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음. 10\$ = 약 167분

### □ 인터넷 사용 환경

러시아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성인기준 전체 인구의 17% 수준으로 인터넷 접속방법도 전화접속에서 광대역 통신망(ADSL, Ethernet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휴대폰을 이용한 인터넷 서비스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인터넷은 속도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다르며 인터넷 서비스 공급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인터넷 속도가 양호한 경우 한 달에 30달러 수준이다. 그러나 간혹 지역 서비스 공급업체가 독점으로 해당 아파트와 계약을 하여 높은 가격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 무선인터넷 공급 회사를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 사. 호텔/식당

### □ 모스크바 지역 호텔

호텔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크나, 전시회 기간 중에는 싱글 룸의 경우 350불 정도를 차지하고, 5성급호텔의 경우 1박에 700불을 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인이 임대하여 운영 하는 호텔들의 경우 비교적 저렴하여 180불 - 270불 정도에 투숙이 가능하며, 동일 하게 전시회 기간에는 가격이 상승한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민박의 경우, 1박에 80불 수준에 120불 수준까지 다양하게 분포 되어있다.

- MEZHDUNARODNAYA – 1 (4성급)
  - 주소 : Russia, Moscow, 123610, Krasnopresnenskaya nab., 12.
  - 전화 : (7-495) 253-13-91, 13-92, 27-60
  - 팩스 : (7-495) 253-24-00
  - 요금 : 싱글 \$614, 트윈 \$615(조식 및 세금 포함)
  - 홈페이지 : [www.wtc.msk.ru](http://www.wtc.msk.ru)
  
- COSMOS (4성급)
  - 주소 : Russia, Moscow, 129366, Prospect Mira, 150.
  - 전화 : (7-495) 234-10-00
  - 팩스 : (7-495) 615-88-80
  - 요금 : 싱글 \$178, 트윈 \$200(조식 및 세금 포함)
  - 홈페이지 : [www.hotelcosmos.ru](http://www.hotelcosmos.ru)
  
- METROPOL (5성급)
  - 주소 : Russia, Moscow, 103012, Teatralnyi proezd, 4.
  - 전화 : (7-499) 501-78-41/42
  - 팩스 : (7-499) 501-78-10
  - 요금 : 싱글 \$481, 트윈 \$590(조식 및 세금 포함)
  - 홈페이지 : [www.metropol-moscow.ru](http://www.metropol-moscow.ru)
  
- SOVIETSKY HOTEL (3성급)
  - 주소 : 32/2 Leningradsky Prospect, Moscow, 125040, Russia
  - 전화 : (7-495) 960-2000
  - 팩스 : (7-495) 250-8003, 251-0395
  - 요금 : 싱글 \$234, 트윈 \$340
  - 홈페이지 : [www.sovietsky.ru](http://www.sovietsky.ru)
  
- HOLIDAY INN, LESNOI (4성급)
  - 주소 : Lesnaya 15, Moscow, 125047, Russia
  - 전화 : (7-495) 783-6500
  - 팩스 : (7-495) 225-8281
  - 요금 : 싱글 \$320, 트윈 \$320
  - 홈페이지 : [www.holiday-inn.com](http://www.holiday-inn.com)
  
- 플라자 한국인 전용호텔(아를료넵 호텔 12층)
  - 주소 : 까시기나 거리 15번지
  - 전화 : (7-495)939-8515, 8150
  - 팩스 : (7-495)939-8649
  - 요금 : 싱글 \$250, 트윈 \$ 270(한국식 조식 및 세금 포함)
  - 홈페이지 : [www.rusplaza.ru](http://www.rusplaza.ru)
  
- 플라자 한국인 전용호텔(스뽀뜨닉 호텔 9층)
  - 주소 : 레닌스키 프로스펙트 38번지
  - 전화 : (7-495)930-2213, 2326 / 팩스 : (7-495)952-4207
  - 요금 : 싱글 \$ 145(작은방) \$170(큰방), 트윈 \$185(조식 및 세금포함)
  - 홈페이지 : [www.rusplaza.ru](http://www.rusplaza.ru)

- 뉴월드 호텔(세바스토폴 호텔 10층)
  - 주소 : 울리차 발샤야유순스카야 동 1A
  - 전화 : (7-495) 318-0772, 0972 / 팩스 : (7-495) 318-5861
  - 요금 : 싱글 \$130, 트윈 \$160(한국식 조식 및 세금 포함)
  - 홈페이지 : [www.newworld.ru](http://www.newworld.ru)
- 호텔 그랜드 (아를료늑 호텔 716호)
  - 주소 : 까시기나 거리 15번지
  - 전화 : (7-495) 939-8829, 8769 / 팩스 : 939-8452
  - 요금 : 싱글 \$250, 트윈 \$270(한국식 조식 및 세금 포함)
- 프레지던트 호텔 (4성급)
  - 주소 : 발샤야 야키만카 611 24
  - 전화 : (7-495) 239-3800
  - 요금 : 싱글 \$520, 트윈 \$615(한국식 조식 및 세금 포함)

#### □ 여행사

- 바이칼 여행사(아를료늑 호텔 603호)
  - 전화 : 7-495-939-8042, 8021(모스크바), 02-3276-3001(서울)
  - 홈페이지 : [www.baikaltour.co.kr](http://www.baikaltour.co.kr)
- 한강 여행사
  - 전화 : 7-495-241-5209
  - 팩스 : 7-495-956-0971
- 고려투어(아를료늑 호텔 620호)
  - 전화 : 7-495-939-8160, 8337
  - 팩스 : 7-495-939-8577
- 한세 여행사(뽀바르스카야 동 10, 2층 22호)
  - 전화 : 7-495-742-7501, 7-495-585-3752(모스크바), 02-778-6690(서울)
  - 팩스 : 02-778-6691(서울)
- 아가페 여행사
  - 전화 : 7-495-508-0158(모스크바), 02-730-8599(서울)
- 한양 여행사(아를료늑 호텔 632호)
  - 전화 : 7-495-939-8069
  - 팩스 : 7-495-939-8580

#### □ 민박

- 자작나무
  - 주소 : 오브루체바 동24
  - 전화 : 8-905-702-5080, 8-909-647-0218
  - 이메일 : [mos405@hanmai.net](mailto:mos405@hanmai.net)

- 톨스토이 하우스
  - 주소 : 미트로 트베르스까야
  - 전화 : 7-495-251-7669, 7-903-185-4829
  - 이메일 : [tolstoihouse@hanmail.net](mailto:tolstoihouse@hanmail.net)
- 볼쇼이 하우스
  - 주소 : 레닌스키 프로스펙트
  - 전화 : 7-495-131-2476, 7-926-560-1333
  - 이메일 : [bolshoihouse@hanmail.net](mailto:bolshoihouse@hanmail.net)
- 모스코 하우스
  - 주소 : 벨라예보 3분
  - 전화 : 7-495-429-5523
  - 이메일 : [moscowhouse@hotmail.com](mailto:moscowhouse@hotmail.com)
- 크레믈린 민박 하숙
  - 주소 : 스타리 아르바트 무무레스토랑옆(메트로 스몰렌스카야 5분)
  - 전화 : 7-495-241-1289, 7-926-278-1586
  - 홈페이지 : [www.rustour.co.kr](http://www.rustour.co.kr)
- 사랑방
  - 전화 : 7-495-411-0674
  - 이메일 : [stayinmoscow@empal.com](mailto:stayinmoscow@empal.com)
- 개선문
  - 주소 : 뽀로샤지 빠베디 1A-59(5층)
  - 전화 : 7-495-148-4602, 7-916-815-4392
  - 이메일 : [kesunmoon@hanmail.net](mailto:kesunmoon@hanmail.net)
- 좋은 아침
  - 전화 : 7-916-534-5277
  - 홈페이지 : [www.rusmorning.com](http://www.rusmorning.com)

#### □ 시베리아 호텔(Sibir Hotel)

- 등급: 3등급
- 전화: 223-12-15 / 223-02-03
- 주소: Lenina Street.21
- 홈페이지: [www.hotel-sibir.ru](http://www.hotel-sibir.ru)
- 요금: 싱글 89~235 USD / 더블 151~288 USD (1USD=27RUB)
- 호텔정보
  - 노보시비르스크에서 가장 좋은 호텔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곳에 머무름.
  - 호텔내부에는 레스토랑과 부페 식당, 미니 바, 기념품 판매소가 있으며, 기차표를 이 곳에서 예약할 수 있음
  - 시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하기가 편리함.

#### □ 오비 호텔(Ob Hotel)

- 등급 : 3등급
- 전화 : 266-74-00 / 266-74-60 / 266-96-66
- 주소 : Dobrolyubova Street.2
- 홈페이지 : www.obhotel.ru
- 요금 : 싱글 74~118USD /더블 78~196USD, 콘도 형 196~444USD (1USD=27RUB)
- 호텔정보
  - 오비강가의 전망이 좋은 호텔로 강 쪽으로 방을 구하면 시원한 오비강의 경치를 즐길 수 있으며 바로 앞에서 유람선도 탈수 있고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 중심가와 약간 떨어져 있는 것이 단점임

#### □ 노보시비르스크 호텔(Novosibirsk Hotel)

- 등급 : 3등급
- 전화 : 220-11-20 / 221-65-33 / 220-16-75
- 팩스 : 221-65-17
- 주소 : Vokzalnaya Magistral Street.1
- 홈페이지 : www.hotelfree.ru
- 요금 : 싱글69~170 USD /더블111~170 USD, 스위트 130~472 USD (1USD=27RUB)
- 호텔정보
  - 노보시비르스크 기차역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호텔내부에는 카페와 슈퍼마켓이 있으며 최근 내부공사로 새 단장을 하였음.
  - 시내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이동하기가 편리함.

#### □ 블라디보스톡 소재 호텔

- 현대호텔 : 7-4232-40-2233
- 베르살 : 7-4232-26-4210
- 블라디모터인 : 7-4232-33-1351
- 가반 : 7-4232-49-5360
- 블라디보스톡 : 7-4232-41-2808
- 뿌리모리에 : 7-4232-41-1422
- 아무르스키잘리프 : 7-4232-22-5520
- 악페스세이요 ; 7-4232-31-9004
- 베네치아(공항 옆) : 7-4232-30-7601

외국인이 투숙 가능한 호텔이 10여 개 있으나, 치안문제 등을 고려 가격이 비싼 편 (1박 \$180수준)이나 가급적 현대호텔에 숙박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호텔 이외에서는 외국인을 투숙객으로 받지 않고 있다.

기타 호텔, 민박 등 연락처는 모스크바무역관, 노보시비르스크무역관,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홈페이지를 참조

## 아. 관공서 관행

### 1) 민원 처리기간

러시아 공무원은 서비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국민을 서비스의 대상인 고객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공무원 신분으로 상대를 더 제압 하려는 경향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즉, 사회주의 관료제 습성이 다분히 그대로 남아있어, 여전히 업무의 처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물론, 공항, 철도 등 최근에 민영화된 기관의 경우에 나름대로 서비스 편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평소 민원 처리에 있어서 기간이나 순서가 일을 처리하는 직원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도 관련분야 공무원들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있을 경우 시간적, 업무적으로 많은 득을 볼 수 있다.

### 2) 관공서 방문 시 유의사항

관공서 방문 시에는 사전에 전화 및 서면으로 약속시간을 정해 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관련 서류가 요구될 시에는 구비서류에 대한 확인을 재차 삼차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요구한대로 서류를 구비해 와도 또 다른 서류 요구를 제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확실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러한 공공기관을 방문할 때는 자사의 로고가 새겨진 조그마한 선물 혹은 한국의 전통이 느껴지는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감으로써 앞으로 있을 줄 모르는 관공서 이용을 용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 공휴일

### 1) 휴일 지정방식

- 1월 1일~5일 : 신년
- 1월 7일 : 정교회 크리스마스
- 2월 23일 : 조국수호 기념일
- 3월 8일: 국제 여성절
- 5월 1일 : 봄과 노동의 날
- 5월 9일 : 전승기념일
- 6월 12일 : 러시아의 날
- 11월 4일 : 민족 단결의 날

러시아는 공휴일이 토요일 및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주 평일을 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연초 공휴일의 경우 정부에서 사전에 연휴기간을 정한다.

### 2) 출장 지양 기간

7월, 8월의 하계휴가 시즌에는 휴가로 인한 업무 지연 등으로 출장을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한편 1월 첫째 주와 5월 첫째 주에는 공휴일이 연달아 있어 거의 일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 중에는 출장을 삼가는 것이 좋다. 아울러 봄철과 5월 9일 전승절을 전후하여 스킨헤드의 외국인에 대한 테러가 빈번하므로 유의하는 것이 좋다.

### 3) 그 밖의 축제



#### □ 마슬레니짜(러시아식 봄맞이 행사)

러시아는 춥고 긴 겨울을 보내고, 봄이 오는 날을 기념하여 마슬레니짜라는 축제를 벌인다. 원래 마슬레니짜는 고대 슬라브인들이 춘분기에 행했던 민간 신앙적인 농업 축제로 이 날에는 즐겁게 먹고 마시며 겨울의 때를 벗어버린다.

마슬레니짜 기간동안 교회에서는 육류의 섭취를 금하고 단지 유제품과 물고기, 달걀만을 허용한다. 이 축제에는 블린, 핫케익, 우리나라의 만두와 비슷한 벨로그, 흰빵인 쿨리취에 꿀술이 주요 메뉴이다. 축제 기간의 주된 음식인 블린에 마슬로(버터)를 듬뿍 발라 먹는 것과 관련하여 마슬레니짜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다.

#### □ 부활절



부활절을 러시아어로는 '빠스하'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말로 '불행과 고난의 극복'을 의미한다. 러시아 정교회의 경우 부활절은 축일 중의 축일이며 성탄절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부활절이 되면 교회에서는 가장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는데, 자정이 되면 십자가 행렬에 이은 부활 자정 미사가 수 시간 동안 지속된다. 가정에서는 색칠을 한 부활달걀과 꿀리치라는 빵을 미리 만들어 교회에서 축성을 받고 부활절을 축하한다. 계란을 물들이기 위해서 먼저 마른 쌀을 젖은 계란에 묻혀 가제 수건으로 잘 감싼 뒤 양파를 넣고 끓인다.

## 차. 여행시 유의사항

### 1) 여행준비

#### □ 의복준비

한절기 여행시에는 난방이 공급되지 않고, 따뜻한 물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외투 등 따뜻한 겉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 □ 음식물

모스크바에는 교민이 운영하는 한국식당이 약 10여 곳이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필수품은 한국에 비해 고가이기는 하나 거의 구입이 가능 하다. 극동지역의 경우 필요 시 된장, 간장, 젓갈류 등은 사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

### 2) 여행여건

#### □ 치안

푸틴 대통령에 들어와 치안이 많이 강화되고 있으나 그래도 시내지역 관광 여행시에는 가급적 단체로 행동하고, 개인 행동 자제를 요망한다. 특히 주요 관광도시인 상트페테르 부르크에서는 2006년도에도 유색인종에 대한 강도, 살인 사건이 빈번하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호텔에서 손님이 방을 비운 사이에도 도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귀중품 은 호텔방 내에 두지 않는 것이 좋다.

일몰 후 외출, 산책 등을 자제하고 역·카지노 및 호텔 주변 등 우범지대 방문을 자제한다. (기차역, 지하철역 주변, 빈민가 등이 위험 지역이며, 늦은 밤에는 어느 지역에서도 안심하기 어려움) 지하철역 주변, 버스정류장, 기숙사 주변 등에서 "스킨헤드"라고 하는 부류의 외국인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사고가 특히 히틀러 생일인 4월을 전후하여 빈발 하므로, 최대한 피해 가는 것이 좋다. 2006년도도 외국인 살인 사건이 수 건 발생하였으나, 러시아 정부의 적극 적인 대처가 없는 상황이다.

역, 호텔 주변 및 관광지에서 구걸하는 집시 아동들로부터 소매치기, 날치기 등을 당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노상에서 집시 아동들이 접근할 때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이들은 집단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가방 등 소지품을 옆구리 또는 등뒤에 두지 말고 몸 앞으로 놓는 것이 좋다. (특히, 여권 및 사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동 서류들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가 요망됨) 특히 최근 모스크바 등 러시아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므로, 가급적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은 삼가는 것이 좋다.

- 관할 별 주요 경찰서 연락처
  - 모스크바 대학 : 제6경찰서(939-2654, 2832)
  - 모스크바대학 기숙사(데에스베, 데에스까) : 제 116 경찰서(431-3010, 3024)
  - 모스크바대학 기숙사(야스네보) : 제 164 경찰서(425-8911, 426-7600)
  - 아를료늑 호텔 : 제 110 경찰서(137-6589, 3817)
  - 이즈마일로보 : 제 78 경찰서(166-9127)
  - 붉은광장 : 923-2525
  - 금 백화점 : 921-5763, 929-3470, 929-3471
  - 지하철 : 222-1001, 222-1568

## □ 택시

택시의 종류로는 정식영업용 택시와 일반자가용 택시가 있다. 일반자가용 택시는 시내에 다니는 모든 차량을 일반 택시로 일단 간주해도 된다.(모든 차량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례화 되어 있음) 승차 전에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요금을 협상하여야 한다. 노어 구사자의 경우, 택시 이용 시 대기하고 있는 택시보다는 우연히 지나가는 택시를 잡는 것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대부분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므로, 호텔의 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정식영업용 택시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 □ 응급

응급전화는 03번이며, 모든 여행지에서 그렇듯이 감기약, 소화제 등 상비약은 항상 휴대하는 것이 좋다.

## □ 식수

식수는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사 먹는 것이 좋다. 생수는 가스가 있는 종류와 가스가 없는 종류가 있으므로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 □ 이발소

도시 곳곳에 현지 이발소가 있고, 요금은 150~2,000 루블 정도이나, 사람들이 붐빌 시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모스크바의 "아를료늑 호텔"과 "살류트"내에 한국 미용실이 운영 중이며, 요금은 커트의 경우 \$ 20~25 정도이다.

- 뷰티살롱 영(시내 남쪽 살류트 호텔 근처) : 전화 7-903-276-9902
- 최희조 미용실(아를료늑 호텔 내) : 939-8545

## □ 구두닦이

호텔 등지에 무료로 구두를 닦아주는 자동 머신이 있는 경우가 있으며, 호텔을 제외한 곳에서 구두닦이를 찾기는 쉽지 않다.

### 3) 여행시 유의사항

#### □ 여권 소지 및 거주등록 의무

모스크바 체류 시 여권 및 비자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호텔 체크인 시 제출하여 거주 등록을 받아야 한다. 거주등록은 비자 뒷면에 호텔이 직인을 찍고 체류 기간을 명기해 주는 형태이다.

분실에 대비하여 항상 여권 및 비자 COPY를 별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 □ 전화 사용

- 비상전화: 화재신고: 01, 범죄신고: 02, 응급차: 03
- 한국으로 전화(서울의 경우): 8(시외선) 10(국제선) 82(한국 국가코드) 2(서울 도시코드) 전화번호
- 러시아로의 전화: 001(또는 002 등) 7(러시아 국가코드) -095(모스크바 도시코드) 전화번호

#### □ 건강 유의사항

러시아 수돗물은 석회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식수로 사용하기에는 부적당하므로 가급적 생수를 마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기약 등 간단한 구급약은 시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러시아어를 구사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현지병원은 국립과 개인병원이 있음. 국립병원은 병원비를 내지 않는 반면 시 설이 낙후되어 있으므로, 여유가 있다면 시설과 서비스가 비교적 좋은 개인 병원이나 외국계 병원 이용이 바람직하다.

#### □ 현지 풍토병

- 시베리아 진드기 티푸스(Siberian tick typhus)
  - 러시아에는 치명적인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는 진드기를 조심해야 한다. 숲과 목초지에 잠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거미류의 일종인 진드기는 치명적인 뇌염 바이러스를 옮기기 때문에 러시아에 서는 오래 전부터 골치거리로 여겨왔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북쪽의 카렐리아, 볼가 강변의 코스트로마 지역, 시베리아에서는 양말을 신지 않거나 반바지 또는 반소매 차림으로 무심코 숲속을 거닐던 시민들이 이 살인 진드기에 물려, 뇌염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진드기에 의한 뇌염을 막을 수 있는 백신이 있으며, 러시아 병원에서 예방접종 가능하다.
  - 현지어로 클러시라고 불리는 벌레가 바이어를 옮기는데, 야외를 다녀와서는 샤워를 하면서 몸에 붙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살을 파고 들어가는데, 물렸을 경우에는 클러시를 버리지 말고 갖고 지체 없이 전문병원을 찾아서 바이러스 보균자인지 여부를 검사 해야 한다. 감염자의 10% 가량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병이다.

- 구루병(Rickets)
  - 겨울기간 동안 일조량이 적어 비타민D의 체내 생성을 방해해 뼈가 약해지거나 구루병에 걸릴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러시아 북쪽 무르만스크 등에서는 인공광선을 쬐어 부족한 일조량을 보충하고 있다.
- 계절성 정동장애(SAD)
  - 장기간 계속되는 겨울에는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무기력증과 식욕감퇴 혹은 과식 등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계절성 정동장애'가 나타난다. 햇빛이 모자라 뇌 속 시상하부에서 인체의 적응력을 조절하는 생체시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카. 유용한 연락처

### 1) 주요 한인단체

- 모스크바 선교사 협의회 : +7(495)-429-75-19
- 모스크바 한인회 : +7(495)-930-5406
- 모스크바 총 학생 연합회 : +7(495)-721-2366
- 노보시비르스크 선교사 협의회 : +7(383)-333-01-38, +7(383)-278-06-32
- 노보시비르스크 한인 무역협회 : +7-913-915-3852, <http://cafe.daum.net/novosivirsk>
- 노보시비르스크 유학생 연합회 : +7-913-754-7122, [www.nask.or.kr](http://www.nask.or.kr)
- 연해주 한인회 : 7-4232-491153 [www.kaprussia.com](http://www.kaprussia.com)

### 2) 주요 한국 식당

- 서울 : +7(383)-349-53-84 Prospekt Karla Marksa, 33
- 유정 : +7(495)-967-0801 Hotel mezhdunarodnaya
- 우리 : +7(495)-939-8864 Hotel Arlyonok
- 스키코 : +7(495)-939-8047 Hotel Arlyonok
- 백학 : +7(495)-775-0656
- 북한식당 : +7(495)-234-9356 Hotel Salut

### 3) 화물 운송 및 통관

- DHL
  - 전화: +7(383)-211-90-75 / 218-25-97
  - 주소: Chaplygin Street, 46
  - 홈페이지: [www.DHL.ru](http://www.DHL.ru)
- Tamkon(통관 상담 및 컨설팅)
  - 전화: +7(383)-222-11-05
  - 주소: Potaninskaya Street, 12 office 100
  - 홈페이지: [www.tamkon.ru](http://www.tamkon.ru)
- Jaso(수출입 화물 보험)
  - 전화: +7(383)-218-05-85 / 218-05-34
  - 주소: Deputatskaya street, 2
  - 홈페이지: [www.jaso.ru](http://www.jaso.ru)

#### 4) 비상 연락처

- 화재신고 : 01
- 범죄신고 : 02
- 응급환자(앰블런스) : 03
- 시베리아 항공 : +7(383)-223-15-76 / 223-32-70

#### 5) 현지 관공서

- 경제개발 통상부
  - 주소 : 1/3, 1-st Tverskaya-Yamskaya str., Moscow
  - 전화 : 200-0347
  - 팩스 : 209-8346
  
- 재무부
  - 주소 : Ulitsa Ilyinka 9, Entrance 1, Moscow
  - 전화 : 298-9101
  - 팩스 : 925-0889
  
- 연료산업 및 에너지부
  - 주소 : 7, Kitaigorodskiy Proyezd, Moscow 103074
  - 전화 : 710-5500
  - 팩스 : 710-5722
  
- 농업부
  - 주소 : Orlikov Pereulok, 1/11, Moscow
  - 전화 : 207-8000
  - 팩스 : 207-8362
  
- 관세청
  - 주소 : 11/5, Novozavodskaya str., Moscow
  - 전화 : 449-7771, 449-7205
  - 팩스 : 449-7300, 913-9390
  
- 표준 관리국 ; GOSSTANDART
  - 주소 : 9, Leninskiy Prospekt, Moscow 117049
  - 전화 : 236-0300
  - 팩스 : 236-6231
  
- 국가투자공사
  - 주소 : 35, Myasnitskaya Ul., Moscow 103685
  - 전화 : 204-1387, 204-9944
  - 팩스 : 207-6926
  
- 모스크바 시정부
  - 주소 : 13 Tverskaya Ulitsa, 103032, Moscow
  - 전화 : 202-6829,
  - 팩스 : 209-5220

- 모스크바 등기소
  - 주소 : 27, Donskaya str., Bld. 1, Moscow
  - 전화/팩스 : 237-0385, 237-0647
  - 팩스 : 237-0385
  
- 연해주 주정부 대외경제무역위원회
  - 주소 : 22 Svetlanskaya ulitsa, 690110, Vladivostok
  - 전화 : 22-0852
  - 팩스 : 22-1019
  
- 하바로브스크 주정부 대외경제관계국
  - 주소 : 56 ul.K.Marksa, Khabarovsk
  - 전화/팩스 : 32-4121
  
- 사할린 주정부 대외경제관계국
  - 주소 : 32 Kommunisticheskiy prospect, "Sakhincenter", office 236 693000
  - Yuzhno-Sakhalinsk 693000
  - 전화 : 72-7494
  - 팩스 : 72-7493
  
- 노보시비르스크 시청
  - 주소: Krasnyi Prospekt
  - 전화: 227-40-40
  
- 노보시비르스크 주정부
  - 주소: Krasnyi Prospekt, 18
  - 전화:223-29-95
  - 팩스:223-57-00
  - 홈페이지 :www3.adm.nso.ru
  - email : pochta@obladm.ru
  
- 관세청
  - 주소: Kamenskaya Street. 49
  - 전화: 224-82-11
  - 홈페이지: <http://gni.gcom.ru>
  
- 지방 통계청
  - 주소:Kainskaya Street, 6
  - 전화: 223-23-50
  - 팩스: 223-37-12
  - 홈페이지 :http://www.sibstat.gcom.ru/Sitr/index.html

## 6) 경제 단체

- 러시아연방 상공회의소
  - 주소 : 6, Ilyinka Ul.Moscow, 103684
  - 전화 : 929-0286, -0260, -0261, -0262, -0263, -0009, -0019
  - 팩스 : 929-0284

- 연해주 상공회의소
  - 주소 : 13a Okeanskiy prospekt, Vladivostok
  - 전화 : 26-9630
  - 팩스 : 22-7226
- 하바로브스크 상공회의소
  - 주소 : 113, Shevronova Ulitsa, Khabarovsk 680000
  - 전화 : 33-0311, 33-1130
  - 팩스 : 33-0312
- 노보시비르스크 상공회의소
  - 주소 : Krasnyi Prospekt 220/10
  - 전화 : 225-00-52
  - 홈페이지 : [www.ngtpp.ru](http://www.ngtpp.ru)

## 7) 러시아 소재 무역관

-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 주소 : Krosnopresnenskaya nab 12, hotel mezhdunarodnaya 908
  - 전화 : +7(495)258-1627, 1631 / 팩스 : +7(495)258-1634
  - e-mail : [kotra.moscow@gmail.com](mailto:kotra.moscow@gmail.com)
- KOTRA 노보시비르스크 무역관
  - 주소 : Prospekt Dmitrova 3, Novosibirsk, 630004, Russia
  - 전화 : +7(383)217-9903, 7765,7822 / 팩스 : +7(383)222-7805
  - e-mail : [david@kotra.or.kr](mailto:david@kotra.or.kr)
-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 주소 : 42 Krosnogo znameni avenue Vladivostok
  - 전화 : +7(4232)436-466,69 / 팩스 : +7(4232)436-470
  - e-mail : [vladivostok@kotra.or.kr](mailto:vladivostok@kotra.or.kr)

## 타. 관광명소

### 1) 시내 관광명소

모스크바는 북쪽의 상트페테르부르크와 더불어 러시아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이며,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모스크바에서 꼭 둘러 보아야 할 관광 명소로는 러시아 역사 및 문화의 산 증거인 크레믈린(크레믈린 안으로 들어가 보아야 한다)과 붉은광장 (바실리 사원, 레닌묘, 역사박물관, 마네즈광장 등), 레닌 언덕(모스크바시가 내려다 보인다)과 모스크바 대학(1853년 로마노소프가 창립), 트레피야코프스키 미술관과 푸쉬킨 박물관, 볼쇼이 극장(1776년 창립)과 서커스, 푸슈킨 광장과 아르바트 거리(시민들의 휴식처), 노보 제비치 수도원(고골, 체호프, 스타니슬라브스키 등 유명인사들이 묻혀있는 곳), 승리공원 등이 있다.

크레믈린 전경



붉은광장 전경



크레믈린 내 러시아 정교회 성당



크레믈린 내 다이아몬드 박물관



칼로멘스코에 박물관 (모스크바 소재)



### 트레찌야코프 갤러리 (모스크바 소재)



###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전경 (모스크바 소재)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 제2의 도시로서 역사를 바꾼 혁명의 발상지이며 도시 중심부에는 18·19세기 바로크양식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격동의 시대를 넘기고 남아 있어 러시아를 찾는 관광객의 대부분이 반드시 방문하는 관광지인데, 100개 이상의 성과 365개의 다리에 의해 연결된 물의 도시(북쪽의 베니스)이며 백야인 여름에는 북극의 오아시스로 불린다.

최근엔 도시 탄생 300주년(5월27일)을 기념해 각종 행사와 함께 푸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정상을 초청해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고향이기도 한 페테르부르크에서 갖은 정상회담을 개최할 정도로 많은 애정을 쏟으며 도시 발전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3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페테르부르크에서는 8월 11일~17일에 한국 주간 행사가 개최되기도 했다.

### 에르미타주 박물관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페트로파블로프스키 요새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이삭 성당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페트로고프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재)



2) 교외 관광명소

모스크바 근교에는 은색의 숲(산림공원), 콜로멘스코예(자연보호 공원), 쿠스코보(대 저택), 고르키 레닌스키에(대저택), 아브람체보(19세기 문화인들의 집회장) 보로지노(1812년 나폴레옹군에게 승리한 유적지), 야스나야 팔라냐(톨스토이 생가)를 가볼만 하다.

모스크바 주변에는 모스크바를 동글게 둘러싸고 있는 소위 '황금의 고리'라고 불리우는 유서 깊은 도시들이 있다. 이에는 자고르스크(트로이체 세르기예프 대수도원), 페레슬라블리잘레브스 키, 로스토프 벨리키, 수즈달, 블라지미르시 등이 포함된다.

### 3) 흑해연안

#### □ 소치



소치는 흑해 북동 해안에 위치하며 배후에 카프카즈 산맥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따뜻한 아열대성 기후를 갖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에서도 가장 유명한 휴양지·피한지이다. 철도와 항공로로 모스크바와 연결되며, 선박으로 크림 방면과 이어진다. 소치와 인근한 지역으로는 그루지야 공화국이 있고, 배를 타고 건너면 터키가 있다. 시역(市域)은 해안을 따라 140 km나 계속되고 휴양시설이 흩어져 있으며 관광지지·국제회의장·국제 스포츠경기장 (레닌 스타디움) 등이 있다. 관광 명소로는 마체스타 광천(鑛泉), 나무 위주의 식물원, 대규모 전망대, 동쪽 약 100 km에 있는 산간의 리차호(湖) 등이 있다.

소치는 도시 전체가 공원과 같이 조성되어 있다. 여름엔 찬란하게 좋은 날씨이고 청명한 하늘이 매일 계속된다. 해수욕도 5월부터 10월경까지 즐길 수 있다. 따뜻한 기후와 깨끗한 공기, 신경통과 류마티스 등에 효과가 있는 온천 등으로 일대에서 알타와 함께 러시아 최고의 휴양지로 손꼽히고 있다.

소치의 관광은 해안과 평행으로 달리는 크로르트니 대로를 중심으로 하면 좋다. 리비에라 공원과 덴드라리움을 이으면서 남쪽으로 길게 뻗은 거리로 큰 호텔 들도 위치하고 있으므로 길을 잘 모르더라도 쉽게 나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역시 크로르트니 대로 주변으로 리비에라 공원, 작은 카페 등의 자유로운 분위기의 작은 볼거리가 있다. 소치에서 북서쪽으로 약 30여km 정도를 가면 해발 300m 지점에 있는 옛 소련의 차 생산지 다고미스가 있다. 소치에서 동쪽으로 120km정도 떨어진 곳에는 리차 호수 가 있다. 코카서스 산맥의 해발 950m에 자리잡고 있는 리차 호수는 주변에 아게 프스타와 아체투가 등의 산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10월에도 눈을 볼 수 있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이다.

소치는 러시아의 대도시(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키예프 등)와 항공로로 연결되어 있고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매일 항공편이 있다. 가격은 왕복 약 130\$ 정도 이고 2시간 반 정도 걸린다. 아들레르 공항에서 소치 시내로 가는 택시로는 약 25~30분 정도 걸리며 약 20불 정도 받는다. 버스와 봉고차로는 약 40분 정도 걸린다. 모스크바에서 기차로 갈 수도 있는데, 쿠르스키역과 카잔스키역에서 아들레르행 열차를 타면 된다. 여기서 소치까지 는 택시도 있고 봉고차도 있고 버스도 많이 있다. 기차시간은 기차 종류마다 다르지만 보통 35시간 정도 달린다. 기차로 모스크바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일찍 예약 하는 것이 필요하다.

## □ 알타



알타는 이제 러시아 영토가 아닌 우크라이나 크림주(州)에 있는 흑해 연안의 항구도시이다. 지중해식 기후를 이루는데다가 배후에 있는 산지가 차가운 북풍을 막아 예로부터 휴양지로 이용되었다. 차르의 여름 궁전이 이곳에 세워 졌으나 러시아혁명 후 요양소·휴식의 집 등이 다수 건립되어 결핵의 전지요법 연구소 등 의료기관이 많다. 1945년 2월 루즈벨트·처칠·스탈린 등 3국 수뇌가 모여 한반도의 분단을 결정한 알타회담이 여기에서 열렸다. 현재 알타에는 아직 1945년 스탈린, 루즈벨트, 처칠이 회담장으로 사용했던 리다비야가의 의자까지 보존되어 남아 있다.

7월의 평균 기온은 24℃ 정도이고, 10월에도 20℃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므로 바닷가에서는 9월 정도까지는 수영을 할 수 있다. 알타는 혁명 전까지는 귀족들만의 휴양지였지만, 혁명 후에는 귀족들의 별장을 휴양소로 바뀌었으며 현재는 관광객들이 휴가를 즐기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흑해와 크림 산맥의 조화로운 모습이 '크림의 진주'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이다.

알타에는 공항이 없기 때문에 심페로폴 공항을 통해 알타로 들어갈 수 있다. 공항에서 알타까지는 약 1시간이 소요된다. 심페로폴로 공항으로는 모스크바, 상트 페테르부르크, 키예프 등에서 항공편이 있으며 모스크바를 제외한 여타 도시에서는 주 1회 운항 한다.

알타의 시가지는 흑해를 따라 계속되는 해안과 구릉지대 사이에 펼쳐져 있다. 해안을 따라 뻗어 있는 레닌 해안 거리의 동쪽 끝에는 레닌 광장이 있다. 그리고 알타 항구가 나온다. 바도파드나야 강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체흠이 살던 집이 있다. 현재 이곳은 체흠 박물관으로 개조되었다.

알타에서 남쪽으로 얼마 가지 않으면 '아이페트리'라 부르는 산에 아루프카가 있다. 이곳은 제정 시대 대지주 보론초프 백작의 궁전이 있는데, 19세기 러시아의 전형적인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건물 내부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곳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흑해의 모습도 매우 아름답다.

## □ 오데사



오데사는 지금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된 알타와 마찬가지로 '흑해의 진주'라 불리는 항구 도시이다. 이곳에서 루마니아, 불가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과 연결되는 배가 출발한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이미 도시가 창설 되었으나, 지금의 형태로 정비된 것은 예카테리나 2세 때의 일이다. 여제는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건설했던 표트르 대제의 영향을 받아 '흑해를 향해 열린 러시아의 창'으로 이 도시를 건축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나치에 점령되어 파괴되었지만 지금은 옛날의 모습대로 완전히 복구되었다. 옛날부터 국제 무역 도시로서 번영해 왔기 때문에 도시에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온천이 솟아 나고 진흙 치료도 행해지고 있어 요양소가 많다.

1792년 건설된 러시아의 요새가 시의 기원이며, 1794년에 군항이 되고 1795년 에 부근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의 식민도시 오데소스(Odesos: 3~4세기에 멸망) 를 기념하여 이름이 지어졌다. 19세기 후반에는 밀의 대규모 수출항으로서 크게 번영하였으며, 남러시아 최대의 항구가 되었다. 이 무렵부터 시내의 도시 계획이 진행되었으며, 구(舊)시가가 정비되고 프리 모르스키 대로(부두와 시가를 잇는 유명한 '포템킨의 계단'도 그 일부)가 건설되었다. 러시아 혁명운동의 중심지였으며, 1905년에는 전함 '포템킨'의 수병반란이 있었다. 또 1941년 가을 에는 독일군의 포위를 69일간 버텨으로써 '영웅도시'의 칭호를 받았다. 남쪽 해변은 휴양지 로서 사철을 통하여 많은 관광·휴양객이 찾아든다.

## □ 관광여행사

- 한강 여행사 : 241-5209
- 고려 투어 : 939-8160
- 동양 여행사 : 241-5737
- 바이칼 투어 : 939-8021
- 아가페 여행사 : 508-0158
- 한세 여행사 : 202-9341
- 한양 여행사 : 939-8069

## 4) 노보시비르스크 관광명소

### □ 레닌 광장 주변

- 레닌광장 (Ploshad'Lenina)
  - 노보시비르스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으로 중심에는 레닌의 동상이 있고 바로 뒤에는 오페라 발레극장이 위치하고 있음.

- 오페라 발레극장(Theater of Opera and Balet)
  - 주소: Krasny Prospekt 36
  - 전화번호: 229-83-38
  - 휴무일: 9월 말부터 7월초까지가 시즌이고 여름에는 휴무
  - 레닌 광장 뒤에 위치라고 있으며 러시아 3대 오페라, 발레 극장중의 하나임.
  - 35m 높이의 은색 돔이 인상적이고 2000석의 규모의 큰 홀과 550석 규모의 콘서트 홀을 가지고 있음.
  
- 향토 박물관(Oblastnoj Kpaevedcheskij musej)
  - 주소 : Krasny Prospekt 23
  - 전화번호 : 227-15-41 / 227-15-43
  - 개관시간 : 오전 10:00~ 오후 18:00
  - 휴관일 : 월, 화요일
  - 홈페이지 : <http://nrsm.nsc.ru>
  - 레닌 광장 건너편 지하철역이 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빨간색 벽돌건물로 꾸며져 있으며 노보시비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유물에서부터 이콘(러시아 정교 성상화) 등이 전시되어있음
  - 1층은 시베리아 지역의 생활용품과 카누, 맘모스 뼈, 아시아 인종과 비슷한 원주민 사진이 전시되어있으며 2층에는 아트갤러리가 위치해 있음
  
- 5월 1일 공원(Pervomajvskij skver)
  - 레닌광장 건너편에 있는 공원으로 사과나무와 아카시아나무, 튜립과 민들레 등 나무와 꽃들의 조화가 아름답음.
  - 여름에는 초상화를 그리는 화가들이 많고 분수에서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겨울이면 눈 조각전이 열림.
  
- 기적을 행하는 성자 니콜라이 소성당(Chesovnya)
  - Krasnyj Prospekt 를 따라 레닌 광장에서 300m 정도 내려가면 지리학적으로 러시아의 중심에 세워져 있다고 함.
  - 결혼을 한 신랑 신부들의 기념촬영 장소로도 유명함.
  
- 중앙공원(Chentralyj park)
  - 작은 놀이공원과 뮤지컬코미디 극장이 있으며, 휴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위하여 찾는 곳임.
  - 러시아의 각 기념일마다 이곳에서 항상 이벤트가 열리기도 함

#### □ Krasnyj Prospekt 역 주변

- 역을 중심으로 많은 편의 시설들이 몰려있음.
  
- 근처에는 중앙 시장, 서커스장과 예수승천 주교사원, 축구장, 육상트랙, 인라인스케이트 장, 에어로빅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는 스파르타크 경기장(Stadion Spartak)이 위치해 있음.
  - 예수 승천 주교좌 사원(Voznesenskij Kafedralhyj sovor)
  - 전화 : 221-72-95 / 221-49-04

- 주소 : Sovetskaya Street. 91
- 서커스 극장 근처에 있으며 러시아 정교회 사원의 대표적인 형태를 구경할 수 있는 사원.
- 1913년에 지어졌으며 내부는 노보시비르스크의 수호성인인 니콜라이 성인과 성모 마리아의 성상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매일 아침 9시와 일요일 7시, 10시 예배가 있음.
- 씨커스장 (Chirk)
  - 전화: 220-46-77 / 220-46-70
  - 주소: Chelyukskinchev Street, 21
  - 주로 동물이 등장하는 공연을 많이 함.
  -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기회가 된다면 관람을 하는 것도 바람직함.

## □ 칼리닌 광장 부근

- 이 곳은 또하나의 변화가를 이루고 있음
- 이 광장은 교통의 요지이면서 시베리아에서 제일 큰 전시장이라는 시베리아 무역 전시장이 있으며 시베리아 철도를 지탱해 나가는 시베리아 교통-통신대학 (노보시비르스크 철도 대학교)가 있으며 동물원이 위치해 있음
  - 동물원(zoo park)
    - 전화 : 225-17-47
    - 주소 : Timiryazeva Street 71/1
    - 개장시간 : 매일 오전 09:00~오후 20:00(하계) / 오전 09:30~오후 18:00(동계)
    - 우리나라의 서울대공원보다는 못하지만 가족과 함께 산책을 즐기기에 좋은 장소.
    - 오비 강 수달, 바이칼 호의 산새, 캄차트카와 중앙아시아 산 산양 등 러시아 외의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종류 등의 동물을 볼 수 있음.

## □ 강변 역 주변(Rechnoj Vokzal)

- 미뜨로 리치노이 바그잘에 내리면 강이 한눈에 보이는 강변공원을 만날 수 있음. 이 공원에서는 여름이면 놀이기구와 노천 카페가 즐비하게 늘어서고, 주말이면 중앙 무대에서 여러 공연과 이벤트가 열리는 진정한 시베리아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임
- 공원의 남쪽에는 호텔 오비가 위치해있고, 그 근처에 위치한 선착장에서는 5~10월 까지 오비강 유람선을 운행.
- 겨울에는 이 강변 공원이 온통 얼음조각으로 변하여 얼음으로 된 조각들과 함께 멋진 얼음 미끄럼틀을 즐길 수 있음.
  - 유람선
    - 운행기간 : 5월 초~ 10월 초
    - 운행시간 : 10:30 / 12:00 / 13:30 / 15:00 / 16:30 / 18:00 / 19:30 / 21:00
    - 마지막은 금, 토, 일에만 운행, 한여름에는 평일에 운행하기도 함
    - 요금: 70 RUB

## □ 칼마르크스 대로 주변

- 도시의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미뜨로 스뚜젠체스까야(metro studencheskaya)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로와 같은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임.

- 이곳에는 엔게때우라는 노보시비르스크 공과대학이 위치하여 있고 건물 건너편에는 서울식당이라는 한국식당이 위치해 있으며, 노보시비르스크에서 두번째로 큰 재래 시장과 국영백화점 굼(GUM)이 위치해 있다.
- 명예공원(Skver Slavy)
  - 마누먼트 슬라브이(Monument Slavy)라고도 불리 우며 전쟁기념공원에 해당함.
  - 이 공원은 중심가에 위치한 공원보다 훨씬 한적한 느낌을 주며 전사자를 추모하는 <꺼지지 않는 불꽃> 이 있고 돌아오지 못한 자들의 이름이 적힌 기념탑이 있으며, 그 옆에 작은기념비에는 체첸 전쟁에서 사망한 노보시비르스크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음.
  -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되었던 비행기, 탱크 등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음.

## □ 아카젠크로독

- 아카젠크로독은 시내에서 30km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1957년에 만들어진 계획도시로서 미국의 실리콘밸리, 우리나라의 대덕연구단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
- 이곳에는 현재 120개의 연구소가 들어서 있으며 기초 과학이 강한 러시아의 동력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곳에 위치한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교의 연구프로그램은 러시아에서 첫째로 꼽히고 있으며, 수학, 물리, 화학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원들이 자리잡고 있음.
- 이곳은 생활기반 시설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어 도시 안에서의 모든 생활이 가능함.
- 철도박물관(Muzej Zheleznodorozhnoj tehniki im N.A.Akulina)
  - 전화 : 332-09-02
  - 주소 : Storoe Shosse 상에 위치해 있음
  - 개관시간 : 오전 11:00~ 오후 17:00
  - 휴관일 : 금요일
  - 입장료 : 50루블
  - 1차 세계대전 당시 야전 이동 병원으로 이용되던 기차, 눈 치우는 기차, 레일을 까는 기차 등 여러 가지의 기차들이 전시되어있으며 다양한 용도의 기차들이 시대별 로 전시 되어 있음.
- 지질학 박물관(Sibiriskij Geologocheskij Muzej)
  - 전화 : 333-28-37
  - 주소 : Akademika Katyuga Prospekt 3
  - 개관시간 : 오전 09:00~오후 17:00
  - 휴관일 : 토,일요일
  - 시베리아에서 나오는 각종 자원 및 돌을 전시해 놓았으며 2층은 박물관, 3층은 각 방마다 연구원들이 각종 광물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식물원(Botanicheskij sad)
  - 전화 : 330-19-86 / 334-30-48
  - 주소 : Zolotodonlinskaya Street. 10
  - 개관시간 : 오전 09:00~오후 17:00

- 휴관일 : 토, 일요일
- 아카젠크로독에는 10만평 정도의 식물원이 있는데 시베리아에서 자생하는 아름다운 나무 들과 식물원을 볼 수 있으며 연구소도 같이 있는데 방문하려면 미리 예약을 하여야 함.
- 오비강 수력발전소(Obskaya GES)
  - 아카젠크로독에 위치해있는 거대한 댐으로 먼저 정차하는 곳이 배를 통과시킬 수 있는 갑문(Shlyus)이고, 종점이 수력발전소(GES)임.
  - 댐으로 인해 생긴 호수는 러시아 전도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날 만큼 크기가 크며, 산지가 아닌 평지에 댐을 건설하다 보니 엄청난 지역이 수몰되어서 댐이 만들어 짐으로써 최대거리 200km에 달하는 호수의 생성으로 사람들은 이곳의 '오비강의 바다'라고 부르고, 여름에는 많은 시민들이 수영을 즐기기도 한다.
-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NGU)
  - 노보시비르스크를 대표하는 대학교로 1959년 아카젠크로독의 시작과 함께 개교를 함.
  - 규모 면에서는 그리 크지 않지만 졸업생들은 현재 아카젠크로독의 연구 인력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부요직과 기업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음.
  - 이 학교의 강점은 뛰어난 기초과학 분야와 그를 뒷받침하는 연구소와의 연계프로그램이며 수학, 물리, 화학분야에 많은 영재들이 육성되고 있으며 2001년에는 동방학과에 한국어가 정식 전공으로 승인됨.

## 5) 블라디보스톡 관광명소

### □ 신한촌 기념비

한국의 정치불안과 빈곤으로 인한 한인들의 연해주 이주가 시작되었던 1863년, 양치해, 지신히 등 하산지역 남쪽을 중심으로 최초의 한인촌이 생겨났음. 1870년대에 8,400명으로 집계된 연해주 한인 이주민의 수가 1923년에는 12,000명까지 이르게 되었음.

1929년 하산지역 북부의 포세에트 한인마을은 한인극장과 문화회관은 물론 한인 자치기관을 두고 있었으며, 행정기관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는 등 한인정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듯이 보였음. 그러나 1937년 소비에트 인민위원회의 강제이주 명령에 의해 2차례에 걸친 연해주 한인 강제이주가 집행되면서 현재 러시아·CIS 국가에 산재해 있는 고려인 동포들의 한과 설움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임.

이렇게 붕괴된 한인촌은 일제 침략 시 항일운동에 크게 기여한 지역으로 많은 독립지사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으며, 1999.8월 한민족연구소가 3.1 독립선언 80주년을 맞아 연해주 한인들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재러 고려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신한촌 기념비를 설립하였음. 이에 '2002 한·러 친선특급 시베리아철도 대장정'도 항일 독립운동사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한촌 항일운동 기념비 앞에서 그 첫발을 시작하였음.

### □ 중앙광장(혁명전사광장)

중앙대로인 Svetlanskaya가(街)의 중심에 위치한 광장으로 중앙에 깃발과 나팔을 든 병사의 거대한 동상이 서 있음.

왼쪽에는 White House, 벨리 동이라 불리는 흰색건물의 연해주 주정부 청사가 위치해 있음. 신년축하 축제를 비롯하여 전승기념일에는 퍼레이드 및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그 밖의 각종 행사가 열리는 이곳 중앙광장은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형 야외공연장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음.

#### □ 아르세니에프 박물관

구시베리아 상업은행 건물로 1906년에 건립되었음. 블라디보스톡의 역사를 넘어 동·식물 자연을 통해 도시의 기원을 더듬을 수 있을 만큼 광대한 시각으로 제작 되어진 듯함. 100년 이상 된 고고학, 지리학, 민속학의 수집품들과 희귀한 서류와 책 등이 소장되어 있어 블라디보스톡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됨.

흥기들의 전시도 볼만한 관람거리로 다양한 모습으로 솔직하게 역사의 진실을 풀어놓은 블라디보스톡 시민들의 열린 마음을 볼 수 있음.

#### □ 블라디보스톡역(驛)

블라디보스톡역은 1907년-1912년에 Kovalov에 의해 설계, 건설되었으며,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의 시발점으로, 블라디보스톡의 대표적 건물임. 모스크바까지 9,198 km라는 기념비를 볼 수 있음.

러시아의 건축양식을 충실히 이행하여 설립된 이 역사(驛舍)가 극동에서 느끼는 수도로부터의 엄청난 거리감을 극복하게 하는 동시에 대강국 러시아의 옛 자존심을 대륙으로부터 쉬지 않고 나르고 있는 것처럼 보임.

#### □ 잠수함 C-56 박물관

제2차 세계 대전시 첫 출정하여 승리를 거둔 실전 잠수함을 1975년, 그대로 옮겨 보존, 현재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음. 선실과 기관실 및 조타실 등 잠수함 내부를 세심하게 직접 볼 수 있는 이 정형화된 일반관람에서 벗어나 매우 흥미로움. 잠수함 옆 광장에는 꺼지지 않는 불과 제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들의 이름을 담은 기념비가 그들의 넋을 위로하며 승리를 기념하고 있음.

#### □ 독수리둥지(Orlinoye Gnezdo)산

블라디보스톡 시내거리와 즐라또이로그만(灣)이 흰히 내려다 보이는 언덕임. 바로 아래 위치한 푸니쿨료르역(Funikulyor)에서 케이블카를 타며, 주위 풍경과 경사감을 느껴보는 것도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것임.

#### □ 포대박물관

1986년 건설, 1996년에 복구되었으며, 블라디보스톡 성곽연구회가 입주해 있음. 러·일 전쟁 및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각종 포대 및 전시물품 등이 진열되어 있음.

#### □ 스포르치브나야 가반(Sportivnaya Gavan)

블라디보스톡 시민의 휴식처로 여름이 되면, 많은 시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음. 또한 근처에는 수족관, 새끼돌고래 및 물개 야외사육장, 놀이공원 등이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시설이 열악한 편임.

## 8. 물가정보

□ 도시: 모스크바(러시아)			- 환율: US\$1 = Rub25.8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b>1. 의복</b>			<b>7. 잡화</b>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729	7.1	구두(1켤레, 소가죽)	434
1.2	넥타이(1개, 실크100%)	133	7.2	치약(150g, 1개)	1.6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277	7.3	칫솔(1개)	4.5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28	7.4	면도기(1세트)	11.9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1,802	7.5	건전지(1세트, 1.5V AA)	1.4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25	7.6	화장지(1통, 300매)	2.4
1.7	청바지(Levi's)	69	7.7	비누(1개)	1.3
<b>2. 식료품</b>			<b>8. 사무용품</b>		
2.1	쇠고기(1KG, 안심)	8.5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5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8.6	8.2	볼펜(12개)	3.5
2.3	닭고기(1KG, 생닭)	4.2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2
2.4	쌀(1KG, Short Grain)	1.6	8.4	공CD(1통, 12개입, 700MB)	9.3
2.5	밀가루(1KG)	0.8	8.5	휴대폰(범용형)	200
2.6	설탕(1KG, 백설탕)	0.62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50
2.7	계란(10개)	2.0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1회설치)	125
2.8	감자(1KG, 현지산)	1.04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30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4	<b>9. 자동차</b>		
<b>3. 한국식품</b>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30,000
3.1	고추장(1Kg)	4.5	9.2	엔진오일(1L)	11.3
3.2	된장(1Kg)	3.48	9.3	휘발유(1L)	0.9
3.3	라면(1개)	2.0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3.8
3.4	설령탕류(1인분, 설령탕, 곰탕 등)	18	9.5	자동차보험료(2,000cc,1년, 신규종합보험)	1,950
3.5	불고기(1인분, 200g)	22.2	<b>10. 대중교통</b>		
3.6	삼겹살(1인분, 200g)	22.2	10.1	지하철(1구간)	0.45
3.7	김치찌개(1인분)	13.2	10.2	시내버스(1구간)	0.52
<b>4. 기호식품</b>			10.3	택시(기본요금)	17
4.1	햄버거(1개)	2.0	10.4	택시(추가요금/Km)	0.5
4.2	피자(1판)	18.2	<b>11. 공공서비스</b>		
4.3	코카콜라(1캔, 250ml)	0.6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554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6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21.9
4.5	담배(수입산, 1갑)	1.1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
4.6	위스키(1병, 750ml)	61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3
4.7	커피(1병, 175g)	7.46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6.2
<b>5. 주택(150㎡)</b>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69
5.1	[임차]중급 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inished)	6,00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69
5.2	[임차]중급 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15,000	11.8	특급우편 (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11.93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03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1.48
<b>6. 가전제품</b>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04

6.1	TV(29인치, 칼라, 범용)	649		
6.2	VTR(6헤드, 범용)	219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롬보)	153		
6.4	전자레인지	138.5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494.7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451.3		

□ 도시 : 모스크바(러시아)			- 환율 : US\$1 = Rub25.8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b>12. 교육</b>			<b>18. 노동여건</b>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16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86.8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400	18.2	상여금(월 급여 대비%, 연간)	-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 연간)	26%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26,00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8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26,00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14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26,000	18.6	연간국경일	12일
<b>13. 레저.오락</b>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290	18.8	노동 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8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중신 양도가능)	60,000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13.3	골프공(1타)	65.8	<b>19. 사업여건</b>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900	19.1	법정최저자금	350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20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4,500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10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
<b>14. 의료.약품</b>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
14.1	의료보험료 (4인 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8,333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7~18%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130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			
14.4	치과(스켈링, 1회)	80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1.5			
<b>15. 신문.방송.잡지</b>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 유력지)	10.5			
15.2	한국신문(1개월)	100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 시청료)	30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3.7			
<b>16. 호텔</b>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90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600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300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70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30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5			
<b>17. 임금</b>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1,70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1,400			